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충절과 계일정신이 살아 있는

능원리





모현 능원리



일러두기

- 이 마을지는 용인문화원의 용인시 마을연구 기록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모현 능원리는 포은 정몽주 선생, 저헌 이석형 선생과 관련한 역사유적이 많고 한국등잔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와 전통을 간직한 마을입니다. 능원리는 용인의 급속한 팽창과 더불어 빌라와 다세대주택의 급증으로 인한 도시화 진행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수려했던 자연경관과 전통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능원리의 현재모습과 과거를 기록해 귀중한 향토문화의 자산으로 남기고자 선정하였습니다.
- 능원리 마을지를 제작함에 있어 그간 용인시지 및 모현면지 등의 중첩되는 내용을 가급적 제외하고 능원리 전통공동체를 중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 집필진은 용인문화원 부설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장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접근하여 조사연구하고 기술하였음을 밝힙니다.



모현 능원리

마을은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누구든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며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따라서 마을은 작은 우주와 다름없습니다. 마을은 또한 문화생성의 샹터이자 온전한 문화원형의 보물창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마을 하나가 사라지면 박물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했을 겁니다.

특히 용인은 어느 지역보다 급변하는 고장입니다. 대부분 동족촌으로 이루어졌던 고을은 지금 거의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거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성원들도 유입된 새로운 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마을은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을지는 마치 사초(史草)와 같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는 새로운 용인정체성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 기본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문화자원 플랫폼 구축의 중요성이 점점 확인되고 있는 시점에서 용인문화원의 꾸준한 마을기록 작업은 앞으로 그 소중한 가치를 증명할 것이라 믿습니다.

2020년 마을지사업의 무대가 된 모현읍 능원리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용인 북쪽의

끄트머리로 광주시와 경계마을이자 수도권 도시개발의 상징인 용인 수지와 성남 분당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용인의 오지(奧地)에서 개발 붐과 인구증가 압박이 가장 심한 지역으로 변한 곳입니다.

한편으론 포은 정몽주 선생의 흔이 서린 고장으로 서원촌이자 몇몇 세거성씨의 입지가 굳건한 집성촌으로 이어 온 고장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외양의 변화와 함께 능원리를 샅터와 일터로 삼아 살아가는 주민들의 변화를 살피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라 여겨집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고향이자 누대에 걸친 선조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이번 마을지 제작사업을 통해 과거와 현재에 걸친 능원리의 기록이 소중한 용인의 문화자산이자 콘텐츠로 재정리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능원마을지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용인시의 관심과 예산지원 그리고 능원리 각 마을 지도자들과 원로 어른들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집필에 참여해 주신 용인문화원 부설 용인학연구소 김태근 소장을 비롯한 연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용인문화원장 조길생

| 축하 |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장 백군기입니다.

사람 냄새 물신 풍기는 「모현읍 능원리 마을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마을지 발간에 힘써주신 용인문화원 및 용인학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부터 시작된 용인시 마을지 발간 사업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장 작은 집합체인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들을 수 있는 역사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각자 개별화된 삶을 사는 도시와 달리 일상 생활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확장된 삶의 관계를 유지하는 마을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기록된 모현읍 능원리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성리학의 비조인 정몽주 선생 묘소와 충렬서원이 있는 곳이기에 더욱 뜻 깊은 마을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모현읍 능원리 마을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현 시점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모현읍 능원리 마을지」 발간에 힘써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용인시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시장 백군기



| 축사 |

용인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스토리가 있는 「모현읍 능원리 마을지」발간을 110만 용인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역 전통문화의 가치를 새로이 발굴하여 용인시의 정체성을 높이는데 헌신해 오신 용인문화원 조길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한 시대의 모습을 기록하는 일은 삶의 흔적과 문화, 그리고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해 주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일입니다.

모현읍 능원리는 용인에서도 도시화 진행이 빠른 곳으로 도농복합도시 용인의 변화를 잘 알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을 형성과정에서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풍부한 지역이기

에 마을공동체의 모습과 역사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계승하는 마을지 발간사업의 의의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마을지 발간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애정과 정체성을 심어주고, 주민 화합과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와 기억들, 그 사소함이 모여 마을의 역사가, 나아가 용인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기억이나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고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록은 역사가 됩니다.

용인시의회도 용인의 향토문화 발전과 계승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였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셨음에 항상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용인시의회 의장 김기준



| 환영사 |

우선 모현 능원리 마을지 제작을 결정하고 완성해 주신 용인문화원 조길생 원장님과 집필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여느 해와 달리 인류사에 한 페이지가 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제약 속에 진행한 사업이기에 거듭 고마운 마음입니다.

용인시에서 경계마을인 능원리는 경안천 상류라 하여 수상(水上) 지역으로 불리던 곳입니다. 예로부터 용인시청 방면에서 이곳을 오자면 광주 경계를 넘나들어야 했습니다. 변경(邊境) 지역이자 한편으론 월경(越境) 부락이기에 용인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데 좀 남다른 환경이기도 합니다.

능원리는 최근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명동처럼 대대손손 살아온 삶의 터전을 통

째로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유입인구가 늘고 다양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유서깊은 전통을 지켜나가고 고락을 함께 나누던 미풍양속도 예전만 못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능원리는 용인을 대표하는 충절의 혼과 문화가 살아있고 강한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는 고장임은 분명합니다. 매년 용인을 대표하는 축제인 포은문화제를 여러 동네가 합심하여 이어오고 있으며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안팎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정성껏 마을지를 꾸며 주신 조길생 문화원장님과 용인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능원리 주민들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훗날 이 기록이 후대들에게까지 전해져 자긍심을 높이고 과거를 추억하는 데 없이 좋은 기록물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편찬위원장 이재학





| 목 차 |

1장 능원리 마을개관

1절. 능원리 마을연혁 · 017

2절. 능원리 마을지명유래 · 022

3절. 능원리 인문지리 환경 변화 · 028

4절. 능원리 산업환경의 변화 · 050

2장 능원리 생활·민속·놀이

1절. 능원리 의생활과 일생의례 · 067

2절. 능원리 민간신앙과 세시풍속 · 084

3절. 능원리 종교와 교육 · 094

4절. 능원리 구비전승 · 158

3장 능원리 공동체와 문화유산

1절. 능원리 세거성씨와 인물 · 187

2절. 능원리 마을조직 · 212

3절. 능원리 근·현대 인물 · 270

4절. 능원리 문화자원 및 문화행사 · 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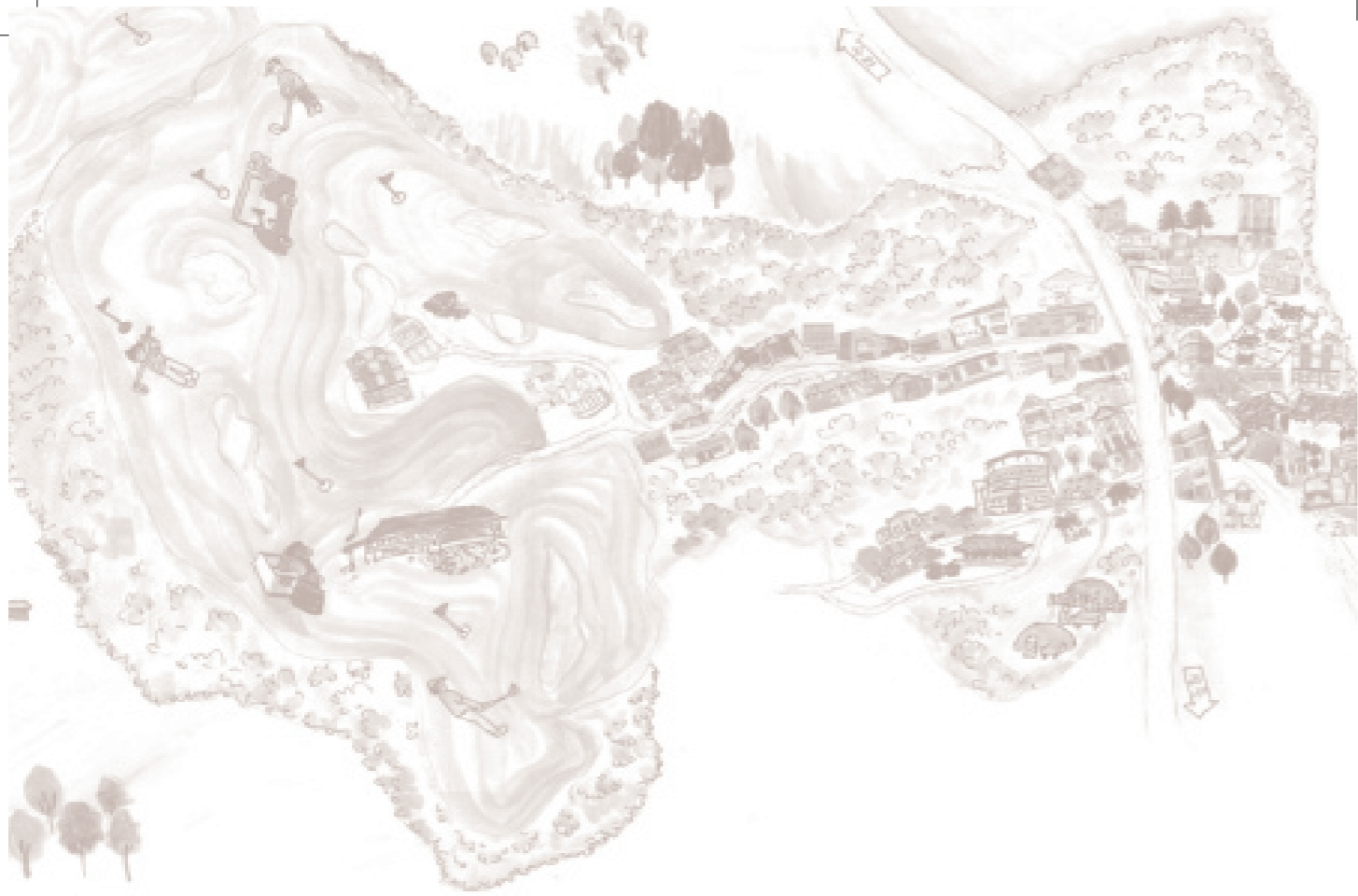
4장 생애구슬을 통해 본 주민과 삶

정민교 328 · 이문자 340 · 정광교 350 · 장용재 362

5장 능원리 이모저모

1절. 문헌으로 보는 능원리 · 371

2절. 하늘에서 보는 능원리 · 392



1.

능원리 마을 개관

1. 능원리 마을 연혁 _정양화
2. 능원리 마을 지명유래 _정양화
3. 능원리 인문지리 환경 변화 _우상표
4. 능원리 산업환경의 변화 _남기주

1. 능원리 마을 연혁

능원리(陵院里)는 모현읍에 딸린 리(里) 가운데 하나로 모현읍의 서쪽에 치우쳐 있으며 오산리를 서쪽에 두고 수지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능원리의 북쪽은 광주시 오폭읍 능평리가 되고 동쪽은 모현읍 동림리와 경계를 이루며 남쪽은 포곡읍 신원리, 가실리와 만나고 서남쪽엔 기흥구 청덕동이 있다.

모현읍은 마치 쌍안경이나 아령(啞鈴) 모양으로¹⁾ 왕산리, 초부리, 갈담리, 매산리, 일산리를 비롯한 동쪽 지역과 능원리에 오산리, 동림리를 포함하는 서쪽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전통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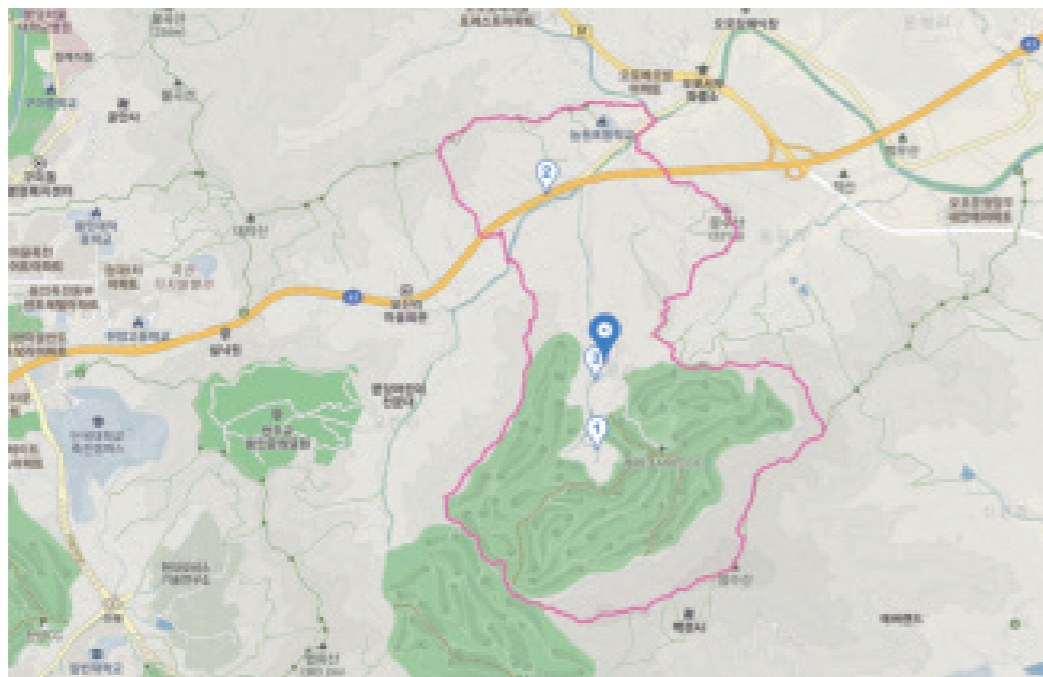


모현읍 지도

1) 모현읍의 소재지인 왕산리에서 능원리를 가려면 광주시 관내인 오폭읍 문형리와 능평리를 경유해야 한다. 지도상으로는 붙어있지만, 사실상의 월경인(越境地)이다. 현재 읍사무소는 갈담리에 있다.

으로 서쪽을 수상(水上), 동쪽을 수하(水下)로 구분해 왔다. 이는 1789년(정조 13)에 편찬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모현면의 2개 리로 등장하는 명칭으로 1914년 모현면이 8개 리로 편제된 이후에도 지금도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데 능원리는 수상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능원리는 능원초등학교가 있는 능원1리 일대를 제외하면 농지가 매우 협소하고 대부분이 산과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쪽과 남쪽에 높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 있고 가운데로 오산천이 관류하며 우명동에서 발원하는 능원천과 안골에서 나오는 소하천이 북으로 흘러 오산천에 합류한다. 따라서 우명동과 안골의 지형은 남쪽이 높고 북쪽으로 가면서 차츰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며, 능원 1리와 4리 일대는 평평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나 그리 넓은 지형은 아니다. 동쪽은 광주시 오폭읍 능평리와 연결되고 오산리쪽으로 가면서 차차 높아지는 지형을 보인다.



능원리 지도

능원리 북쪽으로 솟들봉(砥峰, 314m) 줄기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 능평리까지 이어지며, 남쪽에는 동쪽의 선장산(禪長山, 349m)과 남쪽의 향수산(香水山, 457m)에서 서쪽의 법화산(法華山, 385m)으로 이너지는 산줄기가 포곡읍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또 서쪽에는 향수산 백련사 뒤편에서 흘러내린 능선이 북쪽으로 연결되며 오산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오산천은 법화산 줄기에서 발원하여 능원리와 일산리를 거쳐 경안천에 합류하는데 능원리를 남북으로 나누며 동쪽으로 흐른다.

능원리는 용인에서도 오지(奧地)에 속했는데 모현읍과 수지구와 경계인 대지고개의 경우, 지금은 4차선대로가 지나고 있지만 해방이전만 해도 마차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산골길이었다고 한다. 또 북쪽으로 능평리를 통해 분당으로 이어지는 태재고개 역시 매우 험한 길이어서 수원장이나 성남장으로 가기 위해 대부분이 걸어서 다닐 정도였다고 한다.

또 능원리는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 4:6정도의 비율로 논보다 밭이 많았다. 현재 모현농협분소가 있는 일대를 왕밤들이라고 하는데 논이 많았고 포은 선생 묘역 입구, 그리고 우명동으로 올라가며 논이 조금씩 있었다고 한다. 당연히 농사의 규모도 크지 못했는데 지금은 분당과 수지로 연결되는 교통의 이점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전원주택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소규모공장이나 창고도 많이 들어서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농지가 택지나 창고, 공장부지로 바뀌어 현재는 논은 거의 보기 어렵고 밭도 가용(家用)으로 채소정도나 심는 상황이 되었다. 즉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전업농(專業農)은 거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농업이 생활의 중심이었던 1970년대 이전만 해도 농사 이외에 주위 산에서 나무를 베어 솥을 굽거나 장작이나 땔나무를 해서 수원이나 광주 경안장으로 가져다 팔아 생계에 보태야 했다. 실제로 외지에서 들어와 순전히 나무장사만으로 살림을 일구어 집도 마련하고 땅도 사고해서 잘살게 된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또 가까운 산에서 버섯이나 산나물을 채취하여 가용에 쓰고 더러는 장에 내다 팔아 살림에 보태기도 했다고 하며 겨울이면 산토끼나 꿩, 더러는 노루나 산돼지를 잡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고라니나 산돼지의 경우 최근에 많이 늘어나 농작물에 매우 큰 피해를 주고 있어 만나는 사람마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을 정도이다.

1970년대 이전의 농업중심의 전통이 남아 있던 당시만 해도 능원리는 능골과 안골이 1리, 우명동이 2리였고 안골엔 반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능골엔 약 45~50호, 우명동엔 25~30호, 안골엔 20호 내외의 호구가 있었다고 한다. 그 가운데 영일정씨(迎日鄭氏)가 약 30여 호, 연안이씨(延安李氏)가 15~20호 정도로 대성(大姓)을 이루고 있고 한양조씨(漢陽趙氏)가 4~5호 정도 거주했으며 우명동엔 양씨(梁氏)와 전씨(全氏) 박씨(朴氏)가 몇 집 살고 있었다고 한다.

능원리에 영일정씨와 연안이씨가 많이 살게 된 것은 안골에 포은 정몽주 선생과 저현 이석형 선생의 묘소가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초기에 두 분의 묘소가 들어서면서 양가의 종손이 정착하여 증가를 이루고 문중이 번성하면서 자연스럽게 능원리의 대성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특히 두 집안은 능원리를 넘어 모현관내에서 산업화 이전까지 가장 호수(戶數)가 많은 대성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고 지금도 유력한 문중으로 남아 있다.

용인이 급속한 팽창을 이루면서 오지로 알려졌던 능원리도 커다란 변화를 마주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인구의 급격한 증가이다. 현재 능원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없다. 그러나 빌라와 다세대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이는 현행법의 개발 가능한 테두리 안에서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개울 건너 광주땅인 능평리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는데 능원리 일대에서도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다면 언제라도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용인이 도시화 되고 모현이 변화하면서 생겨난 능원리의 첫 번째 변화는 앞에서 말한 빌라와 전원주택의 급증이다. 이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그나마 얼마 남아 있지 않은 농경지의 잠식으로 연결될 것이다. 어느 정도 세월이 더 지난다면 능원리 역시 빌라와 전원주택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된 주거지역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두 번째는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외식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능원리는 아직도 산수가 수려하고 공기가 맑아 가든이나 카페와 같은 이름의 식당이나 찻집이 들어서기 좋은 여건이다. 특히 서울에서도 그리 멀지 않고 분당이나 수지, 죽전과 인접하고 있으며 레이크사이드골프장이 있는 것도 식당이나 카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는 개발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도 마을안의 주택을 사들여 전원주택으로 개발하고, 전답을 메꾸어 창고나 소규모 공장, 식당이나 카페를 짓고 있다. 개발이 어려운 보존녹지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개발에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물을 세우고 주택을 지으려 하고 개발할 땅이 없을 때까지 계속 될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은 주민공동체의 해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원주민의 비율은 매우 적은 편인데 외지인들의 유입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자녀들은 서울 등지로 나가 있어서 노인들만 있는 경우가 많다. 세월이 흘러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수백 년간 이어져 왔던 마을의 전통과 역사가 단절되거나 크게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능원리는 5개리로 편제되어 세월이 지나고 인구가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는 원주민의 증가보다는 외지인의 유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을의 전통과 고유한 풍속을 지켜가는 노력 또한 더욱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정양화



2. 능원리 마을지명유래

능원리(陵院里)는 모현읍에 딸린 리(里) 가운데 하나로 모현읍의 서쪽에 치우쳐 있으며 오산리를 서쪽에 두고 수지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능원리의 북쪽은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가 되고 동쪽은 모현읍 동림리와 경계를 이루며 남쪽은 포곡읍 신원리, 가실리와 만나고 서남쪽엔 기흥구 청덕동이 있다.

능원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모현촌면의 우명동과 원촌을 합치고 포은 정몽주 선생의 묘가 있는 능곡마을과 원촌의 첫 글자를 따서 능원리라 하였다. 마을 가운데로 능원천이 흐르고 있으며 충렬서원과 정한영 효자각, 포은 정몽주 선생 묘소와 포은 종택(宗宅) 및 영당, 그리고 포은 선생 신도비와 재실인 영모재가 있으며 가까이 한국등잔박물관이 있다.

능곡(陵谷)

능원리에 딸린 마을 가운데 능원1리에 속하며 능골, 또는 능꼴이라고 소리나는 대로 부르기도 한다. 능곡은 능골을 한자로 옮긴 지명이며 원촌(院村)이라고도 하는데 원촌은 서원이 있는 부근을 가리키는 말이다. 일설에 의하면 능자리가 있다고 전해왔는데

실제로 선조대왕의 왕후의 능터로 정해졌다가 충의백 포은 선생의 묘를 이장할 수 없다고 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 가고 능자리가 있다고 하여 ‘능꼴’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한 동남쪽에 포은 선생의 묘가 있으므로 포은 선생의 묘소를 능에 비유하여 능곡이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마을에 포은 선생을 주벽으로 모신 충렬서원이 있고 포은 종택과 가천재 조사 선생을 모신 재실인 치천재(致川齋)가 있다.

우명동(牛鳴洞)

능원2리가 된다. 우리말로 소우리 또는 소-리라고 하는데 소가 운다는 뜻으로 생각하여 한자로 우명동이라 옮긴 것이다. 웃소리와 아랫소리가 있으며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예전에 능곡마을에서 집집마다 소를 먹일 때 이곳에 매어 놓았는데 울음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려오므로 소울이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발음이 변하여 소우리, 소리 등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예전에는 농촌이라기보다 산촌이라는 분위기가 더 많았다고 한다.

또 우명동에 대한 설화가 남아 있는데 이 마을에 장사가 태어났는데 나라에서 알현삼족(三族)을 멸한다고 하여 그 아이를 콩가마에 깔려 죽게 하였는데 산 위에서 소가 울며 내려갔다고 하여 우명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말이 울며 내려왔다고도 하는데 지금처럼 도로가 넓어지기 전에는 마을 입구에 서낭당이 있었다고 한다.

능원리는 본래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3개의 행정리로 편제되어 있었으나 최근 용인이 도시화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능원리에도 연립이나 다가구주택이 많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능원 4리와 5리가 새로 생겼는데 4리는 능원초교를 기준으로 동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방향을 가리키고 5리는 모현선죽교 건너편부터 우명동 검정바위 입구까지를 구역으로 하고 있다.

내기(內基)

능원3리로 안골이라고 한다. 능안 또는 능내(陵內)라고 부르기도 한다. 안골은 능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쪽에 있는 골짜기란 뜻이며 내기는 한자표기이다. 능안은 능이 있는 안골이라는 뜻이며 포은 선생 묘소와 저현 이석형 선생묘소, 그리고 한국등잔박물관 등이 있다.

▶ 소지명

건녕굴(골) : 소우리마을 바지갈래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

검정바위(바위) : 소우리마을 입구에 있던 바위.

고박굴(골) : 소우리 안골의 아랫고개 위에 있는 골짜기.

광굴(골) : 소우리 양지편 위에 있는 골짜기.

굴박굴(골) : 소우리 검정바위 왼편에 있는 골짜기. 굴이 있었음.

굴박굴2(골) : 소우리 양지편 능선 밑에 있는 골짜기. 호랑이 굴이 있었음.

귀신굴(골) : 웃소우리 위에 있는 골짜기. 승굴 옆이 됨.

까마니봉(산) : 능원리에 있는 산.

까치능굴(골) : 명목바위 아래 오산리쪽에 있는 골짜기. 가천재 조사선생의 묘가 있음.

깜봉산(산) : 안골에서 서남쪽으로 소우리쪽에 있는 산.

내곡(內谷) : 안골.

내기(內基) : 안골의 한자표기. ⇨ 내곡(內谷)

너름바위(바위) : 능골마을 서쪽 숫돌봉 아래 있는 바위.

너름바위굴(골) : 능골마을 서쪽 숫돌봉 아래 있는 골짜기. 너름바위가 있음.

누락굴(골) : 소우리 건녕굴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 아랫소리마을 뒤편이 됨.

능곡(陵谷)(마을) : 능골.

능골(마을) : 능곡(陵谷)

능안(골) : 소우리 굴박굴 옆에 있는 골짜기.

능안2(골) : 문장군이 바로 뒤편에 있는 골짜기.

다래고개(고개) : 포은선생 묘서 입구 주차장 서쪽편에 있는 고개.

동미고개(고개) : 우명동에서 동림리 동미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맹꽁자리(논) : 충렬서원 밑에 있던 논. 지금은 밭이 됨.

명목바위(바위) : 소우리 검정바위 아래편에 있는 바위.

목산(산) : 웃소리에 있는 산.

무태굴(골) : 우명동 아랫소리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문수산(文秀山)(산) : 포은선생 묘소 뒤편에 있는 산.

문장군이(산) : 능골과 오산리사이 43번 국도 북쪽편에 있는 골짜기. 포은선생의 후손이 공부하여 문장가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바지갈래굴(골) : 우명동 웃소리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바지가랭이 골.

방호굴(골짜기(골) : 소우리 양지편 위에 있는 골짜기. 포곡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음.

백련암굴(골) : 웃소리에 있는 골짜기. 포곡읍 가실리에 있는 백련사로 넘어가는 길이 있음. 예전에 걸어서 용인장으로 갈 때 이용하던 길임.

번덕지들(들) : 소우리 번들바위 아래편에 있는 평평한 벌판.

번들바위(바위) : 소우리 벼락박굴 옆에 있는 바위.

벼락박굴(골) : 소우리 양지편 위 굴박굴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 ⇨ 벼락박굴.

부채텅이(터) : 안골의 소자골과 재능 사이에 있는 산기슭.

북박굴(골) : 소우리 백련암굴 옆에 있는 골짜기.

새면굴(골) : 소우리 번덕지 왼쪽의 골짜기. 샘이 있었음.

서낭텅이(터) : 소우리마을 입구에 있는 터. 서낭당이 있었음.

서원말(마을) : 충렬서원이 있는 마을. ☞ 섬말, 원촌(院村)
 서재골(골) : 안골에 있는 골짜기로 서재(書齋)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고 함.
 선바위(바위) : 능곡마을 서쪽 숫돌봉 밑에 있는 골짜기.
 선바위골(골) : 능곡마을 서쪽 숫돌봉 밑에 있는 골짜기.
 선쟁이(능선) : 소우리 양지편 꼭대기 에버랜드방향으로 넘어가는 능선.
 설고개(고개) : 소우리 검정바위에서 관골로 넘어가는 고개.
 섬말(마을) : 서원말. ☞ 원촌
 소리(소우리, 소울이, 우명, 우명동)(마을) : 안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
 소리고개(고개) : 소우리에서 기흥구 청덕동(구, 구성읍 청덕리)으로 넘어가는 고개.
 소리골(골) : 능곡마을 남쪽 소리마을 입구가 되는 골짜기.
 소울이(마을) : 소우리, ☞ 우명동 ☞ 소리고개
 솔고개(고개) : 안골에서 아랫소리로 넘어가는 고개.
 쇠자골(골) 재능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
 수리산(산) : 소우리마을 맞은편 동쪽에 있는 산. 수리가 많이 살았다고 함.
 숫돌봉(산) : 오산리 양촌마을과 능곡마을 북쪽의 경계를 이루는 제일 높은 산. ☞ 지봉(砥峰).
 승굴(골) : 웃소우리 위에 있는 골짜기.
 아래고개(고개) : 안골에서 동림리 동미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아랫소리(마을) : 우명동마을의 아래편에 있는 마을.
 안골(골) : 내기마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안골(마을) : 능곡마을 남쪽 건너편에 있는 마을. ☞ 내기(內基), 내곡(內谷).
 양지편(골) : 우명동마을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 지금은 골프장이 되었음.
 옥산터골(골) : 능안과 오산리 사이에 있는 골짜기.
 왕밤들(들) : 능원초등학교 동쪽에 있는 들. 모현농협 하나로마트 주변이 됨.
 외둔지골(골) : 능곡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요골(골) : 능곡마을 서쪽 숫돌봉 아래편에 있는 골짜기. 선바위골과 너른바위골이 속함.
 우라리뿌리(터) : 능곡마을 뒷산의 동북쪽 끝부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와 경계가 됨.
 우명(牛鳴)(마을) : ☞ 소리.
 우명동(牛鳴洞)(마을) : ☞ 우명, 소리.
 웃소리(마을) 우명동의 위편을 가리키는 명칭.
 원촌(院村) : 능곡마을의 서북쪽에 해당되는 마을. 충렬서원이 있음. ☞ 서원말, 섬말.
 윗고개(고개) : 안골에서 우명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이석형묘(李石亨墓)(묘) : 능원리 산5번지에 있는 문강공(文康公) 이석형선생의 묘.
 이죽창묘(李竹窓墓)(묘) : 이석형선생묘 위편 능선 너머에 있는 이시직선생의 묘. 병자호란때 강화도에서 순절했음.
 재능(터) : 포은 정몽주선생의 묘소가 있는 일대를 부르는 명칭.
 절터(터) : 포은선생 묘소 아래편 재실에서 능선너머 뒤편에 있는 골짜기.
 충렬서원(忠烈書院)(서원) : 원촌에 있는 서원. 포은 정몽주선생을 주벽(主壁)으로 설곡 정보, 죽창 이시직, 추담 오달제선생을 배향하고 있음.
 포은정몽주선생묘(圃隱鄭夢周先生墓)(묘) : 포은 정몽주선생의 묘. 1387년 천장할 때 명정이 날려 이곳에 떨어졌다는 전설이 있음. 경기도기념물 1호.
 포은선생신도비(圃隱先生神道碑)(고적) : 포은선생묘 아래편에 있는 포은선생의 신도비. 현재는 비각을 세워 보호되고 있음.
 황새모랑이(터) : 안골마을 포은 정몽주선생 묘소입구 오른쪽에 있는 산모퉁이.

정양화



3. 능원리 인문지리 환경 변화

1) 모현읍의 위치와 일반 환경

용인시는 예로부터 서울과 삼남지방을 연결하는 길목으로 인식돼 왔으며, 신체로 비유하자면 사람의 인후부에 해당한다. 특히 조선시대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용인은 더욱 확실한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용인시는 지리적 위치는 한반도 중부 내륙 산지 지역이다. 경기도가 한반도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으며 용인은 그 중에서도 경기남부권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동~서간 길이는 36.9km, 남~북간 길이는 31.9km, 총 면적은 592km²이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 면적 605.21km²의 98%에 해당하는 크기다.

지도로 본 용인시 모습은 비상하는 독수리 형상이다. 경안천 하류인 모현면 일산리를 머리로, 백암면 옥산리 비봉산과 반대편 수지구 고기동이 양 날개에 해당하며 남사면 원암·진목리가 꼬리를 이룬다. 모현은 남사면과 대각선으로 교차한다. 바다가 없는 내륙지대 용인은 8개 시(市)와 접경을 이루며 둘러싸여 있다. 동쪽은 이천시, 서쪽은 의왕·수원·오산·화성시, 남쪽은 안성시, 북쪽은 성남·광주시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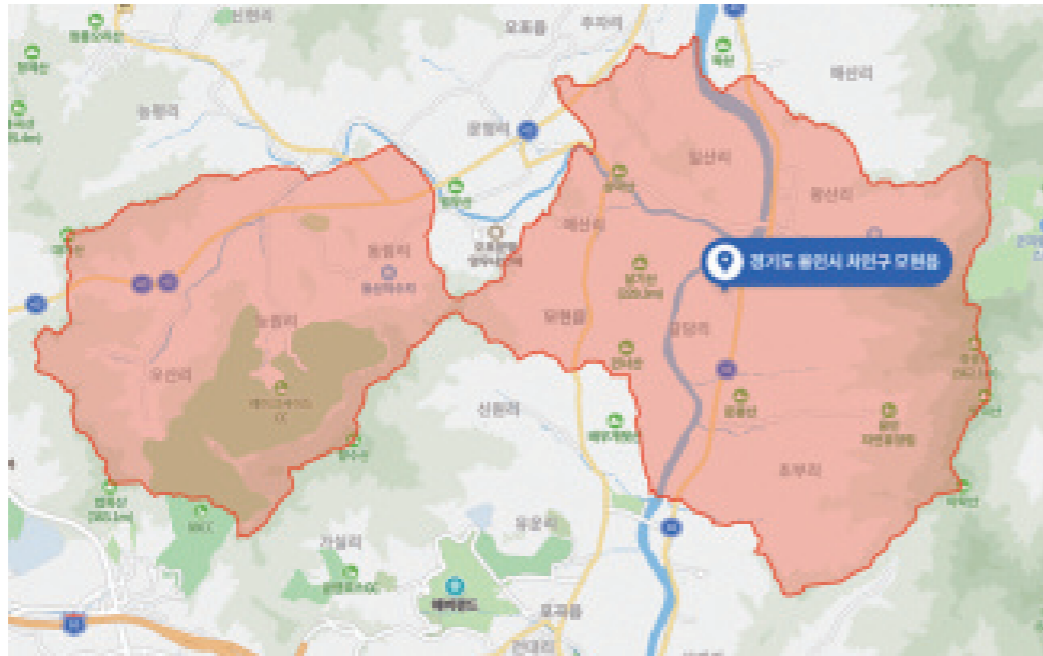
그 중 모현읍은 용인시 처인구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다. 넓이는 50.37km²이며 용인시 전체면적의 약 10.25%를 차지한다. 용인시는 3읍 4면 28동 등 35개 읍면동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 6번째로 면적이 크다.



용인시 지도

모현읍의 8개리는 동부(왕산·초부·갈담·일산·매산리) 5개 리와 서부(동림·능원·오산리) 3개리로 갈리어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마치 장구모양으로 허리가 잘록하다. 그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 남쪽으론 포곡읍 신원리이며 북쪽으론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이다. 따라서 모현읍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하려면 주요교통로는 광주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한다.

한편으론 쌍안경처럼 생겼다고도 볼 수 있는 구조 탓에 읍의 서부는 사실상 월경지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모현읍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과 대지고개를 경계를 나누고 있고 구성 마북동, 청덕동, 포곡읍 가실리, 신원리, 삼계리, 금어리, 동쪽으론 광주시 도척면 도동리, 상림리와 시(市) 경계를 이루고 있다. 모현읍은 북쪽과 동쪽이 광주시, 서쪽과 남쪽이 용인시 읍·면으로 둘러싸고 있다.



모현읍 지도



모현면 지도

2) 모현읍과 능원리의 지리환경과 특징

가) 지리와 교통환경

용인시는 전체적으로 요철정도가 작은 전형적인 구릉성 산지이다. 평균 해발고도는 85.7m로 낮은 편이며 이와 같은 지형특징을 반영하여 구릉지 사이에 침식분지와 곡저평야가 발달해 있다. 경안천·탄천·진위천·한천(안성천)·오산천 등 경기남부권역 주요 하천의 발원지 또는 최상류를 이룬다.

한반도의 모든 산맥들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정간(正幹), 정맥(正脈)으로 내려가며 산줄기를 이룬다. 용인시는 태백산맥에서 갈라진 광주산맥의 끝자락에 위치하며 한남정맥에 뿌리를 두고 있다.¹⁾

모현읍은 약 61%가 산지로 되어있는데 지형특색은 중앙에 위치한 약350m의 무명산봉에 의해서 동부와 서부로 크게 나뉜다.²⁾ 동부지역은 남북직선으로 뻗은 발리봉-노고봉(573.5m)-정광산(563m)-말아가리산(마구산, 595m)-태화산(644m)으로 이어지는 광주산맥의 능선이 이어진다. 말아가리산은 용인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수지 광고산 일대와 더불어 가장 높은 능선이다.

반면 장구허리처럼 잘룩한 중간지점에서 서부지역은 숫돌봉(314.5m)-대지산(326m)-무등치-법화산(383.2m)-무명산(457.4m)-문수산(221m)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능원리 일대는 원형모양의 능선으로 둘러싼 가운데 능원천이 오산천과 합류해 경안천으로 흘러가도록 열려있을 뿐이다.

한남정맥으로도 연결되는데 포곡읍 가실리와 모현읍 오산리·능원리에 걸쳐 있는 향수산(457.7m)을 거치면 석성산까지 이어진다. 향수산 북서쪽에 레이크사이드 컨트리

1) 『용인의 역사지리』 용인시사총서 6, 2000년, 21쪽

2) 『모현면지』 용인문화원, 2003년, 45쪽

클럽, 남서쪽에는 신라 애장왕 때 처음 지어졌다는 백련사(白蓮寺), 남동쪽에는 에버랜드, 호암미술관, 삼성연수원 등이 밀집되어 있다.

모현읍의 지형조건은 교통로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 경안천을 따라 남북으로 국도 45호선이 개설되어 있고 동서간 횡축으론 국도 43호선이 수지-대지고개-오산리-능원리를 거쳐 광주 오폭읍에서 45호선과 교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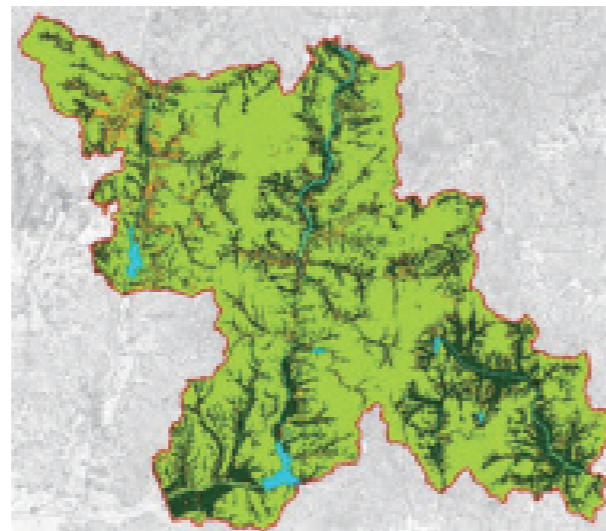
최근 개통을 앞두고 주목되는 교통망은 용인-포곡간 도로로 분당-오폭을 거쳐 모현동림리에서 포은대로와 만난 후 매산리와 초부리까지 연결돼 다시 국도 45선과 이어질 예정이다.

나) 모현읍과 능원리의 하천 지리

용인의 지리환경적 약점을 들라면 지형적 통일성의 결여라고 말할 수 있다. 행정구역은 산지 또는 하천 등 지형지물 경계가 일반적이다. 하천이 모이는 평야 중심부에 행정·경제·문화를 갖춘 중심취락이 입지하게 마련이다. 도시 발달은 이처럼 거점도심을 중심으로 분화해 나가는 형태다.

그런데 용인은 좀 다르다. 경기 남부 주요하천의 발원지가 용인이다. 탄천, 경안천, 청미천, 오산천, 진위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길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다”는 옛 말이 있다. 통합적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는 도시로선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처인구에는 경안천·청미천·한천(안성천)·어비천 물길이 시작되는 지점이지만 특히 경안천은 대



용인 하천도

한민국 절반의 수도권 인구의 젖줄이자 생명수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모현읍의 성장과 개발 등 현실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그 지점이다.

경안천은 처인구 동부동 문수샘에서 발원하며 총길이 49.3Km에 이른다. 그 가운데 용인 통과 구간은 26.6km이다. 지류는 김량천(10.6km) 용해곡석유비축기지-금학천 합수지점, 금학천 (용인시내 동서 횡단: 중심하천 부아산 발원), 양지천(11.6km) 양지리조트- 경안천 등이다. 모현읍 지류는 오산천(12km), 매산천(3.2km), 능원천(2.5km) 등이 모현읍의 2급 주요하천이며, 왕곡천(1.55km), 관청천(1.85km), 모산천(0.95km), 갈담천(2.35km), 동산천(1.5km) 등이 모현의 소하천을 이루고 있다. <도표 참조>

<모현읍 하천 현황 도표>

하천명	총연장/ km	시점	종점	기타
경안천	25.2	호동	일산리	2급 주요하천
초하천	2.6	초부리	초부리	2급 주요하천
오산천	12	오산리	일산리	2급 주요하천
매산천	3.2	매산리	일산리	2급 주요하천
능원천	2.5	능원리	능원리	2급 주요하천
왕곡천	1.55	왕산리 308	왕산리 421	모현 소하천
관청천	1.85	왕산리 157	왕산리 799-36	모현 소하천
모산천	0.95	왕산리 24-1	왕산리 756-44	모현 소하천
갈담천	2.35	갈담리 99-1	갈담리 466-1	모현 소하천
동산천	1.5	동림리 309	오폭읍 문형리	모현 소하천

3) 모현읍과 능원리의 인문환경과 특징

모현읍의 인구는 2005년 2월에 2만 명을 넘었는데, 용인시는 모현면의 인구가 2만 명을 넘은 지 10년만인 2015년부터 읍 승격을 추진해 2017년 12월 11일에 읍으로 승격하였다.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모현읍의 인구는 2만 7,325명이다. 처인구 11개



해동여지도(1735)

읍·면 가운데 역삼동, 유림동, 포곡읍에 이어 네 번째로 인구가 많다.

<인구총계> (2020.10.31. 현재)

용인시	1,093,100
처인구	264,506
포곡읍	33,705
모현읍	27,325
이동읍	21,360
남사면	23,762
원삼면	8,870
백암면	9,178
양지면	19,091
중앙동	26,300
역삼동	44,498
유림동	36,327
동부동	14,090

그럼 본격적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0년 대부터 인구추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1960년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바로 산업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60년 용인시(당시 용인군) 전체인구는 106,664명이었으며 그 중 모현면 인구는 7,156명 이었다. 그런데 10년 후인 1970년 용인 인구는 96,551명으로 준다. 모현면 역시 6,363명에 불과하다. 급격한 인구증가의 상징적인 도시로 잘 알려진 용인 인구가 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는 본격적인 산업화에 따른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과 맞닿아있다. 즉 경공업과 중화학 공업이 발전하면서 일자리와 교육기회가 많고 문화시설이 편리한

수도권 도시와 산업도시는 급격히 팽창하기 시작했다. 반면 농촌권역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쌀값안정이란 명목 하에 저가정책을 의도적으로 펼쳤고 이에 따라 경쟁력을 잃은 농업종사자들의 이농(離農)을 부추겼던 것이다.

1960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 직업구성 추이를 보면 답은 분명하다.

1960년 인구 106,664명 가운데 농업인구는 92,380명이었다. 86.6%에 해당한다. 반면 1970년 용인 인구는 96,551명으로 줄었는데 당시 농업인구는 81,324명으로 84.2%를 차지한다. 농업인구 구성은 10년 사이에 별반 차이가 없으나 농업종사자 인구의 12%가 줄었다.³⁾

3) 용인군지(龍仁郡誌), 용인군지편찬위원회, 1990년, 307쪽

<모현읍의 리별 인구변화 추세>⁴⁾

연도별	모현읍	능원리	오산리	동림리	왕산리	갈담리	초부리	일산리	매산리
1980	7431	578	359	525	2000	788	1325	1138	718
1990	10175	807	354	882	3204	835	1577	1517	896
2000	19161	1771	527	2428	7434	1365	1909	2078	1500
2010	22135								
2020*	25737	3830	1780	3685	8846	1220	1342	4148	1267

모현읍의 인구 변화 추이를 40년간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우선 왕산리가 지리적 중심지이자 면-읍 행정소재지로서 공공기관과 시설 그리고 상업 활동의 거점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1990년~2000년 사이의 급격한 인구 증가다. 10년 사이에 거의 두배에 가까운 인구증가를 보이는데 이는 지리적 위치상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분당, 용인시 수지 등 수도권 위성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팽창효과로 보여진다. 또 국도 43호선과 45호선이 교차하는 교통요지에 위치함에 따라 각종 공장 등이 몰려든 이유도 있다.

세 번째 특징에선 보다 뚜렷하게 보여주는 바, 모현 서부권역인 능원·동림·오산리가 1990년 이후 동부권역에 비해 그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오지(奧地)나 마찬가지로였던 이들 지역은 과거 농업기반의 전통사회와는 달리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교통의 발달로 인해 성장축인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종축(縱軸) 선상에 가까이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용인에서 오지였던 수지가 지금은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 되었던 결과분석과 다르지 않다.

능원리만 살펴보면 1980년 당시 모현면 전체 인구 7431명 가운데 578명이 거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비율은 7.77%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에는 1만175명 중 807명으로 7.93%, 2000년에는 1만9012명 가운데 1771명으로 9.31%, 2020년에는 10

4) 2020년 통계는 11월 말 기준이며 2010년 통계는 2017년 12월 11일 모현읍 승격 이후 통계시스템 변화로 이전 데이터 추출 불가. <모현읍 제공>

월말 현재 25737 명 중 3830명으로 14.88%까지 증가했다. 이는 모현읍 서부권역이 팽창하는 가운데 능원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지표다.

<능원리 최근 4년간 인구 현황>

능원리 현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능원1리	1,986	1,800	1,872	1,836
능원2리	185	172	164	148
능원3리	283	228	226	241
능원4리	1,204	1,202	1,148	1,140
능원5리	-	322	417	463
소 계	3,658	3,724	3,827	3,828

※ 2020년 통계는 10월 말 기준임.

4) 항공사진을 통해 본 능원리의 변화

능원리(陵院里)는 현재 5개리(里)로 나뉘어져 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른 분리(分里) 때문이다. 오산리를 서쪽에 두고 동림리는 동쪽에 둔 채 가운데 위치한 능원리는 북쪽에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와 시계(市界)를 경계를 나누면서도 모현 서부권역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능원1리는 능원초등학교를 마주보고 좌측이 해당된다. 충렬서원 등이 속하는 구역이다. 능원2리는 우명동을 중심으로 분당승마클럽까지 걸쳐있다. 능원3리는 과거 서원말(원촌·院村)이 포함된 안골 또는 내기(內基)를 이른다. 과거 충렬서원이 현재로 옮겨지기 전 있었던 곳이기도 한데 포은 묘역을 두고 오른쪽에 형성된 마을은 최근 농촌체험 마을로 유명해지면서 ‘호박등불마을’로도 알려져 있다. 이곳엔 등잔박물관 등이 있다.

능원4리는 1리 팽창에 따라 분리된 곳이다. 능원초교를 기준으로 우측을 가리키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와 마주하고 있다. 오산천과 광주 신현천이 합수되는 지점까지가



1966년 9월 능원리 전역



1966년 능원초교 일대 (능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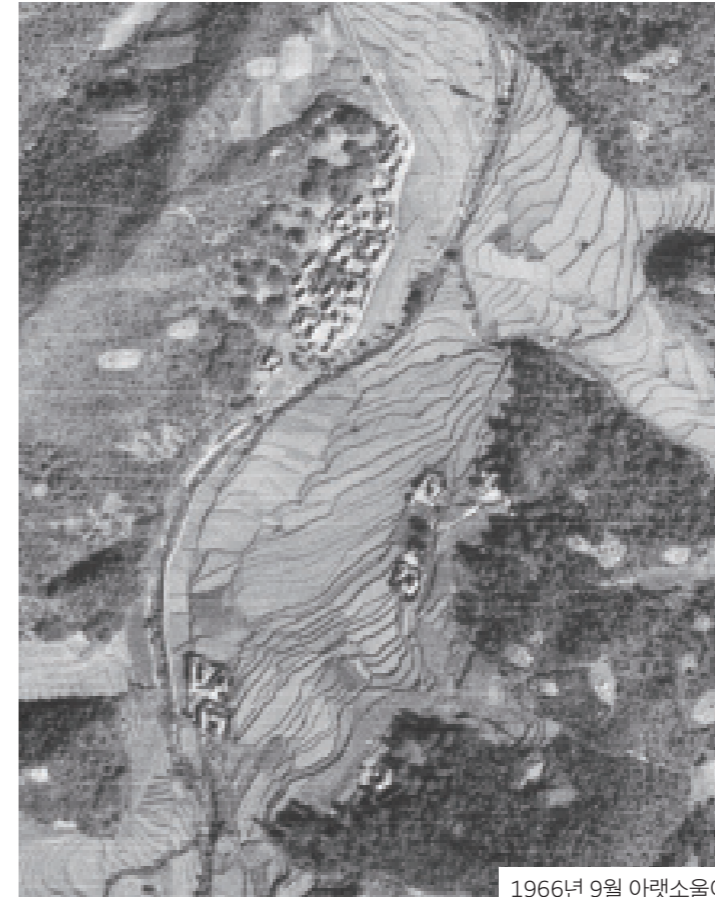
해당되는데 동림리와 마주하는 오산천 건너 다수의 연립주택과 빌라촌이 포함된다.

능원5리는 5리는 선죽교를 건너면서 오산천 상류 쪽이며 우명동 검정바위 입구와 분당승마클럽을 경계로 까치넝굴 일대 공장지대와 먹거리촌을 포함해 길게 형성돼 있다.

가) 1960년대 능원리 모습

1960년대 모현의 능원리는 외진 골짜기의 단선 도로망을 끼고 촌락이 영성하게 형성돼 있는 모습이다. 1966년 항공사진을 보면 능원초교와 충렬서원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돼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서원촌(書院村)의 양상이다. 동쪽촌의 성격을 반영하는 데, 능원리에선 포은선생의 후예들인 연일정씨가 대표적이다.

사진 맨 오른쪽 촌락은 현재 능평삼거리를 중심으로 한 마을인데, 도로망이 수지방



1966년 9월 아랫소울이

향(대지고개)과 분당으로 향하는 길목이었던 만큼 교통촌이자 시장촌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그런 만큼 가구수도 많아 보인다.

충렬서원에서 바라다 보이는 앞쪽으로 형성된 마을은 60여 호에 달해 보인다. 반면 현재 4리에 속하는 일대는 거의 논으로 이뤄진 농경지였음이 확인된다. 특이하게 우명동은 예나지금이나 주민들의 삶터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보게 된다. 이미 55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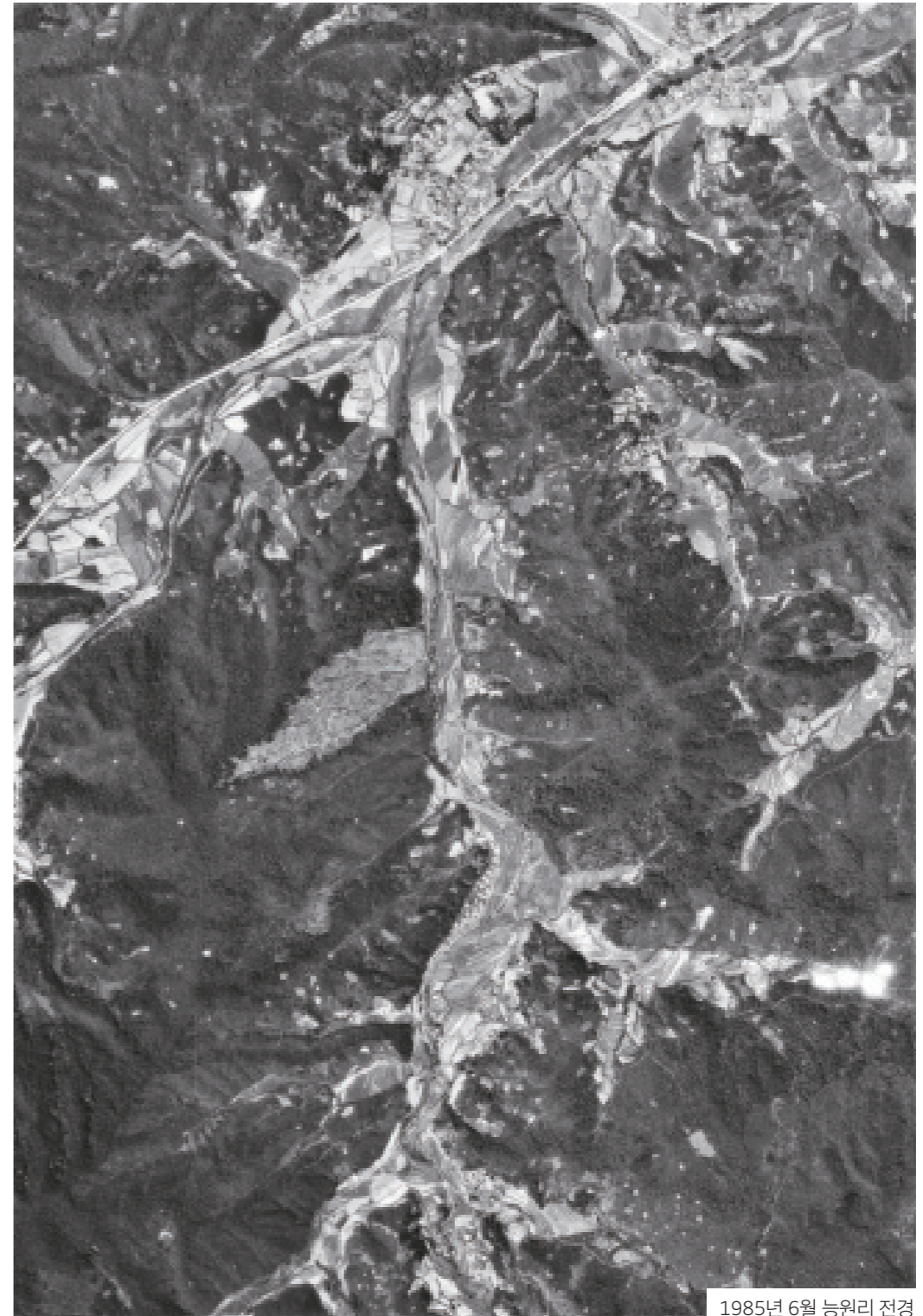
모습이지만 아랫소울이 20여 호, 웃소울이 10호로 전체 30여 호에 달한다. 포은묘역이 있는 안골도 20여 호 형성돼 있어 오래 전부터 작은 마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으론 현재 5리 일대는 당시엔 주거공간이 전혀 없었음에 비추어 후일 형성된 마을임이 입증되고 있다.

나) 1985년 능원리 모습

1966년으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1985년 항공사진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없다. 국도 43호선이 확장된 것 외에는 인구변동 추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는 1970년



1966년 안골



1985년 6월 능원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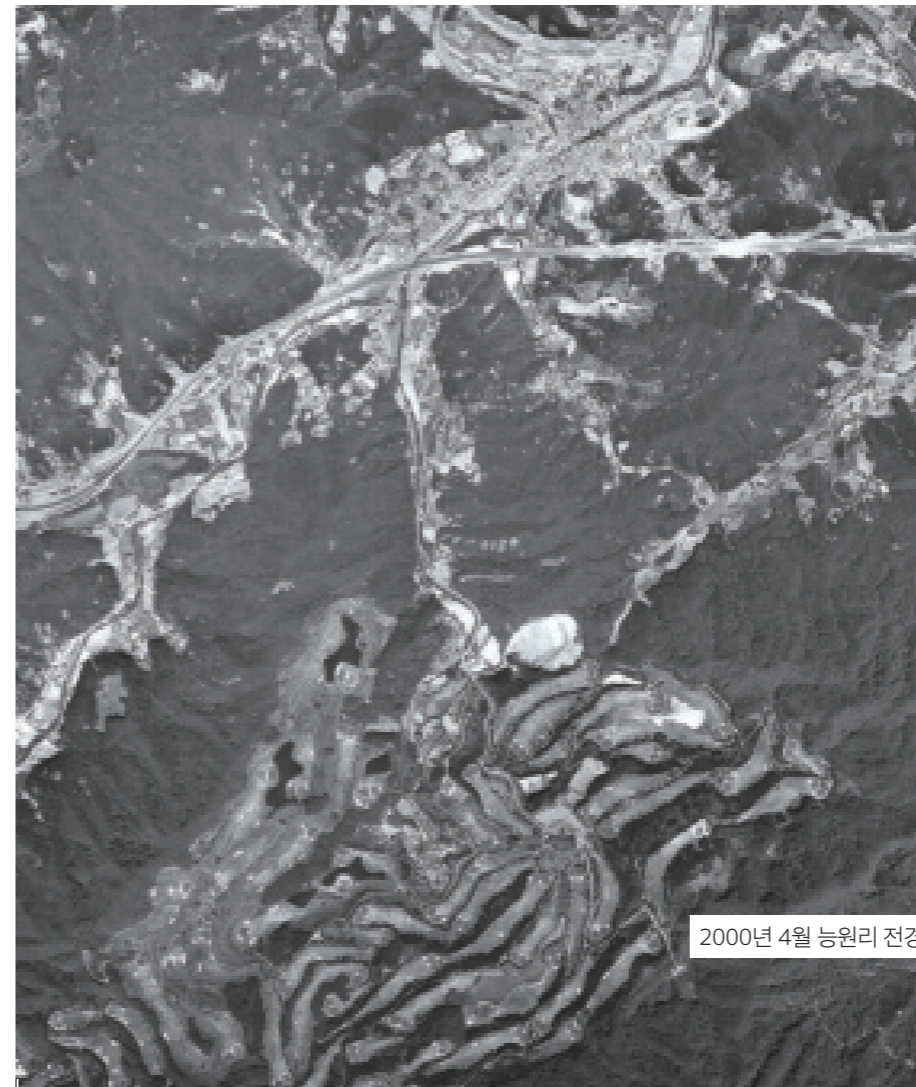


1985년 6월 능원초교 일대 (능곡)

대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산업화의 절정기를 거치면서 수도권 농촌사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갔던 시기와 맞물린다. 즉 이농향도(離農向都) 현상이 가장 컸던 시기이다. 그러다보니 산업구조의 변화라든가 인구증가의 근거가 되는 가구 수의 증가현상이 실질적으로 보이질 않고 거의 정체돼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실제 1966년 모현면 인구가 7,156명 이었는데 1986년 통계에 의하면 8606명에 불과하다. 무려 20년 사이에 모현면 인구는 1450명 늘었을 뿐으로 요즘같이 가빠른 인구증가율에 비춰보면 ‘멈춘 20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다) 2000년 능원리 모습



2000년 4월 능원리 전경

21세기에 들어선 첫 해 2000년 4월 능원리 모습은 1980년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80년대까지 능원초교와 충렬서원 사이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촌락은 오포읍 능평리 방면까지 뻗어나갔다. 대부분 농경지 사이에 가옥이 들어선 형태였다면 적어도 밀집된 마을 내 농경지는 거의 보이질 않는다. 실제 2000년 모현면 인구는 2만 여명에 근접했고 능원리 인구도 1771명에 달했다. 15년 전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외견 상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도로망이다. 과거 구불구불했던 국도 43호선 능원리 통과부분이 재정비되면서 우회노선이 완공돼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건물 형태의 변화다. 상권이 형성되면서 대로변 건물은 단독주택에서 상업용 빌딩으로 재건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에선 빌라형태의 다가구주택이 군데군데 보이기 시작한다.

인구밀도가 높아진 결과이기도 하다. 오늘날 5리에 해당하는 지역에 인공 구조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공장이나 창고 등 산업화와 교통발달에 따른 물류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레이크사이드컨트리클럽이 들어서면서 능원리의 외형적 모습은 크게 변화했음을 볼 수 있다.

우명동(능원2리) 일대에 들어선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은 국내 최초의 정규 대중 골프장(36홀)



2000년 능곡



2000년 안골마을 전경



2000년 우명동 전경

과 회원제 골프장(18홀)이 결합해 국내에선 가장 큰 골프장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1990년 동코스 18홀과 남코스 18홀, 총 36홀 대중골프장으로 출발해 1997년 회원제 코스인 서코스 18홀까지 추가하면서 총 54홀 동양 최고의 메머드급 골프장으로 거듭났다. 다행히 대부분 촌락 구역을 제외하고 조성돼 마을에 직접적 피해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골프인구 증가에 따른 특화된 영

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능곡에서 우명동으로 이어지는 깊은 골짜기가 요즘 대부분 먹거리·카페촌으로 채워진 것도 그 영향 중 하나로 보인다.

라) 능원리 최근 모습

능원초교와 충렬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능원1리와 4리는 전체 능원리 인구의 77.74%를 차지한다. 동족촌이자 서원촌에서 출발해 지금은 공동주택과 각종 편의시설까지 몰리면서 인프라를 갖춘 거주와 지역상권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능원3리는 포은묘역과 등잔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콘텐츠 자원이 풍성한데다 외부와 단절된 듯한 아늑한 공간구조를 지니고 있어 사람의 발길이 점점 잦은 마을로 명성을 쌓고 있다. 특히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문화와 역사인물 그리고 숲과 체험이 어우러진



2018년 능원리 전경

2018년 능곡 전경



새로운 형태의 관광자원은 물론 전원형 주택지로도 각광받고 있어 무궁한 가치를 지닌 마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새로 조성된 5리는 물류와 산업시설 그리고 식당가와 공동주택까지 어우러진 또 다른 형태의 마을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가장 오래도록 변화가 없었던 2리 우명동은 1990년대 들어 골프장 건설로 변화의 물꼬를 트더니 최근엔 아랫소울이를 중심으로 기존주택들을 헐고 전원주택단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중이다. 누대에 걸쳐 살았던 주민들은 결국 마을을 떠나야 하는 처지라니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상표



4. 능원리 산업환경의 변화



능원리 마을 전경

2017년 12월 11일을 기해 읍(邑)으로 승격한 모현은 동·서로 구분되어 동부는 왕산리, 갈담리를 주축으로 하며 서부는 능원리와 동림리 등으로 나뉜다. 지역특성으로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권역(제1권역)과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되어있다. 2020년 8월31일 현재, 인구는 25,000명을 넘어 섰으나 예나 지금이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늘 따라 붙는다. 동·서부의 생활권과 연결 도로망의 연동이 원활치 못한 실정이다. 왕산리에서 시작한 편도 2차선 도로는 경유지(월경지) 오폐수를 들어서면 편도 1차선으로 좁혀지면서 능원리로 이어진다. 물론 용인중심지에서 능원리까지 시간을 단축해 이동하고자 할 때는 죽전을 통해 대지고개를 넘는 방안도 있다. 양편에서



보호수와 효자비각

들어오다 보면 제일 먼저 보호수로 지정된 300년을 바라보는 느티나무와 포은 후손의 효자비각이 “이곳이 능원리다.” 하는 반가움을 느끼게 한다. 나름 능원리의 랜드마크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이건영 전 용인시의원은 2017년 7월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능원리, 오산리, 동림리 지역에 출장 민원실과 보건지소 설립을 건의한 바 있다. 모현 인구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인구인 9,000여명이 이곳에 거주한다며 이곳은 면사무소와 약10Km 떨어져 있어 행정서비스와 보건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적극적인



포은묘소 입구



오산천



검토를 요청했지만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지역 간 불균형을 명징하게 이르는 현실이다. 확장성과 미래지향성을 더욱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능원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능곡(陵谷)과 원촌(院村)에서 한 자씩 따서 능원리라 하였다. 알려진 것처럼 능곡은 포은의 무덤이 있어 능에 비유하여 능골이었다가 능곡이 되었고, 원촌은 포은의 신위를 모신 충렬서원이 있어 유래 되었다. 능원리는 모현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인구는 능원1리가 720세대에 약2,000명이 넘으며, 4리가 400세대를 갖춘 결코 적은 인구가 아닌 농촌과 도시가 공생·결합된 마을이다. 능원리 남쪽은 수리봉, 향수산 북쪽 산록(山麓)에 해당하며, 해발 200-400m미만의 구릉성 산지를 이루고 있다. 그 바로 아래 해발 100-200m의 완만한 경사지에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이 있으며 안에는 능원천 상류의 소규모 저류지(貯溜池)가 있다.



능원초등학교 사거리

능원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익히 알려진 대로 포은의 묘소를 모신 이후부터 라고 보면 될 것이며, 그의 후손들이 문수산(文殊山) 기슭에 묘막을 짓고 거주한 이래로 집성촌을 이루게 된 것이다. 마을 명칭도 그 이전에는 쇠포촌이었다. 묘소를 모신 이후 비로소 모현촌으로 바뀐다. 묘소부근의 묘막은 지금의 재실인 영모재(永慕齋)로 또한 바뀌게 된다. 그리하여 후손은 물론이고 용인 유림의 궁지로 도약하게 되며 충절의 고장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원주민의 3분의2는 후손인 영일정씨(迎日鄭氏)라고 한다. 능원리의 하천은 용인시의 동북쪽에 있는 법화산 북쪽 모현읍 오산리에서 발원하여 북동쪽으로 흐르는 오산천(吳山川)과 충렬서원 앞의 능원리에서 발원한 능원천(陵院川)이 만나고 다시 능원초교 앞에서 신현천과 합류한 뒤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경안천에 유입되는 곳이다. 수량이나 폭도 적지 않은 편이라 예전에는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잡아 전렵도 가능했었다고 한다.

중심지에서 벗어난 깊숙한 벽지로 읍 소재지까지는 거리가 멀어 다소의 주민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마디로 산촌 생태마을 이라고 할만하다.

자연부락으로는 내곡, 능곡, 아랫소리, 윗소리 등이 있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생활편의와 관계된 기반시설은 년차를 달리 하면서 도입이 되었는데, 특히 난방과 취사의 주요한 것이 연료로 1955년을 전기로 하여 나무를 주로 이용하던 것이 연탄으로 대체가 되었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에너지정책의 대변환을 이루게 되면서 점차 사양화 되었다.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는 곳은 있다. 현재 가격은 3.65kg 한 장에 800원이다.

교통 또한 불편해 인적이 드문 곳이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근대화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이촌향도(離村向都)는 어디나 비슷하였으며 공동화(空洞化)와 고령화는 이제 감출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다소의 인구 유입으로 다세대, 다가구 붐이 이는 것도 사실이다. 낡은 건물외벽이 다양하게 채색이 되고 저마다의 개성과 맛을 자랑하는 점포가 늘기 시작했다.

동부와 서부를 왕래하려면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능원리 시가지는 오포읍 능평리 시가지와 붙어 있으며 읍사무소는 동부의 갈담리에 있다. 교통편으로는 공영버스 14-3번과 60번 버스가 모현의 동서를 연결해 주고 있다. 능원리에서 읍사무소가 있는 갈담리를 가려면 14-3번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따라서 생활권도 나뉘게 된다. 여기에서 도시 간 연결을 통한 도시 연담화(連擔化)가 생겨난다. 갈담리 왕산리는 포곡 쪽 또는 광주(경안)와 붙어 있고, 능원리는 광주 오포읍과 붙어 있어 같은 생활권이며, 나아가 성남시 분당과 생활권이 연결되어 있으며 수지와 죽전도 동일한 생활권으로 짙이게 된다. 43번국도(포은대로)가 모현의 북서부를 지나간다. 서쪽으로 수지, 수원, 화성 방면으로 이어지며 57번 지방도가 능원교차로에서 초부리 일대로 연결될 예정이다.

동부와 서부의 중간쯤에 매산리가 있는데 여기에 모현초등학교가 있으며 옆 일산리

에 모현중학교가 있다. 능원리57번지에 유일한 교육기관인 능원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1944년 개교 이래 1983년 병설유치원을 개원하였다.

2020년 3월2일 기준 35개 학급에 932명의 학생이 면학에 힘쓰고 있으며, 유치원은 1개 학급에 16명이 있다. 병원도 오포와 이웃한 곳에 고려정형외과가 있을 뿐이다. 주변에 예식장이 없어 결혼식은 집이나 교회에서 하였고, 장례식은 인근의 오포장례식장이나 대지고개에 위치한 실낙원을 이용하고 있다. 문화생활의 한축으로 영화 한편을 보려면 수원이나 성남 쪽으로 가야만 한다. 취업은 인근의 사업장을 위주로 하며 학교는 초등학교 뿐이라 그런지 서점이 없다. 미장원은 세 군데가 있으며 이발소는 능골 삼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택지개발로는 레이크사이드 정문 앞으로 200에서 300세대의 전원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실상 능원리는 도회와 향촌의 장극(牆隙)을 보는 듯한 거리는 아니지만 서툰 눈으로 바라보기엔 다소 결핍(缺乏)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결핍은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기도 한다. 결핍은 절실함을 낳고 절실함은 금기의 장벽을 넘는다고 한다. 자극이 기회가 된다는 말이다. 극명한 것은 길은 있다는 것이다. 도시화, 산업화의 발전전략이 유일한 길인 것처럼 국가의 기획에 무력하게 동참하고 때로는 강요당하고 설득당하며 달려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거기에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표출해 본 집단은 없는 게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땅을 밟고 살아온 능원리 모든 사람의 생활사가 생생한 역사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고려정형외과(병원)



오산천변 밭2

1) 농업

이식위천(以食爲天: 사람은 먹는 것이 하늘이다)은 명제(命題)이다. 그리고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은 이제 입에 담기에 낫 뜨거운 말이다.

우리나라 농민은 역사적 과정에 걸쳐 너무 가난하게 살아왔다. 각종 문헌에서도 지적하듯이 농민의 처참한 생존의 연속과는 달리 지배층은 부의 대물림으로 살았다. 그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더 가혹한 수탈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야말로 땀이 조롱을 받는 나날이었다. 그 지속의 시간은 해방전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얼마나 고된 노동이었을까? 1946년 채만식의 단편 ‘논 이야기’는 광복이 되자 일제의 의해 잃어버린 삶의 터전인 논을 되찾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진 농부가 좌절하는 과정을 통해 광복 후의 모순적인 현실을 풍자적으로 그렸다. 시대상을 조명한 작품이다.



오산천변 밭2

광복은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으로 막중한 현실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해방전후에 농업인은 전 국민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농업 국가였다. 사람은 자연 없이는 살 수 없다. 오염되지 않은 농산물을 먹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보도에 의하면 식량자급률은 낮아 (2019년 기준 45.2%, 가축사료를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1.7%) 우리나라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농법의 변혁이 없이 농업생

산력이 발전될 수 없었다. 재생산의 반복만 거듭된다. 통계자료를 보면 용인시 농업인구는 전체인구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용인의 외적인 몸피는 늘어났어도 실질적인 내실은 찾기 힘들다. 농업 인구가 늘어나고 농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올해 벼농사는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으로 쪽정리와 부실한 낱알로 소출도 줄고 미질 또한 떨어진다.

구릉지로 형성된 이곳 능원리에서는 농사를 짓기에 조건이 썩 좋은 곳은 아니었다. 전형적인 자연부락을 형성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하기에 이르렀고, 산촌마을이면 보통 화전(火田)도 일구어 감자, 콩, 옥수수 등을 재배하게 된다.

산으로 둘러싸여 아늑하긴 하지만 일조량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그러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고단함을 달래 주었을 것이다. 가뭄이 들거나 물난리가 나도 땅의 정직함을 믿고 묵묵히 견뎠을 것이며 자연의 섭리를 잘 알기에 가난의 아픔도 나누어 순박하게 살았을 것이다. 살림이 어려워도 길손에게는 한술 밥을 마다하지 않고 대접하며 정을 나눴을 것이다.

능원리의 농가는 많지 않으나 5리 마을에 5.60대가 농사를 짓는 곳이 다소 있다. 하천부지의 텃밭에 밭농사가 있으며 예전에는 소규모의 목화재배도 있었다고 한다. 오산천변을 지나다보니 들깨 밭이 눈에 띄는데 실해 보이지는 않는다. 오랜 장마와 가로동 불빛 때문에 그런가 보다. 70년대를 전후로 소를 많이 키워 축력의 바탕이 되기도 했고, 그렇게 키운 소는 소장수의 흥정을 통한 후 광주도축장이나 모란 방면으로 길을 터놓아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 경안우시장은 일제강점기 초반에도 컸으나 6.25이후 1960년대 송정리하천 주변으로 옮겨 주변에 도축장도 생기고 육류 소비가 늘면서 가까운 능원리에서도 소를 많이 키우게 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모현과 이웃하여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광주(廣州:경안)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경안천은 용인시에서 광주시로 흘러 퇴촌면과 팔당호로 연결된다. 이곳에서는 씨를 뿌리고 김만 매었다가 결실이 되면 거두어들이는 농업이 오랫동안 답습되었다. 해마다 농사를 짓는 밭을 숙전(熟田)이라고 한다. 숙전이 없으면 화전을 일구어 살아야 했다. 땅은 삶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현대에 와서 수리시설이 설치되어 전천후 농업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능원리는 오산천 보(淤)이외의 별도의 수리시설은 없으며 능원리에서 발원해 오산천으로 흐르는 지방하천인 능원천이 있다. 임야가 많으면 경지는 적은 게 당연하다. 이곳의 주요작물은 타지방과 별 격차는 없다. 쌀 이외의 밭작물로 배추,무,오이,호박,수박,마늘,파,시금치등이 있으며, 특용작물로는 인삼이 있었다. 60년 후반부터 인삼(용삼:龍蔘)을 재배하였다는 고(故) 정운영조합장의 회고도 있었지만 근래

에는 삼포(蔘圃) 보기가 어렵다.

인삼은 사실상 연작(連作)이 불가능하고, 도시화 되는 과정에서는 경지면적도 줄어들면서 생산량이 미미하게 되었으니 당연한 결과로 보여 진다.

서류(薯類)라면 감자며 고구마요, 두류(豆類)라면 콩이나 팥이다. 모현의 시설채소는 꽤나 정평이 나 있지만 부근 매산리나 일산리에 다소 있고 능원리에는 없다. 올해 중부지방의 장마는 6월24일 시작으로 8월16일까지 54일을 이어 왔다. 보도에 의하면 1973년 이후 가장 길었다고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6월은 가장 더운 6월로 초기부터 폭염으로 한 달 동안 이어지면서 최고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다. 모현에서도 누적 강수량이 410mm가 넘었으며, 시설하우스와 토사유출, 우수관 역류, 담장파손, 축대붕괴, 건물지하 침수 등 피해 규모도 엄청났다. 경작지 침수와 흐린 날씨는 생육에도 부진을 면치 못해 배추농사가 엉망이 되었고 고추농사 역시 마찬가지로 되었다. 배추의 경우는 추석 후 고랭지 배추와 10월 중순부터 가을배추가 풀리면 다소 안정이 되겠지만, 고추농사는 탄저병에 곰팡이가 핀 고추가 늘어 수확량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이다. 건 고추는 따고 말려야 하기에 다른 채소보다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다. 더군다나 수확기가 한여름이라 노령층이 많은 농촌에서는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한다.

아침에 일어나 천기(天氣)를 살펴가며 고된 농사도 당연하게 여기며 우리의 조상은 그렇게 살아갔을 것이다. 수출 주도의 산업화를 본격화한 ‘개발주의 농업 체제’ 시기 박정희 정부는 경시해온 농촌과 농민을 근대화과 산업화의 일원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으로 근면, 자조, 협동의 3대 정신을 강조한 ‘새마을 운동’과 ‘녹색 혁명’을 내세운다. 평가는 어찌되었든 새마을운동이 한국농촌의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농업 구조의 실질적인 개선과는 다소의 거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녹색혁명’이라는 쌀 자급의 문제도 그렇다. 소비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상황에서 다수확 품종의 통일벼와 유신벼 등을 개발해 보급했다. 그리고 추곡

수매제도를 활용해 1970년대 중반 농가소득은 잠깐이지만 증가했다. 그러나 행정체계의 부담이 크고 밥맛이 없다는 소비자의 외면으로 오래가지는 못했다.

산업화로 농촌이 붕괴되는 속에서도 능원리는 작은 마을로 곳곳이 남아 있지만 오랜 세월이 걸쳐 길러온 복원력도 어느 정도까지는 견디지만 한도를 넘으면 잊혀진 반격이 다가오게 된다. 모두가 나서야 미래는 달라지고 방향성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례가 바로 고령화이다. 2019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농가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6.6%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그리고 저소득 문제도 대두된다. 효율과 경쟁력이나 제대로 된 인간다운 삶을 찾을 것이냐가 근본 문제이다. 우여곡절의 시련 끝에 수확을 끝낸 들녘에는 참깨나 콩태를 묶은 ‘깍짓동’은 밭머리에 자리를 틀고, 논배미에는 벼짚을 말아놓은 ‘곤포(楸包)’가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 휴식을 담아내고 있다. ‘팔도에 술 걸어 놓았다.’는 속담은 어디가도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을 놀림조로 하는 소리다. 이제는 힘들다. 거역하기 어려운 현실임에 틀림없다.

2) 공업

해방직후의 공업은 미군정의 구체적 준비 없이 그저 현상유지를 위한 잠정조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게 학계의 지적이며, 한국경제의 방향설정 부서가 난맥상을 보여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1972년 기초로 부지17만평의 용인의 산업화의 초석을 다진 포곡 삼계리 경방이 있었다. 주변 주민들의 고용확대와 소득창출의 한 축을 담당했었다. 이후에 많은 제조업체가 들어서게 된다. 용인의 제조업체는 2,000여개소를 넘는다. 그 중 능원리의 공장은 현재 10개소 미만으로, 대개 창고형 공장의 형태로 다소 소규모의 형태이다. 종목은 육류가공품과 커피가공, 기계제조, 조명장치, 식탁의자, 자동차범퍼, 안마기기, 유선통신 장비와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 등이다.

공장의 성장은 고용인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이루게 된다.



모현농협

3) 상업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등이 없이 능원리의 유일한 금융기관이 농협이다. 2018년 모현의 숙원사업이던 모현농협 능원지점을 준공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6월7일 능원리 14에서 능원지점 및 하나로마트 개장식을 가졌다. 1층에는 하나로마트 2층에는 신용점포를 갖췄다. 그리고 읍사무소와 협력해 각종 행정서류를 발급하는 무인기도 설치되어 있다. 또한 각종 농자재를 갖춘 경제부 창고도 별도로 운용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게 되어있기도 하다. 하나로마트에는 농수축산물과 생필품을 구비하고, 로컬푸드의 직매장도 갖추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추석을 맞아 현관 앞에서 별도의 직매장 행사도 겸하고 있다. 이전에 시장이용은 가까운 풍덕천이나 분당에 조그만 시장을 이용하고 모란은 멀어서 그리 용이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우마차를 이용했다면 다들 힘이 들었을 것이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외식업의 매출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가정 내에서 가족과의 식사 횟수가 증가하면서 인근 소매업체의 식재료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이 보도 되었다. 배달이나 테이



농골 교차로

크아웃의 증가 경향도 아울러 보고되어 있다. 능원리 43번 국도변으로 늘어난 상점은 이제 맛집과 유명세를 더하면서 고객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며 오폭과 더불어 상승세를 유지하게 된다. 이곳에 중심상권이 밀집되어 있다. 또한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입구와 주변으로 고급식당과 요즘 유행하는 퓨전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이 있어 점심 코스요리로 22,000원에서 33,000원대의 식단이 준비되어 맛 객을 유혹한다.

소위 라운딩이라고 표현하는 ‘골프코스돌기’ 후에는 대개 육식을 선두로 한 단백질 위주의 식사메뉴가 주류를 이룬다. 능원리라는 마을에서는 이곳은 별세계(別世界)라 부를 만 하다.

보통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지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학교, 학원, 마트, 식당 등이 위치한 곳이기 마련이다. 현재 2억대의 신축빌라는 거의 남은 게 없는 형편이고, 단독주택과 전원주택이 잔존하고 있다. 투자와 대출의 현실의 부딪힘이 맞서게 된다. 전원생활을 만끽하면서 자가용으로 도심권의 쇼핑과 생활권을 동시에 갖고 싶은 사람에게서는 유혹의 장이 될 것이다. 능원리의 전원주택은 2.3층의 테라스 구조로 층고가 높고 병커형 주차장에 리모콘 자동셔터와 잔디밭 테라스뷰가 기본이다. 부엌은 인덕션에 요리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식기세척기와 에어컨이 대부분 빌트인 방식으로 되어있다. 이



농골삼거리

렇게 최적의 주택지임을 강조하면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대개 대지면적은 80-100평 정도에 건물은 60평 정도이다. 요즘이야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지만, 43번 국도를 이용하여 죽전과 수원 57번 국도와 교차점으로 에버랜드와 광주로의 연결도 가능하다. 따라서 주변의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분당서울대병원등 근린시설이 가깝다. 그리고 레이크사이드cc앞 마을버스 57-2번은 보정역까지 이어진다. 변화한 도심지가 전부 아니라는 말은 되새겨 볼 말이다. 시골 후미진 곳을 볼 줄 알아야 제대로 본다는 말이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말이다. 시장경제가 지속되는 한 땅은 영원히 수요1순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용인지역 깊숙이 숨겨진 듯한 능원리는 이미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낙점을 받은 지 오래이다. 마을 주민의 생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는 않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 할 수 없는 지경이다. 보도에 의하면, 용인시는 지역경제의 주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용 자원과 아이디어를 모으는데 총력을 쏟았다고 밝혔다. 골목상권을 지키는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의 역할이 컸다고 말한다. 5월까지 약708억 원이 와이페이를 통해 지역상권에 쓰였다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긍정적 후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근거 없는 비관이나 낙관은 모두를 어렵

게 할 뿐이다. 그래서 '경제는 심리다' 하는 말은 되새겨 볼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용인지역에서 차별하고 목가적인 풍경을 가진 마을은 이제는 흔치않다. 그중에 능원리는 휴식을 취하고 내일을 향한 도약을 준비하기에 최적의 장소임엔 틀림없다.

- 임산물

능원리의 산간에서 자생하는 약용식물은 직접적으로 파악되진 못하고 있지만 산나물은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을 주변으로는 두릅이나 약간의 더덕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산나물로는 대략 도라지, 고사리, 취나물과 약간의 송이로 꼽아 볼 수 있다. 또한 산지가 많아 밤, 도토리, 은행, 대추, 호두, 표고버섯의 생산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비중은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산나물 채취가 가능한 기간이면 몰려드는 전문꾼들이 거덜을 내버리기 일쑤이며 민폐나 끼치지 않으면 다행이다. 보도에 의하면 용인시산림조합에서는 지난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말 목표로 '산림문화복합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들의 체험교육과 산림 문화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공략해 보겠다고 하며, 센터는 임산물직매장과 숲 카페, 흙놀이체험관, 목재문화체험관 등으로 꾸며진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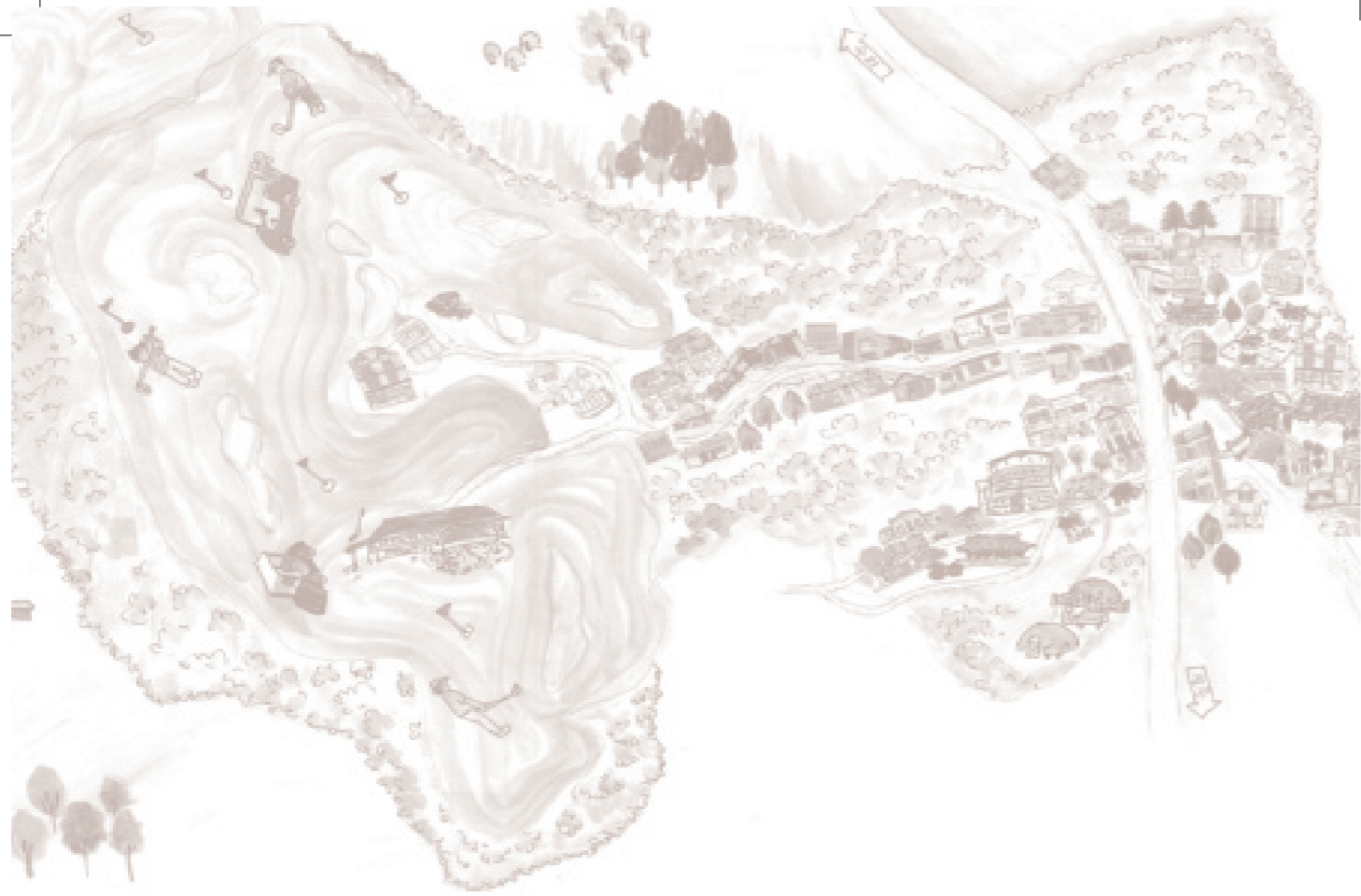
4) 서비스업

재화를 생산하지 않으나 그것을 운반, 배급, 판매하거나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동을 제공한다는 것이 사전적 의미이다. 실상으로 보면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공생하여야 하는 게 현실적이다. 대표적인 골프의 예를 들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골프는 영친왕으로부터 시작한다. 성동구 군자동 지금의 어린이대공원 땅을 18홀 경기장으로 만들게 하여 1929년 개장했다. 같은 해 경성 골프구락부가 생겨났고, 이때부터 골프의 시대가 열린다.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골프장을 찾는 사람이 급증하였다는 보도를 접한다. 거래 규모는 작년 연간 거래량을 이미 뛰어넘었다고 한다. 이제는 회원제가 아

니라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을 위주로 거래되고 있으며, 회원제 골프장도 대중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대중제는 세제감면 혜택이 있기에 따르고 있을 뿐이다. 중소기업 신입사원도 골프를 우선시 하는 세태이긴 하다. 용인은 30여 개소의 골프장이 산재해 있다. 수도권과 인접해 있음은 물론 경부와 영동고속도로가 지나는 곳이어서 교통망과 접근성 역시 좋다. 그 중 동양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골프장, 레이크사이드클럽이 이곳 능원리에 위치해 있다. 400만㎡가 넘는 부지에 54홀 규모의 골프장이다. 경영권과 매각문제로 말이 많았지만 결국은 삼성에서 인수하였다. 올해 집중호우로 8월 중에는 산사태로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였지만 다행히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이다. 골프장에서 필요한 물은 생활용수와 관개용수로 나뉜다. 생활용수는 골프장 방문객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물이다.

이는 상수도로 해결이 된다. 문제는 관개용수이다. 골프장내 잔디와 수목의 원활한 성장을 위한 용수로 사용되는 것으로 골프장 운영에 중요한 요소이다. 잔디가 말라 죽지 않게 하기위해 안정적인 관개용수 확보가 절대적 요소이다. 그래서 갈수기를 대비한 저류지가 골프장에는 존재한다. 요즘은 지하수 개발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인근지역에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른다. 다들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거쳤다고 하겠지만 골프장 농약과 더불어 숙제로 남아있다.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된 다하여 잠시 눈을 감았던 실수는 없었는지 살펴 볼 일이다. 산등성으로 에버랜드와도 연결이 되어있고, 레이크사이드 내 유희부지도 상당히 향후 두 곳을 연계한 다양한 개발이 예상되고 있다. 삼성의 사업 확장은 다방면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게 주변 부동산 업자의 전망이기도 하다. 이른바 삼성 레저 클러스터 구상이 그 가능성의 출발이다. 기획 부동산이 한때 설치기도 했다. 삼성이란 네임밸류(name value)가 거품을 유도 했을 수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기업에 대한 기대심리는 그만큼의 낙하(落下)를 맛 봐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남기주



2.

능원리 생활·민속·놀이

1. 능원리 의생활과 일생의례 _김지현
2. 능원리 민간신앙과 세시풍속 _김지현
3. 능원리 종교와 교육 _김지혜, 송우경
4. 능원리 구비전승 _김정희

1. 능원리 의생활과 일생의례

1) 의생활

과거 195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능원리 주민들은 자신의 발 한켠에 목화를 심었다. 만개한 목화송이를 따 씨를 제거한 후 솜만 골라내어 이불을 만들거나 실로 자아 면직물을 만들어 가족들의 옷을 해 입혔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교복이나 양복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에서 주부가 직접 옷을 지어 가족들에게 입혔다. 뿐만 아니라 옷감에 물을 들이는 염색 역시 시장에서 재료를 구입하여 직접 집에서 물을 들였다.

능원리에서는 잠업이 성행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비단옷감은 시장에서 구입하여 제작하여 입었고 집에서 생산해 낸 면 소재의 옷감을 사용하여 옷과 속옷류를 만들어 입었다. 인륜지대사라 할 수 있는 생애 중요한 날들에 입는 옷들은 주로 시장에서 옷감만 구입하여 옷을 지어 입었다.

이 당시 남성들은 바지에 셔츠를 많이 입었으며, 미혼 여성들은 원피스 정장 차림을 선호하였다. 기혼 여성들도 양장을 하였으나 집안의 중요한 행사나 외출 시에는 개량된 한복 차림의 옷을 주로 입었다.

1960년대 이후부터 공장제 옷들이 나오면서 능원리 주민들도 시장에서 옷을 구입해 입기 시작했다. 이 당시 성행한 나일론 재질의 옷들은 기존의 내구성이 떨어지는 면 소재의 옷을 보완하여 대다수 주민들이 이 시기부터 시장에서 옷을 사 입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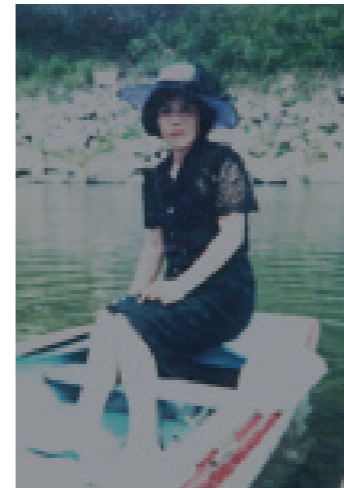


경제적 형편이 있는 사람들은 양장점에서 옷을 맞춰 입기 시작했다. 능원 2리의 최송림씨는 능원리로 시집을 오기 전 처녀시절에 성남에서 살았다. 이 당시부터 옷을 양장점에서 맞춰 입었다. 때문에 시집을 올 때도 한복은 한복집에서 초록색 저고리에 붉은 치마로 맞추어 입었고, 그에 더해 시부모님께서 양장에 입을 수 있는 검은색 무릎까지 오는 모직 코트를 한 벌 더 해 주셨다. 그 당시 모직코트 가격이 비싸 몇 십 만원 가량을 지불했다고 한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마을 부녀자들의 작업복은 몸빼바지였다. 농사일이나 집안일을 할 때에도 편하게 입을 수 있었던 몸빼바지를 선호한 탓에 시집을 때에도 일상복으로 몸빼바지를 해 왔다고 한다. 반면, 월남치마는 마을과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할 때 주로 입었으며, 이 당시에도 개량된 한복을 입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어른들 옷은 맞춰 입는 반면, 아이들 옷은 모두 시장에서 구입하여 입었다.

최송림씨가 시집 올 당시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각 가정에서는 우물물을 이용하여 빨래를 하거나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기도 하였다. 대다수의 가정에서는 우물을 파 가정에서 빨래를 하였다. 이 때 직접 만든 비누를 사용하였다. 비누는 사용한 기름에 양젓물을 부어 섞은 후 틀에 부어 모양을 잡은 뒤 며칠 굳혀 사용하였다. 비록 쉽게



최송림씨가 양장점에서 맞춰 입은 옷을 입고 찍은 사진

무르기는 하지만 때가 쉽게 잘 지워져 지금도 직접 만든 비누를 사용한다. 비누는 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후 1980년도 이후에 전기가 공급되면서 능원리 각 가정에도 세탁기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옷감을 세탁기에 돌리기 전에 손빨래로 한 번 세탁을 한 후에 세탁기에 넣어 재차 세탁하였다.

능원리에서 멋쟁이로 소문난 최송림 씨는 옷 잘 입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그녀는 성남에 있는 모란장을 다니며 단골 양장점에서 원피스, 투피스를 비롯하여 그와 어울리는 모자와 스카프 등 소품일체를 맞추어 입었다. 그녀는 집안일뿐만 아니라 마을일도 맡아 보았던 탓에 바깥 외출이 잦았다. 그럴 때 마다 맞춤형 옷을 입고 외출하면 주변의 시선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웃들 중에서는 중요한 자리에 가야 하는데 마땅한 옷이 없을 때 최송림 씨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흔쾌히 자신의 옷을 빌려주었다고 한다.

2) 출산

능원리 주민들은 혼인 후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으면 본인이나 시어머니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인근 마을의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며 마을 공동의 대상에게 비는 경우가 많았다. 태몽은 임신부 자신이 꾸기도 하지만 가족이나 친

척 중에 대신 꾸는 경우도 있다,

또 태몽은 태어날 자녀의 특징이나 미래의 모습을 암시하기도 한다. 유백규씨는 아들을 낳을 때 태몽으로 은행을 줌을 꾸었다. 그런데 은행을 담아 놓은 광주리에 흰 목화솜이 덮여있었다. 이 때 주운 은행을 친척이 자꾸 달라고 했는데 주지않고 친척이 가기만을 기다리다가 몰래 집으로 은행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 태몽에서 은행을 면화 솜이로 덮어나서 그런지, 후에 태어난 아들의 귀가 청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유백규씨는 막내아들을 출산할 때에는 붉게 익은 대추를 잔뜩 따오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태몽을 통한 태아의 성별구분 외에 임신부의 불러오는 배 모양을 보고 아들이나 딸을 점치기도 한다. 임신부의 배가 앞으로 툭 튀어 나온 모양이면 딸을 낳으며, 옆으로 둥글게 퍼진 모양이면 아들을 낳는다고 여긴다. 또한 임신부의 배꼽 모양이 파리처럼 둥글고 불렁하면 아들이고, 앞으로 튀어나오면 딸을 낳는다고 여겼다, 이밖에도 아이의 태동을 보고도 성별을 예측하기도 한다. 아이가 임신부의 배 옆쪽에서 놀거나 엄마의 배를 찰 때 바깥쪽을 주로차면 아들이고, 심장을 주로 차면 딸이다.

또 태아를 위해 음식을 가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음식물의 특정 형태가 태아에게 전달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를 낳을 산달에는 더욱 조심했다. 예를 들어 ‘닭 껍질을 먹으면 아이의 피부가 닭살이 된다.’거나 ‘오리고기를 먹으면 아이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오리발처럼 된다.’ 혹은, ‘토끼고기를 먹으면 눈이 토끼의 눈처럼 붉어진다.’, ‘달같은 종기의 원인이 되므로 먹지 않는다’ 등이 있다. 그러나 대체로 마을 여성들은 먹을 것이 귀했던 시기를 지나오면서 이 당시 임신을 하여도 음식을 가려 먹지는 않았다고 한다.

산모의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면 출산을 하는데 필요한 옷가지나 제반사항을 준비한다. 첫아이 출산은 친정에서 하기도 하지만 친정이 멀 경우 산모의 집이나 시댁에서 출산을 한다. 친정에서 출산을 할 경우 빠르면 삼칠일에서 늦으면 한 달 정도 머무르며 몸을 회복한 뒤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집에서는 특히나 바쁜 농사철에는 시부모의 눈치가 보며 집에서 해산을 하거나 아이를 낳고 바

로 일을 하기도 하였다.

출산을 한 후 아이에게 입힐 배냇저고리와 아이를 감쌀 포대기, 출산 시 필요한 가위나 솜, 출산할 때 입을 옷가지 등을 미리 준비한다. 첫 아이의 배냇저고리와 포대기는 친정에서 준비해 준다. 둘째부터는 산모가 직접 준비하거나 시어머니가 대신 준비해 주기도 했다.

출산은 산모가 주로 거주하는 방에서 이루어졌다. 만약 동서와 함께 같은 달에 출산을 할 경우 아랫동서를 친정에 보내거나 사랑방에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산모가 출산할 날이 가까워지면 산모의 방에 지푸라기나 창호지 등 아이를 낳을 때 바닥에 깔 용도의 물품을 미리 방에 배치해 둔다. 이는 언제 아이가 나올지 모르는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산모가 진통을 느끼면 미리 준비해 둔 지푸라기나 창호지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산모를 눕힌다. 마을에는 별도로 산파가 없어 시어머니 혹은 인근 이웃 여자 어른에게 산파 역할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첫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경험이 없는 탓에 산파를 불렀으나, 둘째 아이부터는 산모 혼자서 아이를 낳거나 남편과 함께 아이를 낳았다.

아이가 나오면 탯줄을 잘라 주는데, 탯줄은 뽕족한 것으로 자르는데, 대부분 가위로 잘랐다. 가위는 뜨거운 물에 담가 소독을 한 후에 사용하였다. 아들이 귀한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탯줄을 자르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남편이 탯줄을 잘랐다. 이렇게 탯줄을 자르는 것을 마을 주민들은 ‘삼 가르다’고 한다.

자른 탯줄과 태반,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바닥에 깔았던 지푸라기 등은 주로 손이 없는 날이나 깨끗한 날을 정해 깨끗한 곳에서 왕겨나 참숯, 장작 등을 이용하여 태웠다. 더럽고 부정확한 곳에서 이들을 태우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이 미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 타고 남은 것은 맑은 시냇물에 흘려보내거나 산에 묻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시부모나 친정에서 보내준 미역을 이용하여 미역국을 끓여 먹는다. 첫 아이일 경우 시부모나 가까운 친척이 끓여주나 둘째 아이 부터는 산모가 직접 끓여 먹었다. 산모가 처음으로 먹는 미역국은 아이 머리맡에 상을 차려 잠시 올려 두었다가

삼신에게 치성을 드린 후 먹었다. 시어머니나 집안의 여자 어른이 계시는 경우에는 시어머니나 시할머니가 비손을 하였지만,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집안에서는 비손 없이 잠시 상을 차려 둔 후 바로 산모가 먹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정한 사람들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금줄을 친다. 금줄은 깨끗한 지푸라기를 이용하여 만드는데, 집안의 남자 어른이 맡아서 한다. 태어난 아이가 남자일 경우 솔가지와 고추를 넣고, 여자아이면 솔가지와 숯을 꽂아둔다. 이렇게 만든 금줄은 대문 지붕 밑에 대개 21일 동안 걸어 둔다. 이후에는 금줄을 거두어 손 없는 곳에서 깨끗하게 태운다.

농사를 짓는 집에서 농사철에 아이를 낳을 경우 산모가 몸조리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나,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제보자들은 시어머니가 몸조리를 하라고 하여도 눈치가 보여 삼칠일을 채 채우기도 전에 일을 하러 나갔다. 특히 둘째 아이 부터는 미역국을 끓여 먹고 그 이튿날 일을 나가기도 하였다.

3) 혼례

인륜지 대사인 혼례는 대체로 누군가의 소개로 시작된다. 대개 양쪽 집안을 모두 아는 사람을 통해 중매가 이루어지는데, 거의 친인척들이 중매를 한다. 혼담은 가까운 용인이나, 광주, 수원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혼담이 오고가는 남녀의 연령은 대체로 남자 18세~ 22세 전후이며, 여자는 18세 전후이다. 한 여성은 18살에 외할아버지의 중매로 능원1리로 시집을 오게 됐는데, 양반 집안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외손녀를 이곳으로 시집보냈다. 외할아버지는 신랑될 사람의 사진 1장을 들고 집으로 찾아가 사진을 보여줬고 여성의 아버지는 외할아버지의 말대로 맞선도 보지 않은 채 혼인을 결정했다.

1960년대 이후부터 양가의 혼사가 오고 간 후에 맞선을 보기는 했으나 당사자인 신랑 신부의 의견보다 양가의 합의가 더 중요했다. 중매로 혼사가 이루어지면 중매를 선 사람에게 반드시 답례를 했다.

서로 혼인의사를 확인 한 후에는 본격적인 혼례 절차에 들어간다. 제일 먼저 납채를 보낸다. 납채는 신랑집에서 신붓집으로 편지와 함께 신랑의 이름과 사주를 보내는 것이다. 사주는 파란색과 붉은색으로 된 겹보자기에 싸서 청실홍실로 동심결을 맨다. 이는 한 번에 풀릴 수 있는 매듭으로 남녀와 화합을 상징하는 매듭이다. 이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는 혼서지와 여성의 패물을 함께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주를 전할 때에도 마을에서 아들을 많이 낳고 내외간에 정이 깊으며 복이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신부집에서 사주를 받을 때에는 신부집안의 가장이나 제일 어른이 나와 정화수를 올리고 상에 받는다. 신랑의 사주는 버리지 않고 옷장에 잘 보관한다.

능원리의 장옥순씨는 부모님이 외출하신 사이 집에 사주가 왔다고 한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가만히 있자 사주를 전달하는 사람이 정화수라도 떠 놓고 받아야 한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 이후에 알고 보니 양가 부모님들 간에 혼사가 오고 간 뒤에 신랑 사주가 온 것이다. 사주를 받으면 꼭 혼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옥순씨는 속상해서 며칠을 울었다고 한다. 또 다른 여성은 사주로 버선본을 뜨면 아들 딸 낳고 잘 산다고 해서 나중에 버선본을 떼었다고 한다. 이렇게 버선본을 만들면 오랫동안 두고 쓸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사주를 받은 뒤 날을 정하는 것은 신붓집에서 한다. 신랑과 신부의 생기복덕에 맞는 좋은 날을 정하여 신랑집에 알린다. 간혹 급하게 혼례를 치러야 할 경우, 혹은 신부의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을 경우 신랑쪽에서 날을 정해 신붓집에 알리기도 한다.

신랑은 혼례식 당일 아침에 되면 의관을 정제하고 집안의 어른에게 인사를 올린다. 사당이 있는 종가의 경우 사당에 제물을 올리고 사당 차례를 올리고 신붓집으로 간다. 종가와 가까운 친척들도 사당에 찾아가 혼인 사실을 고하고 신붓집으로 간다.

1950년대 이후 혼인한 사람들은 마을에서 버스나 트럭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신

붓집으로 갔다.

신랑은 가마꾼과 함진아비, 짐꾼, 우휴(후행손님)가 같이 초행에 오른다. 후행손님은 대개 작은아버지나 작은 할아버지 또는 삼촌 중에서 한 분이 한다. 신랑 일행이 신부네 동네에 도착하면 가마를 타고 사처방에 머문다, 사처방은 마을에 도착한 신랑이 대례 전에 옷을 갈아입거나 요기를 하며 머무르는 장소로, 주로 신부의 친척집 중에서 신부집과 가까운 곳에 정한다. 가마꾼을 비롯한 일꾼들은 별도의 방을 주고, 후행손님과 신랑은 사랑채에서 기다린다. 신부쪽에서는 집안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신랑 일행과 함께 머물면서 대접한다. 시간이 되면 가마를 타고 신부 집으로 간다.

함은 혼례식 전날이나 당일에 보낸다. 함은 빨간색과 파란 색의 겹보자기로 싸고 그 겹에 또 보자기로 싸서 양쪽에 끈을 감아 멘다. 이 끈은 흰색 소청을 사용하는데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기저귀로 사용한다. 함진아비는 함을 짚어진 채로 벗지 않고, 신부측 사람들은 함을 풀도록 잘 대접한다. 함은 신부의 어머니가 끌어안아서 받고 찹쌀과 붉은 팥을 사용하여 만든 봉채시루떡 위에 함을 올린다. 그리고 절을 한 뒤 풀어본다.

함을 받은 여성들에 의하면 함 안에는 대체로 청색과 홍색 비단 한 벌을 기본으로 넣어준다. 부유한 집에서는 치마저고리 두 벌과 두루마기 한 벌을 비롯하여 은비녀와 은가락지 등 폐물을 넣어준다. 이밖에도 청실 홍실과 오곡을 넣은 주머니 5개, 혼서지가 들어간다.

어머니가 함을 받을 때 신부는 곱게 단장을 한다. 신부 화장은 마을에 복이 많고 고부간에 사이가 좋으며 첫째 아이로 아들을 낳은 여성이 맡아서 해 준다. 신부의 화장이 끝나면 마을에 있던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는다.

혼례 시간이 다가오면 신랑은 신부의 마을에서 준비한 사모관대를 착용하고 전안례에 사용할 목기러기를 받는다. 신랑이 사처방을 나와 초례상이 차려진 신부집으로 향하면 신부의 동네 청년들이 신랑에게 재꾸러미를 던진다.

신랑이 초례청에 들어서면 목기러기를 신부 어머니에게 전달한다. 신부 어머니는 치마로 목기러기를 받아 신부가 있는 방으로 들어서서 신부에게 목기러기를 전달한다.

목기러기를 받은 신부는 초례청으로 나가 혼례를 치른다.

신랑과 신부는 술가지가 꽂혀 있는 병, 삼색과일, 용떡, 팔과 쌀 각각 한 사발씩 놓여 있는 초례상 좌우에 선다. 신랑과 신부는 마을의 덕망있는 남자 어른의 주례 하에 서로에게 절을 하고 표주박에 술을 담아 3번 교환한다. 이렇게 교배례 합근례까지 끝이 나면, 신랑과 신부는 안방으로 들어간다.

결혼식을 치른 신랑과 신부는 그 날로 신랑집으로 간다. 이를 당일 우귀라고 하는데, 대다수 여성들은 인근에서 시집을 온 사람들이어서 시집 온 당일날 능원리로 왔다. 신부가 초례를 마치고 신랑집에 가는 것을 '신행 간다'라고 하는데, 이 때 신부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형제나 당숙, 할아버지 등이 함께 신랑신부와 함께 동행한다.

신부는 이 때 신랑집에서 쓸 생활용품들을 함께 가져간다. 광복 전후에 시집을 온 여성들은 장롱과 요강, 신부가 입을 치마 저고리, 속옷, 버선, 행주치마, 생리대 등을 준비해 왔다. 여기에 형편이 나은 경우 화장대, 이불, 방석, 세숫대야 등을 추가로 준비해 오기도 했다.

신랑집에 도착한 신부는 타고 오던 가마에서 내려 대문을 넘기 전에 짚불을 넘어갔다. 가마를 타고 오는 도중에 따라붙은 액을 물리치기 위해서다. 또, 가마에 내려서는 바가지로 힘껏 밟아 깨거나, 숟가락 한 움큼을 쟁반에 던지게 한다. 이 역시도 액을 물리치는 행위의 일종이다.

신랑과 신부는 사당이 있으면 사당에 먼저 대례를 치르고 신행을 왔음을 고한다. 만약 사당이 없을 경우 약식으로 제사를 지낸다. 이후에 신부와 함께 온 손님들에게 음식을 차려 대접한다. 신부는 먹지는 않고 먹는 시늉만 한다. 신부가 남긴 음식들은 신부의 후행이 돌아갈 때 모두 싸서 친정집으로 보낸다.

신부가 도착한 후에는 신랑의 부모와 친척에게 인사를 하는 폐백을 드린다. 보통 신부가 도착한 당일에 행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신랑집에 온 이튿날 하기도 한다. 폐백의 순서는 부모-조부모 순으로 올린다. 음식은 닭, 술, 대추, 밤 등을 올린다. 밤과 대추는 자손을 의미하여 신랑의 부모만 신부의 치마폭에 던질 수 있었다.

신부는 시집을 온 다음날 아침부터 아침 저녁으로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린다. 이는 시부모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 까지 행한다. 또한, 신랑 친척집을 다니면서 인사를 드리며 얼굴을 익힌다.

신붓집에서 혼례를 치른 후 당일에 신랑집으로 가는 경우에는 사흘째 되는 날에 재행을 간다. 이것을 '재양간다' 혹은 ;재행간다'라고 한다. 이는 신랑이 시댁에서의 의례를 잘 마쳤음을 신붓집에 알리는 것으로, 과거에는 신랑만 갔으나 신부도 함께 다녀오는 경우도 있었다.

재행을 갈 때는 떡, 엿, 술, 안주를 준비해서 간다, 이것은 신랑집에서 마련하여 신붓집으로 보내는 것으로, 신부는 재행을 마치고 신랑집으로 갈 때에는 이에 대한 답례로 음식이나 술, 고기 등을 가져간다.

4) 상례

능원리에서는 과거에 지병이나 노환 등 임종이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분이 평소 기거하던 거처의 북쪽에 머리를 두고 누울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아 굳이 생전에 기거하던 곳에서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추세다.

임종 순간에 조용히 눈을 감거나 고개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숨을 심하게 헐떡거리면서 힘들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 임종을 확인하는 방법은 코에 솜털을 대보거나 손목에 맥을 짚어 보기도 하고, 가슴에 직접 귀를 대보았다. 이때 솜털이 움직이지 않거나 맥이 없고, 가슴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 사망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손발이 차가워지고 허리가손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로 임종을 확인하였다.

임종이 확인되면 망자의 자손들은 곡을 한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임종 소식을 알린다. 만약 집에서 돌아가셔서 집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 면소재지에 있는 장의업체에 연락을 한다. 요즘에는 모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집안에 초상이 나면 장례식장이나 병원에 먼저 연락을 취한다.

과거에 집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 망자가 모신 방에는 불을 지피지 않았다. 이는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함이었다. 절명(絶命)을 확인하면 가족들은 칠성판 위에 망자를 눕히고 눈을 감긴 뒤 시신이 뒤틀리지 않도록 이불이나 끈으로 망자의 손과 발을 몸에 밀착시켜 묶어 둔다. 이를 '수세 걷는다'라고 한다. 수세 걷는 것이 끝나면 얇은 이불로 망자를 덮어 둔 뒤, 병풍을 치고 가족들은 그 앞에서 곡을 한다.

90년대 까지만 해도 집에서 장례를 치를 때, 대문 밖에 사자상을 차려 두었다, 대체로 소반에 밥과 동전 짚신 3개씩 올려 두었다. 이는 저승사자가 3인(人)이어서 3개를 올려둔다고 믿는다. 능원리에서는 사자상에 짚신 대신 고인이 생전에 신었던 신발을 올려두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는 전문화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아 마을에서도 사자상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초혼(招魂)은 망자의 속저고리를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가 망자의 본관과 이름을 외친 후 '복'을 3번 외치는 것을 말한다. 이영을 얻은 초가지붕일 경우에는 직접 지붕에 올라가 복을 외치는 경우가 더러 있었으나 80년대부터는 지붕이 아닌 마당에서 복을 외치는 집이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복을 외치는 것은 망자의 혼이 다시 육체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염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을에 초상이 났음을 알리는 현실적인 의미가 담긴 행위로 볼 수 있다.

초혼까지 마치면 상주들은 본격적으로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한다. 먼저, 집안에 걸어있던 빨랫줄은 모두 걷어두고, 여상주들은 묶었던 머리를 푼다. 남상주들은 두루마기로 갈아입고 망자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면 왼쪽 소매를, 모친상이면 오른쪽 소매를 뺀 채 두루마기를 입는다.

상주를 제외한 망자의 친척과 동네의 이장 및 청년회장들은 상주 및 상가의 일을 돕

는다. 제일 먼저 주변에 초상이 났음을 알리는 부고장을 작성한다. 호상이 부고장을 작성하면 마을 사람들과 친인척들은 전화나 우편으로 부고를 돌린다. 이 때 우편으로 부고를 받는 집에서는 부고를 마당이나 집 밖에서 받아들고 집안으로 부고를 가지고 들어오지는 않는다. 이는 상가(喪家)의 나쁜 기운이 부고를 받는 집에게 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수의는 망인의 옷으로 미리준비하면 장수한다고 믿어 미리 준비한다. 옷감은 서울의 광장시장에서 주로 구입하여 마련하였고 오래전에는 용인시장에서 구입하여 준비했다. 상이 나면 마을 부녀자들이 모여 앉아 수의를 만들었다.

수의는 윤달에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윤달에 준비해야 탈이 없고 공달이라 여겨 이 때 준비하였다. 또, 이 때 준비하면 장수한다고 믿었다. 대체로 환갑이나 칠순을 맞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역시 장수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의는 장례용품점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장례를 집이 아닌 장례식장에서 치르기 때문이다. 그 곳에서 수의 일습을 준비해 주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못했을 경우 장례식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한다.

관은 임종 후 준비한다. 능원리에서는 매장할때 탈관을 하기 때문에 좋은 관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관은 오동나무가 가장 좋으나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보통 소나무를 많이 쓴다.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는 미리 관을 준비한 뒤 관이 손상되지 않게 관리한다. 그러나 탈관을 하여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 옷칠까지 하지는 않는다. 관을 만들 때는 나무못이나 흙을 만들어 쓴다. 장지는 지관의 조언에 따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지만 선산이 없거나 갑작스런 초상일 경우에는 임종 이후에 정한다. 자식의 상을 먼저 치를 경우에는 선산의 부모의 장지를 남겨 놓은 후자리를 잡는다.

망인을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히는 것 습이라 하고, 시신을 묶고 입관하는 것을 염이라 한다. 염은 다시 소렴과 대렴으로 구분하지만, 능원리에서는 이를 크게 구분짓지 않고 '염습'한다고 한다. 염습은 망인이 세상을 떠나고 24시간 지나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부분 3일장을 지내는 까닭에 염습은 임종한 날 저녁

혹은 그 다음날 이루어진다.

염습은 대개 집안의 가까운 친척 중에서 상례 절차를 잘 아는 사람 중 한명이 했으나, 90년대에는 면의 장의사를 불러 대신했다. 염습을 할 때는 반드시 지손들이 모두 모여서 염습을 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염습이 끝나면 더 이상 망인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염습은 수시를 한 시신을 위에서부터 솜으로 덮아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쭉이나 향나무를 우린 미지근한 향물을 사용하여 몸 전체를 닦는다. 몸을 닦은 이후에는 손톱과 발톱을 잘라서 봉투나 따로 만든 주머니인 '조발랑'에 담아둔다. 망자의 머리카락도 잘라서 같이 담는다. 이렇게 손톱과 발톱을 깎아 담은 주머니는 입관 할 때 관속에 같이 넣어 둔다.

이후에는 반함을 한다. 반함은 돌아가신 분 입속에 저승에서 쓸 노잣돈과 양식을 넣어주는 것이다. 반함을 할 때에는 '천 석이요! 이천 석이요! 삼천석이요!' 혹은 '백냥이요, 천냥이요, 만냥이요'라고 외친다. 양식으로는 쌀을 넣는데 이 때 반드시 버드나무로 만든 숟가락을 사용하여 입에 넣는다.

몸을 닦고 손톱과 발톱까지 단정히 자른 후, 망자에게 수의를 입힌다. 수의는 하의부터 입힌다. 간혹 수의를 입힐 수 없는 형편이면 시집을 때 입었던 치마저고리 혹은 환갑이나 칠순에 맞춰 입은 한복으로 대신한다. 망자에 수의를 입힌 후 시신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다. 이 때 두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얇은 삼베를 이불삼아 시신을 감싼다. 그리고 삼베로 된 장포를 일곱 가닥으로 나누어 시신을 단단히 묶는다. 염습은 곡을 멈추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진행하며, 자손들을 제외한 외부인들은 볼 수 없다.

그다음으로 망자의 시신을 관에 넣는다. 관의 가운데에 시신을 넣고 양 옆으로 보공을 채우는데, 과거에는 망자가 좋아했던 옷가지나 자식들이 넣어주고 싶었던 옷을 넣었으나 현재에는 한지에 흙을 넣어 말은 것으로 대체한다. 입관 할 때에는 사주의 길흉을 가려 보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가렸다.

입관이 끝나면 관의 뚜껑을 덮고 그 위에 붉은 비단에 흰색 안료로 망자의 본관과 직

함을 적은 포(布)를 덮어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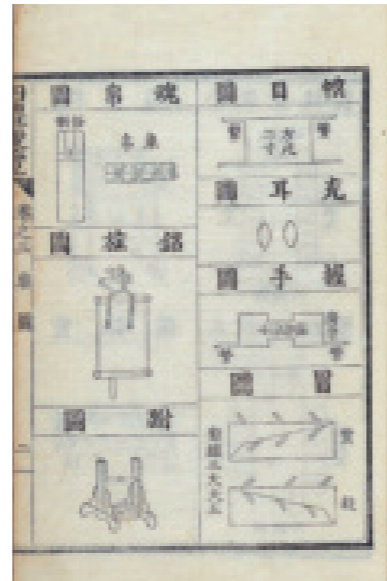
입관까지 끝나면 자손들은 빈소로 돌아와 성복제를 지낼 준비를 한다. 이 때 호상들은 혼백(魂帛)을 접는다. 요즘에는 장례식장에서도 혼백을 사용하지 않으나, 과거 90년대 말 까지만 하더라도 장례식장에서 혼백을 접어 놓는 경우가 많았다. 혼백은 한지나 명주로 접는데, 사통팔달이 되게 접는다. 혼백의 겉면에 붉은 실과 파란 실을 겹쳐 동심결 매듭을 지었다. 혼백을 접는 방법이 까다로워 아무나 접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혼백을 접고 명정과 공포등을 작성하였으면 상주들은 성복제를 지낼 준비를 한다. 성복제는 살아 있는 사람들이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첫 의례이다. 때문에 상주들은 성복제를 기점으로 삼베옷으로 갈아입는다. 과거에 수의를 집에서 만들 경우 마을 사람들은 상주들의 상복까지 만들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상복을 장의업체에서 구입해서 입는 경우가 많아졌다. 능원리에서는 전통적인 상복을 입을 경우 굴건제복 안에 흰색 바지저고리 혹은 치마 저고리를 입었다. 그러던 것이 점차 일상복 위에 굴건제복을 갖추거나 혹은 검은 양복으로 상복을 대신하는 추세로 변화하였다. 요즘에는 굴건제복을 입는 상가는 거의 없으며 검은 양복과 검은 치마저고리로 상복을 대신한다.

입관이 끝난 후 상주들은 성복제를 지낸다. 마당에 명석을 깔고 밥, 탕, 북어포, 과일, 나물 등을 준비한다. 그리고 큰 대야에 물 한 그릇을 떠 놓고 곡을 하고, 물을 짚어 머리에 바르며 동서남북 방향으로 각각 한 번씩 절을 한다. 마지막으로 상주들은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방으로 들어간다. 매장 전까지 조석전(朝夕奠)이라하여 매일 아침



혼백



혼백 접는 방법

과 저녁에 제물을 차려 곡을 한다.

성복제가 끝나면 상주는 망인을 향해 절을 할 수 있다, 정식으로 조문을 받을 수 있는 시점도 성복제 이후이다. 조문은 종과 문상을 합쳐 부르는 것으로, 조상은 성복 전에는 손님이 와도 빈소 밖에서 서서 곡을 하고, 성복을 한 후에야 비로소 정식으로 조문을 할 수 있었다. 객들은 상가에 도착하여 호상소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곧바로 빈소로 가 곡을 하며 분향하고 절을 할 수 있었다.

마을에 초상이 나면 마을 사람들은 조문을 가고 부조를 한다. 가까운 친인척의 초상을 제외하고는 성복제를 지낸 이후에 조문을 갔다. 본래 성복제를 지내기 전에는 상주들이 망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조문객도 망인에게 절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를 크게 관여치 않아 성복제 이전에 조문을 해도 무관하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상황으로 조문을 못 할 경우에 전화나 메시지로 상주들의 안부를 묻거나 조문을 대신하기도 한다.

조문객들은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며 상을 치르는 집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조를 한다. 현대에는 대부분 금전으로 부조를 하지만, 과거 8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음식이나 물품으로 부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 당시만하더라도 음식과 물건이 돈보다 귀했기 때문이다. 특히 팔죽으로 부조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음식을 먹기 힘든 상주를 위함도 있지만 조문을 오는 조문객에게 팔죽을 대접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콩나물과 두부, 술을 담가 부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금전이나 음식, 물품 부조는 대체로 품앗이 형태를 보이며, 자신의 초상에 두부 10판을 받았으면 그 두부를 부조한 집 초상에는 똑같이 두부 10판을 부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음식이나 물품, 금전으로 부조를 해야 했다.

능원리에서는 일반적으로 초상이 나면 3일장을 치러, 초상난 지 3일째 되는 날에 발인을 했다. 그러나 발인 하는 날 일진이 좋지 않으면 부득이 4일장을 하거나 5일장을 하기도 했으나, 마을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히 오늘날 이러한 일진을 고려하지 않아 대다수가 3일장으로 장례를 마무리한다.

호상이 미리 정해둔 발인 시간이 되면 마을 사람들과 친지들은 관을 빈소에서 마루나 마당으로 옮긴다. 이 때 시신의 머리가 있는 방향이 먼저 문지방을 넘을 수 있도록 자리한다. 관이 방에서 문지방을 넘게 되면 운구하는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관을 문지방에 세 번 부딪힌 뒤 문지방을 넘어 오거나 문지방 앞에 둔 바지를 운구행렬의 가장 앞 선 사람 혹은 관으로 하여금 바지를 깨고 문지방을 넘게 한다. 이렇게 빈소를 지나 온 관은 마루를 지나 마당에 놓여진 상여에 옮긴다.

상주와 상가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상여 앞에 병풍을 치고 제물을 차려 발인제를 지낸다. 발인제를 지내는 상에는 영정과 혼백상자도 함께 올린다.

발인제가 끝나면 선소리꾼의 소리에 맞추어 운상을 시작한다. 운상은 보통 마을 청년들이 맡아서 하거나 고인의 친척들이 맡는다. 상여가 운구행렬을 앞에서 앞장서 가면 그 뒤를 상주와 조문객들 순서로 따른다. 고인의 사위 및 맏손자는 고인의 영정 사진과 함께 혼백을 들고 상여 앞에 선다.

노제는 돌아가신 분과 관련이 있는 곳이나 삼거리를 지나면서 지낸다. 또 다리를 건널 때도 지낸다. 노제에는 주과포 등을 간단하게 차리고 상주가 곡을 하고 절을 한다. 보통 노제는 가까운 친구가 차려주기도 하지만 고인의 친척들이 차려주기도 한다.

과거에 집에서 상을 치를 경우, 발인제가 끝나고 상여가 집을 나가면 여자 상주들이나 가까운 여자 친척들은 망자의 모든 의복과 이불류 혹은 물건등을 모아 태운다. 간혹 탈관을 한 후에 관을 태울 때 같이 태우기도 한다.

상여 행렬이 장지에 도착하면 묘역을 만드는 치장을 시작한다. 묘광을 만드는 일 등 산역은 운상과 마찬가지로 마을 사람들이 돕는다. 산역을 하는 사람은 운상 행렬보다 장지에 먼저 도착하여 일을 시작한다. 이들은 먼저 산에 도착하면 산신제를 지낸다.

한편 상여가 장지에 도착하면 묘장 앞쪽 방향에 빈소를 마련한다. 이곳에 혼백함을 두고 하관하기 전까지 조문을 받는다. 발인 전에 조문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장지로 직접 와서 조문을 하기도 한다. 마을 사람들이나 고인의 친척들을 하관을 하고 분묘를 조성하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지에 음식과 술을 준비하여 조문객과 산역

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한다.

산신제가 끝나면 지관이 못자리를 정하고 시신을 땅에 안치할 수 있도록 광을 판다. 다음으로 하관을 준비한다. 능원리 주민들은 대체로 탈관을 하여 시신을 매장했다. 이렇게 탈관을 할 경우에는 분묘를 할 때 한 칸에서 관을 태운다.

하관을 하는 시간은 마을에서 주역을 보거나 집안 사람들 중에서 택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정한다. 상주나 조문객 중에는 하관을 보지 말아야 하는 띠에 해당할 경우 상주라도 하관을 보아서는 안 된다.

하관을 하고 그 위에 명정을 덮는다. 이 때 유품을 함께 넣어주기도 한다. 명정을 덮은 후 상주와 친척들이 돌아가며 취토를 한다. 이후에는 ‘달구질’을 한다. 달구질은 보통 3채 혹은 5채로 3번 혹은 5번 흙을 덮고 발로 밟는 것을 말한다. 달구질이 끝나면 혼백과 영정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다. 이 때에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간다.

상주가 장지에서 혼백 및 영정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면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초우제라고 한다. 망자의 혼을 제정에 모시는 의미에서 지내는 제하이다. 초우제는 반드시 날을 넘겨 지내지 않는다. 초우제를 지내고 이튿날 재우제를 지낸 뒤 매장 후 3일째 되는 날 삼우제를 지낸다. 삼우제는 간단하게 주과포를 챙겨 산소에서 지낸다. 이는 산소가 잘 조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마을 사람들은 장례의 끝을 탈상으로 여겼다. 때문에 탈상과 동시에 상복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 시점은 집안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랐다. 과거에는 1년이나 3년을 주기로 탈상을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3일에 탈상을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49일을 넘겨 탈상하는 경우가 많다.

김지현

2. 능원리 민간신앙과 세시풍속

1) 민간신앙

능원리 우명동은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아래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 마을은 아래 소우리, 윗소우리로 나뉜다. 현재는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원주민 10여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다.

이 마을에서는 예전부터 산신당제를 지냈다. 마을 사람들은 '산제사'라고 부르는데 오늘날까지 음력 10월 1일에 지낸다. 그러나 올해는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 마을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바람에 올 해에는 산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과거 산신제를 앞두고 마을에 초상이 났을 경우에도 산신제를 지내지 않은 적도 있다.

당집은 현재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안에 있다. 당집은 과거 산 아래에 있었으나 골프장 개발로 인하여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현재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 당집은 1평 내외로 지어졌는데, 외벽은 시멘트 구조물이며, 지붕은 슬레이트로 마감을 하였다. 당집 주변에는 크고 작은 산불이 일어났으나 다행히도 모두 당집을 비켜갔다고 하는 주민들의 구술에서 마을 사람들은 당집을 신성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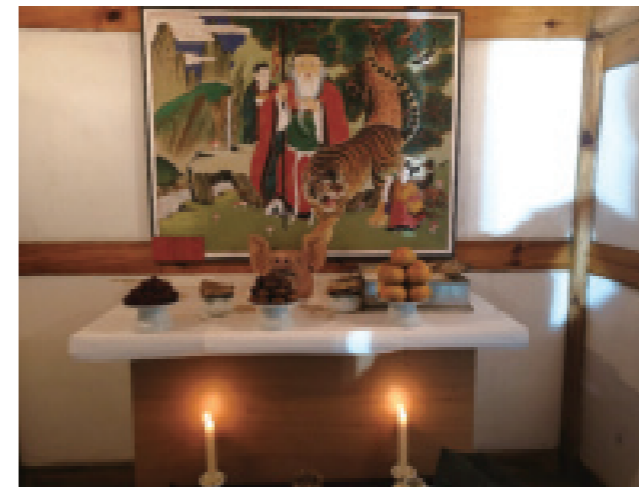
당집 내부 중앙에는 산신도가 액자 형태로 걸려 있다. 산신도 액자 바로 밑 부분에 나

무 시령을 만들어 제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밑에는 작은 소반이 있어 향과 초를 올리도록 해 놓았다.

매년 제일 한달 전에 마을 주민들에게 통문을 보내 연락하여 마을 회의를 개최한다. 이때 제관과 산신제를 준비하는 당주를 선정하여 의례 준비를 시작한다. 제관은 마을 회의에서 모인 사람들이 지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기복덕과 그 해 집안에 사고와 질병, 초상이 없는 집안, 기독교를 믿지 않는 가정의 남자 어른을 제관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몇몇 사람들 중에서 생기복덕을 가려 적임자를 뽑는다. 제관으로 선정되면 몇 가지 금기사항을 지키면서 제일까지 청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일체 부부관계를 금해야 하며 살생을 금한다. 또한, 상가의 출입도 금하며 비린 것을 섭취하지 않는 등의 금기를 지킨다. 과거에는 이러한 금기를 제관 선출일부터 지켜야 했으나 근래에 들어 10일에서 1주일 전부터 위 사항들을 금한다. 엄격한 금기 사항들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고생한 제관에게 제의가 끝난 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쌀이나 곡식류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한다. 이러한 금기는 비단 제관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제관과 함께 제의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지켜야 했다. 즉,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가를 출입한 마을 남자들은 제의를 지낼 때 참여할 수 없었다. 과거에는 당집 아래에 거주하는 분이 수년

간 맡아서 지냈다. 그 분이 돌아가신 후에는 새로 선출하여 지냈는데 현재 소임을 맡고 있는 제관과 당주 역시 5년 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사 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레이크사이드의 지원을 받는다. 레이크사이드는 매년 100원 씩 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비용을 제의를 지내고, 제



산신제 진설

의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과 음복할 음식을 준비한다. 경비에 부족한 비용은 마을 기금을 융통하여 사용한다. 과거에는 ‘산축계’라는 계가 있어 계에서 모여지는 기금으로 산신제를 지냈다. 이 계에 모여진 기금은 다음해로 이월되거나 마을 기금에 찬조하였다. 이 계가 해체될 때에 모여진 비용은 마을 기금으로 전환되었고, 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일부 부족한 비용은 마을에서 충당하게 된 것이다. 대체로 제수를 마련하는 비용은 50만원 선이어서 남은 비용은 음복을 마련하거나 마을 기금으로 통합되어 관리하고 있다.

제일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오전에 모여 마을 청소를 시작한다. 샘물을 청소하고 제당 인근 지역 및 마을 입구에 있는 서낭당도 청소한다. 산제당과 제관집에는 금줄을 두른다. 금줄을 만들 지푸라기는 제관집에서 깨끗한 것으로 추려 준비한다. 제관은 금줄을 제작하는데 지푸라기에 물을 묻혀가며 왼 새끼를 꼬고 군데 군데 솥을 쫓아둔다.

제의에 사용되는 제물은 돼지머리, 백설기, 조라술, 3탕, 통복어, 밤, 대추, 꽃감을 준비한다. 과거에는 소나 돼지를 마을에서 잡아 사용했으나 요즘에는 돼지머리만을 구입하여 올린다. 돼지는 수돼지의 머리를 사용하는데, 제물을 올리는 것이어서 제물 구입 비용을 일체 깎지 않고 가게 주인이 부르는 대로 값을 치른다. 백설기는 2말~3말 가량의 양으로 떡을 만든다. 떡은

직접 제관과 당주가 준비한다. 술 역시 당주가 직접 담근다. 술은 쌀과 누룩을 이용하여 발효시킨 것을 사용하는데, 물 역시 우물물을 길어 사용하였다. 탕은 무와 두부, 소고기를 넣어 끓인 것을 올린다. 이러한 제수들은 당주가 직접 당집에서 마련하거나 고임을 한다.



산신제를 지내는 모습

향은 목향에 쓰고 수저는 놋수저를 쓴다. 제사를 끝낸 후 제물의 일부를 조금씩 떼어서 고시레하듯이 사방으로 조금씩 뿌려둔다, 제기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질그릇이 있는데 당집에 보관하여 두다가 제일이 되면 닦아서 사용한다. 제기는 대체로 굽 있는 그릇과 시루, 조라항아리가 있다.

제수의 진설이 끝나면 제관과 당주는 청색 도포에 검은 유건을 쓰며 의관을 정제한다. 이후 제관이 향을 피우고 잔을 올린 뒤 당주가 축문을 읽는다. 축문은 마을에서 저해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원문을 필사하여 내려온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축문은 소설되어 한글로 작성하였다. 축문을 읽은 다음에는 두 번 절을 한다. 이어 아헌관이 잔을 올리고 재배를 하고 마지막으로 종헌관이 잔을 올리고 재배를 한다. 제관은 준비해 둔 흰 창호지로 소지를 올린다. 제관은 각 가정의 대주 이름을 창호지에 기록해 둔 다음 이것을 빠짐없이 읽은 후 각 가정에 아픈 사람과 우환이 없기를 기원하는 소지를 올린다. 그리고 마을 전체 소지는 백지를 잘라 올리는데, 이 때 제관은 마을에 번고가 없이 마을의 안녕과 주민들 간의 화합을 기원한다.

제의가 끝나면 제관과 당주, 함께 간 남자 주민들은 당집에서 간단히 떡과 술로써 음복을 한 다음 당집을 정리하고 마을 회관으로 돌아온다. 마을 주민들은 제관 일행이 무사히 제의를 마치고 돌아올 때 까지 회관에서 모여 기다린다. 부녀회에서 음복을 준비하면 마을 사람들은 이 곳에 모여 다 같이 음복을 한다. 만약 회관으로 올 수 없는 거동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있을 경우 부녀회에서는 미리 음식을 별도로 준비해 두고, 제의에 올렸던 떡을 조금씩 나누어 노인의 집에 보냈다. 제의에 올린 떡은 장수와 복을 주는



소지를 올리는 모습

떡이라고 여겨 마을 어른들은 꼭 먹어야 했으며, 떡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음복을 할 때 마을 이장은 제의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에게 노고를 치하하며, 마을 제의가 잘 끝났음을 공지한다. 또한 이 날 간략하게 제수 구입 비용 등 기금 사용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구두로 공지를 한다.

산신을 모신 당집 이외에도 능원1리 우명동 마을 입구에는 서낭목과 서낭당이 있었다.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서낭당은 작은 길가의 약간 언덕 위에 있었던 것으로 신목과 돌무더기로 이루어진 형태이다. 서낭목은 벚나무였다. 돌무더기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지나가는 행인들에 의해 제법 쌓였다고 한다.

능원리 우명동 서낭당은 마을에 있는 제당이긴 하였으나 마을 제사인 동제는 지내지 않고 개인 치성만 드리던 신당이였다. 서낭당 앞을 지날 때마다 돌맹이를 던지면서 축원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서낭에 치성을 드리고 오색 형짚을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서낭나무인 벚나무의 가지가 늘어서 행인들에게 불편을 주자 가지를 쳐오다가 70년도 말에 베어 버렸다. 현재는 신목과 돌무더기가 모두 없어지고 도로가 되어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다.

2) 세시풍속

1월

아침9시 정도가 되면 주로 떡국을 올려 4대조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다. 차례는 종가에서 먼저 지낸 뒤 각 집안의 항렬에 따라 차례를 지낸다. 몇몇 집에서는 떡국과 밥을 함께 올리기도 한다. 설에 만두를 빚어 먹지만 차례상에 올리지는 않고 가족들과 설 음식으로 나누어 먹는다. 차례를 지낸 후 가까운 조상묘를 찾아 성표를 간다. 성묘를 다녀와서 부모님 등 가까운 가족들에게 세배한다. 과거에는 가족들에게 세배를 하고 마을 어

른들을 찾아뵙고 세배를 다녔으나, 지금은 집안어른께만 한다. 만약 집안 어른이 병환중이면 세배를 올리지 않는다. 또, 마을에 상이 났을 경우 집안 어른의 세배까지 마친 후에 상가를 찾아 조문한다. 기독교를 믿는 가정에서는 집안의 가장이 문중차례에만 참석하고 가정으로 돌아와서는 가족들과 모여 앉아 간단하게 기도으로써 차례를 대신한다.

설을 쇠고 처음으로 돌아오는 쥐날에는 아이들이 쥐를 없애기 위해 논두렁 여기저기에 쥐불을 놓았다. 소날에는 소죽에 콩을 많이 넣어 끓여 주었는데, 이는 소가 병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호랑이 날과 토끼날에는 여자들이 집 밖을 나가지 않는다. 용날에는 마을 여성들이 각 마을의 우물에서 이른 새벽 물을 떠서 식구들에게 먹였다. 그리고 말날에는 장을 담그면 맛이 좋다고 한다. 과거에는 이런 믿음 속에서 실제로 집집마다 행위를 하거나 금기사항을 지켰다. 그러나 지금은 말날에 장을 담그는 풍속 이외에는 지켜지고 있지 않다,

설을 전후로 능원리 주민들은 토정비결을 보았다. 책력을 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토정비결을 보기도 하지만, 주변의 모현읍이나 용인, 광주 인근의 무당을 찾아 1년 신수를 보았다. 만약 그 해 나쁜 일이 있으면 대보름이 지나기 전에 액운을 풀거나 부적을 지니고 다녔다.

근래에는 마을 인근의 사찰인 은적사나 백련사 스님에게 받은 입춘축을 붙이는데, 이 때 입춘 시간을 맞추어 안방의 위나 대문, 현관 등 가족의 출입이 잦은 곳 문이나 문이 있는 벽 위에 붙인다. 입춘 시간은 절의 스님이 알려주는 시간에 붙인다. 작년에 붙인 입춘축은 떼어 태어버린다.

음력 1월 14일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집집에서 오곡밥과 지난 겨우내 말린 채소와 나물을 삶아 무쳐 먹는다. 또 각 가정마다 약밥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어 먹거나 주변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대접하였다. 근래에는 집에서 만들기 보다는 떡집에서 구입해 먹는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럼을 깨문다. 아침 식사를 마친 주민들은 능원리 각 마을마다 회관이나 공터에 모여 윷놀이(척사대회)에 참여한다. 정월 대보

름에 열리는 척사대회는 마을의 큰 행사중 하나이다. 점심에 모여 윗놀이를 한 뒤에 마을 회관에서 부녀회 주관으로 준비한 찰밥과 나물 등을 넣고 만든 비빔밥과 국, 반찬 등을 주민들과 나누어 먹는다. 밤에는 달보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마을 주변의 얇은 동산에 올라 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근래에는 마당에서 달보기를 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정월 대보름 다음날 저녁이면 이른바 '귀신날'이라고 하여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가는 체를 대문에 걸어둔다. 또, 이날 아이들은 신발을 문간에 두지 않고 숨겨둔다. 밤에 야광귀가 내려와 아이들의 신발을 신어 보고 딱 맞는 신발이 있으면 그 신발의 주인인 아이가 병에 걸린다고 믿었다.

2월

초하루에는 '나이떡먹는다'고 하여 콩, 팥, 밤, 멥쌀로 송편을 빚어 나이수 만큼 그릇에 담아놓고 청수와 함께 먹는다. 이렇게 빚어 놓은 떡은 초하루 아침에 먹는데, 다 먹지 못하면 남겨둔다. 또, 이 날은 영등날이라고 하여 이 날 날씨에 따라 영등할머니가 머느리를 데리고 온 지, 딸을 데리고 온 지를 가늠하여 농사의 풍흉을 점쳤다.

3월

음력 3월 3일이 되면 동그랗게 찹쌀반죽을 빚고 그 위에 진달래나 각각의 꽃을 장식하여 기름에 지지는 화전을 부쳐 먹는다. 이러한 음식은 1950년대 이전까지는 먹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화전을 부쳐 먹는 가정은 사라졌다.

연안이씨 문중에서는 삼짚날 화전을 부쳐 먹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중간에 풍속이 단절되었다가 2010년도 즈음에 재현행사로 개최되었으나 행사준비 과정이 수고로워 현재에는 행하지 않고 있다.

3월이 되면 겨우내 띄워 놓은 메주를 이용해 장을 담그는 집도 있다. 장을 담글 때에는 말날에 담그면 장 맛이 좋아진다고 하여 말날에만 장을 담근다. 그러나 요즘은 봄에 담그는 장보다 가을에 담그는 장이 더 맛이 좋다고 하여 3월에 장을 담그는 풍속도 점

점 사라지며, 마트에서 간편하게 구입해 먹는 가정이 늘고 있어 장을 담그지 않는 집이 더 많다고 한다.

4월

음력 4월 초파일이면 불교를 믿는 신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절에 가서 등을 달고 각 가정의 소원을 담아 기도를 올린다. 능원리 마을 안에는 사찰이 없어 마을 사람들은 인근 수원, 광주, 성남, 용인 등 각지의 절에 다닌다.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절에 다니거나 교류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에 초파일에 절에 갈 때에는 직접 농사지은 쌀을 비롯하여 곡식과 나물, 집에서 짠 기름과 과일 등을 가지고 가 부처님 앞에 올린 뒤 신도들과 나누어 먹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불전함에 돈을 넣는 것으로 대신하는 추세이다.

5월

단오날이 되면 수리취로 떡을 해 먹고 여자들은 창포로 머리를 감거나 그네뛰기를 하고, 남자들은 씨름을 하며 즐겼다. 모현면지에 의하면 '1970년대까지 단오절을 명절로 인식할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마을 단위로 대동놀이를 즐겼다.'라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능원리 주민들은 단오를 지내는 풍습은 없었다. 마을마다 그네를 매어 놀았다는 증언을 듣기 어려웠다,

6월

유두날은 집에서 기름냄새를 풍기며 전을 부쳐 먹거나 혹은 자신의 논이나 밭에 나가 전을 부쳐 먹는다. 이렇게 기름냄새를 풍기면 농사가 더욱 잘 되고 집안도 더 흥해진다고 믿었다. 주로 밀떡을 부쳐 먹거나 부추나 채소, 호박 등을 넣고 전을 부쳐 먹었다. 그러나 이러한 풍습 역시 과거에 농사가 주 생업이었을 때 많이 행했다. 요즘에는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가정에서도 유두를 챙기지는 않는다.

본격적으로 무더운 여름날이 되면 마을에서는 복달임이고 하여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 과거에는 마을회관에서 부녀회 주관으로 초복, 중복, 말복 삼계탕이나 갖가지 음식들을 준비하여 노인회를 초청하여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초복만 부녀회에서 준비하여 먹고 나머지 중복과 말복은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회관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인근 식당에 가서 몸보신 음식을 먹었다. 그러나 올 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간편하게 마을 인근 초밥집에서 음식을 먹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7월

칠석날 비가 오면 그 해 농사가 풍년이라는 말이 있다. 또, 이 날에 불교신자들은 참외나 여름 과일 및 쌀 등을 가지고 절에 간다.

음력 7월 15일 백중날이 되면 여름철 농사는 막바지로 접어드는 시기이다. 이 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동안 고생한 노고를 치하하며 이웃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1960년대 까지만 해도 모현면에서는 백중장이 3일~5일장도 열렸으며 머슴을 부렸던 집안에서는 고생한 머슴들을 위해 이 기간동안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었다.

불교에서는 이 날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한 천도재를 지낸다.

8월

8월 추석이 다가오면 추수한 햇곡식으로 추석을 보낼 준비를 한다. 능원 3리 주민들은 추석 전에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대적인 마을 청소를 한다. 마을 청소를 한 후에 부녀회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한다.

추석 전날에는 가족들이 모여 송편을 빚고 차례상에 올릴 제물을 마련한다. 추석날이 되면 설과 마찬가지로 종가와 종가의 재실에서 먼저 차례를 지낸 뒤 각자의 집으로 돌아와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간다. 올 해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자녀는 물론, 친척들이

방문하지 않아 간소하게 차례를 올린 가정들이 많았다.

과거에 추석날 저녁이면 모현면에서는 거북놀이를 행했다.

10월

벼를 비롯하여 한 해 수확한 농작물들이 거두어지는 10월이 되면 마을 주민들 중에서 상달고사를 지내는 가정도 있었다. 과거 터주를 모셨던 집안에서는 수확한 햇곡식으로 떡과 밥, 나물 등을 올린 상을 차려 터주를 비롯한 가신을 위하기도 하였다. 또, 이날 터주가리 안에 담아 놓았던 묵은 쌀은 짙은 가족들과 밥을 지어 먹었다. 꼭 농사를 짓지 않아도 햅쌀을 사서 상달고사를 지내기도 했는데, 대체로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주부의 마음이 편치 못하거 바라는 소원이 있을 때 시루떡 한 덩이와 물 한 그릇 떠 넣고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며 고사를 지냈다.

11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지날이 되면 과거에는 팔죽을 쑤어 마당이나 현관, 안방, 부엌, 화장 실 등 집안 곳곳에 올려두고 가족들과 나누어 먹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팔죽을 집에서 끓여 먹는 가정도 잘 없으며 죽은과는 곳에서 한 그릇 사 먹거나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함께 끓여 먹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그러나 집안에 호환이나 열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 집안에서는 팔죽을 쑤어 먹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애동지날에 집안에 아이가 있는 경우에도 팔죽을 먹지 않고, 시루떡으로 대신한다.

불교신자들은 이 날 절을 찾아 팔죽을 먹고 달력도 받아온다.

김지현



3. 능원리 종교와 교육

1) 종교

모현읍은 용인시 처인구 최북단에 위치한 읍으로 크게 수상지역과 수하지역으로 나뉘며 수상지역에 속하는 능원리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특히, 능원리 등 서부는 광주시 오폭읍 능평리 시가지와 붙어있어 이쪽과 같은 생활권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남시 분당신도시와 생활권이 연결되어 행정구역은 달라도 서로 인접하여 종교 역시 같은 생활권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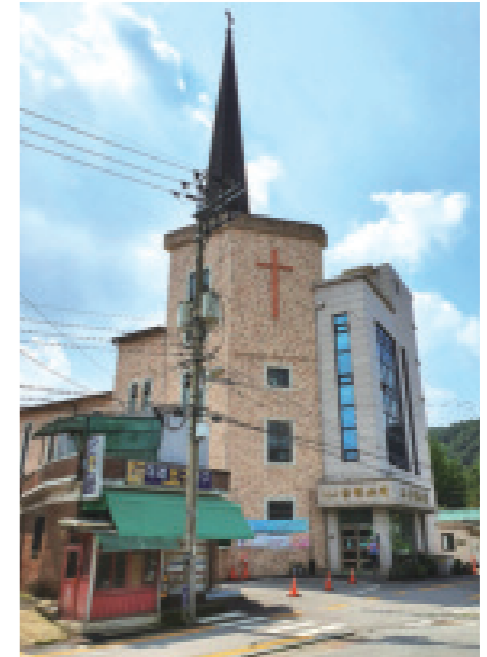
모현읍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에 의하면 모현읍 내 종교단체는 사찰 4곳, 교회 29곳, 성당 1곳이며 능원리 내 종교단체는 교회 2곳이 존재할 뿐 불교와 천주교 관련 종교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종교적 환경 속에서 능원리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어떤 방식으로 믿었는지 주민들의 구술과 실제 경험자의 체험적 내용에 더하여 문헌이나 기록물 그리고 시설관리자의 인터뷰를 통해 정리하였다. 그리고 유교가 종교인가에 대해 사람마다 설이 분분한데 능원리는 전통적으로 서원의 활동이 활발하여 유교적 잔영이 많이 남아있고 종교적 역할도 한 것으로 보이지만 '3장 4절의 능원리 문화행사 및 문화유산' 편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이곳에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만 다루기로 한다.

가) 기독교

'디지털 용인문화대전'에 의하면 용인 지역의 교회는 1960년대에는 매년 1~2개꼴로, 1970년대 이후에는 매년 3~4개 정도씩 증가했으며 특히 1996년 용인군이 시로 승격되고 수지구·죽전지구·동백지구 등 대단위 택지가 개발되고,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교회와 신자의 숫자도 급격히 늘어났다고 하는데 능원리는 1968년 능원교회가 생긴 이후 오랫동안 새로운 교회는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빌라와 다세대 주택들이 새롭게 건립되어 거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16년 창립한 오폭생명샘교회와 이번 조사로 추가 파악된 광현교회를 포함하면 능원리에는 총 3곳의 교회가 존재한다. 능원리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상가가 들어서고 다세대 주택들이 건립되는 등 개발이 한창이므로 앞으로 거주 인구나 유동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에 따라 종교단체와 신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능원침례교회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충렬로8번길 30-4에 위치하는 능원침례교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이다. 1968년 4월 모현면 능원리 37-3번지에 지은 시멘트 가건물(假建物)이 엘리베이터를 갖춘 현재의 외관을 갖추기까지 약 44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50년 이상 근속 신자

2020년 현재 교회는 김인태 목사를 중심으로 전도사 2명, 원로장로 6명, 시무장로 7명, 권사 13명이며 코로나 19 이전 기준으로 주일 참여 신자는 어린이 포함 220여 명이 된다. 남녀비율은 4대 6 정도로 여신자가 많은 편이며 신자들은 능원리 주민뿐만 아니라 수원 광주 죽전에서 오며 이천으로 이사 간 신자도 능원침례교회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예배는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예배, 수요일심야기도회가 있다. 협력교회로 주은혜, 비봉, 창성, 봉정, 호산나 등 13개의 교회가 있으며 국외 선교활동으로 연규득(인도), 이후선(카자흐스탄), 김석기(c국)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최초의 성전은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7-3번지에 세워졌다. 1968년 4월 16일 김영제 전도사와 신자 30여 명이 시멘트 가건물을 지었고 1969년 7월 6일 입당예배를 보았다. 능원초등학교를 마주하면 왼쪽에 파란 양철지붕의 1층 건물이 최초의 성전이 있던 곳이다.

지금의 예배당은 1991년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지어 1992년 5월 5일에 입당예배를 보았다. 1996년 다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증축하였으며 2010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2011년도에 준공을 받아 현재의 건물이 완성되었다. 2020년 현재 교회 건물은 주차장을 포함해 대지면적 약 3,300㎡에 건축면적 1,782㎡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은 2019년 5월 5일 새로 부임한 김인태 목사와 인터뷰 내용이다.

조사자; 부임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목사님의 비전이 궁금합니다.

“신앙적으로 치우침이 없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비 종교인에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리하면 건강한 성도 칭찬받는 시민이 모인 교회가 되었으면 해요”

조사자; 능원리 혹은 능원침례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외부에서는 능원리가 시골이어서 어르신이 많을 거란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다세대 주택이 많이 생겨났고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세대의 분포가



최초의 교회 자리로 현재 가정집으로 사용 중이다.



마지막 증축공사 (1997년 5월)



새 성전 기증예배 (1985년)

고령화되기보다는 다양성을 가진 비전 있는 동네인 것 같아요. 성도분들은 대다수가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오래 거주한 분들은 대개 비신자분들과도 교류와 친분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행사가 있으면 비 종교인들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더욱더

행동이 조심스럽고, 잘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어요”

조사자; 교회 행사나 모임은 어떤 게 있나요?

“외부적으로는 예전에 ‘경로대학’에 주력했었어요”

조사자; 신자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나요?

“아니에요. 교회 성도분들의 분포보다도 비 종교인, 즉 지역 어르신이 훨씬 많았어요. 예전에 경로대학이 많이 없었을 때 능원침례교회에서는 주변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

로대학을 운영했고 참 잘 했어요. 그 당시는 경로대학을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아, 행사를 하면 작은 동네지만 100여 명이 넘게 참여할 정도로 활성화되었죠. 경로대학을 오래 운영했지만 일이란 게 때가 있는데 이제는 노인대학으로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판단하여 폐지했다고 해요”

조사자; 내부 행사로는 어떤 게 있나요?

“코로나 19로 모든 행사가 중단됐지요. 코로나 19로 내부 행사는 못 해도 상관없는데, 그럼 2020년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며, 능원리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성도분들 포함하여 지역의 불신자들도 삶이 어려워졌잖아요. 교회 내부에서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행사는 앞으로 지양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니, 앞으로는 외부로 눈을 돌려 지역의 어려운 사람이나 독거노인 그리고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을 도울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올 초에 새벽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때 완주한 성도분에게 상품권 형태로 쿠폰을 드려 동네 분들의 물건을 사주자. 성도 중에 주변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그곳을 이용하게 해보자는 제안을 했어요. 성도분 대상으로 한번 해봤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경로대학은 2001년 3월 29일 개강했다. 학장은 능원침례교회 이응선 목사로 학생들은 65세 이상의 능원리 주민으로 종교에 상관없이 입학이 가능했다. 입학금도 등록금도 받지 않았으며 학생 수는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대략 80~100명 정도였다. 매주 수요일에 강의가 있었으며 강의가 있는 날은 교회에서 학생 전원에게 무상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다. 하지만 2016년을 마지막으로 노인대학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어르신들이 인터넷이나 다른 활동을 많이 접하게 되고 동사무소나 다른 통로로 배울 곳이 많아져 폐지했다.

원로장로인 라창옥(41년생.남) 씨는 초창기 박광식 전도사가 천막을 치고 목회를 할 무렵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때 그의 나이 17살이었고 군입대 전까지 교회를 성실하게



다녔다고 한다. 하지만 군 제대 후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술도 많이 마시며 불규칙한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마을에 살던 이성열(37년생.남) 씨가 다리를 다쳤다고 그의 부인이 새벽에 찾아왔다.

“당시 목사님이 침을 놓으셨어. 리어카에 실어 목사님을 찾아갔지. 이분이 다리를 다쳐서 침을 맞으러 왔다니까 양말을 벗기는데 통통 부었어. 침놓고 침놓은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교회 나오라고 하셔. 예전에 교회 나온 걸 아시더라고. 인사도 안 했는데 이름이랑 얼굴을 아시더라고. 성도들이 저 양반 누구누구라고 예전에 교회 나온 분이라고 하니까 계속 우리들(라창옥, 이성열)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술 먹고 교회 나와도 되냐고?’ ‘아 술 잡수고 나와도 되고, 담배 태우고 나오셔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때부터 다시 나왔는데 그때 그런 계기가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야”

조사자; 술을 많이 드셨나 봐요.

“네. 하느님은 한번 택한 백성은 안 버리시는 분이예요. 나를 다시 부르셔서 육신의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영혼도 구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리지요. 우리는 목사님을 몰라도 목사님은 우리를 아시고 기다리신거죠. 성도들이 알려 줘 우리를 위해 기도

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고마워요”

조사자; 목사님도 좋으시니 이 동네는 교회를 많이 다니겠어요?

“많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정 다녀요. 여기가 유교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애당초에 여기는 교회 들어올 자리가 못됐어요. 교회를 지으신 것도 하느님의 역사! 내가 산 것도 하느님의 역사지요”

라창옥 씨에 의하면 교회에서 종을 치면 욱하고 천막에 돌을 던지며 이사가라고 소리를 질러 초창기에 능원교회가 자리 잡기 힘들었다고 한다. 그는 이곳이 교회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교회를 지은 것도, 자기가 산 것도 다 하느님이 역사한 것이라 믿고 있다.

같은 마을의 이성열(37년생.남) 씨도 군입대 전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큰 뜻이 있어서 다닌 것이 아니어서 지속적이진 못했다. 1961년에 군에 입대하여 신앙생활을 이어가다 제대 후 집에 있었는데 한두 달 먼저 제대한 선임이 찾아왔다. 용인 수지구의 대지에서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던 선임은 그를 찾아와 다시 신앙생활을 하자며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었다. 지금은 원로장로로 꾸준히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백양섭 목사님이 계실 때 돈도 없으니까 애들이 감기에 걸려 아프면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안수기도 받고 오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요. 아들 3형제인데 다 교회 나와요”

김창진(45년생.남.능원2리) 씨는 3형제 중 맏이로 능원리에서 태어났다. 증조할아버지가 일제 강점기 때 친일파가 싫어서 화성 팔달에서 능원리로 낙향을 하셨다고 한다. 그는 술이 건강도 해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겠다 싶어 술을 끊으려고 교회를 갔다고 한다. 어머니는 개척교회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고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자식들에게는 교회 다니길 권하셨다.

“아버지가 천국 가시는 걸 봤어요. 염습하는 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버지 염습을 하는데 염습을 하면 이제 아버지를 보고 싶어도 못 보는구나

싶으니까 처음에는 너무 눈물이 많이 났어. 첫 번째 찬송을 드리고 두 번째 찬송을 드리는데 암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시니까 피부가 까맣게 됐어.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으시고 미소를 띠고 올라가시는 거야. 올라가시면서 ‘나 천당가니 너 울지마라’ 그 순간 너무 좋아서 눈물이 딱! 그치는 거야. 그 경험을 하고는 어찌 믿어야 아버지처럼 천당을 가느냐만 생각하는 거지. 난 그 생각만 해.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신 것뿐이지 내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교회가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거든요”

김창진 씨가 처음 교회를 갔을 때 교회신자는 100여 명이었는데 이중 능원2리 주민은 오직 어머니와 김창진 씨 뿐이었다. 이후 김창진 씨의 적극적인 전도로 일곱 가구가 늘었지만, 레이크사이드골프장이 생기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매우 안타까워했다. 현재 능원2리에는 50여 세대가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가구는 단 두 가구뿐이다.



능원교회 앞의 김유순씨(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김유순(57년생·여·능원5리) 씨는 능원리에서 태어나 20대에 7~8년간 외지에 살다가 1981년 결혼하면서 다시 능원리로 돌아왔다. 초등학교 2~3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집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김유순 씨뿐이었고 집안의 반대가 있었지만, 신앙생활은 계속했다.

조사자; 처음 본 교회 모습은 어땠어요?

“조그만했지요. 지금도 시골 가면 그런 교회가 있을거예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나무 바닥에 창문 몇 개 있고 브

로커로 지어진 그런 조그마한 건물이었어요”

조사자; 하느님의 존재를 실생활에서 느껴본 경험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하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중장비사업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중장비 도둑이 많았어요. 집 앞에 중장비를 세워놓고 자는데 자꾸 시동 거는 소리가 나서 내가 나와서 봤는데 괜찮아요. 다시 들어가 잠만하면 또 시동 거는 소리가 나요. 나가서 후레쉬로 다 비춰봐도 이상이 없어요. 포크레인 운전석에는 기사들이 햇빛이 들어오니 신문지로 가려두는데 사람이 앉아 있어도 알 수 없어요.

내가 세 번이나 나와서 옥상까지 올라가 후레쉬를 비춰가며 살펴봤는데 이상이 없어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직장을 갔는데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이 오더니 ‘집에 포크레인 잘 단속해~’ 그래요. 어제 집주변에서 큰 포크레인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집에 전화를 걸어 ‘차에 이상이 없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제까지 일을 잘하고 왔는데 아침에 일 나가려고 차에 시동을 거는데 안 걸린다는거예요. 차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와~ 하느님이 날 깨워서 우리 것을 지켜주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인간의 힘으론 할 수 없지만, 하느님의 불꽃 같은 은혜로,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구나’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녀는 경로대학 점심 봉사, 신방 다니기, 김장 봉사 등 많은 시간을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자녀 모두 교회에 다니고 있다.

오포생명샘교회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포로 83번지의 3층 신축건물의 2층에 위치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교단으로 2016년 8월 마지막 주에 창립 예배를 보았다.

오순자 목사는 17년간의 부목사 생활 중 마지막 4년을 용인의 생명샘교회에서 근무했고 그 인연으로 오포에서 교회를 개척하며 ‘오포생명샘교회’라 이름 붙였다. 오순자



개척후 첫 추수감사주일 (2016년)



보름웃놀이 (2017년)



퀴즈대회



제1회 전교인 여름 수련회

목사는 사람을 살리고 바로 세우는 교회가 목표라고 한다. 신자들은 주로 가족 단위로 능평리, 능원리, 동림리, 신현리에서 온다. 주일예배 인원은 30명 정도이며 이 중 능원리 신자는 10명 정도이다. 장년층이 대부분으로 예배는 주일 낮 예배,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답사로 새롭게 확인된 ‘광현교회’는 능원1리 경로당 맞은편 3층 상가 건물의 2층에 위치한다. 주일예배만 이루어지며 주일 예배 참여는 최대 20~25명가량이다.



나) 불교

능원리 주변에는 산이 많지만, 능원리 소재의 절은 보이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동림리 왕림마을에 ‘은적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것 역시 조선 후기 연안이씨 족보에 기록으로만 존재한다. 이로 인해 능원리 주민들은 ‘부처님 오시는 날’에도 마을에서는 불교적인 분위기를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조길생(46년생.남.능원1리) 씨는 절이 번성하면 ‘부처님 오시는 날’에 도로에서 절까지 등을 달 수 있지만, 능원리에는 절이 없어서 등을 본 기억이 없다고 한다. 유일한 불교적인 경험이라면 초등학교 때 ‘백련암’으로 소풍을 간 것이라 한다. 당시 백련암은 스님이 5명 미만인 조그마한 암자로 대웅전과 산신각 2~3동과 요사채가 있었는데 예전 기억을 가지고 다시 가보니 예전의 정취는 찾기 힘들 정도로 규모도 커지고 완전히 변해있었다고 한다.

불교 신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개인이 절을 선택하며, 한곳을 정해 다니기도 하지만 다수의 절을 상황에 따라 선택해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매주 혹은 행사 때마다 절을 찾는 신자도 있지만 1년에 1~2번 가기도 하고 심지어 몇 년에 한 번씩 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드러내고 불교 신자라고 밝히지 않으면 주변에서 알기가 힘들다. 능원리 불교 신자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여 능원1리 주민은 주변에 10명 정도의 불교 신자가 있는듯하다고 하고, 능원2리 주민은 자신이 아는 한 능원2리엔 불교 신자가 없다고 한다. 나머지 리에서도 불교 신자를 찾기가 힘들어 다른 종교에 비해 신자 수가 적어 보였다. 하지만 불영사 주지스님에 의하면 ‘부처님 오시는 날’ 능원리 주민 200~300명 정도가 참석한다고 하니 적극적인 신앙 생활은 하지 않아도 석가탄신일에 절을 찾는 불교 신자들은 꽤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

정의명(60년생.남.능원5리) 씨는 대대로 부처님을 믿는 불교 집안으로 할머니를 따라 어려서부터 백련암을 다녔다. 드러내고 불교 신자라고 말할 정도로 절을 자주 방문

하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위패를 백련사에 모셨기에 1년에 서너 번은 절에 간다.

“할머니가 백련암을 다니셨으니까 나두 부처님을 믿어요. 그때는 ‘백련암’이었는데 이젠 ‘백련사’로 바뀌었어요. ‘부처님 오시는 날’ 절에 등달러 가고, 그냥 가기도 하고. 거기 아버님을 모셨거든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건물들이 다 지어지지 않았고 조그마한 암자가 있었어요”

능원리 주민 중 일부는 백련암과 백련사가 다른 절인 줄 알고 있다. 여러 자료와 주민의 인터뷰를 토대로 같은 절임을 알 수 있었다.

여인숙(68세.여) 씨가 서울에서 능원리로 이사 온 것은 90년대 중반이다. 그녀는 서울에서 성남시 소재의 절을 다니다 능원리로 이사 오며 절을 다니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위패를 성남시 분당의 ‘죽림정사’에 모시면서 그곳을 방문하여 기도를 올린다. 그녀는 능원리로 이사 온 지 25년이 넘었지만, 주변에 불교 신자는 한두 명일 정도로 불교 신자는 적다고 한다.

권경자(68세.여.능원1리) 씨는 1976년 결혼을 하며 능원리에 거주하게 되었다. 절은 친정 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자 마음의 병이 생겼는데 그때 동네 분이 권유하여 친척 언니와 함께 다니게 되었고 심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조사자: 주변에 기독교 신자들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불교를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처음에 내 상황이 힘들어 갔기 때문에 몰랐고 지금은 살다 보니 종교는 하나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다니고 있어요. 시댁은 종교가 없지요. 집안에서 저 혼자만 다니고 있어요”

조사자: 주변에 불교 신자가 10명 정도는 될까요?

“그럼요. 그 정도는 되지요. 저희 동네가 시집을 오니 교회가 있더라구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신자가 많지요”

조사자: 능원리에는 초파일에도 등을 볼 수 없다고 하더군요.

“능원리에선 등을 볼래야 볼 수 없죠. 수미산 불국사라고 주소지는 광주예요. 광주지만 가까워요. 거기만 대로변에 등을 달아 놓고...거기 다니는 사람도 능원리에서는 내가 아는 한 한 분이예요”

조사자; 다른 불교 신자들은 주로 어느 절을 다니나요?

“각자 다니니 잘 모르지만 여기저기 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옮겨 다니지 않고 한군데 다녀요. 저 혼자라면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영가 분을 7분을 모셨기에 함부로 떠나질 못해요”

권경자씨는 광주 신원리 소재의 절을 다녔지만 지금은 동네 지인의 소개로 광법사를 다니고 있다. 집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광법사는 광주시 탄벌동에 위치하며 주지는 일관 스님이다. 그녀는 절에 행사가 있으면 대부분 참석할 정도로 불심이 깊다. 현재 개인사로 직책을 내려놓았지만 법등회 총무를 맡는 등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지금도 사찰에 필요한 봉사활동에 시간과 애정을 쏟고 있다.

백련사

백련사는 용인에서 제일 오래된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의 말사이다. 백련사가 있는 향수산은 포곡면 가실리와 모현읍 오산리 및 능원리와 접해 있는 곳으로 천연기념물 제197호인 검정 딱따구리가 살았던 산으로도 유명하다. 예전 능원리 주민들은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나들이 장소로 절 주변의 계곡을 이용하며 절을 방문하기도 했고, 동네 아이들은 백련암 마당은 물론이고 법당에서 뒹굴며 놀았다고 한다. 능원초등학교 학생들의 단골 소풍지인 백련암은 능원리 소재의 절은 아니지만, 능원리 주민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고, 긴 시간 함께 했던 장소이며 지금도 능원리 불교 신자들이 찾는 절이다.

신라 애장왕 2년(801)에 신응 선사가 창건했다고 하나 확실한 역사는 알 수 없다. 조선 태종 4년(1404)에 무학대사가 18개의 나한상을 조성하여 중수하였으며, 현종 12년(1671)에 또 중수했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1980년 청신녀 청정월(淸淨月) 보살의 시



주로 요사를 중수했으며, 1983년에 김대일(金大日) 스님이 심검당을 신축했다. 현재 절의 모습은 1989년 당시 주지였던 성월 화상이 백산 거사의 시주로 대웅보전을 비롯해 선원요사, 범종각을 중건하면서 만들어졌다.



현재의 요사채는 원래 법당으로 사용했던 건물이며, 1960년대까지 요사의 용마루와 대웅전의 용마루에 고려 때부터 전해오던 청기와 1개씩이 얹혀 있었다고 하나 그 뒤 모조품으로 바뀌었다. 삼성각 앞 석단에는 고려시대 작품으로 추정되는 석조여래좌상이 있으며 나한전에는 무학대사가 조성한 18 나한상 중 14위가 모셔져 있다. 현재 절에는 주지 스님인 법공(法空) 스님을 비롯하여 두 분의 스님이 거주하고 계신다고 한다. 백련사는 영동고속도로 마성IC를 빠져나와 에버랜드 정문으로 가다가 호암미술관을 조금 지난 곳에서 좌회전하면 오를 수 있다.

이 이외에도 능원리 주변을 둘러보면 능평리의 국선암과 일산리의 불영사, 오산리의 선혜사가 있으며 보배사 보연사 그리고 초부리의 공정암 갈담리의 천지암 등 절이 꽤 있는 편이다

다) 천주교

용인은 18세기 말 천주교 박해로 천주교 성지가 꽤 많은 편이다. “모현면의 법정 8리 가운데 능원리, 동림리, 오산리 등 3개 리가 능평성당 관할구역으로, 이 지역은 지형상 능원천을



용인성당 첫 영성체 기념 1994년 12월 11일

중심으로 주위가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골이 깊어 조선말 고종 때 홍선대원군의 천주교 박해 시기에 천주교 신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교우촌을 이루고 살며 생계수단으로 질그릇 또는 사기그릇을 만들어 팔았다”고 한다. (출처: 능평성당 10년사)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용인은 해방 직후에 성당이 용인과 양지 두 곳뿐이었다. 이에 능원리 천주교 신자들은 초창기에 먼 거리의 용인성당¹⁾을 이용하거나 용인성당 소속인 오산수사기막공소와 왕림공소를 이용했다.

현재 영모교에서 용인성당(처인구 중부대로1408번길 15)까지는 자가용일 경우 30분이 걸리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2번의 환승을 거쳐 2시간가량이 걸린다. 과거 교통편이 열악할 때는 이보다 더 걸렸을 것이다.

이로 인해 능원리 신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용인성당 소속의 공소에서 공소예절²⁾을 올렸고, 간혹 용인성당에서 신부님이 오셔서 미사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어린이 첫영성체를 받기 위해서는 용인성당에 가서 교리공부를 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1) 용인성당은 양지성당을 모본당으로 1959년 6월에 설정되어 모현의 동림리와 오산리, 그리고 능원리를 관할하여 왕림 공소, 오산수 공소, 그리고 양촌 공소가 용인성당에 소속된다.
2) 공소는 신부가 상주하지 않아 미사가 접전되지 못하여 본당 신부를 대리하는 공소회장을 중심으로 성찬의 전례가 빠진 공소예절을 올린다. 본당 신부님은 대개 1년에 봄, 가을에 방문하는데 이때 신부방문으로 집행되는 성사가 주로 판공성사이기 때문에 ‘봄판공’ ‘가을판공’이라 부른다.

1993년 1월에 분당요한성당이 설립됨에 따라 1996년 4월 능원1, 2리 신자들은 분당요한성당으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이로써 동림리 왕림공소는 능원리 신자들의 마지막 공소가 되었다. 이처럼 공소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역사 속에 폐허 또는 폐지되었다.

2000년 1월 25일 분당요한성당을 모본당으로 하는 능평 성당이 설립되어 능원리 신자들은 또 한 번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광주시 오포에 설립된 능평성당은 능원리 전 지역을 관할하게 됨에 따라 능원리의 천주교 신자들은 마침내 한곳에서 미사를 보게 되었다. 박미원(63세.여.능원2리) 씨는 분당요한성당은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다 지어진 능평성당을 보니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났다고 한다. 능원리 신자들은 능평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기가 여러 번의 이동이 있었고 건축 설립과정에 애로사항도 많았을 것이다. 그로 인해 마음고생도 했을 것이니 기쁨은 배가 되었을 것이다.

천주교는 지역을 기반으로 자신이 다니는 성당이 정해지는 속지주의이다. 하여 능원리의 천주교 신자들은 용인성당과 공소를 거쳐 분당요한성당 그리고 현재, 광주의 능평성당을 다니고 있다. 능평 성당이 분당요한성당에서 분가하여 설립 당시 능원리 신자는 50명이 채 못되었지만 2020년 9월 현재 능원리 신자는 159명으로 남자는 75명 여자는 84명이다.

능평성당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성남, 광주, 용인 세 곳의 시가 만나는 교차지점에 있다. 2000년 1월 25일 분당요한성당에서 분가하여 관할구역은 광주시 오포읍의 신현리, 능평리, 문형리 일원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의 동림리와 능원리, 오산리 일원으로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다. 주보 성인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이며 김대건신부가 서품받은 상해 금강성당이 2001년 헐리자 황창연 베네딕토 신부가 상해로 가서 헐리는 성당의 벽돌을 몇 개 구해서 성당 종탑 아래 보관했고 김대건 신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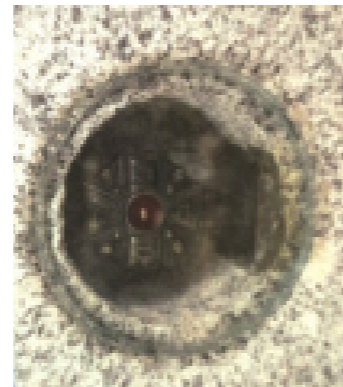
후손이 김대건 신부의 유골 일부를 기증하여 성당 내 중앙 강대상 아래 보관 중이다.

초대 주임 신부는 황창연 베네딕토 신부이며 현 주임 신부는 정진성 아우구스티노 신부로 2020년 6월에 부임하여 사목하고 있다. 2000년 1월 25일 분당요한 성당에서 분가할 때 신자는 835명이었으나 2002년 9월 기공식을 거쳐 2004년 7월 봉헌식을 가질 때 신자는 2,015명, 2009년에는 3,092명, 그리고 2020년 9월 현재 신자는 4,355명이다.

전연수(54년생.남.능원2리) 씨는 가족 모두가 천주교 신자이다. 어머니 이명숙씨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성당을 다녔고 지금까지 믿음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연유로 그는 능원리의 천주교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에 의하면 그가 사는 능원2리는 타(他) 리에 비해 골짜기에 위치하여 용인성당까지 거리도 멀었고 교통도 불편하여 신자들은 용인성당



제대 전면



제대 중앙.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유해 보관소



혼인강신식 (2006년)



전연수 씨 봉사활동 모습



왕림공소



동림리(왕림공소)를 방문한 신부



공소에 모인 신자

소속의 사기막공소³⁾를 다녔는데 88골프장이 생기며 공소가 폐지되었다고 한다. 이후 그 자재를 헐어 능골 삼거리의 백두산약국 뒤에 왕림공소를 지었으며 동림리에 있어 동림리 공소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사기막골의 공소 건물

하지만 용인성당 사무장에 의하면 동림리 공소는 1965년부터 1999년 7월까지 있었다고 한다. “동림리공소는 용인시 모현면 동림리 왕림마을에 있다. 이곳은 용인시와 광주군의 경계를 이루는 지점으로 냇물을 사이에 두고 광주군 오포읍 능평리와 마주 보는 마을로 50여 호가량 되는 영세농민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에 대해 전연수 씨는 동림리공소가 존재했지만, 특별히 공소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 집집마다 다니며 예배를 드렸고 그 무렵 땅을 구입해 건물을 지었다고 말한다.

3) '사기막'은 오산리에 딸린 마을 중의 하나로 오산3리가 된다. 조선시대 자기를 굽던 요업지가 있어 사기막이라 불렸으며, 원래 오산수(사기막골) 공소는 아래 사기막골에 있었으나 홍수로 폐허가 되어 윗 사기막골로 이전하였다. 원래 초가 10간이었던 공소 건물을 1963년 용인본당과 오스트리아의 원조로 100㎡의 양옥건물로 개축하였다.

능평성당 4대 총회장(2005.10~2007.10월)이었던 그는 많은 행사가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결혼 25주년 이상 된 신자를 대상으로 ‘혼인갱신식’을 한 것이라 한다.

그는 급식 봉사, 김장 봉사, 독거노인의 지붕 수리는 물론이고 2018년 6월 수원교구 빈첸시안의 지원으로 몽골에 우물을 파는 등 해외 봉사에도 참여했다. 최근에는 색소폰을 배워 ‘은빛국악예술단’에 입단하여 음악 봉사활동도 겸하고 있다.

믿음은 집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되기도 하지만 주변 친구의 권유로 시작되기도 한다. 박미원(63세.여.능원2리) 씨는 후자의 경우이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를 따라 성당에 한번 갔어요. 연극을 한다고 해서 갔다가 열떨결에 연극을 하고 나서 영세를 받으면 좋겠다 해서 영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영세받고 얼마 후에 이사를 했고 이사 다니면서 성당을 안 다녔어요. 그런데 여기(능원리)에 들어와서 성당을 다녔다고 하니까 어머님(예비 시어머니)이 어느 성당이냐고 물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차타고 다녀서 기억이 안나는거예요. 화양리에서 전차 타고 다닌 기억만 난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그때는 그냥 ‘아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네가 동대문성당 다녔더라~’ 하시며 교적을 찾아오셨어요. 저도 모르는 걸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혼배성사하고 다 했어요”

조사자; 시어머니의 신앙심과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그라시아 성가대



천주교식 명절 차례상; 예수 성심고상과 성모상, 십자가상이 세워져 있고 그 앞으로 상이 차려져 있다.

“지금도 아침저녁 기도할 한 번도 안 빠뜨리고 하세요. 그걸 당신 목숨처럼 생각하시고, 성당에 하루라도 빠지면 큰일 나시는 줄 아세요. 지금은 코로나 19로 못 나가시니 집에서 기도만 하시는데 어머님의 기도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식들이 이혼하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사형제가 다 잘살고 있는 건 어머님의 기도 덕이 아닐까 해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권유로 성가대를 시작했지만 40대에 시작한 성가대를 15년 넘게 한 것은 노래도 좋았지만 함께한 사람들이 좋았다고 한다.

시어머니 이명숙(34년생.여.능원2리) 씨는 ‘내 삶의 여정’이란 자서전을 낸 분으로 이미 주변에선 유명하다. 그녀는 강원도 철원 실향민으로 친할머니와 단둘이 남하하여 1953년 20세의 나이에 모현면 능원리의 전영근 씨(2013년 작고)와 결혼을 했다. 이후 이명숙 씨는 당시 능원2리 이장이었던 양병준(양병목 신부의 형) 씨가 운영하던 문명퇴치 사랑방의 선생으로도 활동했다. 그 인연으로 천주교 신자인 양병준 씨를 찾아가 천주교에 관심을 보였고, 그의 인도로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고 한다.

김창진(45년생.남.능원2리) 씨에 의하면 과거 능원2리에서는 곳을 많이 했으며 미신도 많이 믿었다고 한다. 그를 통해 이명숙(박미원 씨의 시어머니며 전연수 씨의 어머니)씨와 능원2리의 옛 분위기에 대해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조사자; 굿은 주로 언제 하나요?

“우리 자랄 때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했어요. 주로 가을에 많이 해. 우리가 스무 살 전까지는 봤어요”

조사자; 어느 데에서 굿을 많이 하나요?

“총무(전연수)네가 제일 많이 했어요. 이 집에서 굿을 안하면 무당 양반이 겨울에 끼니를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 이 집이 예전에 부자였어. 총무 아버지가 7남매거든요. 할머니가 총무 아버지를 막내로 42살에 낳으셨는데 총무 아버지만 살고 그 위로는 다 소실이 되었어. 총무 아버지만 혼자 살아남았고 손도 이 집뿐이야”

조사자; 자식들이 자꾸 아프고 죽으니 굿을 많이 했군요.

“그렇지. 이 집이 굿을 제일 많이 한 집이야. 이 집 할아버지가 전선달이야. 전씨여서 전선달이라고 동네서 그렇게 불렸어. 전선달 네가 굿을 안하면 아무개 무당이 겨울에 끼니를 잊지 못한다 이거야.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전도 받아서 터주가리를 다 불 지르고 총무 어머니(이명숙)가 천주교를 믿은 거지. 총무 어머니가 아들딸 4남매 다 건강하게 키워서 지금도 효도 받고 사시잖아요”

외지에서 이사와 능원3리에 정착한 주민에 의하면 주변에 천주교 신자가 10가구 정도인데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하며 참석인원은 개인적 사정으로 2~4명 정도가 모인다고 한다. 지금은 코로나 19로 성당을 갈 수 없어 가톨릭 방송을 보며 비대면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며, 신자 중에 70~80대가 많아서 더 조심하고 있다고 한다.

능원리 출신 양병목 루카 신부

오산수 공소에서 6명의 신부가 배출⁴⁾ 되었는데, 그 중 한 분이 ‘소우리’ 출신인 양병목 루카 신부이다. ‘소우리’는 현재 행정구역상 능원2리에 속한다.

4) 양병목 신부는 오산수공소 출신 사제를 6명으로 기억함.



양병목 신부. 노기남 주교로부터 사제서품 (명동성당)



갈전성당 송별기념 (명동성당)

그는 1931년 양 마르코와 박 바르바라사이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1958년 3월 19일 사제서품을 받고 1959년 갈전리 본당의 초대 주임 신부를 거쳐 수녀연합회 지도신부, 성소개발 위원, 교구 묘지관리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교구청의 어려운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였다.

신부는 오포에 능평성당이 들어서자 2001년 10월에 격려차 방문하여 성전건립을 위해 일천만 원을 쾌척했으며, 회갑기념으로 ‘질그릇 속에 담아주신 하느님의 보화’란 자서전을 발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몸담았던 성당은 수원의 조원동성당으로 2001년 1월 30일 은퇴했으며, 2014년 5월 20일 선종하여 안성 수원교구 성직자 묘지에 묻히게 된다.

양철숙(75세.여.광고) 씨는 신부님의 큰 조카로 능원2리에서 태어나 중학교 무렵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 신부님은 방학이 되면 고향으로 내려와 함께 생활했다.



양병목신부 회갑연

조사자: 신부님과의 추억이 있으며 말씀해주세요.

“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한 달 조금 지나 많이 아팠어요. 그 동네에서 나 혼자 학교를 다녔어요. 내 이름이랑 아라비아숫자 1에서 10까지만 알고 학교를 갔는데 교실도 없어서 운동장에서 수업했어요. 저학년도 오전 오후반이 있었는데 몸이 아픈데 학교가 멀어 쉬었다가 2학기에 학교를 다시 갔어요. 내가 너무 아파 학교를 못가고 집에 있으니 방학 때 내려온 신부님이 나에게 한글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덕분에 학교에 가서 1학년 성적이 좋았어요”

조사자; 과거 능원2리에는 굿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능원리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굿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가족은 몇 대째 윗소리(능원2리의 가장 안쪽)에 살고 있었고 윗대부터 하느님을 믿었어요. 당시 우리 가족만 신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던 곳이 오지다 보니 집에 우환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가난하지만 거금을 들여서 굿들을 했어요. 우리 동네서도 굿하는 집이 몇 명 있었죠. 지금은 무속인이라 하지만 그 당시는 무당이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굿을 하면 쌀도 가져가고 고기도 가져가고 돈도 가져간다고 그러대요.

지금 능평성당 밑에 오일장이 서는 곳은 아예 무속인 촌이었어요. 능골장이라고 있



사제서품 50주년 감사미사. 우측은 김종훈 신부

었는데 학교에 있으면 맨날 팽과리 치는 소리랑 무속인이 춤추며 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다 들려요. 하루에도 몇 번씩 했나봐요. 조용한 날이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이 했어요. 우리처럼 두메산골에선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거기서 불러다 농사 지어놓고 부르는 사람, 봄이 시작될 때 부르는 사람 하여튼 굿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신현춘(64세.여.수원)씨는 양현목 신부의 셋째 조카며느리가 된다. 시아버지가 10남매를 남겨두고 40대 후반에 돌아가시자 신부님은 형을 대신하여 조카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다고 한다. 조카들 역시 신부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의지하였고 정신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조사자; 신부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있을까요?

“성경에도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란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을 몇 번 들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네요. 물론 신앙적인 걸 우선하셨지만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죠. 천주교가 우리나라에서 많은 박해를 겪으며 성장했잖아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신앙을 지키란 말씀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양병준(양병목 신부의 형)씨의 손자 중에서 두 명의 신부가 배출되었다. 둘째 딸 양철레 씨의 자(子) 김종훈 아우구스티노 신부와 셋째아들 양철규 씨의 자(子) 양현직 요한사도 신부이다.

송무경

2) 교육

가) 능원리 교육의 특징

능원리의 교육 시설은 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 사립 교육 시설에 해당하는 총렬서원이 능원리에 있음으로 인해 모현면 인근 학동들에게 공부 터전을 마련해 주었고, 이는 근현대 교육 시설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조선의 지식인을 양성하던 서원의 자리에 1920년 모현 강습소가 개소하면서 학동들은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교육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교육을 받게 된다. 지역 유림이 총렬 서원 서편에 마련한 이 강습소는 교육의 교각 역할을 톡톡히 해내 모현초등학교, 능원초등학교, 능원고등공민학교 개교에 큰 영향을 주었다. 모현 강습소라고 하는 근대적 교육 시설로 인해 능원 지역은 교육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 지역 교육의 모습은 다른 지역과 매우 다른 독특한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나 이정하 교장이라는 인물을 통해 이 지역 공교육은 발전하고 그의 열정으로 용인에서도 벽지인 능원리의 교육은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한다.

하여 본 장에서는 과거의 교육 시설인 서당과 강습소, 현대의 교육 시설인 유아 교육 시설과 초중등교육 시설, 기타 교육 시설로 체험 학습 시설과 지역 아동 센터를 소개하며 능원리 교육의 변화를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연구를 통해 공개된 자료들을 정리하고 증언과 추가 자료 발굴을 통해 기존 자료에 없는 것을 업데이트함과 더불어 마을지라는 특성에 부합하도록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징들을 부각해 서술한다.

나) 강습소

1) 개요 및 특징

능원리에 존재했던 과거 교육 시설로는 4개의 서당과 1개의 강습소가 있다. 서당은 1910년경 자그마하게 운영하던 사랑방 서당과 1940년대 능골 서당과, 임 생원 서당, 1950년 총렬 서원 강당에서 잠깐 운영했던 강당 서당이다. 강습소는 일제 강점기 총렬 서원에서 운영하던 모현 강습소로, 이는 모현초등학교와 능원초등학교 등 이 지역 일대 교육의 초석이 되었다.

능원리의 과거 교육 시설들은 공교육의 근간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해방 이후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문맹 퇴치와 생활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하여 산골 마을에 교육의 빈틈을 메운 빈틈없는 교육 시설이 되었다.

2) 사랑방 서당(능원리 524번지)

1900년 초반 레이크사이드CC 자리 민가에서 운영하던 자그마한 서당이다. 김노신 씨가 자택의 사랑방에서 한문을 가르치던 서당으로 훈장은 능원리 마을 주민 김창진(1945년생) 씨의 조부시다. 현재 90세가 넘는 마을 어르신 중 한문을 쓰는 많은 분들이 이분께 배운 것이라고 한다. 1950년 돌아가신 조부와 서당에 대한 이야기는 집안 어른들께 들은 것으로 90세 넘으신 이영희 씨, 김동직 씨, 이덕희 씨 등이 사랑방 서당에서 한문을 배운 경험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3) 능골 서당(능원리 69번지)

1940년대 정덕화 씨가 집안 아동들을 본가 사랑에서 서당을 열어 훈육하였다. 강비는 받지 않았으며 매일 교육하지는 않았다.¹⁾ 현재 정덕화 훈장의 자손은 능원 3리에 살

1) 모현면지 교육 편 참조

고 있지만 1940년대 당시에는 능원 1리에 살았기에 능원리 69번지²⁾에 서당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4) 임 생원 서당(능원리 147번지. 능원1리 황소고집 자리)

능원 1리 이성열 씨가(1937년생) 그 옆집에 살아 어렸을 때 그 집에서 한문을 약간 배우기도 했으며 그 마당에 어른들이 공부하러 오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일부 사람들은 광주와 오포 지역에서 오기도 했고 건너 동네에서 지체 장애인도 와서 공부했다고 한다. 총렬 서원이 있었지만 훈장이 가르치지는 않았으므로 한문 교육을 이곳에서 했는데 한약방을 하던 임달순 씨가 운영하였으므로 임 생원이 하는 서당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여타 다른 서당이 그러하듯 본인의 집 한쪽을 이용하여 많은 학생은 아니지만 지식인들이 나눔을 하던 장소로 보이고 서당 터가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황소고집 자리에 1950년대 한문 교육을 하던 서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강당 서당(모현면 총렬로 9-19)

1958년 총렬 서원에 강당을 완공하고 능평리 사는 손기호 씨가 이곳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이곳의 학생들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공민학교에 못 가는 학생들이었다. 1960년대 초 손 선생의 노쇠로 폐지되었으며 이것이 서원에서의 한학 교육 마지막이었다.³⁾

6) 모현 강습소

①역사적 의의

일제강점기에 모현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이다. 조선의 지

식인을 양성하던 서원의 자리에 근대적 교육 시설로 설립한 모현 강습소는 초등 교육 시설인 모현초등학교와 능원초등학교의 초석이 되고 중등 교육 시설이던 능원고등공민학교의 기반이 되었다.

② 변천 과정

㉠ 1921년 모현 강습소 설립

일제강점기이던 19세기 말은 서구 문물의 유입으로 인해 시대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과거제도까지 폐지되자 교육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 방법인 한자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근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자 모현 주민들도 스스로 여건을 마련하고 방법을 찾는다.

모현의 유림은 1920년 대원군에 의해 훼손된 총렬 서원을 증축하고 1921년 총렬 서원 서편에 목조 초가 건물을 지어 모현 강습소를 설립한다. 설립 당시 50여 명이던 학생은 이듬해 90명으로 증가하여 교사 확충을 위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모

금하기도 하였다. 당시 수업 기한은 4년이었으며 소장은 정한영 씨이고 교사는 정이화 씨, 정의화 씨, 정의열 씨 등이 있었다.⁴⁾

설립자는 정의열 씨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가 종손인 관계로 설립자



총렬서원 강당

2) 능원2리 마을 이장

3) 모현면지 교육 편 참조

4)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참조

로 알려진 것이라고 한다.⁵⁾

간이학교가 설립될 당시까지 조선에는 보통학교 수가 많은 편이 아니었다. 보통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체적인 노력으로 강습소를 설립하여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했다.

㉠ 1930년 정식 교육기관 모현 보통학교 설립

1930년대⁶⁾ 접어들면서 일제가 ‘1개면 1개교’를 장려하면서 보통학교 설립이 증가한다. 일제가 학교 교육을 장려한 이유는 1919년 3·1운동 이후 조선인의 불만을 희석하고 그들의 하급 관리를 양성하기 위함이었다.

모현읍 최초의 근대 교육 기관인 모현 강습소도 시류에 따르듯 지방 유림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되어 교육하였으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식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1927년 모현 유지들은 보통 학교 설립을 위해 다시금 머리를 맞댄다. 그래서 기성회 조직 자금을 모으고 터를 마련하여 1930년 매산리에 현재의 모현 보통학교를 설립한다. 당시 보통학교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면 위치와 학생 수뿐만 아니라 유지 방법도 준비하여 조선 총독에게 신청하여야 했다.⁷⁾

조선총독부령 보통학교 규정을 보면 당시 보통학교는(현재의 초등학교) 학교의 부담으로 개설하는 공립 보통학교와 개인이 비용을 조달하여 개설하는 사립 보통학교가 있었다.⁸⁾ 비용을 확보하고 기준 요건을 갖춰 요청하면 승인을 내주기에 배워야 일제를 이긴다고 생각했던 조선인들은 교육에 투자하며 학교건립에 공을 들였다.

5) 모현면지 참조

6) 1919년 이후 ‘3개면 1개교’ 정책이 1929년 이후 ‘1개면 1개교’ 정책이 되면서 공립 보통학교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1938년 이후에는 학급수가 많이 증가한다.

7) 보통학교 규정-조선총독부령 제28호, 19

8) 조선총독부령 보통학교 규정 1조 ①보통학교는 부 또는 학교비의 부담 또는 개인의 비용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31. 4. 1> ②부 또는 학교비의 부담으로 설립하는 것을 공립 보통학교라 하고 개인의 비용으로 설립하는 것을 사립 보통학교라 한다. <개정 1931. 4. 1>

㉡ 1934년 능원간이학교로 재탄생

일제는 사설 강습소에 대한 용이한 감시와 통제를 위하여 강습소를 간이학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보통학교를 권장하자 모현 강습소는 폐지되고 학생들은 모현 보통학교를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능원리에 보통학교를 갈 수 없는 학생들이 여전히 존재하자 1934년 모현 강습소 자리에 능원간이학교가 설립된다. 이는 2년 후 1936년 모현 공립 보통학교 부설 능원간이학교로 인가되면서 능원초등학교의 전신이 된다. 또한 능원초등학교로 인해 훗날 능원고등공민학교가 설립된다.

다) 유아 교육 시설

1) 개요 및 특징

유치원 알리미에⁹⁾ 등록되어 있는 능원리에 있는 유아 교육 시설로는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이 한 곳씩 있고 어린이집은 두 곳이 있다.

2) 능원초등학교 병설 유치원(모현읍 충렬로8번길 29. 031-334-6284)

1981년 능원고등공민학교의 교사였던 노금자 씨가 능원초등학교 내에 사설 유치원으로 경영하던 것을 1983년 병설 유치원으로 흡수했다.¹⁰⁾

현재 원장은 한광수 씨이고 09:00~17:00까지 운영한다. 09:00~13:00까지는 일반 과정이고 이후 13:00~17:00까지는 방과 후 과정이다. 방과 후 과정은 맞벌이 가정의 신청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나 일반 가정도 희망하면 신청 할 수 있다. 모집 정원은 26명

9) 교육부는 2012년 9월부터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포털사이트(유치원 알리미)를 개통했다. 유치원 정보공시제도는 유치원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10) 모현 면지 참조

이며 현재 1학년 15명의 원아와 유치원 교사 1명이 있다.

능원초등학교 건물 내에 위치하며 대지 총면적은 240㎡, 건물 전용 면적은 837㎡, 교실 1개의 면적은 156㎡이다.

3) 중앙유치원(모현읍 충렬로10번길 12. 031-332-1355)

2008년 11월 20일 개원하였고 원장은 양철현 씨이다. 전체 운영 시간은 09:00~18:00이며 이중 방과 후 과정은 13:00~18:00까지이다. 총 정원은 226명이며 현재 6학년 120여 명의 원아가 있고 교사는 7명이다.

총 대지 면적은 1,640㎡, 건물 전용 면적은 927㎡, 교실 면적은 529㎡이며 지상 2층 지하 1층의 건물이다. 교실은 총 9개로 면적 529㎡이고 실외 놀이터가 있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능원리에서 규모가 제일 큰 유아 교육 시설이다.



중앙유치원 전면/ 중앙유치원 차량

4) 세실어린이집(모현읍 충렬로 8번길 30-7. 031-339-3700)

1996년 6월 28일 개원하였으며 2014년부터 원장은 이세란 씨이다.

평일 07:30~19:30 운영되며 야간 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총 정원은 172명이며 현재 140여 명의 원아가 있고 교사는 21명이 있다.

건물 전용 면적은 738㎡, 보육실 면적은 472㎡로 총 3층의 건물이다. 보육실은 11개이며 실외 놀이터가 있다. 체육과 영어,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특별활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실어린이집 이정표/ 세실어린이집 전면

5) 그린아이어린이집(모현읍 충렬로8번길 13-2 한산빌라 가동 102호. 031-333-939)

2016년 12월 5일 개원하였으며 원장은 정미선 씨이다. 평일 07:30~19:30까지 운영하며 20여 명의 아동과 5명의 교사가 있다.

건물 전용 면적은 91㎡이고 70㎡의 공간에 보육실 3개가 있다. 특별활동으로 음악과 체육을 진행한다.

라) 초등교육

1) 개요 및 특징

능원리 학생들은 1921년 모현 강습소 이후 모현의 유림에 의해 1930년 설립된 모현 공립 보통학교에 다녔고, 1936년 모현 공립 보통학교 부설 능원간이학교가 인가되자 그 후에는 지역에서 가까운 능원간이학교에 다녔다. 능원간이학교는 이후 능원 공립 보통학교로 승격되고 현재의 능원초등학교가 된다.

능원리 교육의 특징은 이정하라는 인물을 통해 성장했다는 것과 졸업생들이 충동문

회를 통해 학교 발전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여 본 장에서는 이정하 교장에 관한 기록과 증언을 수집·정리한 내용을 수록하고 1957년도 교편을 잡았던 교사를 통해 당시 학교 모습을 확인한다. 또한 졸업생들을 통해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고 현재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그 변화를 기록한다.

2) 능원초등학교(모현읍 충렬로 8번길 29(능원리 53). 031-333-6797)



현재 능원초등학교 전경

① 연혁

- 1936.04.01. 모현 공립 보통학교 부설 능원간이학교 인가
- 1944.03.31. 능원 공립 보통학교 승격 개교
- 1945.10.21. 초대 이정하 교장 부임
- 1948.08.15. 능원국민학교로 명칭 변경
- 1983.03.10. 능원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개원
- 2009.03.25. 본교 부설 지역 공동 영재 학급 2학급(3, 4학년) 개설

② 교육목표

교육 비전	행복한 성장과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기·예·능 능원 교육		
교원	큰 꿈 · 큰 실천 · 큰 사랑		
교육 목표	미래를 향해 꿈을 품는 어린이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며 표현하는 어린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어린이
주요 실천 방향	꿈꾸는 · 자기관리 역량 · 자력정보처리 역량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며 표현하는 · 창의적 사고 역량 · 자력정보처리역량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 협사소통 역량 · 공동체 역량 ·민주시민역량
주요 실천 내용	· 학생 삶 기반의 큰 꿈 맞춤형 진로교육 ·학년별 진로 특성 경시 ·진로 교육 프로그램 ·꿈길 찾기 동아리 활동 ·성과 후 활동 다양화	· 창의적 교육과정 편성 운영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 ·공공성 내재화교육(문화예술) 교육 ·행복한 통학을 통한 건강유지 ·균형 있는 과학기술 기초 소양 강화 ·무엇든 기쁜 배움 실시	· 감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구축 ·온고지신 전통문화 교육 ·글로벌 예술문화 체험 학습 ·나눔과 소정의 문화 다양성 교육 ·문화 다양성 교육 실시 ·생태·생명 감수성 교육

③ 변천 및 현황

1936년 4월 1일 능원간이학교 1학년 1학급을 시작하였고 1944년 3월 31일 능원 공립 보통학교로 승격되었다. 1945년 초대 교장으로는 본교 교사로 있던 이정하 선생이 임명되었고 1948년 능원국민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문맹 퇴치 교육이 한창일 때 능원 국민학교는 문맹 습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보는 장소가 되기도 했다.¹¹⁾

제1회 졸업식으로 29명이 졸업을 하고 2019년도 제72회 졸업식에서 106명이 졸업하여 총 졸업생은 4,438명이다. 이농 현상으로 학생이 감소하다가 1990년대 후반 분당 신도시와 수지 택지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학생 수가 증가하였다.

1957년 이정하 교장의 노력으로 미국 CIA 원조를 받아 3개 교실 건축을 착공하였고

11) 문맹 퇴치와 관련하여 능원리 주민 이문자 씨는 어릴 때 어머니와 아주머니들이 나누는 대화를 기억한다. 국어책 읽기 구구단 비슷한 것도 물었다는 소리 들었고 통과를 못 하면 될 때까지 계속했던 것으로 짐작한다. 다른 주민은 한글이랑 아라비아 숫자를 모르던 도민증을 안 쥐서 마을 사랑방에서 한글을 못 깨우친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 여러 곳에서 진행 되었다고도 한다.

이후 1960년 동 기관의 원조로 5개 교실의 건축을 착공하였다. 2004년 능원고등공민 학교 터에 사물놀이 교실을 개관하고 2005년 사물놀이 특성화 학교 우수교로 표창을 받는다. 이정하 교장이 심혈을 기울였던 산림녹화와 교정에 나무 심기, 학교 밭 만들기 와 같은 영농 활동은 2005년 학교 숲 가꾸기 사업 준공을 받게 했고 현재 아름다운 숲 속 학교가 되게 하였다. 2009년 3월 25일 모교 부설 지역 공동 영재 학급 2학급을 개 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1월 기준, 학생은 특수학급 1학급 포함 총 35학급 932명이다. 교직원은 교 장 1명, 교감 1명, 부장 교사 10명, 교사 31명, 그리고 행정 담당 및 일반직 19명으로 총 66명이 있다.

교지는 대지 4,714㎡, 체육장 12,406㎡, 실습지 2,430㎡, 학교 숲 6,283㎡로 전체 25,833㎡이다. 건물로는 일반 교실 35실, 도서관, 컴퓨터실, 과학실, 보건실, 전산실, 방

송실, 유치원, 급식실, 화장실 16, 일반 창고 2, 체육 창고 1실이 있다.
교화는 강인한 아름다움의 장미, 교목은 늙름한 기상의 전나무이다.

④ 교가

작사 : 이명기
작곡 : 이종필

교 가

산 으로 산 으로 돌 러들 - 러
우 리 의 나 라는 산 의 나 - 러
공 고도 고 요워 열 령히 - 굴
산 넘 어 산 넘 어 퍼 먼 바 - 다
태 - 뫼 함 모 - 근 함 보 - 굴 자 리
산 - 에 서 바 - 다로 나 - 하 기 리
우 리 가 자 리는 능 원학 - 교

⑤ 학부모회 활동

학부모회에서 운영하는 활동은 교통지도(녹색 어머니회), 능원 폴리스, 독서 지도 및 도서 봉사, 수업 전 30분 동안 책 읽어 주는 '북 맘' 등이 있다. 학부모회 활동은 반에서 1~2명의 학부모가 참여하는데 요즘은 아버지의 참여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성화 사업으로 숲 교실과 연계한 능원 숲 체험 활동과 가을 가족 등반회 등이 있다. 숲속에서 열리는 능원 프리마켓도 운영했으며, 2018년에는 학부모 20~30명이 강사 를 초빙하여 교육을 받고 2019년부터는 전통 놀이 체험도 진행 했다. 학생들이 동아리 를 조성하여 주도가 되도록 학부모들이 놀이를 알려주는 전통 놀이 체험은 동네 형, 누 나들과 함께 놀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형제애를 키워주고 우리나라 전통놀이를 접할 기회를 줄 목적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로 실시 하지 못했다. (2020년 현재 2학년, 4학년 학생의 학부모회 회장 이은진 씨)



1949년 1.1. 앞동산에서 본 능원국민학교 전경/ 1949 기념 식수 후 촬영
능원국민학교 본관/ 능원국민학교 함석지붕 이후 사진 1960/ 영농 활동



학부모회 활동. 능원프리마켓, 전통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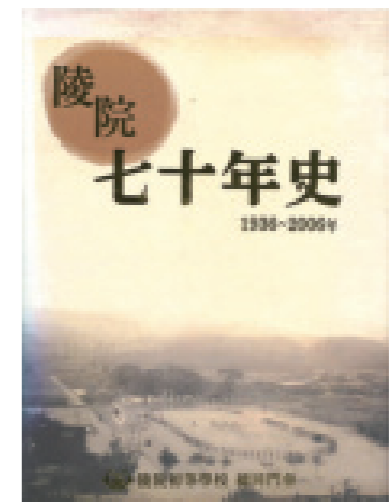
학부모회 활동. 능원초 숲 체험

⑥ 총 동문회 활동

몇 대에 걸쳐 이 학교를 졸업한 가족들이 많아 지속적인 관심이 많고, 지역 유지들이 동문이어서 총동문회를 통해 학교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학교 활동에 포함해 소개하기로 한다.

초대 총동문회장은 1회 졸업생 오기환 씨였고 2대 회장도 1회 졸업생 오종근 씨였다. 3대 회장은 김학옥 씨, 4대 회장은 오응환 씨, 5대 회장은 조길생 씨, 6대 회장은 이황 씨, 7대 회장은 강현구 씨, 8대 회장은 정연국 씨, 9대 회장은 정연광 씨이다.

3대 회장 김학옥 씨는 1997년 이정하 교장의 공덕



「능원 70년사」

비를 현 위치로 이전하고 '총 동문의 날'을 10월 3일 개천절로 제정하여 개최하였다. 4대 회장 오응환 씨는 2006년 10월 3일 제11회 총 동문회 날을 맞이해 「능원 70년사」를 발간했다. 2005년에 '능원 70년사 편집 위원회'를 발족하여 진행하였으며 편집 위원장은 18회 졸업생 이황 씨, 명예 위원장으로는 당시 교감 정연장 씨였다. 편집 위원장 이황 씨는 육사 30년사의 발간 경험을 바탕으로 「능원 70년사」를 기획하였으며 광고비를 받아 책의 발간 비용을 충당하고, 총동문회 이름으로 장학금을 지원했다.

총동문회는 회원들의 회비 및 기별 기금을 모금하여 본교에 학교 발전 기금으로 매년 200만 원을 후원하고 있으며 학교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제반 사항에 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

⑦ 능원인이 기억하는 능원초등학교

1957년 재직하였던 교사 박제우 선생과 당시 학생이었던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능원초등학교에 대한 기억을 정리하며 공통으로 기억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또한 능원초등학교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이정하 교장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항목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기억을 모아 정리한다. 이 또한 역사성을 위해 공통되는 사항을 추려 정리한다. 그러나 가족의 증언은 그대로 기술하며 자료를 찾아 뒷받침한다.

⑩ 능원초등학교가 초임지였던 박제우 선생이 기억하는 그 시절(1937년생)

- 1957년 4월 1일~1961년 4월 13일 능원초등학교 5~6학년 지도

“그때 저는 여기서 초임지고 젊고 하니 열정도 있었지요. 선생님 말씀이면 하느님 말씀보다 더 잘 듣고 따르니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지요.

사범학교를 나와 능원초등학교로 발령이 나서 이곳에 와 보니 야구 글러브를 비롯한 야구용품들이 있는데 무엇에 쓰는 물건인 줄 몰라 안 쓰고 있더라고요. 공은 지금같이 작은 게 아니라 두 주먹으로 쥐는 큰 연습 공이었어요. 체육 시간에 동그란 호박만 한 공을 학생들한테 주고, 하는 방법을 알려 주니 축구

밖에 할 수 있는 경기가 없었던 아이들이 아주 신기해하고 재미있어했어요.

그리고 책을 접하게 해주고 싶어서 인천 집에서 책을 가져다가 읽게 하곤 했어요. 제가 학생 잡지<학원>을 몇 년 동안 봤었는데 모아 놨던 잡지를 가지고 가서 사무실에 꽂아 두고 대여를 해주기도 했지요. <소년·소녀 세계 명작 집> 같은 책도 골라서 가져와 보게 했지요. 그런데 여자애들은 책을 많이 빌려 갔지만 볼 새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억지로 빌려줘도 그냥 가져오는 것 같았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일 해야 하니 짬도 안 나고 밤에는 등불도 없고 하니 책을 쥐도 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당시는 석유 배급받던 상황이었으니 이해는 가요.

그때는 선생이 별로 좋은 직업이 되진 못했어요. 월급이 안 나올 때도 있고 했거든요. 월급도 적을 때라 선호도가 낮아서 이직하고 그랬지요. 월급을 못 받으면 보리 때 월사금으로 가져온 보리를 선생님들에게 한 말 두 말씩 줬어요. 그러면 자취하는 선생은 먹고, 안 그런 선생은 급사시켜서 장에 팔아서 쓰기도 했지요. 학생들이 쌀이나 보리 가져오면 급사가 이웃집에서 추 저울을 빌려다가 측량해서 받곤 했어요. 보리를 넉넉하게 보낸 분은 거의 없었지요.

본인은 아는지 잘 모르겠는데 참 아끼는 남자 제자가 있어 장학금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고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후원을 몰래 했어요. 그때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교 진학을 못 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학교 자체에서 장래성이 있는 학생은 키워야겠다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한 명만 장학금을 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능원고등공민학교는 일반 중학교보다는 월사금이 싸긴 하지만 그래도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지원을 못 받는 학생 한 명을 개인적으로 지원한 거지요. 여학생 중 똑똑한 제자가 있고 제가 아끼는 남학생도 있어서 둘을 살리고 싶었는데 하나 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걸 알고 졸업시키도록 한 명을 도와줬지요. 그 돈이 남학생에게 갔는지 여학생에게 갔는지는 몰라요. 집은 가난해도 키우고 싶은 학생이어서 공부 계속할 수 있도록 큰 액수 아니니 동료 선생에게도 말 안 하고 혼자 몇 년을 한 거지요.

그때는 열정도 있고 보람도 있어서 힘든 줄 몰랐어요. 지금도 그때 기억이 생생하고 능원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특별하지요.”

소풍은 1년에 두 번, 정몽주 묘소를 가거나 고개 넘어 백련암, 광주에 희빈 장 씨 묘 등을 걸어서 갔어요. 아침 8~9시 출발해서 가는데 도시락을 못 싸 오는 애들이 많았어요. 어떤 집은 장리쌀로 도시락을 싸서 보내기도 했어요. 1968년 국민학교 수업료는 150원이었고, 고등공민학교 기성회비는 500원이었어요.

60~70년대 다리를 놓기 전까지는 비 오고 눈 오면 돌다리 개울 못 건너니 오지 말라고 연락이 왔고 그러면 학교에 안 갔지요. 형편이 어려우니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짓지 뭐 하러 학교 가느냐?' 하며 못 가게 하는 집도 있었고 중학교 진학을 못 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교육이 중요하니 보내는 부모도 있었지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외지로 중학교에 가는 학생은 얼마 안 되었어요. 나중에 능원고등공민학교 생기면서 중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많아진 거지요. 이정하 교장 선생님은 본인의 자녀들이나 조카들을 정규학교에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학교를 보냈답니다.”



1948년 보건대회



연합체육대회



연합 소풍



단체사진 (브라운 박사의 부인이 찍은 사진)



이정하 교장과 아이들

㉘ 능원 인이 기억하는 이정하 교장

교육에 헌신한 공으로 국가에서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내렸고, 제자들은 은덕에 감사하여 능원초등학교와 변천초등학교에 공적비를 올렸다. 그는 1983년 9월 노환으로 별세하여 영면하였지만 그의 이름은 길이 남았기에 본 자료에서도 그가 능원리에 남긴 자취를 기억하며 남기려 한다. (5촌 이문자 씨, 이황 씨. 능원초 20회 정연국 씨, 전연수 씨 인터뷰와 각종 자료 참조)

㉙ 이정하 교장, 그는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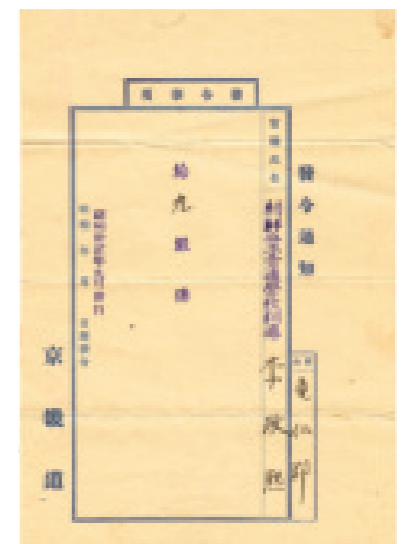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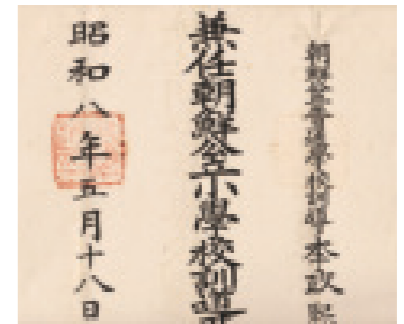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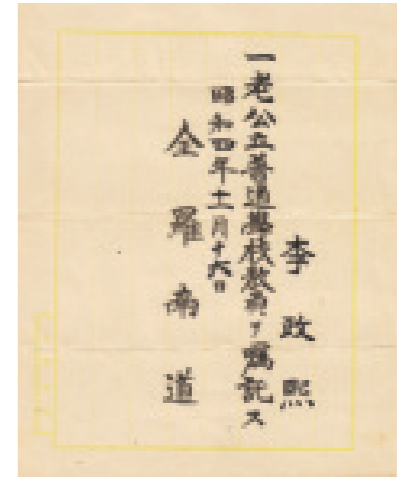
이정하 교장의 개명 전 이름은 이정희이다. 그는 1906년 모현면 능원리에서 연안 이 씨 장손으로, 세종 때 삼과(三科) 장원의 석학인 저헌 이석형 문장공의 17대 종손으로 2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한다. 서울 휘문고를 다니다가 일본 강점기에 집안 환경이 어려

워지자 대구 사범학교로 전학하여 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한다. 1936년 4월¹³⁾ 모현 공립 보통학교 부설 능원간이학교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1944년 3월 31일 본 간이학교가 보통학교로 승격하면서 동년 10월 21일 교장으로 취임한다. 1965년 2월 28일까지 본교에서 교장을 역임하다 1971년 광주 변천 초등학교에서 정년으로 퇴임하여 교장을 27년간 역임한 최장수 교장이 된다.

그는 1950년 6.25 전쟁 후 경제 사정으로 타지의 학교로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진로를 위하여 중학교 과정인 능원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여 시골 오지의 학생들도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한다. 일련의 이 과정에서 그는 지역 유지들의 힘을 모아 학생들의 학업에 보탬이 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멀리 미국에 있는 재단과 교수들의 힘을 빌려 능원초등학교와 학생들에게 서구의 문명적 혜택이 직접적으로 제공되도록 도왔다.

그는 해방 이후 ‘이정하’로 개명하여 해방 전 발령장이나 기타 자료는 ‘이정희 선생’으로 표기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이정하 선생’으로 표기되어 있다. 현재 능원리 사람들은 ‘이정하’라는 이름으로 그를 기억한다.

13) 이정하 선생의 능원간이학교 발령일자가 기존 자료와 발령 통지문은 차이점을 보인다. 조선 보통 공립학교 훈도 발령 통지문에 의하면 그의 발령은 소화 12년(1937년) 9월이다.



이정희 선생 임명장 (사진 위에서부터) 소화4년(1929년) 전라남도 교원 임명장 소화8년 조선공립보통학교 훈도 임명장 소화12년(1937년) 조선공립보통학교 훈도 발령장

㉞ 당시 오지였던 능원초등학교에 외국인의 지원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이정하 선생이 맺은 인연의 결과였다. 6.25 전쟁이 나면서 이정하 선생이 피난 중일 때 부산 피난처에서 미국 공보 관장 브라운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와의 인연으로 많은 미국인과 재단들이 학교 발전과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서울 휘문고를 나왔기에 영어를 기본적으로 하긴 했지만 미국인들과 능통한 대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공부가 필요했기에 집에서 라디오를 이용하여 영어 공부를 무척 열심히 하였다. 나중에는 능통하게 회화를 하여 미국인들과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초대하는 등 유대 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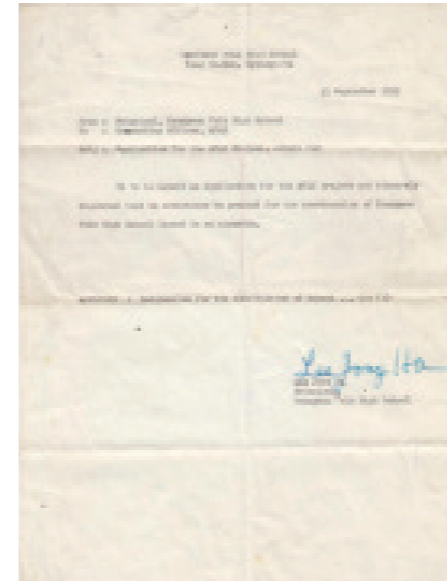


이정하 교장과 인연을 맺은 외국인들
이정하 교장이 브라운공보관과 순회 영화 상영을 협의하는 모습/ 외국손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기념촬영



㉞ 능원초등학교에 외국인들의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브라운 공보 관장이 한 달에 한 번씩 학교로 영화 상영 장비를 싣고 와서 운동장에서 영화를 상영해서 보여줬다. 운동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면 시골 사람이 모두 모여서 보는 것이었다.



인연이 또 다른 인연으로

- 1957년 이정하 교장이 AFAK에 보낸 서한
- OEC국장 프로스트 여사가 교육발전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방문한 모습
- 우드 박사 내외와 딸
- 1957년 우드관
- 우드관 신축에 도움을 준 미국인 환영회 꽃다발 전달식



그 후 브라운 공보 장관이 소개해서 온 분이 샤론 중령이었다. 환영식으로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춤추면 좋아하며 헬리콥터로 학용품을 떨어뜨려 주곤 했다. 가을 운동회를 하면 그들을 초청해서 귀빈석에서 보게 하기도 했다.

한미 재단 AKF단장인 프레저 박사가 재봉틀과 카메라, 영사기, 신식 난로 등 최신식 기자재를 보내 주면 이것을 사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해해서 기계의 원리를 가르치는 데 이용했다. 한미 장학 재단 교육부장 모엣 지 프레저는 미국 내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한국 중고등 학교 소년 소녀와 학교를 위해 마련한 기금과 선물을 능원 초등학교에 보내 주기도 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교육 자문 위치에 있고 OEC교육부의 교육 관계자이기도 했던 우드 박사로 인해 195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OEC교육부의 협조로 학교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때 건축된 학교 내 건물 이름이 우드 관이다. 초가가 대부분이고 양철 건물이었던 학교에 당시로써는 최신식 서양 건물이 건립된 것이다. 당시 건자재는 지역사회에서 구하여 공급하는 조건으로 건축 비용의 50%를 OEC교육부가 지원하였다.

㉞ 이정하 교장이 이곳에 남긴 것은 무엇일까?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다음 사람을 키우고, 키워진 사람들이 다음 사회를 이끈다. 이정하 교장은 당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교육이 답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힘을 모으도록 하여 가정 형편으로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람을 키웠다. 그러자 학생들은 본인이 공부할 교사(校舍)를 건립하기 위해 돈을 줍고 모금을 하여 차곡차곡 쌓아 가니 배움과 학교에 대한 애착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이니 후배들을 보살피는 것도 각별하다. 능원초등학교 동문은 이정하 교장이 그러하였듯 학교에 관심을 두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먼저 나서서 제공한다.

졸업생들은 배움의 길을 계속 가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은행원, 문화원 원장, 학원 대표, 기업 대표가 되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이정하 교장 기념비와 이항 전 동문회장/ 기념비 측면/ 기념비 후면

등 사회 각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염원은 그가 남긴 사람을 통해 살아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마) 중등교육

1) 개요 및 특징

1950년까지 능원리에는 중등교육 시설이 없었으므로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다. 1951년 능원고등공민학교가 개교하여 타 지역으로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은 이 학교에 다녔다. 인근에는 1954년 개교한 분당 양영중학교와 수지에 문정중학교가 있

어 5~10%가량의 학생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을 외지로 나갔다. 그리고 10~15%가량은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했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능원고등공민학교를 다녔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가정 형편들이 나아지고 1974년 12월 모현중학교가 설립되면서 능원리의 학생들은 대부분 외지의 학교를 이용하게 된다. 능원리에 있는 중학교 재학 연령에 있는 학생들이 모현중학교, 수지 문정중학교, 분당 양영중학교로 통학하자 능원고등공민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 1974년 폐교하게 된다.

현재 모현면 능원리는 성남 분당 중학교 공동 학군이라 지리적 여건과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의 선택 폭이 넓다. 1994년 이후에는 분당 장안중학교가 개교하자 일부는 이곳으로 다닌다.

고등학교는 분당 양영고등학교, 분당 효성고등학교, 광주 종합고등학교에 다닌다.

2) 능원고등공민학교(모현면 능원리 57번지 (능원초등학교 내))



능원고등공민학교 현(現) 위치(능원초등학교 내 사물놀이교실)

① 연혁

1951. 능원고등공민학교 50여 명의 학생으로 개교

1951. 초대 교장 이정하

1974. 25회 마지막 입학생 졸업

1974. 폐교. 마지막 교장 강계월

② 교육목표

교훈은 덕업 실천, 학문 연마, 건설 용진이다. 근면하고 자주적인 생각으로 어질고 착하게 계획한 바를 행하여, 현실이 어렵더라도 학문을 갈고 닦아, 사회에 역군이 되어 일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교훈이다. 이 교훈대로 이 학교 출신은 덕업 실천하는 마음으로 학문을 연마하여 사회에 이바지하는 일꾼이 되어 있다.

③ 변천 과정

㉠ 설립

용인에서도 오지인 능원리의 학생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려면 인근 도시에서 자취나 하숙을 하여야 했기에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향학열이 높다고 하여도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 능원국민학교 이정하 교장은 1951년 중등 교육 시설인 능원고등공민학교를 능원초등학교 내에 건립한다.

개교 당시 학생은 50여 명으로 초등학교에 있는 여분의 교실을 이용하여 수업하거나 나무 그늘에서 천막을 치고 수업을 하였다. 우천 시나 추울 때는 포은 정몽주 묘소 제실인 영모제에서 수업하기도 하고, 보린 회관으로 이동하여 수업하기도 하였다. 교훈과 같이 학생들에게 덕업 실천하며 학문 연마를 할 수 있도록 근로의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희사 받은 땅에 특용 작물을 재배토록 해 농업기술을 익히게 했다.



능원고등공민학교 야외교실

㉠ 모두의 힘으로 완성된 돌집 교실

개교 때 입학생이 50여 명이던 것이 다음 해는 90여 명이 되며 학생들이 점차 증가하자 그러잖아도 부족한 교실이 절실하게 된다. 1952년 미군이 시멘트를 원조하자 학교 건물을 지으려 학생들과 교사들이 개천에서 돌을 주어다가 쌓아 올려 돌집을 만든다. 이 돌집은 초기 학생들의 땀과 노고가 깃들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붕을 얹고 교실을 완성해야 하는데 오랫동안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벽만 있는 건물은 학생들의 놀이터가 되다시피 해서 큰아이들은 돌벽 위에서 잡기 놀이를 했다. 이후 강계월 교장이 아이들과 모금 활동을 펼쳐 1970년 지붕을 씌워 건물을 완성한다. 안양에서 건축업을 하는 마을 주민이 부자가 되어 지붕을 회사하자 지원받은 지붕을 얹기 위해 추운 날씨에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어린 학생들과 교장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14~15세가량 된 학생들이 가가호호 모금 활동을 다니자 마을 주민들은 쌀과 보리와 콩을 주었다. 1년 남짓한 지난 후 지붕을 씌워 완성하고는 3학년이 된 학생들



- 축구 경기하는 모습. 학생들 뒤에 보이는 건물 중 왼쪽이 1~2회 학생들이 건축한 초가이고 오른쪽이 오산수 산판업 기증하여 건축한 기와.
- 학교 교사 건축을 위해 돌을 줍는 학생들.
- 돌집 지붕 완공기념 17회 학생들의 연극공연
- 미국인 환영회 때 무용하는 모습(뒤쪽에 지붕 없는 돌집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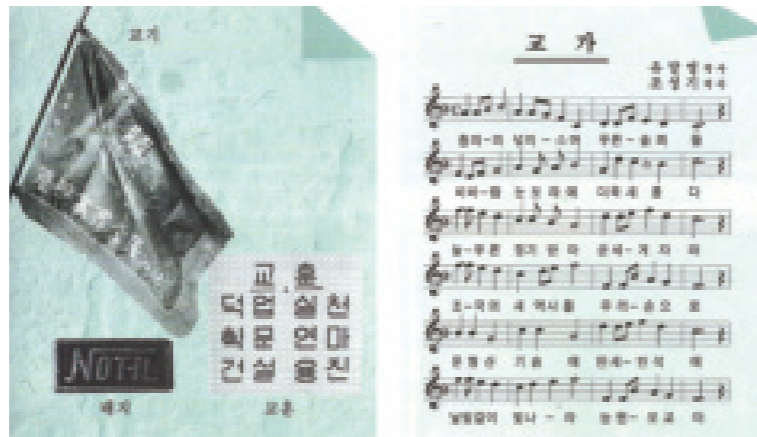
은(고공 17회) 그 돌집에서 주민들을 초청해 ‘돌집 완공 기념 예술제’로 연극을 했다. 백제 마지막 왕 의자왕 시대를 배경으로 한 동궁 태자 연극은 20여 명의 학생이 강계월 교장의 지도하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펼친 공연이었다. 돌집 건물은 돌을 주워 다가 벽을 만들기 시작해서 십여 년이 지난 후에 지붕을 얹어 완성한 것이다. 현재 이 건물은 능원초등학교 내 건재하고 있다.

㉞ 폐교

능원고등공민학교는 학생과 교사들의 애착이 강했지만 1960년 후반부터 지역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경제적 수준도 향상되어 입학생이 줄게 된다. 때맞춰 인근에 모현중학교의 개교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교는 존폐의 고민을 하게 되어 1971년부터는 신입생을 받지 않고 1974년 25회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를 하게 된다.

혼란스러운 전쟁을 겪고 어려움 속에서 개교하여 24년여 년의 시간동안 능원고등공민학교는 배움에 목마른 이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다. 그동안 이 지역 주민과 학생, 교사들은 교육이 시대 변화의 답이라 생각하여 혼혈의 힘을 쏟았다. 그들의 노고로 그 기간 동안 이 학교를 거쳐 간 학생이 700~800여 명으로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지역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④ 교가와 교기



⑤ 교직원

24년간 능원고등공민학교의 역대 교장으로는 초대 이정하 교장과 이후 정홍섭 교장, 강계월 교장이 있었다. 역대 교사로는 김성수 선생, 이철배 선생, 김영규 선생, 이규덕 선생, 주종덕 선생, 조문진 선생, 배태양 선생, 이기영 선생, 원종국 선생, 정희수 선생, 송창수 선생, 이제하 선생, 추교환 선생, 정홍섭 선생, 연창수 선생, 김동문 선생, 황인용 선생, 이복균 선생, 노금자 선생, 조월생 선생, 나창분 선생, 이영애 선생, 전연수 선생이 있었다.



능원고등공민학교 아침

능원고등공민학교 등갯길
능원고등공민학교 아침시간 교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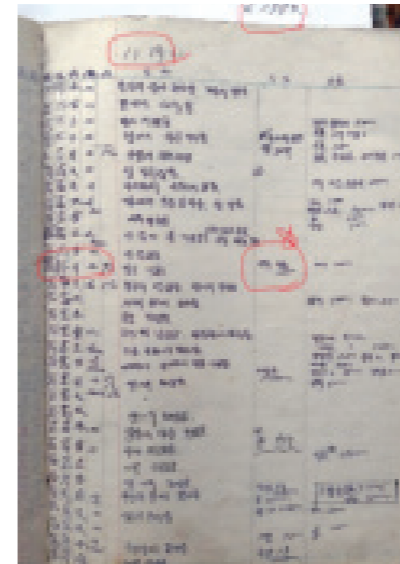
당시의 교사들은 두어 개의 과목을 맡아서 가르쳤다. 금성 방직에 연계가 있고 서울 덕수상고 선생이었던 김성수 선생은 당시 능원고등공민학교에서 국어와 한문과 역사를 가르쳤고, 대웅제약 회장을 했던 이철배 선생은 초부리에서 능원리까지 자전거를 타고 와서 여러 해 동안 수학과 물리를 지도했다. 강계월 교장과 노금자 선생은 미혼인 젊은 나이에 본교에 와서 학교가 폐교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혼신의 열정을 쏟았다. 그들은 소설 「상록수」에 나오는 청년들처럼 지역사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젊은 날을 바쳐 자신의 재능을 나눈 것이다. 이후 그들은 교육계, 경제계 등에서 활동하며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했다.

⑥졸업생이면서 교사였던 전연수 선생님이 기억하는 그 시절(1973년 재직)

“저는 능원고등공민학교 17회 졸업생으로 고등학교는 분당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인 효성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 강계월 교장 선생님이 능원고등공민학교의 교사로 와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아이들을 몇 년 가르쳤습니다. 그때 동창이었던 이영애 씨와 나창분 씨도 같이 갔었지요.

제가 지도한 과목은 수학과 체육이었고 이영애 씨는 국어를 맡아 1~3학년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1975년에 군대 가기 전까지이니깐 1973년~74년까지였던 것 같아요. 수학을 가르쳐야 하는데 확실히 모르니까 밤새 공부를 했지요. 그날그날 공부하니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준비하느라고 힘들긴 했어요. 체육은 이론보다는 실기를 많이 했으며 특히 배구를 많이 했어요. 운동장에 배구장이 있어서 매트 설치하고 경기 치르면 재미있었지요. 이 동네에 분당 양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애들이 주선해서 우리 학교랑 친선경기도 하곤 했어요.

그때는 학생들이 말도 잘 듣고 착했어요. 그런 학생들과 공부하고 함께 뛰고 하니 참 재미있었지요.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왔을 때 잠깐 학생들과 사진 찍곤 했는데 군 3년 마치고 제대하고 나니 학교가 없어졌어요.



전연수 선생 모친이 60년 동안 쓴 가계부
휴가 나와서 학생들과 기념촬영 한 전연수 선생
1973년 11월 10일 전연수 선생 월급이 나온 부분

어머니¹⁴⁾의 가계부를 보니 그때 제가 집에 갖다 드린 능원고등공민학교 선생 월급이 1만 원이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학교에 다닌 거니 돈 쓸 일이 없었지만, 강계월 선생님이나 능원고등공민학교의 다른 선생님들은 월급도 별로 없었던 거니 진정한 봉사 정신으로 가르치신 거였어요.”

14) 전연수 선생의 어머니 이명숙(1934년생) 씨는 능원리의 삶을 엮은 책 ‘내 삶의 여정’(북앤스토리 펴냄)을 발간했다. 그의 발간서는 근대사적 자료 가치가 있는 가계부가 원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1955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해 60년을 이어 온 30여 권의 낡은 가계부는 시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바) 기타 교육 시설

1) 개요 및 특징

능원리에는 체험관, 교육관 등의 시설이 있다. 연안 이씨 400년 전통의 맛을 배워 장을 담글 수 있는 체험 공간인 다인이네 외갓집, 과거 교육의 중심이었고 근현대 교육의 초석이 되었던 충렬 서원 옆에 세워질 충렬 서원 교육관, 반려 식물 체험을 할 수 있는 꽃과 나무 이야기와 승마장을 차례로 기술한다.

2) 다인이네 외갓집 (모현읍 능곡로 56번길 21. 010-4938-0802)

2013년 사업등록을 한 전통발효음식 교육관으로 대표는 장유라 씨이다.

2000년대 초반 능원마을이 농촌 전통 테마 마을로 지정되면서 장유라 대표의 어머니 이문자 선생(1942년생)이 교육장을 운영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하였다. 이때 참여한 업종은 농사 체험, 발효음식 체험, 떡 만들기 체험 등이 있었는데 본 교육장은 농업진흥청으로부터 전통발효음식 교육장의 권유를 받고 체험을 진행했다. 현재는 400여 년 이어 내려온 연안 이씨 종가의 전통 음식 전수자인 이문자 선생과 큰딸인 장유라



이문자 선생

대표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농림수산물부로부터 우수체험공간으로 지정되었다. 다인이는 장 대표의 딸이자 이문자 선생의 외손녀 이름이다.

전통 된장 담그기 행사는 2~4월, 찹쌀고추장 만들기 행사는 9~4월, 메주 만들기 체험은 10~12월, 김장김치 체험 행사는 11~12월 진행한다. 비용은 저염 된장 만들기 14kg 16만원, 간장 3L 16만원이다. 체험에 참여하지 않고 완성품을 받아 갈 때는 18만원이다.

능원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귀향하여 교육관을 운영하는 이문자 선생은 현재의 전통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는 교육관을 설립하게 된 계기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능원리 출신으로 이정하 교장 선생님의 일가(一家)예요. 1954년에 능원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중학교에 가기 위해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했는데 능원고등공민학교를 입학하고 졸업까지 했지요. 큰댁에서 학교를 세웠는데 가족이 다른 학교에 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어른들의 말씀에 따라 능원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학업은 서울에서 마치고 결혼도 했지요.

평소 능원리의 자연이 좋아 자녀들 출가시키고 나면 이곳에 와서 살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1989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연안 이씨 종갓집 일을 하면서 혼자 계실 어머니를 위해 좀 일찍 내려오게 되었어요. 출가시키고 온다고 했는데 빨리 내려오게 된 거지요. 둘째는 대학교 입학도 앞두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이곳에 혼자 계시게 할 수 없어 내려와서 10년을 모시고 살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001년 봄에 장독을 열었는데 100여 개 되는 항아리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다인이네 외갓집 간판

장독마당

당연히 장과 씨앗이 채워져 있어야 할 장독이었는데 빈 독인 거지요. 텅 빈 독을 본 순간 세상을 다 잃은 듯한 상실감에 빠졌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왔어요. 집안에 닳친 경제적 어려움과 어머니의 부재가 온몸으로 느껴지며 세상 살 힘을 잃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 독을 다 채우면 우리 친정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창들에게 콩을 주문하고 앞에 향아리들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장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이곳 호박 등불 마을에 들른 농촌진흥청 사람이 호박 마을 아이디어를 냈던 우리 집에 들른 겁니다. 그리고는 마당에 장독을 보고 담근 장을 먹어보더니 장 담그기 체험하자고 해요. 애초에 그걸 생각한 게 아니고 갑자기 그러니 겁이 나서 못 한다고 했지요. 그러니 그분이 우선 30명만 해보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게 다음해 80명이 예약을 하면서 이름이 나게 되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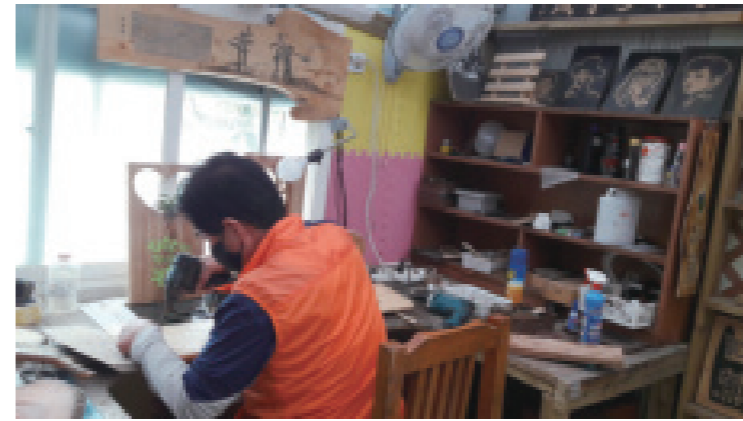
지금은 큰딸이 대표로 있는데 딸에게 '돈 생각 안 하고 가업으로 하고 싶다. 나는 장사꾼이 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을 했지요. 큰 손녀딸이 '이다음에 할머니의 일 저도 하고 싶어요.'라고 말을 해요."

3) 꽃과 나무 이야기 (능원리 132번길 114-18. 031-334-0545)

2019년 설립한 다육식물과 소엽 풍란 체험, 목공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대표는 박미원 씨이다.



꽃과 나무 이야기 난 체험장 내부 풍란



나무 체험장 꽃과 나무 서각



풍란

운영기획과 자문은 수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인 전수경 씨가 하고 있다. 그는 대표 박미원 씨의 시누이다. 본 교육장은 임산부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식물을 기르게 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수경 씨는 풍란 협회(대표 안금환)를 통해 난을 알게 되고 한국 태교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태교 신기를 알게 되면서 본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꽃향기가 좋은 소엽 풍란은 입이 작고 생명력도 강해 반려 식물로 적합하여 이 품종을 선택했다. 원래 풍란은 멸종 위기 식물이나 현재 사용하는 난은 개량종으로 바람과 햇볕만 있으면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식물이다.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 태교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반려 식물을 통해 임산부와 아기에게 안정을 주고자 했다. 도자기를 빚듯 정서를 다하는 마음가짐을 식물을 통해 얻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못을 쓰지 않고 나무망치로 연결해서 자동차도 만들고 장승이나 그네도 만드는 나무 체험장도 있다. 나무에 서각을 하고 풍란을 심어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활발한 영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능원리의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철학과 교육의 접목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체험장이다.

4) 총렬 서원 교육관(공사 감독 문화 예술과 031-324-3040)

총렬 서원 왼편에 2020년 건립 중인 교육관이다. 용인시 교육 문화국 문화 예술과 문화재 팀에서 건축 진행 중이며 건축비용은 5억 8천 여 원이다. 개관 후 진행 프로그램으로 서각, 서예, 한문, 포은 시문학 등을 계획하고 있다.



총렬 서원 교육관

총렬 서원 교육관 공사안내문

5) 꿈나무 지역 아동 센터(모현읍 총렬로10번길 6, 031-322-4481)

2015년 3월 아동복지 시설로 인가되었으며 센터장은 김영임 씨이다.

해당 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읍/면/동장 또는 지역 아동 센터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 희망서를 제출



2019 프로그램 일부



꿈나무 지역 아동 센터

하여야 한다.

본 아동 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를 통해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는 시설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숙제 지도와 교과 학습 지도가 있고, 특기 적성으로 예체능 활동과 특기 교육이 있다. 또한 인성·사회성 교육 및 자치 회의와 동아리 활동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독서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6) 분당 승마 클럽(모현면 능원리 340. 031-334-7935)

2002년부터 운영하는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시설로는 대 마장, 소 마장, 야외 마장, 장애물 마장, 휴식 공간, 라커룸이 있다. 레슨은 초보자도 이용 가능하며 일일 체험도 가능하다.



분당승마클럽



분당승마클럽 마장

1회 레슨 체험은 그룹 레슨으로 6만원의(학생은 5만 원) 이용료가 있다. 일반 마필 레슨은 10회에 1백만 원, 심화는 10회 1백 3십만 원이다. 마필 심화에서는 장애물 넘기와 마장마술이 실시된다. 헬멧, 안전 조끼, 코팅 장갑은 무료 대여 가능하며, 승마 복장으로서는 몸에 붙는 스키니 진과 편안한 운동화 정도면 된다고 한다.

월요일은 휴무이며 이용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요일에 따라 17:30 혹은 18:00까지다.

김지혜



4. 능원리 구비전승

모현읍 능원리에 내려오는 전설은 포은정몽주 선생과 관련이 있는 설화가 대표적이다. 능원리의 많은 주민들이 대표적인 전설로 포은 정몽주 선생의 묘소에 내려오는 전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 포은 정몽주 선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포은 정몽주 묘소

이방원은 조선의 세 번째 왕인 태종으로 즉위 후 6년 뒤인 1406년, 자신이 죽인 정몽주 선생을 복권시키면서 문충(文忠)이란 시호를 내리고 개성 풍덕에 가묘 형태로 모셨던 선생의 유해를 그의 고향인 경북 영천으로 이장토록 했다. 후손과 많은 유림의 선비들이 뒤따르는 가운데 상여가 고향 영천으로 가는 도중, 지금의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부근을 지날 때였다. 상여 행렬의 맨 앞에 선 명정(銘旌·죽은 사람의 관직 등을 적은 천)이 갑자기 불어온 회오리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기 시작했다. 명정을 잡기 위해 후손들이 따라가 보니 지금의 모현읍 능원리 문수산 기슭에 떨어졌다. 명정이 떨어진 곳을 이상하게 여긴 후손들이 지관을 불러 물어보니 이 자리가 보기 드문 명당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후손들은 “하늘이 충신을 알아보고 자리를 잡아 주었다”하고 감탄하면서 경북 영천까지 갈 필요 없이 이곳에다 묘를 쓰기로 했다.

- 내고장 용인 북부지역의 구비전승. 용인문화원. 1997

포은 증손녀와 저헌 이석형

후손들은 포은 선생의 밧자리를 봤지만 날이 저물어 하관(下棺)은 할 수가 없었다. 몇몇 인부들에게 밧자리를 지키도록 하고 먼 행렬에 피곤한 후손들과 유림들은 곤한 잠이 들었다. 다음날 정몽주 선생을 모시려고 보니 밧자리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가. 후손들은 “명당인 줄 알았더니 물이 나는구나”하고 탄식을 했고, 옆 언덕을 보니 그곳도 명당인지라 정몽주 선생을 모셨다.

포은 정몽주 선생의 손자인 정보 선생의 딸이 임종에 이르렀을 때 자식들에게 유언으로 “포은 선생의 명정이 떨어진 곳에 나중에 남편과 합장을 해 달라.”고 하였다. 자식들은 그곳은 물이 나는 곳이니 쓸 수 없다고 하였으나, 그 당시에 물을 길어다 부어서 쓸 수 없게 만든 사람이 자신임을 알리고 포은 선생의 명정이 떨어진 곳에 묘를 써 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곳에 대사헌을 지낸 저헌 이석형 선생의 묘가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 내고장 용인 북부지역의 구비전승. 용인문화원. 1997

그러나 이 설화는 후세에 만들어 덧붙여진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저헌 이석형(1415년~1477년)은 포은 선생의 유해를 용인 땅에 이장했던 태종 5년(1405년)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포은 선생의 증손녀 또한 생몰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저헌 이석형 선생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해야 결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은 선생의 묘소에 증손녀가 물을 퍼다 부었다는 이야기는 시기가 맞지 않는다.

시대를 위해 친정집 명당을 훔친 ‘딸도둑’전설이 후대에 이르러 덧붙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포은 정몽주 선생 묘표 ‘수문하시중정몽주지묘’

시간이 흘러 정몽주 선생의 묘 앞에 비석을 세울 때의 일이다. 정몽주 선생은 조선의 태종에게 대광보국숭록대부 영의정부사 수문전대제학 감예문춘추관사 익양부원군(大匡輔國崇祿大夫 領議政府事 修文殿大提學 監藝文春秋館事 益陽府院君)으로 추증되었는데 묘비를 세울 때, 처음에는 조선에서 받은 벼슬을 비석에 기록하여 세웠다.

그런데 비석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천둥과 번개로 인해 벼락을 맞아 비석이 깨졌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직감했다.

“이것은 필시 조선 관직을 받은 것에 대한 조상님의 분노입니다.”

“비석에 조선의 관직을 빼고 고려의 관직만 기록합시다!”

묘비를 세우는 사람들이 모두 그 말에 동의를 했다.

그리하여 정몽주 선생의 묘비에는 고려수문하시중정몽주묘(高麗守門下侍中鄭夢周之墓)라고 쓰고 비석을 다시 세웠다. 그 후 비석은 아무 이상이 없었다. 정몽주 선생은 명당자리로 이장한 후 문묘(공자를 모신 사당)에 배향되는 동방 18현의 한 분이 되었으며 그 후손들은 번성했다.

- 용인군사사연보. 용인문화원. 1994년

능원리는 능원이라는 지명부터 예사롭지 않다. ‘능’이라는 것이 왕이나 왕비의 무덤을 가리키는 말로 ‘능’이 들어간 지명들은 대체적으로 왕릉과 관련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능원리는 왕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옆 동네인 광주 오폐 능평리에도 왕릉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때 오폐 능평리에 숙종 때의 후궁이었던 희빈 장씨의 묘소가 있었는데, 아들이었던 경종에 의해 ‘옥산부대빈’에 봉해졌지만 희빈 장씨의 무덤은 왕릉이 아닌 ‘묘’에 해당했기 때문에 능원리의 지명과는 관련이 없다. ‘능’이라는 명칭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의 전설이 내려움을 알 수 있었다.

정몽주와 능원리

조선시대 진천에 사는 백만도사가 한양 구경을 가는 길에 포은 정몽주 선생의 묘소를 구경 왔는데, 묘소를 보고 “능자리처럼 좋은 명당자리”라고 해서 그 후부터 능골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 우리집안 문화유산을 찾아서. 정연철. 2016

정도전과 능원리

우명동 올라가면 작은능안, 큰능안이라고 산골짜기 이름이 있어요. 전에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옛날에 이씨조선 때 정도전이가 여기 능원리에 왔다가 산소자리를 봤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다는 거야. 그 속에서 산소자리를 봤다는 거야. 왕이나 왕비가 죽으면 묻히는 능자리를 봤는데 이곳이 아주 좋았다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안개가 걷히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정도전이가 잡았던 능자리인데, 그래서 큰능안, 작은능안이라고 골짜기가 있어.

능골이 광주 능골하고 용인 능골하고 있는데, 여기(능원리)가 가장 컸어요. ‘능골삼거리 능골삼거리’ 그러는데 원래는 여기를 가리키는 건데 지금은 광주 땅이 능골삼거리가 된 거예요. 오폐는 능평리, 여기는 능원리.

정몽주 선생님 묘소를 능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능이라고 하면 그거는 큰일 나지요.

‘능’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희한하지요? 큰능안, 작은능안이라고.

능골은 우리 동네 하나예요. 광주 거기는 능평이고, 여기는 능골이고, 광주는 우리 동네 따라서 능평이라고 그런 거지.

- 라창욱. 능원1리. 80세

의인왕후 박씨와 능원리

조선 선조 때 경기도 관찰사를 지낸 이정구가 쓴 <충렬서원강당기>에 보면 선조의 첫 번째 왕비였던 사람이 의인왕후인데 얘기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광해군을 양자로 삼다시피 하고 결국 광해군이 세자가 됐지요. 그런데 이양반이 임진왜란 때 죽은 거야.

선조 33년 경자년(1600년)에 돌아가셨는데 장례기일이 지났으나 원릉을 오래도록 정하지 못하여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 거예요. 왕이나 왕비가 죽으면 지관들이 추천을 해요. 그래서 지술하는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아는 바를 들어 보고하게 하였더니 사대부의 묘소는 물론 임금의 친척도 모두 해당되었는데, 능묘로 추천이 되면 문중이나 그

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때 정포은의 묘소도 딱 추천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선조가 “설사 포은의 묘소가 쓰기에 적합하더라도 어찌 충현의 유골을 200년 후에 발굴하라? 특별히 보지도 말라! 아무리 그래도 복권을 해드린 곳을 파 헤치냐? 안 된다. 빼라.” 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능표로 지정이 되면 말뚝을 박고 그랬어요. 문수산 밑에 ‘능터’라는 팻말이 전해 내려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능을 세울 만큼 괜찮은 곳이다.’ 란 얘기에요. 그 기록이 선조가 월사랑 친했잖아요? 월사가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적어놔요. 그 내용이 <월사집>에 나와요.

- 정연철. 능원3리

능원2리에는 ‘우명동’이라는 마을이 있다. ‘소울’이라는 토속적인 이름을 한자화하여 ‘우명동’ 이라 부르는데 이곳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하나는 ‘허욕을 부려 소가 된 농부의 이야기’와 또 다른 하나는 ‘아기장수 이야기’이다. ‘아기장수 이야기’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장수설화 유형의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아기장수의 비극적인 좌절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둘러싸고 다양한 변이를 보여주는 데, 능원리의 주민들은 약간씩 변형을 보이기는 하지만 주로 ‘아기장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기억하고 계셨다.

허욕을 부리다 소가 된 농부와 우명동

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은 농사를 짓다가도 “어떤 놈은 팔자 좋아 말 타고 한양 가서 과거 하는데 이놈의 신세 할 일 없이 땅만 파고 있으니 부모 잘 못 만난 것이 원수로다.” 하면서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나도 글줄이나 배웠더라면 과거라도 보련만 검은 것은 먹이요, 흰 것은 종이니 이런 청맹과니는 언제 한번 양반 감투를 써 보려나. 예구” 하면서 지체 높은 양반들이 쓰고 다니는 정자관을 한번이라도 써 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용인 장을 보려고 청덕리 물푸레 고개를 넘으려는데 한 노인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바둑판을 앞에 놓고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농부도 다리도 좀 쉬어 갈 겸, 노인 옆으로 가서 주저하고 있었다. 그런데 노인이 먼저 말을 걸어 왔다.

“자네 한가하거든 나와 바둑이나 한 수 두세 그려” 하고 권하자 옹거니 잘됐다며 바둑이라면 별로 두려울 게 없을 정도의 실력임을 믿고 쾌히 승낙하면서 내기 바둑을 청하였다.

노인은 쾌히 승낙하면서 “이보게 만일 내가 자네한테 질 것 같으면 내 머리위에 있는 정자관을 주려니와 자네가 진다면 막걸리 한잔만 받아오게. 어떤가?”

농부는 이것이야말로 양수 겁쟁이라고 생각했다. 진다손 치더라도 연치로 보아 훨씬 윗분이고, 게다가 양반 어른이니 별로 자존심 상할 것 없는 일이고,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기껏 막걸리 한잔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으며, 반면에 백두서민에 농사나 짓고 사는 젊은 놈이 노인을 이긴다면 양반의 상징인 정자관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양반이 상것에게 내기를 하여 정자관을 내주었다면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는가?

이러나저러나, 매치나 둘러치나 밀질 것이 없을 것 같았으므로 바둑을 두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노인의 바둑 실력이 처음부터 엉성하였고, 행마도 제 길을 택하여 놓지 못하였으므로 농부는 한 수 위의 실력으로 단판에 불계승을 거두었다.

희색이 만연한 농부는 “영감님, 약속하신대로 정자관이나 내 놓으시지요” 하자 노인은 선선히 벗어 주었다.

“영감님, 이것은 영감님의 실수였으니 나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득의만만하게 정자관을 머리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몸에서 황소털이 돌아나고 머리에 썼던 정자관은 황소뿔이 되어 머리에 달라붙었다. 그뿐 아니라 육신이 점점 커지더니 네발로 서야만 몸을 가눌 수 있었다.

농부는 갑자기 커다란 황소가 되었는데 노인은 느닷없이 고삐를 씌워버렸다. 소가 되고 고삐가 씌어지자 꼼짝 못하고 노인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지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 좀 구해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 봐도 그럴 때마다 “음메”소리밖에 나오지 않았다. 할 일 없이 소가 되어 용인쇠장으로 끌려가면서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니 처량하기 그지없어 눈물이 절로 흘러 나왔다.

청덕리 물푸레 고개를 넘어가게 되자 소가 된 농부는 소리 내어 울었다.

그럴 때마다 울음소리는 소우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다.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은 “웬 소가 저 모양으로 극성스럽게 우느냐?”고 하였고,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렸던지 사람들은 소 울음소리가 크게 울리던 곳을 ‘소울이 골(牛鳴洞)’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한편, 소가 되어 용인 쇠전에 끌려 온 농부는 어느 사람에게 팔려가게 되었는데 노인이 소를 건네주며 하는 말이 “이 소는 절대로 무밭 곁에는 데려가지 마시오. 만일 이 소가 무를 먹으면 그때부터는 이 소를 부리지 못하게 될 것이요”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소가 되어 밤 낮 고된 일을 하다가도 조금만 꿈지럭 거리면 사정없이 회초리로 얻어맞고, 그럴 때마다 농부는 “이런 굶뜨고 게으른 놈을 봤나?” 하면서 때렸다.

소가 된 농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빌어먹을, 무나 먹고 죽어야겠다.”며 마음먹고 무밭을 가려해도 노인이 미리 단속을 해 두었기에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그해 가을 김장철이 되자 무를 마당 한가운데에 수북이 쌓아 놓았다. 소가 된 농부는 밤이 되자 천신만고 끝에 외양간을 빠져나와 마당에 쌓아 놓은 무를 먹어치웠다.

새벽녘이 되자 머리에서 뭔가가 툭 떨어지는 것이 있어 내려다보니 노인과 내기하여 얻어 쓴 정자관이었다. 그것이 벗겨지니 신기하게도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농부는 그 저주스러운 정자관을 갈기갈기 찢어 던지고 나서 “이놈의 감투는 이제 처

다보지도 않으리라”하고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원하여 허욕을 부렸던 일을 몹시 후회하면서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그때 소가 되어 큰 소리로 울던 고개 아래는 지금도 ‘소울리 골’ 또는 ‘우명동’이라고 불리우는 지명이 전하고 있으니 지금의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의 서남쪽 기슭(능원리 우명동)이다.

- 스토리텔링 용인의 설화. 용인문화원. 2018년

아기장수와 우명동(1)

우리 마을 저 맨 끝에 양촌이라고 나도 들은 얘기인데, 어떤 해 타작을 해서 끌어들이는데, 옛날에는 봉당이라고 대문에서 들어오면 마루에 올라가기 전에 마당이 있어요.

‘풍년이다 흉년이다’하는 것은 농사지는 것을 내 마당에 끌어다 났을 때 하는 얘기지. 내일 비가 올지 태풍이 올지 모르니까, 내 봉당에 끌어다 났을 때가 풍년이다 하는 건데, 그렇게 타작을 해서 벼섬을 끌어 들이고 있을 때야. 바빠 죽겠는데 어떤 동자가 나도 들은 얘기인데, 동자가 와 가지고 밥을 달라고 그러드래. ‘지금 바빠서 벼섬을 끌어 들이기도 죽겠는데 무슨 노무 말이냐?’ 하고 말대꾸를 안 했대요. 그러면서 누가 먼저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주인이 얘기했는지 동자가 얘기했는지 벼섬을 봉당으로 다 끌어들이면 밥을 주겠다든지, 내가 끌어다 주면 밥을 달라든지 얘기가 됐대요.

동자가 “그래라.” 그래갖고 벼섬을 동자가 드는데 번쩍번쩍 다 갖다 쌓드래요.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노인네들이 생각하기에 큰 인물이 될 것 같거든

옛날에는 큰 인물이 난다고 그러면 일본 놈들이 전부 쇠말뚝을 박았잖아요? 여기가 향수산이거든요? ‘소제사 지낸다고 그쪽에서 기를 꿇을 거다’ 일본 놈들이, 그래갖고 딱 판지를 걸었대요. 동네사람이 판지를 걸어서 동자가 벼섬에 깔려 죽었대요.

동네 사람이, 동자가 이 동네에서 나왔다 하면 일본에서 이 동네에 말뚝을 박아 기를 꿇을 거다. 애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박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걸어가지고 딱 고꾸라져서 죽었대요. 그랬더니 소가 딱 와 갖고 “음메에” 울면서 동자를 태우고

가더래요. 그래서 “음메 음메” 하고 울던 동네다 그래서 ‘소울’이라고 했다고 그러더라
구요.

- 라창옥 능원1리. 80세

아기장수와 우명동(2)

어른들 말씀에 의하면 옛날에 이 마을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셋이 한 집안에 살았
어.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팔 있지? 추수를 해 가지고 옛날에는 며거리(떡서리)라고 있
어요. 두 가마 들어가는 것, 노인들이 만들던 것인데 가마가 아니고 며거리라는 것이 있
는데, 거기에다가 팔을 한 며거리 담아서 묶어서 지계에 짊어 났는데, 할아버지도 못 지
고 아버지도 못 지는 거야.

두 가마짜리를 무거우니까 못 지는 거야. 손자가 일곱 살배기인가 아홉 살배기인가 나
오더라. 나오더니 손자가 그것을 거뜰히 지고 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놀라서 죽었어.

할아버지 아버지가, 옛날에 장사가 있으면 역적이 생긴다고.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죽었대는 거야. 그러니까 소가 여기서 울고 나갔다는 거
야. 장사를 죽이니까, 그래서 소우(牛)자 울명(鳴)자 그래서 우명동이야. 소가 울고 나갔
다고 그래서 원래 ‘소울’인데 부르다 보니까 소우리가 된 거야.

- 김창진 능원2리. 75세

산신제는 산제·산제사·산치성(山致誠) 등으로 일컫기도 한다. 산신제는 따로 독립되어 행해지기도
하지만, 동제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산신제는 예전의 산악신앙이 변모된 형태로서 현
재는 마을 수호신에 대한 신앙으로 알려져 있다.

산신제는 그 시기가 마을마다 일정하지 않으나, 대부분 마을에서 산신을 모시는데, 마을 뒷산에 산신
단·산신당·산제당을 마련하여 그곳에서 모신다. 능원리의 대부분의 마을은 산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능
원1리는 가을이 되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음식을 마련하여 제를 지냈다. 능원2리에 남아 있는 산신제

는 레이크사이드 안에 마련된 산제당에서 음력 10월초에 지낸다고 한다. 능원3리는 포은 정몽주 선생
과 저현 이석형 선생의 묘소가 자리하면서 유교의 영향인지 마을동제는 거리가 먼 다른 마을의 이야기
였다. 다음 이야기는 능원2리 산제당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다.

산제당 이야기

1. 6.25 때 중공군이 말을 끌고 들어왔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 산제당 안에다 말을 뺏
었어. 눈이 오고 날이 추우니까. 그런데 거기서 끌고 나오니까 말이 다 죽었다는 거야.
거기 안에 있다가 나온 놈은 다 죽었다는 거야. 안 들어간 놈은 괜찮고 그 안에 들어갔
다 나온 놈은 다 죽었다는 거지. 중공군 놈들도 거기에 약이 있었나 의심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그때 동네노인네들도 ‘신성한 기운이 있구나!’ 그랬어.

2. 전에는 산에 화재가 나서 나무가 다 탔어. 그런데 산제당 있는 근방에 한 40~50m
될 거야. 산제당에서부터 그 부위만 남기고 다른 곳은 다 탄 거야. 소나무가 아주 이런
아름드리야. 그 근방에는 그런 소나무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니, 어떻게 이
렇게 자랐어?” 그 주변에는 나무가 없으니까. 그런데 불이 나서 다 타버리니까 별목을
해서 없는 거라고 여기(산제당 주변)는 불에 안탔다고 어른들이 그러는 거야.

3. 골프장 들어서기 전에 언젠가 해충이 생겨 가지고 조선소나무, 토종 소나무가 다
죽었어요. 전체가 짝 다 죽었는데 거기 불나고 남은 나머지 소나무가 고대로 짝 살아있
는 거야. 그러니까 지킴이잖아? 지킴이지! 이런 소나무가 조선소나무인데 골프장에서
웁긴다고 캐더라고. 그래서 동네사람들한테 못 옮기게 해야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다
몰려가서 못 캐게 했는데, 우리가 가기 전에 몇 주는 캐고 나머지는 못 옮긴 거야.

- 김창진. 능원2리. 75세

능원리는 1970년대에만 해도 하루에 버스가 두 번 정도 밖에 안 다니는 산골 벽촌이었다. 골짜기가 깊어서인지 늦은 시기까지 호랑이가 출몰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남아 있었다.

조상들은 예부터 호랑이에게 다양한 성격을 투사했다. 여러 호랑이 민담들에서, 호랑이는 이야기마다 다른 모습과 다른 성격으로 나타난다. 호랑이는 산중에서 길 잃은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호랑이는 은혜에 보답을 하고, 금수임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윤리적인 존재이다. 오히려 웬만한 인간보다 윤리, 도의를 알며 이를 실천할 줄도 아는 존재이며, 인간의 윤리 가치 혹은 유교 가치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능원리에 전해 내려오는 호랑이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보자.

비녀 뽑아준 은혜를 갚은 호랑이

우리 동네는 없고 우명동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옛날로 말하면 산속이야.

박해정씨 할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는데 호랑이가 입을 딱 벌리더라.

담력이 센 양반인데,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으니 이상해서 호랑이 앞으로 다가 가서 보니까, 호랑이 입에 비녀가 걸려 있더라. 여자를 잡아먹은 거지.

그래서 호랑이 입에서 비녀를 빼 줬는데, 호랑이가 엎드리더라. 타라는 거지. 그래서 타고 왔다.

이 양반아버지가 겨울에 돌아가셨는데, 그날 밤에 호랑이 우는 소리가 문밖에서 나더라. 그래서 나가보니까 호랑이가 왔는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안 가고 있더라. 그래서 나갔는데, 호랑이가 천천히 가다가 문짓 돌아보고 돌아보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땅을 파더라. 골프장 있는 데를. 그 자리에 산소자리를 썼다는 거야. 호랑이가 잡아놓은 산소자리라는 거야.

호랑이가 은혜를 알고 잡아준 산소자리인거지. 그리고 또 어디 갔다가 밤에 늦게 오면 같이 동행해 주곤 그랬대.

- 라창옥. 능원1리. 80세

농사 짓다 만난 호랑이

호랑이는 이 동네에 있었어요. 호랑이는 사람을 보면 겁을 주느라고 흙을 파 끼얹는 동물이잖아? 그런데 어떤 양반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저위에 골프장에 동코스 가면 저 꼭대기에 논밭이 있었어. 그 양반이 논을 갈고 나서 연장을 소에서 띠어야 할 것 아니야? 쟁기를 소에서 띠는 데 보니까, 딱 와서 옆에 앉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가시라고, 가시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거짓말 하는 양반도 아니거든. 그 양반 얘기뿐만이 아니고 이 마을에 호랑이는 있었어요.

- 김창진. 능원2리. 75세

손님 대접 받는 호랑이

옛날에는 장을 보러 가거나 수원을 갈 때 이 안 고개를 넘어서 어정역을 통해 다녔어. 그런데 불일이 늦게 끝나서 어정역에 넘어 다니면 호랑이가 사람을 따라 왔다는 거야. 남자 노인네들이 어디를 갔다가 늦게 오면 호랑이가 따라온대. 옛날 분들은 아니까 “야, 여기 손님 오셨다. 손님 대접해라.” 그러면 벌써 개가 한 마리 없어진다는 거야. 호랑이가 채서 가져 간 거야.

- 김창진. 능원2리. 75세

어둠을 밝혀 준 대지고개 호랑이

후생사업 다닐 때, 6.25때, 육이오사변 때, 그때 대지고개가 왜 저 수원장을 갈라든 여기서 차가 없으니까 새벽 한 시나 두시 그때에 말마차 있잖아? 우마차를 끌고 이 대지고개를 넘어가고 그렇게 넘어갈 때, 호오~올레? 히트라이트처럼 그렇게 환하게 비춰 주는 거, 두 눈이, 눈이 그렇게 멀리서도 노래지면 환하게 비친대. 여기 대지고개가 옛날에 지금은 그냥 대지고개가 크고 길도 크고 한데, 옆에 고개가 있어. 지금도 대지고개라고 그래. 그런데 그전에는 인자 그렇게 호랑이가 있었다야.

호랑이가 불을 밝혀주고 그랬대. 밤에 새벽에 깜깜한 새벽에 이렇게 저기허믈, 이렇

게 불을 훤히 밝혀주고 호랭이 눈이, 눈이 이렇게 비춘대.

소마차를 인자 달구지에다 싣고 인제 수원장에, 우리 옛날에 교통이 아주 산골뱅이 교통이 불편해서 차가 안다니고 그래서, 옛날에 6.25 지나고 바로 60년 70년 때서? 그 래가지고 새벽장에 갈라몬 여기서 한시 두시에 새벽에 가야, 그때 거기가야 나물을 팔 고 그러고서 뭘 사가지고 또 오거던?

그래서 그렇게 새벽에 그렇게 갈라치면 그렇게 불을 밝혀주고 그랬대. 그게 바로 호 랑이라네. 호랭이. 호랭이가 있었다. 대지고개 거기야.

- [구비문학의 이론과 실제] 처인구 능원리 <호랑이설화> 채록 보고. 2017

나물 뜯으러 가서 만난 호랑이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봄이 되면 산에 가서 나물을 많이 뜯어다 먹었거든. 산에 밭 도 일구고 그랬는데, 저 동네 사람들이 나물을 뜯으러 갔는데 호랑이가 새끼를 낳는 것 을 봤대.

이 새끼가 그렇게 이쁘디야! 호랑이 새끼야, 새끼니까 이뻐졌지.

그래서 인자 호랑이가 인자 저기서 숨어서 본 거지 할머니들이 “아구, 이쁘다! 호랑 이 새끼가 어쩜 이렇게 이쁘냐?”고 고냥 그거를 칭찬을 해주고 그냥 보호해주고 저 이쁘다고 그래니까는, 저 새끼를 이쁘다고 허니까는 그 호랑이 어미가 어주 “어흥” 그러 디야. 저 새끼 어쩔까베.

그러니까는 그냥 그 호랑이가 그냥 “어흥”거리니까 할머니들이 아주 막 도망갔다. 그 냥 그 무서워서 나물바구니고 뭐고 그냥 집어 내 버리고 내려 왔대들. 그러니까는 그 호 랑이새끼가 무서워서 저기 허는데 그 이튿날 그 나물 바구니를 그 호랑이가 자기 새끼 를 이쁘다고 헨 집이, 그 집집마다 나물 배구니를 다 갖다 냈더라.

무서우니까네 새끼 봐서 이쁘다고 막 그랬더니, 호랑이가 제 새끼를 우짤까바 “어우 우웅” 그러고 호랭이 새끼 이쁘다고 애미가 그러니까는 무서우니까는 그냥 나물 배구 니 다 내비 버리고

무서워서 저기했는데 그 이튿날 나가보니까, 나물 배구니를 어떻게 알고 그 집집마 다 갖다냈더라. 그런 소리 난 들었어. 할무니들한테

- [구비문학의 이론과 실제] 처인구 능원리 <호랑이설화> 채록 보고. 2017

그런 설은 있어.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니겠지. 그리고 나도 어렸을 때 우는 소리는 들 었고. 우는 소리 대단해. 우리 어머니 친구들도 나물 갔다가 우리 동네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대. 풀밭 속에서 자는 것을 본 거야.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 왔다는데.

- 김창진. 능원2리 75세

태재고개 호랑이

옛날에 산림감시원이 있었어요.

나무를 해다 팔고 그러던 때인데, 이 산림감시원을 피해서 밤에 나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나무를 싣고 가는 거지요. 조사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호랑이가 일 제 강점기에 없어졌느니 하는데, 저 어렸을 때는 일제 강점기 아주 후니까 그런 것은 없 었겠지요. 그런데 마차에 나무를 싣고 고개를 넘어가면 마차를 끄는 소가 못 갔대요. 산 짐승들이 내려와서 흙도 끼얹었고, 그것은 진짜 그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나무를 싣고 가는데 태재고개 정도를 넘어 가는데 거기서 나타나더라고.

산림감시 때문에 밤에 싣고 가는데, 호랑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뭘지는 모르는데 흙을 파서 끼얹진대요. 그러면 소가 못가고 짹 짹 거리고 서 있다고 그러더라고. 새벽정 도에 분당고개를 다 넘어가면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지요.

- 정달화. 능원1리. 63세

방울 단 호랑이

옛날에 이곳저곳 떠돌면서 소금을 팔러 다니는 소금장수가 있었다. 하루는 주막을 찾지 못해 빈집에서 묵게 되었는데, 막 잠을 청하려 하자 밖에서 호랑이 소리가 들렸다.

소금장수는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한 가지 꾀를 냈다. 그리하여 소금장수는 구석에 숨어 있다가 호랑이가 집안으로 들어와 잠이 들자 호랑이 꼬리에 방울을 달았다. 방울 소리에 잠이 깬 호랑이는 방울귀신이 자신을 잡아먹으러 온 줄 알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도망쳤다. 그러나 방울이 호랑이 꼬리에 달려 있어 호랑이가 아무리 빨리 도망친다 한들 언제나 바로 뒤에 따라오는 듯 딸랑거리는 소리를 냈다. 도망치던 호랑이는 도중에 토끼를 만났다.

토끼는 호랑이가 놀라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아니, 호랑이님, 호랑이님은 힘이 장사인데 뭐가 무서워 그렇게 도망을 가십니까?” 하였다. 호랑이는, “애, 말 마라! 지금 내 뒤에 방울귀신이 쫓아온다. 방울귀신이.” 하고는 대꾸하기도 귀찮다는 듯 계속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토끼는 이 말을 듣자 겁이 덜컥 났다. 그러나 자신은 호랑이보다 걸음이 늦으니 당연히 잡혀 먹힐 것이라고 걱정하여 호랑이의 꼬리에 자신의 꼬리를 묶고 같이 도망가자고 호랑이를 꾀었다. 호랑이는 그것이 소원이라면 그렇게 하라고 말한 뒤, 꼬리를 한데 묶고 다시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워낙 호랑이의 걸음이 빨라 얼마 가지 못해 함께 묶었던 꼬리가 끊어졌다. 그 때문에 호랑이 꼬리는 토끼 꼬리까지 연결되어 길고, 토끼 꼬리는 잘려서 몽당해졌다.

- 용인군지. 1990년. 용인문화원

호랑이 쉼터 '검정바위'

엄청 컸는데 골프장에서 길을 내느라 깨 버렸어. 그것이 호랑이의 쉼터야. 호랑이 쉼터 바위였어. 검정색이라 검정바위라고 불렀어. 호랑이가 요 뒷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검정바위를 건너서 오산리 쪽으로 넘어간 거야. 그게 통로야. 죽전 고개도 사람 쫓아 다니고 그랬대. 우리 아버님도 밤에 소를 끌고 오시다가 호랑이를 만나 혼나셨다고 그러더라고. 소를 끌고 오시는데, 대지고개부터 소가 뛰더라.

소가 호랑이랑 쌈이 붙으면 이긴대. 소가 이기는데 그래도 소가 겁을 낸대. 소가 뛰니

까 끌려오느라고 엄청 혼나셨다는 거야. 대지고개부터 뛰더니 요 밑에까지 내려와서 코를 뺑 뚫으면서 기침을 하면서 서더라는 거야. 저도 힘들었다 이거지.

- 김창진. 능원2리. 75세

예전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다. 꼬리가 아홉 개 달린 구미호 이야기는 '전설의 고향'에서 빠지지 않는 소재였다.

여우는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었지만 현재는 멸종 위기종이다. 여우는 독특한 사냥능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신비한 능력을 지닌 동물로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하곤 하였다. 다음은 능원리에 남아 있는 여우이야기이다.

여우 이야기 1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여우가 많았대요.

여우가 어느 정도 많았냐 하면 여우가 무덤을 판대요. 무덤을 파갔고 개들은 살아있는 것은 안 먹고 썩어있는 시신을 먹는 것인데, 한쪽에다 구멍을 파는 것이 아니라 도망갈 구멍을 같이 판대요.

나물 뜯으러 가든지 뭐를 하러 가면 처음 보는 사람은 산소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산소에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러면 같이 간 사람들이 막 끌고 하도 겁이 나서 도망 오다 보면, 나물할 때 낮으로 줄기를 자르면 줄기가 어긋하게 잘라져서 남은 줄기가 뽕죽해지잖아요? 옛날에 고무신을 신으니까 뽕죽한 줄기가 고무신을 뚫고 발등위로 올라와도 모르고 뛰었다고 그러드라고요.

어른들 산소는 옛날에 잘 썼을 것 아닙니까? 석회를 넣고 다지니까 그래서 그것은 힘들고 여우들이 주로 애충을 많이 찢었다고 그래요.

- 정달화. 능원1리. 63세

여우 이야기 2

여우같은 동물이 없어진 것은 쥐약이 나왔을 때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구요.

쥐 잡자고 쥐약이 나왔는데 쥐가 쥐약을 먹고 죽은 것을 여우가 먹은 거지. 그래서 여우가 멸종됐다고 그래요.

여우가 바로 집 뒤에까지 내려 왔었대요. 여우가 캥캥거리고 울고 돌아다니고...

여기는 추석날 장을 보러 가면 분당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요 삼거리에 가면 ‘큰가게’라는 곳이 있었어요. 우리는 ‘큰가게’라고만 불러요. 주인이 누구인지는 나중에 안 거지만 우리 어렸을 적에 “큰가게 가자!” 그러면 그 가게야. 거기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물건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에는 그 가게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야. 거기만 가면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거지.

그런데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그곳에 물건이 없는 거예요. 추석 전날에 제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 준비를 못한 거지. 그래서 추석날 아침에 가게에 갔는데 물건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산을 넘고 넘어 분당으로 가는 거지. 신작로로 가는 것보다 지름길이 있어서 그리로 가는 것이 훨씬 빠르거든.

이분이 우리 옆집 아버지 친구분이셨어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건데,

추석날 일찍 갔다 와야지 제사를 모실 것 아니에요? 사실 그 전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준비를 못해서 아침에 일찍 넘어 가는데, 안개가 끼 가지고 한 고개를 딱 넘어가니까 앞에서 조그만 강아지만한 노란 털을 가진 놈이 서 있더라요. 그래서 돌을 하나 들고 쫓아가서 때리려고 보니까 도망을 가더라는 거야. 그런데 뒤에서 한 마리가 짹 나타나더라. 앞에 놈을 쫓아가려니까 뒤에 놈이 쫓아오고, 돌아서서 뒤에 있는 것을 쫓아가려니까 앞의 놈이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한 얘기로는 자기가 그렇게 앞뒤로 쫓아 왔다갔다 하다 가는 정신을 잃을 것 같다는 거야. 그런데 어쩔 수가 없더라는 거야. 이쪽 놈이 덤비니까 때리려고 하면 저쪽 놈이 오고, 그런데 다행히 자기처럼 추석준비를 못한 사람이 고개를 넘어오다

가 만난 거야. 그래서 양쪽으로 쫓아가니까 없어진 거야. 그래서 살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 정달화. 능원1리 . 63세

우리나라는 귀신신앙과 많은 관련을 맺으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해왔다. 흔히 "귀신도 곡할 노릇이다", "귀신도 속이겠다", "귀신같이 잘 한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귀신은 경문에 막히고 사람은 경문에 막힌다", "귀신 듣는 데서는 떡 소리도 못한다", "귀신도 모르는 제사" 등의 속담이나 관용어가 많이 쓰이는 것을 보면 귀신에 대한 관념이 한국인의 의식세계에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귀신은 초자연적인 존재이다. 이런 초자연적인 존재인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공포감을 주는 동시에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이야기인 듯싶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서나 귀신에 관한 이야기는 넘치게 등장한다. 다음은 능원리에 나타난 귀신들의 이야기이다.

다리 없는 귀신이야기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가 있는데, 연로하신 할머니와 어디를 다녀오는 것인데, 지금은 여기 이길을 그때는 신작로라고 그랬었거든요. 새로운 길은 없었을 때니까. 신작로가 광부서부터 수원까지 비포장 도로에 차가 하루에 두세 번 버스가 다닐 때니까 굉장히 인적이 드물 때지요. 그때는 분당을 갔다 오거나 광주를 갔다 오거나 할 때 차를 놓치면, 풍덕천, 광주 경안까지 와서 대개 걸어오고 그랬어요.

하루는 친구하고 할머니하고 걸어오는데 일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름길로 들어서서 어느 정도 오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 거야. 그런데 동네사람들이 같이 오다가 일행이니까 할머니 걸음 속도에 맞추느라 자꾸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자꾸 먼저 가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고개를 넘어가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고개 이름이 ‘다람고지 고개’라고 하더라고요. 다람고지고개가 다람쥐고개가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 구비를 지났는데 먼저 간 일행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같이 간 일행들은 젊은 사람들이라 먼저 가고 자기는 할머니 걸음에 보조를 맞추다 보니 느려진 거지. 해는 뉘엿뉘엿 지고 땀도 나고 무서움증도 나고, 그래서 할머니를 재촉하는 거지. 그런데 할머니도 지쳐서 잘 못 가시는데, 한 구비를 더 가고 보는데 사람이 앞에 두 명이 가고 있더라고요.

‘아!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겠다.’ 하고 부지런히 쫓아가는데 가면 갈수록 멀어지지 가까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친구가 딱 보니까, 그때 그런 얘기가 많이 유행이 됐는데, 앞에 가는 두 사람이 다리가 없더라고요. 머리털이 막 솟고 식은땀이 나고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한테 의지를 하려는 거지. 할머니한테 “할머니, 빨리 가자.”고 앞의 사람이 다리 없다는 얘기는 못 하고, 가는데 조금 가다가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러고 나서 며칠 앓았어요.

- 정달화. 능원1리. 63세

손각시 귀신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재산은 없어졌지만, 손각시도 같이 없어져서 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다른 집에 가서 밤에 자는데 꿈에 나타나서

“야! 나는 안타고 여기에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난 집에 가보니까, 장작이 하나 안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집은 세간살이를 개구멍으로 빼서 이사 갔어요.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 정달화. 능원1리. 63세

죽은 사람과의 대화

어머니가 집에서 밭이 가까우니까 저녁이 됐는데도 밭에서 계속 김을 맨 거야. 그런데 김을 매고 있는데 옆에서 “왜 여직까지 김을 매? 이제 그만 매지.” 하는 소리가 들려

서 “이것까지만 매고 들어갈 거야.” 하고 대답을 했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무서워서 집에 와서 막 떨고 그랬어요.

- 정달화. 능원1리. 63세

귀신땀날

음력 15일은 대보름이고 16일은 ‘귀신땀날’이라고 그래요. 그날은 귀신이 신발에 와서 침을 뱉는대요. 그 사람을 데려 가려고 침을 뱉는 거래. 그래서 16일에는 신발을 전부 방에 가져다 뒀어.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했지요.

- 정달화. 능원1리. 63세

산속에서 노래하는 여자귀신

옛날에 여기가 무서운 게 있었긴 있었어.

나도 당한 사람이야. 여자 혼. 내가 보지 못하는 음영을 들었어. 되게 혼났지. 아버님이 어디 갔다 늦게 오셔가지고 마중을 나갔는데, 능골까지 내려가야 하거든. 날이 흐린 날인데 저녁때 내려가는데 내려가다 보면 에버그린 건물이 있단 말이야, 거기가 검정바위 있는 데야. 에버그린 옆에 쌍갈래길 우측에 바윗돌이 있었거든. 검정바위가, 거기 좀 내려가는데 저녁 무렵이거든.

그런데 산에서 여자가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아 여자가 무슨 노래를 해가 다 지는데 산꼭대기에서 저렇게, 듣기에 이건 서글프다고 들어야 할지, 무섭다고 들어야 할지 아주 기가 막히게 머리가 짹 올라가네.

무서움증이 짹 나타나고 소름이 짹 끼치는 거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데 노래 소리가 여전히 나는데 사람 미치겠는 거야. 내가 저 윗동네 살 때거든. 아 그러니 어떻게 해. 앞으로 내뒀지. 능골 가서 어른들 계신데 “저 죽을 뻔 했어요. 아주 혼났어요.”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저 아래 사시는 노인네가 “응, 너도 당했구나!” 그러시더라구.

여기에 그런 혼이 있었다는 거야. 그 소리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야. 끌려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나만 그런 것은 아니야.

나만 들은 것이 아니고 먼저 들으신 노인네도 있더라구. 나는 옛날에는 애충 우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 애기들 죽으면 갖다 묻잖아? 나는 그 울음소리도 들었어. 저 뒤에 골짜구니가 그런 골짜구니여. 애기가 죽으면 갖다가 그냥 솔가지만 덮어놓고 흙도 안 덮고 놓고 온 사람들도 있었어. 한번은 저 위에 올라갔다가 들었어. 내가 그렇게 들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들렸어. 어른들한테 “어저젠가 그저께는 뭐 소리가 들렸어.” 그러면 “거기가 그런 데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나만 듣는 게 아냐. 그전에는 사람들이 약해서 그랬는지 왜 그런 소리를 듣는지 몰라? 지금은 들을 수도 없는데. 옛날 사람들이 먹질 못하고 기운이 없어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몰라.

- 김창진. 능원2리. 75세

도깨비는 본디 사람이 아니라 돌 같은 자연물이나 사람이 오랫동안 쓰던 물건이었다. 그것이 수명을 다하거나 버려지면 귀신이 됐는데 그 형상은 동물일 수도, 사람일 수도 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다고 여기지 않은 옛사람들의 믿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다. 능원리에도 내려오는 도깨비 이야기는 이제 아는 사람도 드문 이야기가 되었다.

허리빠 도깨비

도깨비는 있었대요. 이 개울 다리가 옛날에는 징검다리란 말이에요.

우리 동네 어르신이 아침에 “아이, 난 허리빠가 없어.” 그러시더라. 이 양반이 술을 잡숫고 가시다가 도깨비하고 싸운 거야. 도깨비하고 싸우고서는 “이노무 새끼! 너를 꼼짝 못하게 묶어 놓는다.” 하고서는 묶어 놓고 오셨다는데 빗자루야. 빗자루가 도깨비 노릇을 한 거지.

허리빠를 거기다 묶어 놓고 집에서 찾은 거지.

옛날에 빗자루에 피가 묻으면 도깨비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 그런 얘기가 여기도 있었어.

- 김창진. 능원2리. 75세

도깨비집터

옛날에 저 꼭대기에 어떤 집은 무쇠술 뚜껑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보니까 뚜껑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더라는 거야. 도깨비장난이다 이거야.

그 집터를 이기면 부자가 된다고 하던데,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부자는 못 됐나 봐요.

그 집은 헐어진지 오래 됐어요. 거기 살다가 간 집이 오래 됐어. 그런 집이 있었어. 우리 동네에.

- 김창진. 능원2리. 75세

독갑보

저기 왕산리에 가면 ‘독갑보’라고 있는데, 도깨비가 밤새도록 돌을 끌어다 쌓아서 장마가 쳐도 독은 안 떠내려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

여기가 아니고 면소재지 왕산리에 그런 얘기가 있어. 옛날 노인네들이 그런 얘기를 해. 도깨비가 밤새도록 돌을 갖다가 쌓아 냐대나. 그런데 장마가 쳐도 거기는 그제 안패여 나간다고.

- 홍부식. 동림리

이 외에도 능원리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그러나 옛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드물었다. 날마다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의 홍수속에서 옛이야기를 간직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벌써 많이 지

났는지도 모른다. 남은 이야기들이 더 사라지기 전에 소개해 본다.

느티나무 이야기

숙종조에 마을마다 느티나무를 쫓아. 250년 정도 됐을 거예요. 마을마다 느티나무를 쫓아서 능골은 여기에다 심었고, 안골은 저기에다 심은 거예요. 그래서 안골느티나무와 능골느티나무 생일이 비슷해요. 안골은 팔아먹었고 능골은 남아있어요. 안골은 여기 산 밑에 있었어요. 능골은 아직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신작로가 생긴 거라. 우리가 어려서 다니던 길이 논길 아냐? 신작로는 마을 앞 도로가 생긴 거지.

- 정연철. 능원3리.

승지골 지명 유래

저희 집 뒤에 골짜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승지골인데, 그 골짜기가 크지는 않아요. 왜 승지골이냐 하면 아마 승지가 살았나 봐요. 승지가 거기서 입신양명한 거지요. 골짜기가 조그마한데 지금도 거기는 가재가 있어요. 나도 어렸을 때 거기서 살았는데, 우리집하고 옆집만 살았어요.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 땅이 거의 두 집 것이라서. 거기가 밤나무가 우거져서 가을이면 밤도 주우러 다니는 데거든요. 아늑하고 그런 곳인데 언뜻 듣기에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승지가 되셨다고 그래서 ‘승지골’이라는 지명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 정달화. 능원1리. 63세

부처등이

절이 망하면서 마지막 스님이 부처를 묻고 갔나 봐. 그래서 등이라는 것은 등성이라, 이동네 사람들이 맨날 ‘부처등이, 부처등이’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 보면 저렇게 나무가 크지 않았어요. 그때는 다 ‘화목’ 나무를 해서 때는 시대잖아요? 산이 별거숭이였고 그 부처등이만, 그래도 옛날에 신성한 곳이라고 나무를 못 잘랐던 것 같은데, 거기만

이런 아랍드리 나무들이 있었어. 거기는 항상 밤이 되면 부엉이가 울고 그랬지.

- 이문자. 능원3리. 79세

명돌네가 행랑채에서 쫓겨난 이유

할머니가 시집을 때 종을 데리고 왔는데 교전비라고 그래.

계속 데리고 살다가 장가를 들었어. 옛날에는 안팎머슴이라고 그러지.

여자도 머슴, 신랑도 머슴 행랑채에서 살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들이 ‘명돌어멈’이라고 그랬어.

우리 할머니가 이석형 할아버지 제사 때가 되면 명돌어멈한테 축을 뜯어오라고 그런 거래. 명돌어멈이 가서 축을 뜯어 오는데 음력 2월 초면 출잖아! 양력으로 3월초인데 출잖아. 그랬더니 명돌아범이 와서 옛날 종가집 안채에 덧문이 있고 영창이 있잖아?

명돌아범이 영창을 열었는데, 우리 할머니는 아랫목에 앉아계실 것 아냐?

명돌아범이 영창을 열고 “마님, 젓먹이 시집보내고 싶어서 어떻게 기르셨어요?” 그랬대.

자기마누라를 음력 2월 8일 날 축을 뜯으러 보낼 만큼 성질이 급하니까 ‘젓먹이 시집보내고 싶어 어떻게 길렀느냐’ 그랬다는 거야. 우리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놈이 어디 와서 난리야! 네 이놈! 오늘 당장 나가라.” 고 그래서 근처에 난로도 없는 방하나, 부엌하나 있고 뜰에다 신발 벗어 놓는 조그만 집으로 나갔어.

그래서 큰제사 때만 되면 동네 여자들이 3일전부터 다 모여. 떡방아 뿜는 것부터 일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매년 해서 들었어.

내가 여기 30년 전에 와서 살면서 이석형 할아버지 제사가 음력으로 2월 8일이야. 음력 2월 8일에 정말 축이 있나 없나 산소에 가 봤어. 그랬더니 노란 잔디 속에 축이 딱 요만하게(손가락 한마디)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 “야, 진짜 썩이 있다. 2월 8일에”

- 이문자. 능원3리 79세

구렁이로 환생한 필녀 오빠

큰집에 드나들며 허드렛일을 하던 마을 아낙네 중에는 필녀 엄마가 있었는데 어머니와 큰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인물이었다.

구슬픈 노랫말을 청승맞게도 잘 뽑아냈고 음담패설도 상스럽지 않게 천연덕스런 표정으로 남성을 웃겼다.

팔자가 기구하여 아홉 살에 서른도 훨씬 넘는 홀아비 필녀 아버지한테 민며느리로 시집을 온 그가 그 많은 껌말이며 음담패설은 어디서 들었는지가 어머니들의 의문이었다.

가난한 집에 시집이라고 와서도 밥을 많이 먹는 것과 바느질을 못하는 것으로 매일 같이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쫓겨났어도 갈 곳이 없어서 갈 수가 없었단다.

필녀 엄마가 자신의 삶을 남의 이야기 하듯 깔깔대고 웃으면서 말할 때면 정작 눈물을 찔끔대는 것은 어머니와 큰어머니였다. 고생을 하고 살아서였는지 인정이 많고 여장부답기도 했는데,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아씨란 호칭을 버리지 않았던 유일한 아낙이기도 하다.

필녀한테는 네 명의 오빠가 있었는데 아버지와 동갑이었던 큰오빠는 평생을 노름판으로 내돌았고, 둘째오빠는 총각 때 아이가 셋이나 딸린 이웃집과부와 눈이 맞아 아이들을 버려둔 채 야반도주하여 죽는 날까지 고향땅을 밟아보지 못했다. 막내오빠 역시 6·25 때 인민군으로 징용되어 생사를 알 수 없고, 어머니를 닮아서 입담이 좋고 사람이 성실했던 셋째오빠만이 어머니 옆에 든든한 아들로 남아 있었다.

이런 아들이 삼십대 중반에 젊은 아내와 어린 오남매를 늙은 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어느 날 갑자기 열병으로 죽었다. 필녀 엄마는 머리맡에 아들을 묻은 소우리 골짜기에 화전밭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밭을 일구러 다녔다.

화전밭치로는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굴청이 있는데 이 굴청 덩불속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누런 구렁이가 짙짙게 또아리를 틀고 돌위에 앉아서 필녀엄마와 대화를 했단다. 처음에는 필녀엄마가 기다란 막대기를 들고 쫓아보려 했으나 구렁이는 꼼짝도 하지 않더라.

필녀엄마가 화전을 일구러 오가는 날은 구렁이가 언제나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앉아서 필녀엄마를 바라보았고, 필녀엄마도 어느덧 정이 들더라.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나절에는 “이제 그만 들어가서 자거라” 하면서 사람을 대하듯 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구렁이를 필녀오빠의 녀이라고 믿었단다.

구렁이는 여러 해 동안 그 숲속에서 살았다는데 나는 결혼을 해서 할아버지 묘소에 성묘를 다니지 못했던 시절이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런 것을 믿을만한 나이도 아니었다만 웬지 마을 사람들처럼 믿고 싶었다.

구렁이를 통해서까지 라도 자식의 녀은 만나고 싶었던 필녀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었다면 누가 헛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니?

- 이문자. 능원3리. 79세. 딸에게 보낸 편지 中.

박씨부인전¹⁾

남편을 잘 모셨다는 이야기는 우리집안에 전해 와

‘박씨부인전’이라는 고대소설에 거기 나오는 ‘시백’이라는 남자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진짜 이름이고 우리 조상이야. 족보에 시백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옛날부터 우리 집안에서 ‘박씨 부인전’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1) 박씨부인전 <박씨부인전>이라고도 한다. 박씨 부인이라는 가공인물을 이시백·임경업 같은 역사적 인물과 함께 등장시켜 초인간적 활약을 그린 역사군담소설이다. <박씨부인전>·<명월부인전>이라는 표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본에 따라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으나, 추녀 박씨가 허물을 벗는 전반부와 병자호란 때 활약을 하는 후반부로 크게 나뉜다. 이 때문에 <이시백전>과 <박씨부인전>이라는 두 편의 소설이 결합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임진록>과 함께 이 작품에는 임진왜란·병자호란의 양란을 통해 겪었던 고통을 허구를 통해서나마 극복하고자 했던 뜻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씨의 영웅적 활약은 여성들이 가부장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욕구를 담고 있는 여성영웅소설의 모태로 작용하기도 한다. <다음백과>

그런데 박씨 부인 인물이 워낙 그렇게 박색이었다. 그런데 아주 현명해서 남편을 잘 내조했다는 거지.

- 이문자. 능원3리. 79세

중공군 이야기

6.25 때 중공군이 많이 죽었지. 시신을 수습한 것만 해도 140여 명이 돼. 우리집에서도 4명이 죽었고, 우리집에서는 어떻게 죽었냐 하면 우리 아버님이 국민병을 나가셨거든. 여기에서 있으면 안 되니까 나가라고 해서 국민병으로 나갔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내가 제일 만이니까 동생들하고 있었지.

그런데 우리집에서 중공군들이 싸우러 가기 싫으니까 자살을 한 거야. 우리 집이 외따라서 우리어머니가 혼자 애들만 데리고 계시기 뭐 하니까, 동생이 둘 있었나? 동네 집으로 나와서 같이 계셨거든. 그런데 집으로 가보니까 서너 놈들이 방에 드러누워 있더라는 거야. 한 놈은 앉아서 울타리를 뜯어다가, 옛날에는 나뭇가지로 울타리 했잖아? 밤나무 울타리를 했는데 그것을 꺾어다가 방 안에서 화로에 불을 때고 있더라.

아. 그런데 오후에 저녁때가 됐는데, 우리집이 불이 났다는 거야. 동네분이 가서 보니까 문을 닫고 이놈들이 아편을 핀 거야. 넷이 쪽 나란히 드러누워서 죽었더라.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 싸우러 댕기기 싫으니까. 그런데 고 밑에서도 또 총에 맞아서 시신이 쪼가리도 어느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도 모르게 헤져서 죽었더라. 하여튼 여기서 중공군을 140여 명 수습했어.

옛날에 이 동네에 노인네들이 솥 굽는 솥무지를 많이 했었어. 참솥 한 자리가 많거든. 솥가마 하면 자리가 꽤 넓은데, 거기에 열 몇 명씩 넣는 거지. 솥구덩이는 솥을 꺼내면 다시 하는 건데 난리 때는 못하니까, 그냥 중국놈 묘지가 되는 거야.

- 김창진. 능원2리 75세

백지수표

이정하 선생님이 고등국민학교를 운영할 때의 이야기이다.

학교를 운영하면서 운영이 어려웠던 선생님은 당시 친분이 있었던 금성방직의 사장 이었던 김성곤(쌍용그룹 설립자)에게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 김성곤은 흔쾌히 도움을 주기로 하고, 얼마가 필요한지 물었다고 한다. 건물도 짓고, 집기도 사고 여러 가지를 하려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다고 하자, 백지수표를 줄 테니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금액을 쓰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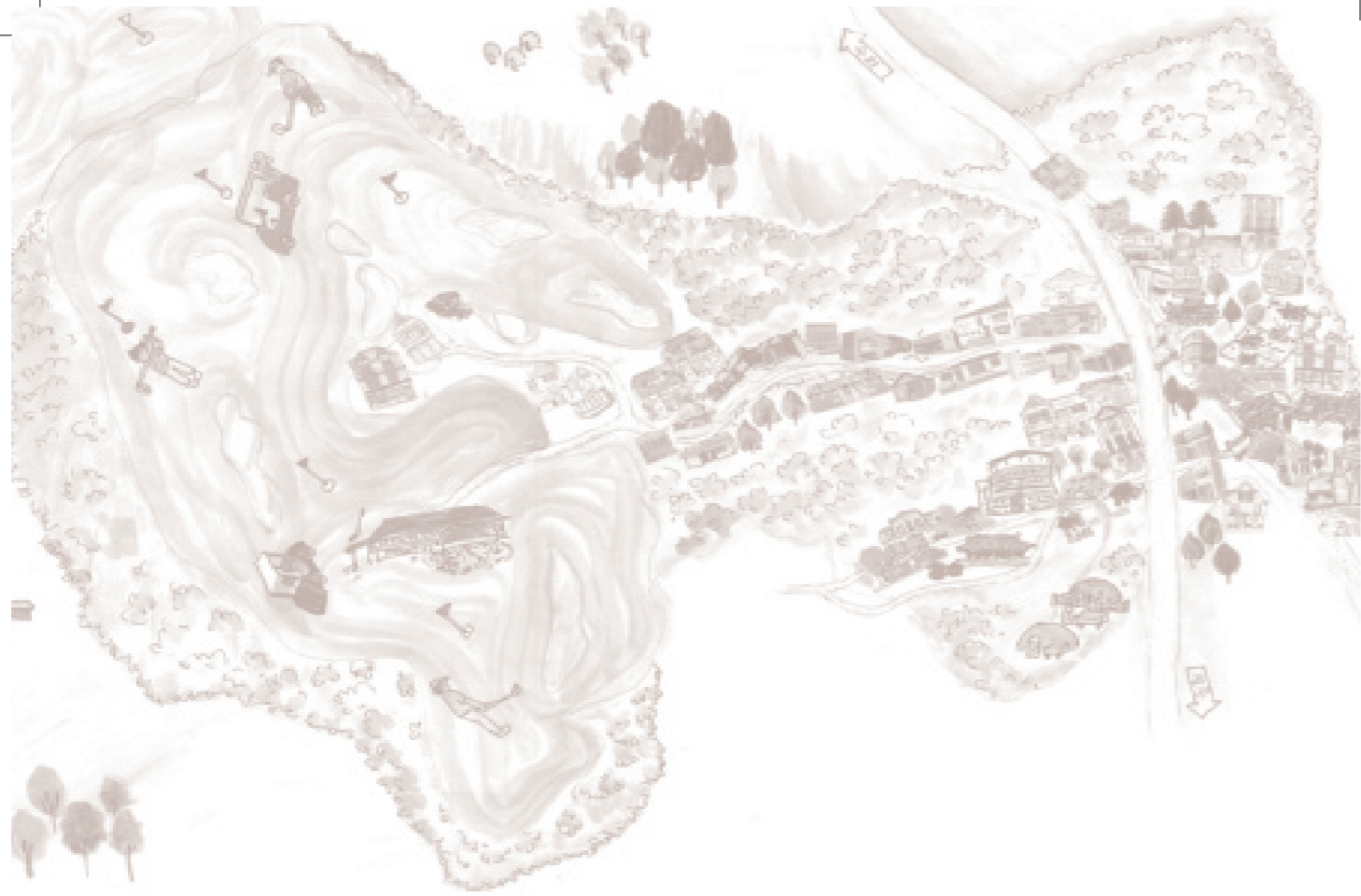
그런데 6.25가 발발하면서 김성곤이 운영하던 금성방직 안양공장이 전쟁으로 인하여 불이 나면서 운영자금을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백지수표(원하는 액수를 적어 넣는 수표)가 백지수표(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수표)가 되었다고 한다.

- 이종구. 용인문화원 이사

김정희



능원2리 산제당과 구술해주신 김창진



3.

능원리 공동체와 문화유산

1. 능원리 세거성씨와 인물 _이종구
2. 능원리 마을조직 _김도영, 박숙현
3. 능원리 근 현대 인물 _이은성
4. 능원리 문화자원 및 문화행사 _김장환

1. 능원리 세거성씨와 인물

1) 세거성씨

용인이 산업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시기는 1970년대 이후이다. 능원리도 1970년대 이전에는 산업화 이전단계인 농경중심 사회로, 가족과 문중이 무리를 이루어 거주하는 동족촌을 이루고 있었다.

능원리 거주해온 가장 유력한 문중은 영일정씨(迎日鄭氏)와 연안이씨(延安李氏)로 포은(圃隱) 선생과 저헌(樵軒) 선생의 묘역이 들어선 이후 후손들이 들어와 살게 되면서 대성(大姓)을 이루게 된다. 또 한양조씨(漢陽趙氏)를 비롯하여 다른 성씨들도 능원리에 들어오게 되는데 한양조씨 역시 조사(趙師) 선생의 묘역이 조성된 이후에 능원리에 자리 잡게 된다.

현재 능원리 자연마을은 크게 우명동과 능골, 그리고 안골이 있는데, 능원리에 거주해온 여러 성씨를 열거해 보면 우명동에는 박씨와 양씨, 경주김씨, 연안이씨가 있고, 안골에는 연안이씨가 많은 가운데 파평윤씨와 청주한씨, 나씨, 이씨, 박씨 등이 있다. 또 능골에는 영일 정씨 중심으로 한양조씨와 나씨, 박씨, 이씨, 서씨 등이 살아왔다.

능원리는 1970년대 이전만 해도 2개 리(里)로 편제되었으나 지금은 5개 리가 되어 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용인이 급속하게 성장을 이루면서 수지와 분당에 인접한 능원리에 빌라나 연립, 공장이나 창고, 그리고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선 결과이다. 따라서

거주 인구도 폭증하게 되고 더욱 다양한 성씨가 늘어나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외부인구의 급증은 본래부터 거주해온 선주민의 비율을 희석시키고 동족촌의 해체를 수반하게 되는데, 능원리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통적인 동족촌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연안 이씨

연안이씨는 황해도 연백을 본관으로 하는 한국의 성씨로 연안(延安)은 황해도 연백의 옛 지명이다. 시조는 당나라 장군이었던 이무(李茂)이다.

시조인 이무는 660년 신라가 백제를 침공 할 때 동맹국인 당나라의 장수 소정방(蘇定方)의 휘하 중랑장(中郎將)으로 따라 왔다가 신라에 귀화하여 연안백(延安伯)에 봉해짐으로 후손들은 연안을 본관으로 하고 있다.

연안이씨는 시조로부터 많은 세월을 보내다 보니 계대(繼代)가 실전되어 세계를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10여개 파로 분파되어 파조로부터 계대를 삼고 있다.

여러 파 가운데 월사 이정구(李廷龜)를 배출한 소부감판사공파(小府監判事公派), 이호민(李好閔)을 배출한 통례문사공파(通禮門使公派), 이광정(李光庭)을 배출한 태자첨사공파(太子詹事公派)세 집안이 연안이문의 대표적 문중이라 할 수 있다.

이 세 파중 소부감판사공파가 단연 빼어나 상신 8명, 대제학 6명 청백리 1명 그리고 10여 명의 공신을 배출하였다.

용인의 연안 이문은 소부감판사공 도시조 현려(賢侶)의 8대손으로 본파의 증시조라 추앙받는 저현(樗軒) 이석형(李石亨)의 후손들이다.

능원리에 연안이문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저현 선생의 묘소를 이곳에 모신 이후로 후손들이 세거하기 시작하여 능원리 안골, 동림리, 갈담리 갈월, 초부리 상부곡, 하부곡, 양지읍 추계리 등지로 확장하여 용인지역의 유력한 문중으로 자리잡게 된다.

모현 지역 연안 이문이 배출한 인물을 보면 이병화, 이병곤, 이병찬, 이병룡 등이 모현면장을 지냈고 초부리 출신 이철배는 능원리 능원고등공민학교에서 교육에 열중하

다 실업계로 나아가 우루사로 유명한 대웅제약 사장을 거쳐 회장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능원리 출신으로 저현 선생의 종손인 이정희는 능원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하면서 능원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는가 하면 용인애향가를 창안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군(郡)단위 애향가의 효시를 이루었다.

정희의 아들 홍배는 능원리 안골 종가 곁에 저현 선생이 노닐던 계일정(戒湓亭:연지동이 있었다고 전해지는)을 종원 들과 힘을 모아 이진하여 연안이문은 물론 지나는 이들에게 계일 정신을 일깨우게 하고 있다. 또 이용희가 용인향교 전교를 지냈고, 이병목이 충렬서원 원장을 역임하고 용인 한사회를 이끌고 있으며, 이병익이 도봉서원 원장을 지내는 등 유림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영일 정씨

영일정씨(延日鄭氏)는 경주(慶州)정씨, 동래(東來)정씨와 마찬가지로 신라 6부족 중 하나인 취산 진지촌(珍支村) 촌장이었던 지백호(智伯虎)의 후손이다. 그러나 시조 이후 계대를 정확하게 고증하기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라 태종 무열왕때 간의대부(諫議大夫)를 지낸 정종은(鄭宗殷)을 도시조로 하고 있다. 종은의 후손인 의경(宜卿)이 연일호장을 지냈고, 연일현백을 지냈기에 그 후손들이 본관을 영일로 정하여 세계(世系)를 이어오고 있다. 본관인 연일(延日)은 지금의 포항 지역 영일을 말한다. 정씨가 주로 세거한 곳이 오천읍(烏川邑)이었기에 오천정씨, 그리고 영일의 옛 지명이 연일임으로 연일정씨라고도 하나 현재는 영일정씨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일정씨의 세계를 보면 시조를 같이 하면서 주로 세파가 있는데, 고려 인종 때 추밀원 지주사(樞密院知奏事)를 역임한 정습명(鄭襲明)을 중조(中祖)로 하는 지주사공파(知奏事公派)와 감무(監務)를 역임한 정극유(鄭克儒)를 중조로 하는 감무공파(監務公派), 고려 현종 때 동비원부사를 지낸 정자피(鄭子皮)를 중조로 하는 양숙공파(良肅公派)가 있다, 그러나 지주사공파와 감무공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용인에 영일정씨들이 세거하기 시작한 것은 포은선생의 묘소를 능원리에 정하면서

시작하였으며 숙종조에 이곳에 사패지를 받으면서 영일정문이 정착되었다.

포은의 6대손인 진(震)이 3형제를 두었는데 첫째 응선(膺善)의 후손들은 별좌공파로 주로 능원리 일원에 거주하게 되었고 둘째 명선(明善)의 후손들은 판서공파로 능원리, 오산리, 기흥구 청덕동 일원에 세거하고 있다. 셋째 종선(從善)의 후손들은 포천공파로 왕산리 왕곡일대를 중심으로 세거해오고 있다.

영일정문이 이 지역사회를 위해 배출한 인물은 정대용, 정철영, 정낙영 등이 모현면장을 지냈고, 정덕화는 용인지역 대표적인 유림으로 활동했으며, 특히 종손인 정철수는 독립운동에 투신 혁혁한 공을 세웠다. 또 정운영은 모현농협 발전에 초석을 놓았고 용인 일원에 인삼재배에 기여한 공이 있다. 그리고 종손 래정은 영일문중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충렬서원 옆에 종가를 증건하여 문중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2) 인물

정몽주 (鄭夢周: 1337~1392)

본관은 영일(迎日)이며 자는 달가(達可), 호는 포은(圃隱)이다. 영천(永川)에서 출생하였으며 추밀원지주사(樞密院知奏事) 정습명(鄭襲明)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정운관(鄭云瓘)이다. 초명은 정몽란(鄭夢蘭) 또는 정몽룡(鄭夢龍)으로 어머니 이씨(李氏)가 난초 화분을 품에 안고 있다가 땅에 떨어뜨리는 꿈을 꾸고 낳았기 때문에 초명을 정몽란이라 했다. 뒤에 정몽룡으로 개명하였고 성인이 되자 다시 정몽주라 고쳤다.

1357년(공민왕 6) 감시(監試: 일명 국자감시로 진사를 뽑던 시험)에 합격하고, 1360년 문과에 장원급제해 1362년 예문관(藝文館)의 검열(檢閱)·수찬(修撰)이 되었다. 이때 김득배(金得培)가 홍건적을 격파해 서울을 수복하고서도 김용(金鏞)의 음모로 상주에서 효수되자, 김득배의 문생으로서 왕에게 시체를 거둘 수 있도록 청해 장사지냈다.

1363년 낭장 겸 합문지후(郎將兼閣門祗候)·위위시승(衛尉寺丞)을 역임하였고 동북

면도지휘사(東北面都指揮使) 한방신(韓邦信)의 종사관(從事官)으로 종군하여 서북면에서 달려온 병마사 이성계(李成桂)와 함께 여진토벌에 참가하였다. 돌아와서 전보도감판관(典寶都監判官)·전농시승(典農寺丞)을 역임하였다.

당시 상제(喪制)가 문란해져서 사대부들이 모두 백일 단상(短喪)을 입었는데, 홀로 부모의 상에 여묘(廬墓)를 살고 슬픔과 예절을 극진히 했기 때문에 1366년 나라에서 정려(旌闈: 미풍양속을 장려하기 위해 효자·충신·열녀 등이 살던 동네에 붉은 칠을 한 정문)를 내렸다. 이듬해 예조정랑(禮曹正郎)으로 성균박사를 겸임하였다.

태상소경(太常少卿)과 성균관사예(司藝)·직강(直講)·사성(司成) 등을 역임하였다. 1372년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오던 중 풍랑으로 배가 난파되어 일행 12인이 익사하였다. 다행히 정몽주는 13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명나라 구조선에 구출되어 이듬해 귀국하였다.

경상도안렴사(慶尙道按廉使)·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 등을 거쳐, 1376년(우왕 2)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이인임(李仁任)·지윤(池堧) 등이 주장하는 배명친원(排明親元)의 외교방침을 반대하다가 언양(彦陽)에 유배되었으나 이듬해 풀려났다.

당시 왜구의 침구가 심해 나흥유(羅興儒)를 일본에 보내어 화친을 도모했으나 그 주장(主將)에게 붙잡혔다가 겨우 죽음을 면하고 돌아왔다. 정몽주에게 양심을 품었던 권신들의 추천으로 구주(九州: 현재 일본의 큐슈지역)지방의 패가대(覇家臺)에 가서 왜구의 단속을 요청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모두 위태롭게 여겼으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건너가 교린(交隣)의 이해(利害)를 설명해 맡은 임무를 수행했고, 왜구에게 잡혀갔던 고려 백성 수백 명을 귀국시켰다. 이어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전공사(典工司)·예의사(禮儀司)·전법사(典法司)·판도사(判圖司)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1380년 조전원수(助戰元帥)로 이성계를 따라 전라도 운봉(雲峯)에서 왜구를 토벌하였다.

이듬해 성근익찬공신(誠勤翊贊功臣)에 올라 밀직부사 상의회의도감사 보문각제학 동지춘추관사 상호군(密直副使商議會議都監事寶文閣提學同知春秋館事上護軍)이 되었다. 1382년 진공사(進貢使)·청사(請諡使: 전왕의 시호를 요청하기 위해 보내는 사

신)로 두 차례 명나라에 갔으나 모두 입국을 거부당해 요동(遼東)에서 되돌아왔다.

동북면조전원수로서 다시 이성계를 따라 함경도에 다녀온 뒤, 1384년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올라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당시 명나라는 고려에 출병하려고 세공(歲貢)을 증액하고 있었고, 5년간의 세공이 약속과 다르다 하여 고려 사신을 유배시키는 등 고려와의 국교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었다. 이에 모두 명나라에 봉사하기를 꺼려했으나 사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긴장상태의 외교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1385년 동지공거(同知貢擧)가 되어 우홍명(禹洪命) 등 33인을 뽑고 이듬해 다시 명나라에 가서 증액된 세공의 삭감과 5년간 미납한 세공의 면제를 요청해 결국 관철시켰다.

귀국 후 문하평리(門下評理)를 거쳐 영원군(永原君)에 봉군되었다. 그러나 한 번 더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으나 다시 국교가 악화되는 바람에 요동에서 되돌아왔다. 삼사좌사(三司左使)·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등을 역임하였다.

1389년(공양왕 1) 이성계와 함께 공양왕(恭讓王)을 세워 이듬해 문하찬성사 동판도평의사사사 호조상서시사 진현관대제학 지경연춘추관사 겸 성균대사성 영서운관사(門下贊成事同判都評議使司事戶曹尙瑞寺事進賢館大提學知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領書雲館事)로 익양군충의군(益陽郡忠義君)에 봉군되고, 순충논도동덕좌명공신(純忠論道同德佐命功臣)의 호를 받았다.

이초(彝初)의 옥사가 일어났을 때 당시 조정에서 물러난 구과정객들에 대한 대간(臺諫)의 논죄가 끊임없이 계속됨을 보고 이를 부당하다고 말했으나 오히려 탄핵을 받았다. 이에 사직하려 했으나 허락되지 않았으며, 벽상삼한삼중대광 수문하시중 판도평의사사병조상서시사 영경령전사 우문관대제학 감춘추관사 경연사 익양군충의백(壁上三韓三重大匡守門下侍中判都評議使司兵曹尙瑞寺事領景靈殿事右文館大提學監春秋館事經筵事益陽郡忠義伯)이 되었다. 당시 풍속이 모든 상제(喪祭)에 불교의식을 숭상했는데, 사서(士庶)로 하여금 『가례(家禮)』에 의해 사당을 세우고 신주를 만들어 제사를 받들게 하도록 요청해 예속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썼다. 또 지방수령을 청렴하고 물망이 있는 사람으로 뽑아 임명하고 감사를 보내 출척(黜陟)을 엄격하게 했으며 도첩의

사사(都僉議使司)에 경력과 도사를 두어 금전과 곡식의 출납을 기록하게 하였다.

서울에는 오부학당(五部學堂)을 세우고 지방에는 향교를 두어 교육의 진흥을 꾀하였다. 그리고 기강을 정비해 국체를 확립하였으며 쓸데없이 채용된 관원을 없애고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였다. 또 의창(義倉)을 다시 세워 궁핍한 사람을 구제하고, 수참(水站)을 설치해 조운(漕運)을 편리하게 하는 등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바로잡고자 노력하였다.

1391년 인물추변도감제조관(人物推辨都監提調官)이 되고, 안사공신(安社功臣)의 호를 더했으며, 이듬해 『대명률(大明律)』·『지정조격(至正條格)』 및 본국의 법령을 참작·수정해 신율(新律)을 만들어 법질서를 확립하려고 힘썼다. 당시 이성계의 위망(威望)이 날로 높아지자 조준(趙浚)·남은(南閔)·정도전(鄭道傳) 등이 이성계를 추대하려는 책모가 있음을 알고 이들을 제거하려 하였다.

그런 와중에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세자 왕석(王奭)을 마중 나갔던 이성계가 황주에서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벽란도(碧瀾渡)에 드러눕게 되자, 그 기회에 이성계의 우익(羽翼)인 조준 등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눈치 챈 이방원(李芳遠)이 아버지 이성계에게 위급함을 고해 그날 밤으로 개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한편, 역으로 정몽주를 제거할 계획을 꾸몄다. 정몽주도 이를 알고 정세를 엿보려 이성계를 문병하였으나 귀가하던 도중 선죽교(善竹橋)에서 이방원의 문객 조영규(趙英珪) 등에게 살해되었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해 게을리 하지 않았고 성리학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 당시 고려의 『주자집주(朱子集註)』에 대한 정몽주의 강설이 사람의 의표를 찌를 정도로 뛰어나 모두들 놀라워했다. 그러다가 송나라 유학자 호병문(胡炳文)의 『사서통(四書通)』이 전해지면서 그 내용이 정몽주의 강설내용과 서로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고 모두 탄복하였다고 한다. 정몽주의 시문은 호방하고 준결하며 시조 「단심가(丹心歌)」는 정몽주의 충절을 대변하는 작품으로 후세에까지 많이 회자되고 있다. 문집으로 『포은집(圃隱集)』이 전하고 있다.

대사성(大司成) 이색(李穡)은 정몽주를 높이 여겨 ‘동방 이학(理學)의 시조’라 하였다. 정치적으로도 정몽주는 고려 말의 어려운 시기에 정승의 자리에 올라 아무리 큰일

이 나더라도 조용히 사리에 맞게 처결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1401년(태종 1) 권근(權近)의 요청에 의해 대광보국승록대부 영의정부사 수문전대제학 감예문춘추관사 익양부원군(大匡輔國崇祿大夫領議政府事修文殿大提學監藝文春秋館事益陽府院君)이 추증되었다. 1517년(중종 12) 태학생(太學生) 등의 상서(上書)로 문묘에 배향될 때 묘에 비석을 세웠는데 고려의 벼슬만을 쓰고 시호를 적지 않음으로써 두 왕조를 섬기지 않았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개성의 승양서원(崧陽書院) 등 13개의 서원에 제향되었고, 묘소는 능원리 안골에 있으며 아래에 있는 영모재(永慕齋), 영천의 임고서원(臨臯書院) 등 몇 곳의 서원에는 정몽주의 초상을 봉안하고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다음백과사전, 디지털 용인문화대전>

조사 (趙師: ?~1432)

호는 가천재(嘉川齋). 본관은 한양. 조선 태조의 생질로 예에 의하여 중추부사를 제수 하였으나 조선조에서 벼슬을 마다하고 양양(襄陽)에 낙향하여 은거하다가 일생을 마쳤다. 또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과 더불어 공양왕을 호위하고 있었던 관계로 교분이 두터워 함께 산수간에 글을 읊으며 기거하던 곳을 와선대(臥仙臺)라고 일컫고 매일 가치천(嘉致川)가에서 노닐던 연고로 가천이란 호를 갖게 되었다. 그의 지조는 포은, 목은, 야은에 비하여 부끄러움이 없었다한다. 그가 임종할 때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반드시 포은 묘소 근처에 묻어서 지하에서라도 함께 노닐게 하라”고 하였으므로 후손들이 이 유언에 따라 능원리 산15번지에 장사를 모셨다. 능원리에 그를 제향 하는 사당 치천재(致川齋)가 있다.

<모현면지, 용인의 분묘문화2>

정보 (鄭保: 생몰미상)

조선전기 예안 현감과 감찰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본관은 영일(迎日)이고 호는 설곡(雪谷)이다. 할아버지는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이며, 아버지는 이조참의 종성(宗城)

이다. 학문이 뛰어나 세종의 총애를 받았고, 한때 예안현감으로 나갔다가 감찰이 되었다. 일찍이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 등과 친교를 맺고 학문을 논하기도 하였다. 젊어서 사마시¹⁾에 합격하고 사헌부 감찰이 되어 사육신과 더불어 벗으로 사귀었다.

1456년(세조 2) 6월에 단종복위 사건이 일어나자, 공의 서매(庶妹)의 남편 한명회(韓明澮)에게 사육신의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자 천추의 악인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한명회가 그해 12월 그를 난언죄(亂言罪)로 고발하여 죽음을 받게 하였으나, 세조는 그가 고려 충신 정몽주의 손자임을 감안하여 죄질을 한 등급 감하여 연일(延日)에 유배시켰다. 그 뒤 단성으로 이배되었다가 간사한 무리들의 참소로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였다. 1699년(숙종 25) 지경연사(知經筵事) 이유(李濡)의 상소로 신원(伸冤), 이조참의에 추증되었다. 묘는 능원리 포은선생 묘소 오른쪽 옆에 있다.

<모현면지, 국조인물고>

정윤정 (鄭允貞: 생몰미상)

포은 선생의 증손으로 정보의 아들이다. 문종 원년(1451년)에 문종이 이조에 명하기를 “정윤정(鄭允貞)은 포은의 적출(嫡出) 증손이고 길재(吉再)의 손자인 길인종(吉仁種)은 나이가 20세가 되거든 관직을 제수하라”는 왕명에 의해 관직에 나아갔다. 공은 여러 관직을 거쳐 성종 7년에 장흥고(長興庫) 주부(主簿)로 있으면서 성종이 후궁을 여러명 거느리려고 함에 언관(言官)이 아니면서 그 부당함을 주장하는 소(疏)를 올려 왕으로부터 노여움을 샀으나 여러 신하들의 간청 있어 벌은 받지 않았으나 스스로 관직에 물러나 여생을 보내었다. 능원리에 묘소가 있다.

<모현면지, 조선왕조실록>

정희 (鄭熹:1412~1474)

태종 12년(1412년) ~성종 5년(1474년) 사람이다. 자는 희지(熹之)로 포은 정몽주선

1) 사마시: 생원 진사를 뽑는 시험으로 소과라고도 함.

생의 현손(玄孫), 설곡 정보(鄭保)의 손자, 진사 윤정의 아들이다. 성종이 포은의 자손을
서용할 것을 명해서 봉사손으로 벼슬에 나갔으며 사헌부 감찰(監察)을 역임했다. 정난
원종훈(定難原從勳)으로 통례원(通禮院) 좌통례(左通禮)를 받았다. 사위는 거창(居昌)
인으로 호조판서를 역임한 신거관(愼居寬)이다. 후에 병조판서에 추증되었고 묘소는
능원리에 있다. <모현면지, 국조인물고>

이석형 (李石亨: 1415~1477)

조선전기 황해도관찰사, 관한성부사, 판중추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본관은 연안
(延安)이다. 자는 백옥(伯玉)이고 호는 저현(樛軒)이며 사복시정 이장(李庄)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임천부사李宗茂(李宗茂)이다. 아버지는 대호군 이회림(李懷林)이며 어머
니는 박언(朴彦)의 딸이다. 김반(金泮)의 문인이다.

1441년(세종 23) 생원·진사 두 시험에 장원으로 합격, 이어 식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
제해 사간원정언에 제수되었다. 이듬해 집현전부교리에 임명되어 14년 동안 집현전학사
로 재임하면서 집현전의 응교·직전(直殿)·직제학을 두루 역임하였다. 집현전응교로 재임
한 1447년 문과 증시에 합격했으며, 왕명으로 진관사(津寬寺)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²⁾
로 학문에 진력하였다. 1455년(세조 1) 첨지중추원사, 뒤에 전라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456년 6월, 이른바 사육신사건이 전해지자 사육신의 절의를 상징하는 시를 지어
익산 동헌에 남겨서, 치죄하자는 대간의 여론이 있었으나 세조에 의해 묵살되고 오히
려 예조참의에 올랐다. 1457년 판공주목사에 임용되었다. 이듬해 첨지중추원사로 잠
시 한직에 있었으며 세조의 총애를 받아 한성부윤이 되었다. 1460년 세조의 특명으로
황해도관찰사가 되어 왕의 서쪽 지방 순행을 도와, 세조로부터 서도주인(西道主人)이
라 불리기까지 했다 한다. 이듬해 사헌부대사헌을 거쳐 경기관찰사를 역임하고, 1462
년 호조참판을 거쳐 관한성부사에 7년 동안 재임하였다. 1466년 팔도도체찰사를 겸해

2) 사가독서: 국가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문운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호패법을 철저히 고핵(考覈:사실을 자세히 밝힘)해 정리하였다. 1468년 세조가 승하하
자 승습사(承襲使)³⁾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1470년(성종 1) 판중
추부사에 오르고 지성군관사를 겸해 주문(主文)의 위치를 맡았다.

1471년에는 좌리공신(佐理功臣) 4등에 책록되고, 연성부원군(延城府院君)에 봉해졌
다. 필법이 신묘하고, 집현전학사로 있을 때 『치평요람』·『고려사』의 편찬에 참여하였
다. 세조 때에는 사서(四書)의 구결(口訣) 작업에 참여해 『논어』의 구결을 주관하였다.
만년에는 성균관 서쪽에 계일정(戒溢亭)을 짓고 시문에 전념하였다. 저서로는 『대학연
의(大學衍義)』와 『고려사』에서 권계(勸戒)를 덧붙인 『대학연의집략(大學衍義輯略)』 21
권과 『저현집(樛軒集)』이 있다. 편저로는 『역대병요(歷代兵要)』·『치평요람(治平要覽)』
등이 있다.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이석형은 벼슬에서 물러난 후 글을 쓰며 지내다가 성종 8년(1477년)에 63세의 나이
로 세상을 떠났다. 문장과 글씨에도 뛰어났으나 현재 전하는 것은 『저현집』 2권 뿐이
다. 생활에 있어선 항상 청렴하고 검소한 것을 신조로 하여 가산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
았으며, 뒤뜰에 조그만 띠집을 지어 ‘계일(戒溢)’이라 이름을 붙이고 스스로 넘치는 것
을 경계하고자 하였다. 현재 이석형의 묘소는 능원리 포은 정몽주의 묘소 왼쪽에 부인
영일정씨와 함께 자리잡고 있으며, 인조 2년(1624년)에 김상용(金尙容)⁴⁾이 지은 신도
비가 있다. <모현면지, 국조인물고>

정세건 (鄭世建: 생물 미상)

자는 백순(佰順)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예지가 있었다고 하며 부사맹(副司猛)을
지냈다. 후에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추
증되었다. 묘소는 능원리에 있다. <모현면지, 국조인물고>

3) 승습사: 왕위(王位)의 계승(繼承)에 대한 사유(事由)를 설명하고 그 인준(認准)을 청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사신(使臣)

4) 김상용: 조선 중기에 유명한 서예가

이훈 (李渾:1445~1483)

세종 21년 (1439년)~성종 14년(1483년)에 살았던 조선 문신이다. 자는 이호(李灝)이고 본관은 연안이다. 연성부원군 석형의 아들이며 모친은 포은선생의 손자인 보(保)의 딸이다. 성종 6년(1475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성종 원년(1470년) 공의나이 26세에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감찰(監察), 정언(正言), 사예(司藝), 이조정랑(吏曹正郎)을 역임하였다. 후에 이조판서에 증직되었다. 묘는 모현면 능원리 문수산록에 있다.

<모현면지, 국조방목>

이수장 (李壽長:1462~?)

조선 문신이며 자는 기옹(耆翁)이다. 본관은 연안으로 저현 이석형의 손자로 세조 8년(1462년) 부친 혼(渾)과 모친 죽산 안씨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총명 다재하였다. 퇴계 선생이 지은 묘갈명(墓碣名)에 의하면 공의 문장과 덕업이 훌륭하였으나 사화로 인하여 은둔 칩거하였고 말년에 훈음(勳陰)⁵⁾으로 3품에 식록(食祿)하고, 어모장군 충좌위 대호군, 정국원종공신에 참록(參錄)하여 사예(司藝)로 통정대부에 올랐고 이조판서에 증직되었다. 사위는 1521년 송사련의 옥사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안처겸(安處謙)이다. 묘소는 능원리 안골에 있다.

<모현면지, 국조인물고>

이순장 (李順長: 1478~1569)

1479년(성종 1478)~1569년(선조1569)에 살았던 조선 전기의 사인이다.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자는 화보(和甫)이다. 조부는 연성부원군(延城府院君) 이석형(李石亨)이며, 부친은 장령(掌令)을 지내고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된 이훈(李渾)이다. 모친은 별좌(別坐) 조계남(趙繼男)의 딸이다. 일찍이 서사(書史)를 섭렵하였으나 과거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음직(蔭職)에 임명되었으나 벼슬을 하지 않고 수직(壽職:노인에게

5) 훈음: 자손들이 선조들의 훈공(勳功)의 덕을 이어받아 얻은 관직(官爵).

내리는 명예 관직)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까지 올라갔다. 집에 처하여 효제를 돈독히 하며 자제를 법도로 교훈하고 뜰 안에는 꽃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인척을 모아 적당히 주석을 설비하여 시문으로 즐겼다. 후에 손자 이정귀(李廷龜)가 문형(文衡)에 오른 것으로 인해 찬성(贊成)에 추증되고 삼등현령(三登縣令)을 지낸 아들 이혜(李愷)가 영의정에 추증되자, 그 역시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1569년(선조 2) 9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묘는 능원리에 있고 묘갈은 그의 손자 정구(廷龜)가 썼다.

<모현면지, 국조인물고>

이경장 (李敬長:1482~1561)

1482년(성종 13)~1561년(명종 16) 에 살았던 조선 전기 문신이다. 자는 흠중(欽仲)·흠지(欽之)이고 호는 역헌(櫟軒)이다.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증조부는 이회림(李懷林)이고, 조부는 이석형(李石亨)이며, 부친은 이훈(李渾)이다. 모친은 조씨로 영무의 후예이다. 외조부는 조계남(趙繼男)이고, 처부는 안계송(安繼宋)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독실히 하여 중종14년 (1519년) 식년시 진사 2등 17위로 합격하였으며, 같은 해 생원시에서 100명중 25위로 합격하였다.

1534년(중종 29) 식년시에 병과 13위로 문과 급제하였다. 관직은 예조좌랑(禮朝佐郎)·성균관사예(成均館司藝)·내자시첨정(內資寺僉正)·강원도사(江原道都事) 등을 역임하였다. 1538년(중종 33) 출사한 지 5년 만에 정4품으로 승진되었는데 이것이 잘못이라는 사헌부의 지적이 있었으나, 종직(宗職)에서 정직으로 이동이 크지 않다 하여 임금의 개정을 허락하지 않았다. 호조정랑(戶曹正郎)으로 재직할 당시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대어사(帶御史)로 중국 북경(北京)에 다녀왔다. 명나라에 다녀와서 여러 관직을 역임한 후 향년 8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이현(李獻)·이중(李峻)이다. 묘는 문강공 묘하에 있다.

<모현면지, 국조방목>

정진(鄭震: ?~1587)

생년미상~ 선조 20년(1587년) 사람이다. 자는 경중(敬仲)이며 돈녕부 주부(主簿)를 지냈으며 1521년 안당의 옥사사건으로 연루되어 곤장을 맞고 옥사한 안처겸의 행장을 지었다. 후에 승정원 좌승지로 추증되었다. 묘소는 능원리 산3번지에 있다.

<모현면지, 연려실기술>

이기(李巖: 1493~1547)

성종 24년(1493년)~ 명종 2년(1547년) 사람이다.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사고(士高), 호는 정현(靜軒). 이석형(李石享)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훈(李渾)이다. 아버지 대호군 이수장(李壽長)과, 어머니는 권관(權寬)의 딸 사이에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조광조(趙光祖)의 문인이다.

1513년(중종 8) 진사가 되고, 1519년 식년문과에 병과(兵科)로 급제하여 승문원권지 부정자가 되었다. 곧 이어 승정원주서가 되었으나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이에 연루되어 유인숙(柳仁淑)과 함께 임금 앞에 나아가 “우리도 그들과 함께 이 일을 하였으니 신들 역시 옥에 들어가야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물러가라 하였는데 병으로 면직(免職)되었다. 이후 다시 관직에 나아가 검열·대교·봉교·정자 등을 거쳤다 이어 감찰을 지내고, 1521년 기사관을 거쳐 1527년 사헌부장령이 되었다. 성군사예를 거쳐 1528년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필선·보덕⁶⁾이 되었고, 1529년 경차관(敬差官)을 거쳐 사간이 되었다. 1540년 사옹원정을 거쳐 1544년 군사감정이 되었으나 교만하다 하여 체임되었다. 1545년 인종이 즉위한 뒤 절충대호군(折衝大護軍)을 거쳐 예빈시정(禮賓寺正)이 되었다.

1546년 이조참의로서 진헌사(進獻使)가 되어 명나라에 종이를 바쳤다. 이때 명나라 황제는 공에게 칙서를 내리고 은량(銀兩)과 저사(紵絲)를 주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산해

6) 필선 보덕: 세자시강원의 전임관원. 종3품의 보덕 1명, 정4품의 필선 1명, 정5품의 문학 1명, 정6품의 사서 1명, 정7품의 실서 1명 등 5명이 있었다.

관(山海關)에 이르러 칙서를 담은 농을 차부(車夫)에게 도둑맞아 황제의 칙서를 유실한 죄로 체직되었다. 당시 도중에서 병을 얻어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다. 하절사신(賀節使臣) 장세호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명나라 황제로부터 잃어버린 칙서를 보충해 옴으로써 사면되었다. 그 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가 되었고 경종 2년(1547년)에 양주목사가 되었으나 부임하지 못하고 졸(卒)하니 향년 53세였다.

공은 아들 3형제와 딸 둘을 두었는데 큰아들 정수(廷秀) 셋째 정현(靜顯)은 군수(郡守)를, 둘째 정화(廷華)는 충의위(忠義衛)에 근무하였다. 특히 큰아들 정수의 사위 오희문(吳希文)은 임진왜란 중 피난하면서 쇠미록(鎖尾錄)이라는 일기를 남기어 임진왜란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희문의 아들 윤겸(允謙)은 영의정을 역임하여 두 가문을 빛내고 있다. 묘소는 능원리 산3번지에 있다. <모현면지, 국조인물고>

이계(李啓: 1528~1583)

조선의 문신으로 자는 경담(景瞻), 본관은 연안이다. 천성이 총명하여 말을 배우기 전에 글자를 해득하였다. 선조가 즉위하였을 때 기묘사화에 화를 당한 제현(諸賢)을 포증(褒贈)하기를 청하여 이 일이 허락되자 기묘록에 기록되었다. 임진왜란 때에는 선조 임금이 서순하자 도보로 행재소(行在所)에 이르러 삼등현령(三登: 평안도동쪽에 있는 옛 지명) 현령(縣令)을 임명받아 군사를 다스리고 양곡을 조발(調發)함을 적당히 하고 백성을 무마하여 일경(一境)이 안연(安連)하였다.

저서로 삼등공유고(三登公遺稿)가 있다. 묘는 능원리에 있다. <모현면지, 두산백과>

이빈(李賓: 1537~1593)

조선 문신으로 자는 자미(子美), 본관은 연안이다. 선조 6년(1573년)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율곡 이이(李珥)가 경연에서 천거하여 각처의 군수를 역임하였다. 임진왜란 때에는 장수현감(長水縣監)으로 순창(淳昌)에서 웅치(熊峙)를 막아서 왜장을 참하고 다시 각치(角峙)를 점거하여 다섯 차례나 승첩하여 적을 격퇴시켰다. 우연히 득병하여 선조

26년 (1593년) 11월 23일 졸하였다.

이빈(李贄의 윤자로 발음되기도 함. 족보에 빈으로 되어 있음) 유학(儒學)으로 벼슬 길에 나아가 군문의 일을 맡아 이에 익숙하지 않았으나 다만 충의지심(忠義之心)으로 인근 군민을 규합하여 고군(孤軍)으로 강적을 대항하니 호남의 방패가 되었다. 묘는 능원리 산3번지에 있다. <모현면지, 용인의 분묘문화>

정명선 (鄭明善: 1549-1575)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성보(誠甫)이다. 돈녕부(敦寧府) 주부(主簿) 진(震)의 아들로써 사과(司果) 벼슬을 역임하였으며 후에 아들 척(倜)의 공으로 호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묘는 능원리에 있다. <모현면지>

정종선 (鄭從善: 1551~1617)

명종 6년(1551년)~ 광해군 9년(1617년) 자는 택보(擇甫), 돈녕부(敦寧府) 주부(主簿) 진(震)의 아들이다. 포전현감을 지냈으며 선조 연간에 충렬서원을 건립하는데 공헌하였다. 후에 사헌부(司憲府) 집의(執義)로 추증되었다. 또 공은 응선(膺善), 명선(明善)과 함께 안처근(安處謹)의 외손이기도 하다. 묘는 능원리에 있다.

<모현면지, 디지털 용인문화대전, 연려실기술>

정충전 (鄭忠傳: 1567~?)

자는 선술(善述), 본관은 영일이다. 40세 때인 선조 30년 병오(1606년)에 식년시에 서 100명중 27위로 진사에 합격하였다.

인조 2년 갑자년(1624년) 이괄의 난 때 임금이 공주로 파천하자 그는 종묘 직장(直長)으로서 종묘(宗廟)의 호종(扈從)을 따랐다. 그러나 일행이 진위현(평택) 희동현(戲童峴)에 이르자 수레꾼들이 모두 흩어짐으로 그는 친히 수레를 이끌어 행재소(공주)에 이

르렀다. 왕은 이 공으로 그에게 통훈대부(通訓大夫)로 승품하고 광흥주부(廣興主簿)⁷⁾를 특별히 제수하였다.

묘는 능원리 문수산록, 설곡 정보 묘 위쪽 갑자지원이며 배위 숙인(淑人) 남양홍씨와 계배 숙인(淑人) 전주이씨와 합편 되어있다. 묘표가 있다.

<모현면지, 디지털 용인문화대전>

이시직 (李時稷: 1572~1637)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성유(聖兪), 호는 죽창(竹窓)·삼송(三松). 연성부원군(延城府院君) 이석형(李石亨)의 6대손이며, 양주목사 이기(李楨)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군수 이정현(李廷顯)이다. 아버지는 찰방(察訪) 이빈(李賓)이며, 어머니는 목사 이응기(李應棋)의 딸이다.

1606년(선조 39) 사마시에 합격하고 1623년(인조 1) 사육서 별제가 되었다. 이듬해 직장으로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같은 해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왕을 공주까지 호종하였다. 이어 종묘서직장을 거쳐 성균관전적이 되었다. 1635년 병조좌랑·사간원정언·사헌부장령·세자시강원필선 등과 장악원정·사복시정·봉상시정 등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화에 들어갔다가, 강화가 함락되자 사복시주부 송시영(宋時榮)이 먼저 자결하였다. 묘 돌을 파서 송시영을 매장하고 하나는 비워놓아, 노복에게 자기를 그곳에 매장하도록 부탁한 다음 활끈으로 목을 매어 죽었다. 특히, 아들에게 전하라는 편지의 글 중에는 ‘살신성인부양무작(殺身成仁俯仰無忤)’이라는 말이 보인다.

어려서 총명이 뛰어나 10세에 조호익(曹好益)에게 배웠으며, 뒤에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다. 뒤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강화의 충렬사(忠烈祠)와 회덕의 숭현사(崇賢祠)의 별사에 제향되었다. 충렬서원에 배향되었으며 묘소는 능원리에

7) 주부: 조선시대 관서의 문서와 부적(符籍)을 주관하던 종6품 관직.

있다. 시호는 충목(忠穆)이다.

<모현면지, 용인의 분묘문화2, 방목>

정준 (鄭僑: 1573~1644)

본관은 영일, 자는 사수(士守)이고 포은 정몽주의 8세손이다. 선조 6년(1573년) 7월 2일 별좌(別座)를 역임한 응선(膺善)의 아들로 출생하여 1714년(숙종40)에 증광시에 응시하여 생원이 되었다.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와서별제(瓦署別提)⁸⁾로 인조를 따라 남한산성에 들어갔더니 이듬해인 정축년(1637년) 인조가 청에 항복하고 청나라 오랑캐의 승전을 기념하는 삼전도비의 비각 건립에 사용할 기와 굽는 일을 시키려 하자, 강개하여 말하기를 “내 어찌 명나라를 저버리고 오랑캐의 비각 기와 굽는 일을 하겠는가?”하고 그 날로 관직을 버리고 동해로 돌아갔다. 그의 비명(碑銘)에 <원수들에게 부림을 당함을 치욕으로 여겨 산에 들어가 바다에 뛰어들어 세상일을 거들떠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살며 벼슬에 나가지 않으시다> 갑신(1644년) 10월 19일 천수를 다하였다고 적었다.

후에 도암 이재가 명문(銘文)을 짓기를 <직위는 낮으나 몸은 대의를 지켰네 / 늙음 하도다 바다에 뛰어드는 기품은 / 오직 고향 산천에 돌아와 묻으니 / 포은옹에게 부끄럼이 없게 함이라 (位微祿而身大義 凜乎蹈海之風 惟歸骨於山足庶無愧於圃隱翁)고 하였다. 후에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묘가 능원리에 있다.

<모현면지, 국조방목>

이씨 (李氏: 1577~1638)

본관은 용인이며 인수(仁壽)의 딸이다. 선조 정축생(1577년)이며 과년하매 죽창 이시직(李時稷)과 혼인하였다. 천품이 지효하여 시부모 봉양하기에 온갖 정성을 기울였고, 자녀의 교육은 법도에 어긋남이 없이 엄격하게 하였다.

8) 와서: 조선시대 궁궐 등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기와벽돌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관서, 별제(別提):조선시대 여러 관서의 정·종6품 관직.

병자호란이 일어나매, 그의 남편이 강화도에서 사복시(司僕寺) 주부 송시영과 함께 자결하고, 공의 종이 망건과 유서를 전했다. 이를 본 이씨는 통하기를 하루밤낮을 그치지 아니하더니 마침내 혼절하여 지아비를 따라 죽으니 부충부열(夫忠婦烈)의 행정은 만인의 사표가 되었다. 상께서 들으시고 무인년(1638년)에 부처(夫妻)를 아울러 명정(命旌)하였으므로 희덕 송천(松川)에 두 정려문을 한자리에 세웠다. 묘는 능원리에 전한다.

<모현면지>

정길 (鄭佳: 1583~1637)

조선 선조때 문신, 자는 자정(子正)이다. 현감 종선의 아들 부사과(副司果)의 벼슬을 지냈으며 묘소는 능원리에 있다.

<모현면지>

정탁 (鄭倬: 1584~1636)

선조 17년 (1584년) ~ 인조 14년 (1636년) 조선시대의 무신으로 자는 대이(大而)이다. 광해군 3년 (1611년) 알성무과에 급제하였으며 도총부 도사(都事)를 역임하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왕을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이르렀으나 이미 적들이 남한산성을 에워싸고 사태가 위급하게 되었을 때 자원하여 출전하였다.

공은 북문 밖으로 나아가 장수기를 흔들고 크게 소리쳐 적의 기세를 크게 꺾고 사력을 다해 싸웠으나 후원을 받지 못하고 패하였고 그곳에서 죽었다. 이때 적중에 있던 노비 경춘(景春)이 공의 시신을 말에 싣고 돌아와 안장하였다. 공의 묘소는 포은 선생의 묘소 왼쪽 상단에 있으며 그 밑에는 말을 묻은 말 무덤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공의 절사(節祀)⁹⁾ 후에 술을 부어놓는다고 한다. 후에 병조참의에 추증되었고 숙종 25년 (1699년)에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모현면지>

9) 절사: 절기마다 지내는 제사로 시제(時祭)와는 다름. 정월 초하루·정월보름·한식·삼진·단오·유두·추석·중양·동지 등에 지내며 천신제(薦神祭)라고도 함. 음식은 생(牲)을 쓰지 않고 서수(庶羞)만을 쓰며, 독축을 하지 않고 술도 일헌(一獻)만으로 함.

정척 (鄭倜: 1595~1666)

선조 28년(1595년)~현종 7년(1666)에 살았던 조선시대의 무신으로 자는 대재(大哉)이다. 사과(司果) 명선의 아들이며 광해군 12년(1620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묘소는 능원리에 있다.

<모현면지>

정간 (鄭侃: 1598~?)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자는 사행(士行)으로 현감 종선의 아들이다. 손자인 정덕징(鄭德徵 1657-1739)이 경상우도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역임하여 조부인 정간이 승정원 좌승지에 증직되었다. 능원리에 묘가 있다.

<모현면지, 방목>

정응선 (鄭膺善: ?~1603)

자는 수보(守甫)로 돈녕부(敦寧府) 주부(主簿)를 역임한 진(震)의 아들이다. 외조부는 남곤, 심정등을 내치려 한다는 무고로 처형 당한 안처근(安處謹)이다. 공은 봉직랑奉直郎과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별좌(別坐)를 지냈으며 후에 승정원 좌승지로 추증되었다. 묘는 능원리에 있다.

<모현면지, 대동야승>

정운한 (鄭雲翰: 1601~1652)

자는 충거(沖擧)이며 준(僑)의 아들이다. 운봉군수와 마전군수를 지냈으며, 영국원종훈(寧國原從勳)으로 승정원 좌승지에 증직되었다. 관직에서 물러나 오랫동안 복직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포은선생의 후손 일(胤) 등이 역대 임금께서 포은의 자손 삼인(三人)을 서용하는 은전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인용하여 봉사손을 복직하게 하여 제사를 받들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조(吏曹)에 특명하여 복직하게 하였다고 한다.

묘소는 능원리에 있다.

<모현면지>

이만상 (李萬相: 1622~1645)

1622년(광해군 14)~1645년(인조 23)에 살았던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상여(相如)이고 호는 금곡(琴谷)이다.

조부는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이고, 부는 대제학(大提學)을 지낸 백주(白洲) 이명한(李明漢)이다. 형제로는 두 형과 아우가 있다. 먼저 맏형 청호(靑湖) 이일상(李一相)은 효종(孝宗) 때 대제학을 거쳐 현종(玄宗) 때 예조판서(禮曹判書)를 지냈으며, 둘째 형 이가상(李嘉相)은 효자로 이름을 남겨 정문(旌門)이 세워졌다. 그리고 동생 정관재(靜觀齋) 이단상(李端相)은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의 장인으로, 인조(仁祖) 때 문과에 급제하고, 효종 때 호당(湖堂)¹⁰⁾을 거쳐 관직이 부제학(副提學)에 이르렀다. 또 장인은 좌참찬(左參贊)을 역임하였고 또 서예에 능하여 이순신 장군 비문을 쓴 해주인 여완(汝完) 오준(吳竣)이다.

사퇴 이후에는 양주(楊洲)에서 학문에 전념하여 수많은 학자를 길러냈다. 1642년(인조 20)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했는데, 당시 부친이 시험관으로 있었다. 모든 사람이 그가 1등을 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시사(試士)를 관장하던 부친은 중의(衆議)를 물리치고 아들 이만상을 2등에 두었다고 전한다.

천품이 수미(粹美)하고 현할(軒轄)하여 어려서부터 대기(大器)로 칭찬 받았고, 남보다 총명하여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한 번 보면 다 기억하고 외웠으며, 시문(詩文) 또한 아려(雅麗)하고 풍도(風度)가 있었다. 부친의 병구완에 마음을 쓰다가 초심(焦心)하고 친상(親喪)에 몸을 상하여 요절(夭折)하고 말았다. 이에 사람들이 다 그의 마음을 슬퍼하였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능원리에 묘가 있다.

<모현면지>

10) 호당: 조선시대에 국가의 중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하여 건립한 전문 독서연구기구. 독서당(讀書堂)이라고도 함.

정운익 (鄭雲翼: 1625~1670)

인조 3년(1625년)~현종 11년(1670년) 사람으로 자는 봉거(鵬舉)이다. 사헌부 감찰(監察)을 지냈으며 병자호란때 공은 12세였는데 포은 선생의 화상을 지고 경상도로 피난을 하였다고 한다. 묘소는 능원리에 있다. <모현면지>

정덕징 (鄭德徵: 1657~1739)

조선후기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동지충추부사 등을 역임한 무신이다. 본관은 영일(迎日)이고 자는 성유(聖由)이다. 정몽주(鄭夢周)의 10대손으로, 영장(營將) 정주한(鄭周翰)의 현손이다. 궁마에 뛰어나 24세에 무과에 급제하고 훈련원(訓練院)주부·판관·서생첨사(西生僉使)·진안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그 뒤 오랫동안 벼슬을 하지 않고 있다. 경종원년(1721년) 동지충추부사 겸 무림위장을 거쳐 이듬해 나주영장(營將)¹¹⁾·정주목사(牧使) 등을 거쳤고 경종 3년(1723년) 다시 여주목사로 제수되었다.

영조 원년(1725년) 함경도 절도사가 되어 군율과 군비를 정비하고 훈국별장, 부총관 등을 역임하였으나. 이삼(李森)이 주장(主將)이 되자 병을 구실로 사직하고 향리에 은거하였다. 내직으로는 금군장(禁軍將)으로서 제군문(諸軍門)에 편력하고 동지(同知)중추 겸 부총관(同知中樞兼副總管)과 절충(折衝)을 지낸 뒤 가선(嘉善)으로 승계하였다.

말년에는 우로전(優老典)으로 인하여 가의(嘉義)로 승계하였으나 벼슬길에는 뜻이 없어 사양하고 한거(閒居)하면서 탄금(彈琴)과 완매(玩梅)로 초연하게 만년을 지냈다.

또한, 행의(行義)가 늙음하고 단정하여 아사(雅士)와 같았으며, 재직 시에도 신임사화에 관련된 소론파들의 행위를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파직, 귀향하기도 하였다. 영조 4년(1728년) 원종공신에 책훈된바 있으며 영조 12년(1736년) 80세의 나이로 가의대부(嘉義大夫)에 이르렀다. 묘는 능원리에 있다. <모현면지, 방목>

11) 영장: 1627년 각 도의 지방군대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한 진영(鎭營)의 정3품 당상직 장관(將官).

이조연 (李祖淵: 1843~1884)

개항기 기계국 총판이자 이조참의와 협판군국사무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경집(景集), 호는 완서(翫西)이고 이용규(李用奎)의 아들이다.

1880년(고종 17) 사헌부감찰로서 개항 후 처음으로 파견되는 수신사 김홍집(金弘集)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다녀왔고, 이듬해 다시 수신사 조병호(趙秉鎬)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1882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이해 고선관(考選官)으로 청나라에 가서 영선사 김윤식(金允植)을 따라 텐진[天津]에 간 유학생·공장(工匠)들의 실정을 조사하였다. 이어 흥선대원군이 임오군란 때에 조선에 진입한 청국군에 의하여 청나라에 끌려간 뒤 통리기무아문주사(統理機務衙門主事)로 사은 겸 진주사(謝恩兼陳奏使) 조영하(趙寧夏)의 종사관이 되어 청나라에 가서 흥선대원군 수금(囚禁)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귀국하였다.

같은 해에 청나라의 제도를 본떠 군제개혁이 단행되자 친군영(親軍營) 좌감독(左監督)이 되고, 이어 참의교섭통상사무(參議交涉通商事務)¹²⁾, 기계국총판(機械局總辦), 혜상공국¹³⁾총판(惠商公局總辦)와 이조참의, 함경북도병마절도사 등을 지냈으며, 1884년에는 협판군국사무(協辦軍國事務) 겸 기계국총판을 지냈다.

친청 정치행적으로 개화당으로부터 사대당이라고 지목을 받아오던 중 1884년 갑신정변 때 우정국사건이 벌어지자, 이에 참석하였던 이조연이 국가대사가 벌어짐을 눈치 채고 궐내로 들어가려던 중 전영사(前營使) 한규직(韓圭稷), 후영사(後營使) 윤태준(尹泰駿) 등과 같이 개화당 행동대에 의하여 피살되었다. 뒤에 이조참판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정(忠貞公)이다.

이조연은 능원리에서 출생하였고 초부리 상부곡에서 수학(修學)하였다고 한다.

<인명대사전>

12) 교섭통상사무아문: 1882년(고종 19) 12월 4일 외교통상사무를 관장할 목적으로 통리아문을 확충 개편하여 만든 중앙관청.

13) 혜상공국: 1883년(고종 20) 보부상(祿負商)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상인조합.

이도재 (李道宰: 1848~1909)

대한제국시기 외부대신, 농상공부대신, 궁내부특진관 등을 역임한 관료로서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성일(聖一), 호는 심재(心齋), 운정(箕汀)이다. 서울 출신이고 월사 이정구의 10세손으로 아버지 이명익(李溟翼), 어머니는 광산김씨 판관 재달의 딸이다.

서울 계동에서 태어나 용인 사는 숙부 이건익(李建翼, 1814~1872)에게 입양되었다. 1882년(고종 19) 생원으로서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이듬해 6월 경상좌도 암행어사로 활동하고 10월 강원도 암행어사를 거쳐 승정원 동부승지同副承旨에 특제(特除)하였다. 1884년 참의군국사무(參議軍國事務) 및 강원도 독련어사(江原道督鍊御史)와 좌부승지를 역임하고 이조참의가 되었다. 1885년 성균관대사성을 거쳐 1886년 호군으로 재임 중 김옥균 일파라는 사대수구파에 의해 탄핵을 받아 8년간 고금도에 유배, 가극안치(加棘安置)¹⁴⁾되었다. 유배 생활동안 도민(島民)의 교화와 향유들과 교우하면서 이 지역민들이 현을 군으로 승격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고 후에 전라 관찰사가 되어 주변 섬들을 합쳐 완도군으로 승격하는데 큰 역할을 하여 1887년 완도민들이 그의 공을 가리기 위해 공적비를 세우기도 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개화파 정부가 수립되자 풀려나와 공무협판으로 군국기무처의 원(軍國機務處議員)이 되었고, 이어 전라도관찰사로 부임, 그 해 12월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全奉準)을 순창에서 사로잡아 서울로 압송하였다. 이듬해 5월 지방 관제개혁에 따라 전주부관찰사가 되고, 이어 부장으로 군부대신에 임용, 곧이어 학부대신으로 바뀌었으나 단발령이 강행되자 이에 반대하여 상소를 올리고 사직하였다. 그러나 1896년 동로선유사(東路宣諭使)¹⁵⁾로 특파되어 강원도 지방 의병의 선유에 나섰고, 이어 중추원의 관을 거쳐 궁내부특진관이 되었다. 1898년 외부대신·비서원경(秘書院卿)을 거쳐 농상공부대신이 되어 그 해 7월에 설치된 양지아문(量地衙門)의 총재관을 겸임하였다.

14) 가극안치: 조선시대 유형(流刑)의 부가형이다. 유배소에 가시나무(탱자나무)로 울타리를 친다는 뜻으로, 위리안치형(圍籬安置刑)에 대한 부가형.
15) 선유사: 나라에 병란이 있을 때에,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백성에게 혼유를 알리던 임시 벼슬

10월에 다시 학부대신이 되어 비서원경을 겸하고 지석영(池錫永)의 건의를 들어 한성학교 설치를 인가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의학 교육기관을 세우는 데 기여하였다. 이어 내부대신서리 및 궁내부특진관을 거쳐 경효전¹⁶⁾제조(景孝殿提調)가 되었다. 1899년 법부대신이 되어 고등재판소재판장을 겸하고, 이어 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과 귀족원(貴族院)경을 거쳐 1900년 7월 평안북도관찰사에 발령되어 1902년 3월까지 근무하였다. 그 뒤 재차 시종원경(侍從院卿)·궁내부특진관을 거쳐 그해 11월 홍문관(弘文館)학사, 12월 육군부장(陸軍副將)으로 철도원총재가 되었다.

1903년 초 외부대신, 그해 말에 평안북도관찰사, 1904년 충청남도관찰사를 거쳐 내부대신, 표훈원의정관(表勳院議定官)을 역임하고 다시 농상공부대신에 임명되었으며 1905년 다시 내부대신에 발령되었다. 경상북도·평안남도·충청남도·전라북도·충청남도·전라남도관찰사를 차례로 역임하였다. 1906년 8월 그 동안의 공적으로 태극장(太極章)을 서훈받고, 그 뒤 장례원(掌禮院)경·시종원경에 임명되었으나 1907년 7월 황제의 측근에서 황제 퇴위를 적극 반대하다가 총리대신 이완용의 모함으로 박영효 등과 함께 일본 헌병대에 나문정죄(拿問定罪) 당하였다. 이 일로 28년간의 관직 생활을 마감하게 되었다.

그는 1906년 용인 구성 용인향교에 명륜학교가 개교되자 대신직에 있으면서 교장직을 역임하며, 이 지역 교육 사업에 일조하였다.

1909년 전염병으로 병사하였다. 그는 평소에 바둑두기를 좋아하였으며 글씨에도 능하였다 한다. 사후에 국가에서 문정(文貞)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명륜학교 일기, 모현면지>

이종구

16) 경효전: 경운궁 문경전에 있는 개항기 명성황후 민씨의 신주를 봉안한 전각. 혼전. 경효전의 모든 의식을 담당하고, 그에 따른 사무관장을 위하여 제조(提調)·영(令)·사승(祀丞) 등의 정규관원을 두었고, 상례·제례에 따르는 행사 때 많은 임시관원을 차출, 임명하기도 했다.



2. 능원리 마을조직

1) 능원 1리

능원1리는 충렬서원과 능원초등학교가 있는 마을로 능골 또는 능곡으로도 불린다. 능원 5개리 중에서 유입인구가 가장 급증한 곳이라 할 수 있으며 2020년 6월 30일 기준 696세대, 1833명이 살고 있으며 2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능원1리 마을 전경(제공 - 이재학 이장)

1986년도 능원1리 모습이 사진의 배경으로 보이고 있다.



● 마을회관

능원1리의 첫 마을회관은 지어진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기억을 더듬어 볼 때 1970년도 이전인 1960년대 후반, 연일 정씨 종중 소유의 부지에 당시 능원리 출신으로 안양에서 건축업으로 성공한 정춘용 씨(정바위-애명)의 금전적인 지원과 마을사람들의 자발적인 부역으로 지어졌다. 이후 새마을회관으로 불렸으며 당시 1층이었으며 현재의 2층 건물은 1973~4년경 증축되었다. 첫 마을회관으로 쓰였던 건물의 1층 일부는 능원1리 남자노인회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층의 다른 일부와 2층은 임대중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새 마을회관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첫 마을회관에서 대동회 및 8월15일 마을 연극과 노래 자랑 등 대부분의 마을행사가 치러졌다.

“우리 동생도 찬조했는데... 우리 동생 군에 갔다 와서 30살 쯤 되었을 때. 지금 79살 이니까 구 마을회관 처음 지은 건 약 50년 전 인거 같아요. 고향 나가서 잘 된 사람들이 찬조금을 내고 마을 사람들도 찬조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찬조해서 지어진 것이 옛 마을회관이에요. 정춘용씨가 돈을 많이 내고 짓는데 큰 역할을 했지. 그 양반이 목수여서 지었기도 했고. 사촌간인 정철용씨가 그 양반을 끌어들여서 지었지. 거기에 부락기금 있는 거 보태고 마을 사람들이 찬조도 하고 돌 필요할 때 동네 사람들이 부역하고. 동네 사람들이 협조 많이 했죠. 제일 처음 지을 때 정부 지원은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다시 지금의 구 마을회관 지을 때는 정부에서 협조해서 지은 거고.” (정세화, 1933년생, 능원1리 거주)

“고향이 이곳인 정춘용씨가, 정바위라고 불렸었는데...그 양반이 마을회관을 지어준거야. 마을에 길이 남을 일이지. 안양에서 사업을 해서 안양에서 제일 부자로 성공했는데 그 양반이 돈을 대서 이곳에 마을회관을 짓게 되었어요.” (라창욱, 1941년생, 능원1리)

“정바우’라는 분이 비싼 거 그런 거는 가져와도 동네 주민들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어요. 그 때는 돈도 없고 사는 게 힘이 드니까... 자갈이고 모래고 여자들은 머리에 이고 가고 남자들은 등에 지고 가고 해서 그렇게 지어 놓은 거예요. 할머니들까지도.” (주순애, 1945년생, 능원1리 거주)

“구 마을회관은 1970년 이전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날 때도 있었다고 하나까요... 1층짜리가 있었고요, 2층으로 올릴 때는 확실하게 저희가 있었으니까 초등학교 2~3학년 때 올린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 옥상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처음에 슬라브라고 하죠? 그 때가 최초예요. 거기 옥상이 있었으니까 거기다 올린 거예요. 1976~1977년 사이. 원래 있던 자리에다 2층으로 증축만 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 2층에서 뛰어내리고 장난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재학, 1967년생, 능원1리 현 이장)



능원1리 새마을회관 준공 부녀회원 단체 사진 (1977년도)



새마을회관 준공 기념 잔치 (1977년도)

현재의 마을회관(모현면 충렬로 10번길 6)은 2008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어졌으며 전체 2층 건물로 1층은 능원1리 여자 노인회의 경로당과 꿈나무 지역 아동 센터가 사용 중에 있으며 2층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기구들이 비치되어 있다.



능원1리 구 마을회관



능원1리 현재 마을회관

● 마을 기금 조성 및 쓰임

능원1리는 초창기 마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마을 운동 당시 퇴비를 만들어 필요한 사람이나 정부에 팔기도 했으며 개천보수 및 마을정비 등 마을의 공동 작업이 있을 때마다 마을 사람 전체가 부역에 참여하였다. 이때 여러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세대에게는 부역을 대신해 벌금을 받는 규칙을 두었으며 이 때 받는 벌금은 마을기금으로 적립되어 마을 전체 행사가 있을 때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2015년 이후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는 사라졌지만 약 5~6년 동안은 신축 빌라를 건축하는 업자들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아 마을기금



옛 마을회관에서는 4H 청년회가 추석 때 연극 공연하기도 했다. (제공 - 이재학)

으로 적립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3년부터는 포은 묘역에서 개최하는 포은문화제 행사에서 방문객 편의 및 즐거운 관람을 위해 음식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때 마을의 부녀회와 청년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활동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마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기타 구 마을회관 1층 일부와 2층, 새 마을회관의 일부를 임대하여 그 수익을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 능원1리 마을회 (동회)

● 구성

능원1리 동회는 마을 발전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유입민이 많아진 이후 현재는 10년 이상 능원1리에 거주한 주민에 한하여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새마을지도자 또는 4H활동 등 마을일에 관심을 갖고 봉사한 회원은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임원진은 이장, 총무, 감사 2명, 노인회장 2명, 노인회 총무 2명, 청년회 회장, 청년회 총무, 반장 2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 연말 총회를 통하여 각각 선출하고 차기 이장은 임원진 중에서 선출한다. 역대 이장으로는 정연국, 정연우, 정필영, 정익화, 이세구, 정무영, 라창욱, 정창교, 조길생, 정연국, 정연표, 정의명, 정연주, 김운태 등이며 현재 이장은 이재학이다.

● 마을 행사

○ 대동회 - 매 해 12월 중 날짜를 정해 주민들에게 한 해 동안의 마을 기금 사용 내역 결산 및 사업에 대해 보고하는 동회를 한다.

○ 정월 대보름맞이 척사대회

대상 : 능원1리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원주민을 포함하여 외지에서 이주하여 능원1리에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마을 행사이다. 이 날은 1리에서 8년 전 분동된 4리 주민들과 2018년 분동된 5리 주민들도 함께 하는 행사이다.

비용 : 4리와 5리는 현재 마을회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의 마을단체 또한 분리하지 않고 1리와 함께 운영하고 있으므로 모든 행사 준비의 주체가 되고 있다. 1리, 4리, 5리의 이장들이 모여 사전 행사에 대한 논의를 하며 준비과정도 함께 하고 있지만 행사의 모든 비용은 1리에서 부담하고 있다. 4리와 5리는 아직까지 마을 기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1리에서는 4리와 5리가 분동될 때 일정의 기금을 나눠주면서 분동을 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마을 기금 마련이 힘든 여건이기 때문에 1리가 떨어져 나간 4리와 5리를 품어야 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어요.” (이재학, 능원1리 이장)

장소 : 공터가 넓은 현 능원1리 마을회관이며 모이는 인원은 약 150여명 이상이다. 마을회관 공터와 주차장, 컨테이너까지 사용하며 마을회관 안에서는 어르신들이, 밖에서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게 된다.

방식 : 1회권에서 4회권까지 쿠폰을 미리 발행하고 있으며 5회권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처음 만 원에 4장씩을 주민들에게 발행하여 각 세대에게 나누어 주고 시작하며 누구나 윗놀이에 즐겁게 참여하여 결승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누구나 1등이 가능한 운영방식이며 참여한 주민 모두가 상품을 타 갈 수 있도록 운영의 미를 발휘하여 주민 화합의 시간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해마다 약 5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마련하고 있으며 52인치 칼라TV가 1등 상품으로 걸리기도 하는데 윗놀이에 1등 하는 사람이 해마다 같은 경우도 있어 여러 해 일등한 주민은 1등 상품인 칼라TV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 노래자랑 - 놀이 행사 뿐 아니라 동네 분들의 노래자랑도 있어 평소 노래 실력을 뽐내는 시간을 갖기도 하며 각설이를 초청한 공연 등도 있어 마을사람들이 흥겹게 참여하도록 분위기로 이끌어 간다. 마을 총무가 중소기업협회에 근무하고 있어 선물로 사용될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행사에 참여한 마을사람 모두가 상품을 가져

갈 수 있도록 운영의 미를 살려 진행한다.

○ 복달이 행사 - 마을에서는 매년 일 년에 두 번 복달이 음식을 마련하여 어르신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로당이 폐쇄되었으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대한 지침에 의해 해마다 준비하던 복달이 행사가 성사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2012년도 총회 결산보고(지출내역) 마을행사 때 음식을 준비하는 큰 가마솥

마을회관에 걸려있는 마을 화합의 상징물이 된 가마솥 2개로 매년 부녀회에서는 닭 150여 마리 이상(200인분)을 준비하여 삼계탕을 직접 조리하여 대접하고 있다. 마을회에서는 복달이 행사에 청년회, 부녀회의 수고가 크므로 일정금액 기금을 지원해 준다.

● 능원1리 이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능원1리는 다수의 신축빌라 건축으로 인하여 새로 유입된 이주민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능원1리는 이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이 되었으며 그 일선에 있는 이장의 역할이 크다 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발생으로 마을 주민들과의 대면활동을 지양하는 대신 통화 및 문자 발송을 통하여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한 해가 되었다. 또한 새로 건축된 빌라에 입주한 유입민은 빌라 입주민 중 단체에 가입한 세대를 통하여 주변 주민과 연계하며 홍보를 부탁하면서 소통의 장을 열고자하는 노력하였다고 한다.

“처음 이장을 맡았을 때는 업무가 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가 도움이 되었다 할 수 있더라고요. 이장이 자주 방문해야 되고 마스크도 줘야하고 이것저것 알려줘야 했기 때문에 자주 방문해야했고 전화통화도 많이 하게 되었고요. 빌라에 입주해 살고 계시는 원주민 분들에게 주변인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제가 조기축구회 회원이다 보니 회원들에게 요청해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능원1리 이재학 이장)

■ 남자노인회

능원1리 노인회는 총렬서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의 중간 우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소속 능원1리 노인회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별도의 모임이나 명칭이 따로 없었으며 어느 집에 삼삼오오 모여 막걸리 한잔 나눠 마실 정도로 어르신들의 공간이 따로 없었다.

“그 전에는 사랑방처럼 그런 공간도 없었어요. 이거 짓고 그 때 대한노인회 가입하면서 창설하고 노인들이 모여서 회를 구성한 거지. 마을회관이면서 노인들이 여기 주로 모였었는데 처음엔 이 곳 전체를 다 썼었으니까 큰 공간이었지. 여자는 이쪽, 남자들은 저쪽 이런 식으로 공간을 나눠 여자들, 남자들 구별해 있던 거지. 그러다 새로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여자들은 새 마을회관으로 가고, 남자들은 새 마을회관에서 어물어물하고 있었어요.” (정세화, 1933년생, 능원1리 거주)

“사랑방에 모이는 모임은 한 10살 차이가 나도 같이 모여서 놀고 또래끼리 모여서 노는 정도였어요. 그때는 경제적으로 힘이 없을 때니까 쌀 팔아서 돈 만들고. 농사지어서 먹고 살던 힘들던 때였으니까 특별히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러질 못했어요.” (라창옥, 1941년생, 능원1리 거주)

능원1리 노인들이 처음 조직되었을 당시는 남자 어르신 중심으로 능원1리 노인들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1987년 중국에서 입국한 김순옥 여사에 의해 여자노인들이 설립되면서 구 마을회관 1층의 방 2칸 중 1칸은 남자노인회 경로당으로, 다른 1칸은 여자노인회 경로당으로 각각 사용하였다. 새 마을회관이 건립된 이후에 남자노인회 회원들도 새 마을회관으로 옮겨왔으나 모현면에서는 노인회를 하나로 통합하려 했다. 당시(2010년) 노인회장이었던 정세화 씨 등의 설득과 노력으로 분동된 지 얼마 안 되었던 능원4리 회원들과 함께 하는 조건으로 구 마을회관의 1층 일부를 다시 남자노인회가 사용할 수 있었다. 현재 능원4리와 능원5리의 남자어르신들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내가 노인회장을 2010년부터 4년을 했어요. 새로운 마을회관을 짓고 그곳에서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을 합쳐 노인회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총무가 ‘그게 말이 되느냐? 분리를 해서 새 마을회관은 여자분이 쓰고 구 마을회관은 남자분이 쓰자’ 그랬어요. 그때 면사무소에 김 아무개 씨가 분리하는 걸 못하게 했는데 그 바람에 나하고 총무가 힘이 많이 들었지. 그래서 내가 ‘안될 이유가 뭐냐? 합치면 그게 되겠느냐?’ 했더니 여기는 좁고 공기 순환도 잘 안된다 하면서 계속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 때 복지계장한테 여기 막아 둔 칸막이를 터서 공간을 합칠 테니까 걱정 말고 승인해 달라고 하고 세 들어온 사람한테도 사정사정해서 겨우 승낙을 받아냈는데도 안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적어서 안된다고.



남자 경로당

그때 4리가 생겼는데 4리 사람들을 합쳐서 하겠다고 해서 승낙을 받아냈어요. 4리 사람들도 그때 갈 때가 없었으니까 대부분 여기 와 있었어요. 이거 만들 때 사연이 많았어요. 그때 문도 다시 만들고 다시 보수하고 했어요.” (정세화, 1933년생, 능원1리 거주)

초창기 회장의 임기는 2년이었으나 이후 3년으로 변경, 현재 회장 임기는 4년, 총무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으며 연임은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었다. 능원1리 역대 노인회장은 정연궁, 정연우, 정두화, 이세구, 정조영, 정세화, 이성열이며 현재의 노인회장은 라창옥이다.

65세 이상의 1리, 4리, 5리 거주 남자 어르신이라면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1리에서 분동된 4리와 5리의 마을회관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현재 4리와 5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도 능원1리 노인회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마을회관으로 사용할 빌라를 매입하였다는 소식이 있는 능원4리는 노인회가 새로 결성된 가능성이 높다. 현재 등록된 회원은 총 22명이며 평상시 15명~16명의 회원들이 경로당을 자주 이용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폐쇄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 식사는 남자 노인회 회원들이 경로당에 모여 손수 해 드시는 경우가 많다.

■ 여자노인회

능원1리 여자 노인회는 현재 마을회관의 1층을 노인회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1987년경 중국에서 오신 포은 종가의 종부 김순옥 씨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그전에는 여자들의 노인들이 별도로 없었다.

현재 능원1리 여자 노인회는 1리, 4리, 5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이 어르신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포



여자 경로당

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의 회원을 받을 수 없다.

“내가 노인회장 할 때가 1987년인가? 그랬던 거 같아요. 내가 중국에서 1986년도에 들어왔으니까요. 어느 할머니가 나한테 와서 나보고 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내가 중국에서 왔을 때 능원리에는 여자 노인회는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길생씨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때 여자들은 하나도 취급 안 해주더라고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 노인회장할 때는 남자 노인회도 있었고 여자 노인회가 따로 있었고 새 마을회관으로 옮겨 와서도 계속 내가 노인회장을 했었어요. 합쳐서 한 10년 이상은 했는데 옛날 마을회관에서 여자 노인회를 운영할 때는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회비를 1인당 1,000원씩 걷다가 모자라서 2,000원씩 올려서 걷었어요. 지금처럼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옛날 여자 노인회는 옛날 구 마을회관에 방이 2칸 있었는데 1칸은 남자노인회 경로당으로 또 1칸은 여자노인회 경로당으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새로운 마을회관이 지어졌을 때 새 마을회관으로 우리는 이사를 왔어요.” (김순옥, 92세, 능원1리 거주, 능원리 초대 여자 노인회장)

“옛날 마을회관 할 때 김순옥 씨가 회장했는데 그 때도 여자 노인회장이 있었고 남자 노인회장도 따로 있었어요. 놀러 갈 때는 남자 노인회장이 데리고 갔었거든요. 옛날 마을회관에 들어가는 현관은 같은데 1층 요쪽엔 남자 노인정 밥 해먹는 싱크대 이런 것도 다 있었고 그 때 남자 노인회장이 정두화씨였고. 또 1층 저쪽엔 여자노인정 여기도 싱크대 밥해 먹는 것도 있었고 그렇게 공간은 분리가 되었어요. 그 때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친정어머니도 거기 계셨었는데. 거기 1층을 세를 뵈잖아? 그런데 새로 마을회관을 지었잖아. 그러면서 여자노인정, 남자노인정이 이쪽으로 이사를 온 거야. 그러다 남자 노인정이 다시 옛날 마을회관으로 다시 간 거지. 여자노인회 노인정은 여기에 남아 있는 거지.” (구성신, 1943년생, 능원1리 거주)

“저도 2년 전 일흔 네 살에 가입하면서 노인회장이 되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노인 회장을 하고 계시니 계속 안한다고 했는데... 그냥 하라고 해서 울면서 겨자 먹었어요. 그럴 역량이 안 되는데... 지금 91살이 제일 고령이시고 제일 어린 사람이 우리 밑에 4명이 있어요.” (주순애, 1945년생, 능원1리 거주, 현 노인회장)

현재 여자노인회 회원은 35명이며 평균 20~22명의 회원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어 경로당 이용률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의 경로당이 폐쇄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때문에 경로당 이용을 통한 친목 및 점심식사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못해 어르신들의 불편이 크다.

대한노인회에서 월례회의 횟수에 대한 규칙은 따로 없어 1리 여자노인회 월례회의는 1개월에 1회 운영하고 있으며 일주일 3회 어르신들께 점심식사를 준비해 드리고 있다. 등록된 회원이 15명 이상일 때 노인회 회원 중 한 분을 식사 준비하시는 분으로 선정하고 국가에서 소정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 1리 여자노인회처럼 회원이 두 배 이상이 되어도 부식비에 대한 추가지원이나 식사를 준비하는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농사짓는 마을 사람들이 부식을 지원해 주는 등 도움을 주고 있어 부족한 부식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고 있다.

노인회의 지역봉사 활동으로 마을 청소 및 어린이 교통지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역대 노인회장으로는 초대 김순옥, 2대 송복순, 현재 3대 주순애이다.

■ 부녀회

● 초창기 부녀회

능원1리 부녀회는 1970~1972년 사이에 원주민인 부녀자들에 의해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주민들은 기억한다. 현재는 1리에서 분동된 4리, 5리 거주 회원들도 아직 분리되지 않고 현재 1리 부녀회와 함께 운영되고 있다. 4리와 5리의 마을회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도 오래돼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오취자(=오행남) 씨가 처음에 조직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 이장이었던 서화 작은아버지가 ‘부녀회를 한 번 조직해 봐라’ 해서 시작했다고 해요. 내가 197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 전에 1971년도나 1972년도쯤 시작했을 것 같아요. 시작은 50원씩을 걷어서. 당시 연세가 있건 젊었건 38명이 회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50원씩 걷은 돈으로 회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아서 기금을 늘리고. ‘원천방죽’이라고 옛날 수원에 있던 원천 유원지를 ‘여수네방죽’이라고도 불렀어요. 조그만 했는데 거기를 걸어가셨다는 거야. 그 때만 해도 버스가 없어 아기가 아프면 둘러업고 풍덕천까지 걸어가는 거였어요. 풍덕천에 병원이 하나 있었다고 하니까... 그 때 갔다 오셔서(원천방죽으로 야유회) 부녀회 기금을 마을에 전기 놓는데 기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이 참 잘하셨어.” (장용재, 능원1리 거주, 전 부녀회장)

“제가 초등학교 1~2학년 때도 남포등을 들고 다녔어요. 촛불 들고. 1973년까지는 그렇게 다닌 기억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들어왔겠죠? 제가 초등학교 4~5학년 때 마을에 TV가 딱 한 대 있었거든요. 그 집에 다 모여서 TV를 본 기억이 나요. 마당에 명석 깔고. 그러니까 1977년 또는 1978년 정도겠네요. 제가 79년도에 애향단 단장을 했는데 그 때는 전기가 들어왔었거든요.” (이재학 마을이장)

● 회원 자격

최대 44명까지 갔었던 부녀회원은 현재 34명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활동 회원은 32명이며 평균 연령은 70대 초반이다. 현재 부녀회 가입 자격은 부녀회 정관에 없으나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고 65세까지 회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대로 적용된다면 부녀회원으로 봉사할 사람이 없는 현실이므로 70세 이상이 되어도 회원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회원 자격은 딸이나 며느리에게 승계할 수 있다.

“나 시집오기 전에는 우리 시누이가 부녀회에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참석한 게 아니고. 오취자씨가 회장할 때도 우리 아가씨가 총무보고 했어요. 지금도 부모가 못하면 며느리나 딸이 이어가기도 해요.” (장용재, 능원1리 전 부녀회장)

“초창기 회원은 거의 토박이 원주민이었어요. 그런데 세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장용재, 능원1리 거주, 능원1리 전 부녀회장)

“그 후로는 5년 이상 거주하면 가입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바뀌었어요.” (김복자, 66세, 능원5리 거주, 전 부녀회장, 현 모현읍 총부녀회장)

“그래서 우리 같은 70대의 경우는 부녀회도 소속되어 있고 노인회에도 소속되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장용재, 능원1리 전 부녀회장)

● 입회비

새로운 회원으로 입회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의 잔액을 현 회원수로 나누어 입회비를 산정한다. 하지만 어머니가 현 부녀회원으로 있을 때에는 자녀에게 승계 할 수 있으며 입회비는 받지 않는다. 단, 나이가 많은 회원의 탈퇴 및 승계 대상이 없을 경우 입회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환불해 주기로 한다.

● 월례회의

새 마을회관이 건립되기 전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 회원들의 집을 돌아가며 회의를 하였다. 구 마을회관은 있었지만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부녀회 회의 때마다 구 마을회관 사용은 쉽지 않았다. 현재 부녀회 회의는 월 1회, 첫째 주 월요일로 정하고 있으며 회의 당일 오전에 부녀회와 별도의 친목계 회의를 운영하여 부녀회 활동 외에서도 회

원 간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 모임을 갖은 후 오후 마을회관에 다시 모여 부녀회 월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부녀회 월례회의가 있는 날은 계모임도 함께 해요. 계원들끼리 계돈을 걷어 한 사람을 태워 주는데 그 날 계를 탄 사람은 밥을 사요. 오전엔 계모임 하면서 식사하고 오후엔 마을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부녀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정순자, 58세, 능원4리 거주, 현 부녀회장)

“특별한 전달사항이나 내용 없어도 ‘얼굴 보러 가야지!’ 하면서 나오는데 그 재미가 있어요.” (장용재, 전 부녀회장)

● 부녀회 임원 선출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가 있으며 부녀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추천제로 선출한다. 역대 부녀회장은 오취자(오행남씨의 호적 이름), 용이 엄마(이름을 기억 못함), 장용재, 강임순, 원순옥, 김복자, 안연숙이며 현재 부녀회장은 정순자이다.

● 부녀회 기금 마련

초창기 부녀회는 절미운동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하였으며 돈이 필요한 회원에게 부녀회 기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로 기금을 늘려나갔다. 또 가구당 당시 500원씩을 걷어 비누, 성냥, 초, 국수 등 생활용품을 구입한 후 회원들의 집을 돌면서 팔고 그 수익금을 부녀회 기금으로 적립하였다. 집집마다 옮겨 다니며 물건을 파는 것은 여러모로 번거로움이 많아 마을 구판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중단되었다.

“오취자씨가 부녀회장 할 때부터는 절미운동으로. 그 때는 절미를 걷어서 통장에 넣을 수 있었다고 하니까 부녀회 통장을 만들어서 기금을 마련하였고 그 기금은 부녀회

회원에게 빌려줬어요. 이율이 당시만 해도 3부로 셋지만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 회원들은 썼어요. 쓴 사람들이 많았어요.” (장용재, 능원1리 거주, 전 부녀회장)

“서경남 씨랑 용이 엄마 두 분이 회장을 했었는데 그 때는 각 가정에서 필요한 필수품들을 떼어다가 장사를 했어요. 3개월씩 돌아가면서 집집으로. 당시 나는 1976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새댁이었는데 1978년 4월25일에 아들을 낳고 친정에 몸조리하러 갔다가 한 달 만에 집에 왔는데 저녁에 ‘업 들어옵시다!’하고 외치면서 들어오는 거야. 리어카에 물건 팔 거를 죄다 실어서. 아기 낳았으니까 어디 못 갈 거니까 아기 보면서 팔라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가져 왔더라구요. 그렇게 나도 부녀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지요. 설탕, 미원, 초, 성냥, 라면, 국수 이런 거를 많은 양은 아니고 품목당 2~3개씩 갖다 두고요. 시골은 가게가 없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으니까 주로 내가 제일 많이 쓰더라구요.” (장용재, 능원1리 거주, 전 부녀회장)

“다른 집으로 넘어갈 때 마감을 하면 맨날 모자랐어요. 부녀회 기금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했어요. 임기가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길게 하는 사람도 있고 짧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매번 물어내다보니 구판장으로 이어가지는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지. 남편들이 그냥 집어다 마시고 그러니까... 물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주순애, 1945년생, 능원1리 거주, 전 부녀회장)

도로 상황 및 교통편이 열악했던 당시 서울의 동대문 시장까지 가서 메리야스를 떼어다 가구마다 팔면서 낸 수익금과 일손이 없는 집의 모내기를 부녀회원들이 대신 해주고 받은 품삯, 초상 난 집의 장례를 치를 때 부녀회원들이 일손을 돕고 받은 수고비, 마을 행사 때 부녀회원의 활동으로 마을회로부터 받는 수고비도 부녀회 기금으로 적립하였다.

“1981년도 제가 부녀회장 할 때는 물려받은 부녀회 기금이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좀 그랬어요... 하나도 없었으니까 우리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대문시장에 가서 메리야스를 떼어다 집집마다 가져다 팔았어요. 그렇게 한 2년 했나 봐요. 메리야스도 팔고 김도 팔고 그랬어요. 버스타고 다니면서 지갑도 잃어버리고... 그래도 그 때는 힘든 줄 모르고 다녔어요. 여기 도로도 1981년도에도 비포장. 우리 마을은 1990년도에 포장이 되었어요. 그나마 그 때 대지고개가 많이 깎여서 지금 이 정도로 낮아진 거예요. 그 당시는 비포장도로를 버스가 하루에 3대 다녔는데 동대문시장엘 가려면 능골삼거리에서 서울 가는 버스를 타고 갔어요. 여기서는 수원 가는 버스만 있었으니까. 그게 무겁잖아요. 낮에 종일 일하고 저녁에 이걸 머리에 이고 다니며 팔았으니까... 그 때 힘든 것은 잇을 수가 없어요. 런닝하고 팬티하고 사이즈별로 사와서. 최인순씨가 부회장이어서 둘이 다녔는데 백장이상씩은 사왔으니 메리야스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따로 살 곳이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잘 사줬어요. 보따리 장사가 다니긴 했지만 곁옷을 가지고 다니면서 팔았지 속옷은 안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 때 메이커는 무조건 쌍방울. 힘들었지. 그래도 잘 넘어 갔어요.” (장용재, 능원1리 거주, 전 부녀회장)

또 2003년부터는 포은 묘역에서 열리는 포은문화제 행사장에서 3일간 잔치국수 등의 음식을 판매하고 얻는 수익금을 부녀회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2003년도부터 포은문화제를 능원리 포은묘역에서 했어요. 용인문화원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해야한다.’고 해서 능원1리, 능원3리, 모현부녀회, 좋은 사람들 이렇게 4개의 단체는 포은문화제를 열기 전부터 음식은 무엇을 할 것인가? 회의를 통해 메뉴를 정하고 장사를 했어요. 그 수익금을 부녀회 기금에 적립하는 거죠. 포은문화제 준비가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한 달 전부터 회의하고 준비하고. 사흘 동안 부녀회원들이 나가서 음식 팔며 봉사해야 하고. 준비까지 하려면 5일은 꼬박 해야 한다는 거지. 포은문화제할 때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특히 힘들어해요. 그래도 끝나고 나면 보람은

있어요. 능원1리는 늘 잔치국수, 해물파전, 떡볶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못하고 2020년에는 코로나 땀에 못하고. 그러니까 한 16해 동안은 한 것 같아요.” (김복자, 66세, 능원5리 거주, 전 1리 부녀회장, 현 모현읍 총부녀회장)

● 부녀회 연중 행사

- 마을 척사대회 - 음력 1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한다.
- 복달이 - 여름 더위에 지친 어르신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복달이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고 있다.
- 부녀회 관광 - 가을에 부녀회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관광을 가고 있다. 이 때 경비는 부녀회 기금과 일부 개인이 부담하여 다녀온다.



부녀회 여행



모현읍 부녀회장 수해복구 지원 장면

- 마을 총회 - 12월 마을 총회 때 다과회 준비
- 포은문화제 행사 기간 음식 판매 -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 기타 - 모현읍 부녀회장단 모임에 각 동의 부녀회장은 월 1회 이상 모현읍사무소 또는 모현 농협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독거노인들을 위한 나눔 봉사, 수해지역 복구 현장 지원 및 방역에 필요한 봉사를 하고 있으며 거리 청소 및 아나바다 장터, 어르신들 무료 급식소 봉사 등의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 상신회

상신회는 퇴비증산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받은 대통령 하사금과 통일벼 품종 중 하나인 '노풍'의 작황 실패에 따른 피해 농가 보상금과 기타 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금이 필요한 회원과 비회원에게 대출해 주고 있다. 대출시 회원 2인의 연대보증에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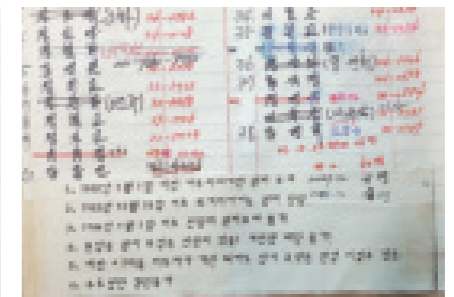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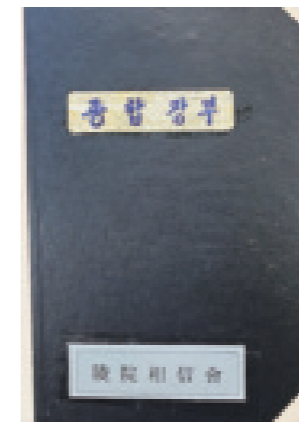
상신회는 능원1리 능곡의 마을조직으로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과 더불어 금고를 운영하여 경제적인 화목번영과 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

행하여 살기 좋은 마을 건설에 앞장섬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상신회의 회원 자격은 1980년 1월 1일 이전부터 거주하는 세대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의 이주 시에는 권리일체를 상실하게 되며 회원 자격이 박탈된다. 하지만 자녀가 능골에 거주하는 경우는 승계할 수 있으며 재귀향시에는 총회결의에 의해 다시 부여받을 수 있으며 회원은 개인별 분담금 권리 주장 및 개인별 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25이전에 실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총회 안건은 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임원의 구성은 회장1인, 부회장2인, 총무1인, 서무1인, 감사1인이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으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토박이들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당시 쌀 한말씩 걸어서 운영되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1971년쯤 되었을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때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하사금을 내려 보냈어요. 그 하사금을 당시 마을 사람들이 나누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니까 그 돈으로 소를 샀거든요. 그리고 그 소를 이 집에서 기르고 다음은 저 집에서 돌아가며 기르고 그렇게 해서 남는 자금을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렇게 모은 자금으로 마을행사 때나 노인회 놀러갈 때 남자노인회, 여자노인회 각각 100만원씩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다들 어려우니까 이 돈을 빌려가서 쓰고 이자를 내고 그랬어요. 그렇게 늘러가면서 왔어요.” (주순애, 능원1리 거주)



회원조건이 명시된 회의록

능원 상신회 장부

■ 새마을회

마을 공동 부지를 구입하려 할 때 개인 명의로 매입할 수가 없다. 이럴 경우 새마을회의 이름으로 마을 사용 목적의 부지를 구입하게 된다. 새마을회 회원은 현재 20~30명이며 이장, 반장, 청년회장, 노인회장, 감사 등 능원1리 마을 임원 대부분이 새마을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일 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한다. 새마을회 기금은 송전탑이 지나가는 세대에 한하여 매년 나오는 송전탑기금이 주이다. 송전탑 기금과 관련 있는 빌라 입주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기금이 마을 공동체를 위해 쓰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고 그 기금으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 현 마을회관 인근 부지를 매입하였다. 새마을회 기금은 마을 기금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새마을회 회장은 정연국이다.

■ 청년회

능원1리 청년회는 4H청년회에서 이어오고 있는 조직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회원은 20명~30명 정도로 능원1리에 거주하며 회원의 연령은 따로 정해진 건 아니며 당대의 이장 연령보다 아래의 연령대는 청년회에 속한다.

연 2회 마을 풀 깎기, 연 1회 마을 대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포은문화제 행사가 있을 때에는 무거운 물건 옮기기, 대동회 때 마을 주민들을 대접하기 위한 고기 굽기 등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부녀회 활동과 많은 부분 연관되어있다. 연말에 총회를 하고 있다.

청년회도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행사시 수익금의 일부를 청년회 기금에 적립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능원 상신회에서도 청년회에 기금을 지원한다. 현재 회장은 오용근, 총무는 김영권이다.



능원2리 마을회관 전경

2) 능원 2리

능원2리는 ‘소리’ 또는 ‘우명동’이라고 불리며 마을회관을 경계로 ‘웃소리’와 ‘아랫소리’로 나뉘며 1990년도 개장한 140만평의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이 위치하고 있다. 아랫소리는 13가구의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2019년 주택 건축업자에게 약 3,300평의 부지가 매매되어 아랫소리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인근지역이나 윗소리로 이주하였다. 그 자리에는 전원주택 33채 (약 70세대)가 입주를 위하여 공사 중에 있다.

능원2리는 2020년 6월 30일 기준 세대수 83, 인구수 151명이다. 역대 구장으로 김창희, 임종직이며 역대 이장으로 정필용, 양병준, 이덕희, 이완희, 박영수, 이광희, 양병천, 정성준, 전영근, 김장수, 이상배, 정주화, 전연수, 박영민, 양철운, 양철배, 양철승, 전영호, 임경선, 양철운, 임광택이며 현재 이장은 김인수이다.

“능원리가 분동되기 전에는 능골은 이장이 관리하고 있었으며 현재 2리의 우명동은 1반으로, 3리 안골은 2반으로 반장들이 관리하고 있었어요. 능원리에서 2리로 분동된 게 제가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교 때 분동된 것으로 기억하니까 1980년대 즈음 분동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재학, 54세, 능원1리 현 이장)

“현재 반쪽짜리 마을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장으로서 작년엔 마음이 안 좋았어요. 모두 원주민이셨는데 마을 주민 반이 없어졌으니까 말입니다.” (김인수, 50세, 능원2리 현 이장)

● 마을회관

능원2리 마을회관은 1980년대까지도 허름한 1층 건물이었다. 레이크사이드cc가 우명동에 터를 잡기 시작한 1991년 레이크사이드의 지원으로 같은 위치에 마을회관을 2층 건물로 신축하게 되었다. 당시 새마을지도자는 양철배, 마을 이장은 정연수이다. 이후 옥상의 누수문제가 있어 여러 차례 지붕 및 내·외부 리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능원2리 마을회관은 일부 도로부지와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소유의 부지에 지어진 건물로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의 사용 승인이 있어 사용상의 문제는 없으나 건축물대장에는 등록될 수 없었다. 현재 1층은 노인회의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마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기구들이 구비되어 있다.

● 마을기금 마련

마을에서 초상이 났을 때 마을 사람들이 내 일처럼 상주를 돕는다. 그 감사의 표시로 받았던 사례비, 마을 공동 부역에서 빠진 사람들이 낸 벌금, 레이크사이드CC가 능원2리에 자리 잡을 때 낸 마을 기금, 전원주택을 짓고 새로 이사 오는 세대에게 받은 발전 기금 등이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되었다. 마을 여행 및 마을 행사는 매년 찬조금과 협찬으로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마을행사 때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행사 주체가 어느 단체인지에 따라 부녀회, 청년회, 장년회 등의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적립된 마을기금은 돈이 급히 필요한 회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빌려주고 있으며 대동회 결산 보고 전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이다. 5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 주민 중 세대주 2인의 보증인이 있어야 가능했지만 요즘은 신청만 하면 보증인 없이도 바로 온라인 송금이 가능하다.

■ 능원2리 마을회 (동회)

● 구성

능원2리의 동회는 마을의 발전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명동에 전입된 세대의 세대주 1인이 회원이 될 수 있다. 마을의 임원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총무, 감사, 반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청년회장, 장년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우명동에 6년 이상 거주, 마을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며 마을 이장이 되기 위해서는 마을 임원으로 1번 이상 봉사한 자에게 권한을 준다.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재임이 가능하며 참석 가구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선출된다.

“우리 마을이 그나마 다른 마을보다 자연부락이었다. 이주민들이 살짝 물과 기름 같이 융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적도 있었지만 이장이 된 후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마을행사나 청소 등을 미리 연락을 드렸더니 지금은 그 분들도 마을일의 대부분 참여하십니다. 아랫소리 전원주택 단지에 새로 이사 오실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마을 회원으로 가입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마을이라는 것은 같이 하나가 되어야 마을 주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래 살았다는 것만으로 따지기에는...” (김인수 현 이장)

●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정기 총회는 매년 년 말에 개최하며 임원 선출 및 회칙 개정 및 제정, 사업 계획의 승인 및 사업 보고,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기타 마을의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토의한다. 임시총회는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회원의 1/3 이상 소집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임원들 임기가 끝나는 해는 대동회가 있는 날 새 임원을 선출하게 된다.

● 마을 재정 및 관리

마을회의 회계 기준은 전년도 12월 30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0일까지로 하며 마을의 발전 기금과 찬조금 및 기타 성금 등의 수입 운영과 기타 마을 행사에 대한 지출 및 타 지역으로 이사 가는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등의 지출에 대한 결산 보고를 한다.

“민감한 부분이 마을기금이다.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마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점점 유입되는 인구는 많아질 것이고 유입민들이 형성될 것인데 기존에 있는 것은 기존대로 가고 새로 유입되는 세대의 구성원은 새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이주해 오실 분들은 마을에 걸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을 올라오는 길도 옛날 이 동네 어르신들이 팽이, 삽으로 좁은 길을 손수 닦아 만든 것이예요. 땅 사서 집 짓는 사람들은 올라오면서 남의 땅 밟은 것은 생각 안하고 자기 집 앞에 땅 조금 나간 거에 불합리하다고 뭐라 하는 경우가 있다.” (김인수 현 마을이장)

● 마을 행사

○ 산신제 - 매년 음력 10월 1일로 요일과 상관없이 해마다 같은 날로 정해 놓았으며 마을회에서는 산신제를 알리는 공고문을 마을 알림판에 붙여 공지하고 있으며 각 가정에서도 알 수 있도록 통문 형식으로 공지하였다. 산신제에 쓰이는 비용은레이크사이드cc에서 매년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분이 있을 경우 마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산신제 한 달 전 당주와 부당주를 정하고 정결기간 동안 금기사항을 철저히 지킨다. 현재는 금기기간이 10일로 줄었다.



우명동 산신제

“나는 천주교 다닌다고 못 오게 해서 어릴 때는 밑에 까지만 따라 가고 말았어요. 요즘은 올라가지만...” “옛날에는 ‘산축계’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산에 축성드리는 계’라고 해서 거기만의 기금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던 거 같고 그 사람들만이 기금을 따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후 그 기금은 마을 기금으로 흡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연수 마을회 총무)

“어릴 때 기억으로는 음식을 하나하나 준비해서 지게 지고 올라갔어요. 현재 돌아가신 분이지만 비린내 하나 없이 준비하셨거든요. 지금은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신앙들이 자유롭잖아요? 솔직히 참여도 예전보다 떨어지고 관심도 떨어지는 편이지만 이것은 마을의 역사이니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김인수 마을이장)

○ 고향회 - 1994년(26년 전)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마음속에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가 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보듬어 반겨주는 고향 사람들이 있음을 느끼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로 우명동이 고향인 사람들을 초대한다. 비슷한 경험이 있던 정연수 씨와 의견을 함께 했던 몇 분의 뜻으로 ‘고향회’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행사의 주관은 마을회에서 하고 있다.

전반적인 행사의 주축은 이장이 맡고 있으며 각 단체가 모두 참여하여 행사를 준비한다. 특히 회장은 출향인들 중 한 분을 추대하고 있으며 이장 임기에 맞춰 행사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장 임기가 2년 일 때는 2년에 한 번씩, 현재는 이장 임기는 3년의 바뀌었으므로 3년에 한 번 씩 행사가 마련된다.



고향회 행사

2019년(작년) 5월 26일. 고향회 12회 행사가 있었으며 13회는 2022년이 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내빈소개와 이장 및 고향회장의 인사말, 마을의 사업보고 및 마을행사 안내와 현황 보고의 시간을 함께 가진 후 식사 대접 및 여흥의 시간을 갖는다. 2019년 고향 떠나 초청되어 오신 분들은 약 40여명이었으나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 점점 오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어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내가 고등학생 때 성남에서 1년을 자취생활을 했는데 그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가족 모두가 성남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여기서 다니기 힘들었으니까... 나는 그 때 여기가 고향이니까 그리워서 찾아왔는데... 친구네 집에 놀러가도 그 사람들은 일하느라고 반겨주는 것도 아니고 편히 머물 수 있는 곳도 없고 자고 갈 만한 곳도 없고... 그게 아쉽더라고요. 고향에 오고 싶는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기지 않거든요. 일이 바쁘니까... 그 때 ‘고향을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구나!’를 느끼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 20년간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것을 실현하게 된 거예요.” (전인수, 65세, 능원2리 거주)

“제가 기억하는 것은 계곡에서도 했었고 음식을 준비해 산에 올라가서도 했었어요. 마을주민들이 닭 삶고. 그러다가 인원이 많아지니까 마을 공터에서도 하고 돌담카페에 무대를 꾸미기 시작하고 총무님이 연예인도 초청하고 음식 준비도 뷔페로 했습니다. 스케일이 컸어요. 그리고 ‘이장, 마을을 지켜줘서 고맙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면 책임감도 있지만 보람이 큼니다. 저도 이 마을에서 컸고 어르신들이 저를 코흘리개 때부터 보셨잖아요. 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면 저도 마음이 그렇죠...”(김인수, 50세, 마을이장)

○ 마을 야유회 - 능원2리에서는 일 년에 2회, 봄과 가을에 마을 주민이 단체로 여행을 가고 있다. 3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단양, 통영, 여수를 다녀왔다.



전 주민 대상 마을 여행

“어느 해 여수를 갔는데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고 ‘이장, 고마워. 내가 평생 살아도 이장 아니면 내가 여길 어떻게 와 봐!’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니 짠하더라고요. 그런 말 때문에 사명감이라는 것이 생기죠. 사실 어르신들 모시고 장거리를 다니다는 것은 건강상의 문제와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긴장감이 크거든요. 하루 종일 긴장이 돼요. 청년회에서라도 와서 도와주기도 해요.” (김인수, 50세, 마을이장)

○ 마을 척사대회 - 정월 대보름 전후 주말로 날을 잡아 마을회관에서 윷놀이를 한다.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하고 있으며 점심식사로 국수를 대접하고 있다. 이날에는 이주하신 분들도 초대하고 있으며 외부 인사들도 많이 와서 참여한다. 참여하시는 사람들이 작은 선물이라도 들고 갈 수 있도록 마을회에서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다.

○ 마을 대청소 - 일 년에 두 번, 봄과 가을 추석 전에 마을 대청소를 하고 있다. 이장이 공고하면 세대 당 1명씩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식사비, 음료수 정도를 찬조하는 사람들도 있다. 봄에는 풀 깎기와 개울의 쓰레기 줍기 위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가을엔 추석 전 마을길 청소, 풀 깎기, 쓰레기 줍기

위주로 활동하고 있다. 날짜는 미리 정해 놓고 있지 않다.

○ 복달이 - '능원2리 노인회는 일 년에 삼복을 모두 챙겨 먹는다!'는 말이 있다. 장년회, 부녀회, 청년회에서 해마다 3번 모두 돌아가면서 챙기는데 각 단체에서 빠지는 경우 마을회에서 챙긴다. 세 번 중 한번은 주말로 날짜를 잡아 마을 주민들도 모두 함께 복달이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로당이 폐쇄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있어 챙기지 못하고 지나게 되었다.

■ 능원2리 노인회

1990년~1991년 경 현재의 마을회관이 지어지면서 능원2리 노인회가 설립되었으며 능원2리 마을회관은 노인회 경로당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능원2리 노인회 가입 자격은 능원2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제명이나 탈퇴 사유는 명예를 실추 시키는 등의 통상적인 이유이며 그 외 별도의 재제수단이 따로 없다. 65세 이상의 연령부터 가입 가능하지만 요즘은 70세까지도 한참 활동 할 나이로 보아 65세에는 경로당에 잘 나오지 않는다. 능원2리 노인회의 평균연령은 80대 중반이며 회원 대부분이 80세 후반이며 최대 36명의 회원이 등록한 때도 있었지만 아랫소리 회원들이 이주한 현재의 등록 회원은 30명이다. 평소 10명 정도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아랫소리 회원들이 이주 한 이후 3~4명 정도만 나올 정도로 이용하는 회원들이 줄었다. 노인회 봉사활동은 마을 주



노인회 여행 (2008년, 영월 송어장)

변 정화작업과 풀 깎기를 하고 있으며 점심식사는 부식비를 운영비로 구입한 후 취사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회 임원인 회장의 임기는 4년, 총무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능원2리 노인회의 월례회의는 따로 정해두지 않고 있으며 식사를 한 다거나 마을일이나 행사가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모인다. 그리고 연말에 결산 보고를 위하여 모인다. 역대회장으로는 이규희, 이덕희, 김장수, 오규환, 임경선이며 현재 노인회장은 전영호이다.

“노인회는 운영비, 난방비의 지원만 받고 있어요. 시에서. 난방비는 보조금 형식이기 때문에 남으면 반납, 모자라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고요. 여름에만 한 달 동안 냉방비를 별도로 준다. 운영비는 한 달에 45만원 씩 분기별로 135만원의 운영비를 받고 있다. 사회봉사비로 연 중 9개월에 한해서 청소 1회에 5만원을 지원받는다. 최대 2회에 한해서 9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운영비하고는 별도이다. 읍사무소하고는 별도의 정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나 요즘은 보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노인회장의 잡비는 따로 없다. 무보수 명예직이다. 노인회는 기금마련이 없다.”
-(전영호, 1945년생, 현 2리 노인회장)

■ 능원2리 부녀회

● 초창기 부녀회 결성

능원2리의 마을 부녀회는 1982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6.25전쟁 중 용인으로 피난 와 우명동 옷소리에 살던 전영근과 혼인한 이명순은 이후 4H구락부 활동을 하던 중 1982년 면사무소(당시 면장-윤석중)에서 부녀회장직을 권유받고 면 단위 부녀회를 결성하였으며 능원2리 부녀회장(1982년도)과 모현면(당시) 총 부녀회장을 3년 동안 (1982년~1984년까지) 맡게 되었다. 이 때 부녀회장의 활동 중 국가의 가족계획 정책을 부녀회원들에게 홍보하는 역할도 함께 했다는 것이 흥미롭다.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이 있으면서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청년회가 조직된 거예요. 그 때 4H 구락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때 면사무소에서 와 가지고 회장 볼 사람이 없다고 나보고 하라고 그러더라구요. 그 때는 남자들이나 학교를 다녔지 여자들은 학교도 안 보내고 집에서 살림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문맹자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여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그 때는 아이를 7명~8명씩 낳았잖아요? 피임약도 있고 콘돔이란 것도 있고 이것을 부녀회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어요. 자연 피임법도 있었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피임약, 콘돔으로 가족계획 할 수 있도록 말예요. 그런 것도 부녀회 회원들에게 배부하고 그랬어요.” (이명순 1934년생, 능원리 거주, 전 모현면 총 초대 부녀회장, 능원2리 초대 부녀회장)

● 회원 자격

초창기 능원2리 부녀회원은 한 세대에 한 명씩 무조건 회원에 가입되었으므로 이명순 부녀회장 당시 부녀회원은 33~34명이었다. 2대 최송림 부녀회장 때에도 세입자를 제외한 원주민은 한가구당 1인이 부녀회원이었으므로 회원수가 30명이 넘었다. 현재 2리 부녀회원은 20명 정도이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은 15명 정도이다. 현재 부녀회원의 자격은 능원2리에 거주하며 나이 상관없이 기혼자라면 가능하며 규정상 65세까지로 나이를 제한하고 있지만 70세까지도 부녀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명순 초대 회장 공로패 (1984년도)



최송림 전 부녀회장 공로패 (1995년도)

“나 할 때도 쟁쟁했었어. 가구 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 당시는 33명이 넘었으니까. 세입자들은 안 나와도 원주민들은 다 회원에 가입했었으니까 1가구에 1인이 부녀회원이었지.” (최송림, 1946년생, 능원2리 거주)

● 입회비

초창기에는 가입할 때 가입비를 내고 가입했으며 탈퇴할 때는 돌려주지 않았다. 가입비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시절이 아니었으므로 적은 금액 이었다고 한다.

● 월례회의

초창기에는 매월 1회씩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진행했으며 점차 부녀회장에 따라 매달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현재는 바쁜 회원들이 많아 매월 회의 날짜를 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특별한 내용이나 행사가 있을 때 임시회의 형식으로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반기 3번과 결산회, 중복이나 마을 여행 준비를 위한 회의를 한다.

● 부녀회 임원 선출

부녀회 임원진은 회장, 총무, 감사이며 임원은 연말 총회 때 추천하여 선출한다. 능원2리 부녀회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역대부녀회장으로는 초대 이명순, 최송림, 김숙자, 안영자, 김윤순이며 현재 부녀회장은 황경남이다.

“모현면 부녀회에서는 3년은 해야 하지 않는가? 했지만 현재 임원



부녀회장단 배구대회

진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해요. 다른 분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황경남, 1967년생, 현 부녀회장)

● 부녀회 기금 마련

이명순 부녀회장 당시 부녀회 기금 마련을 위하여 절미운동과 물건 판매 (농골에 있던 가게에서 물건을 떼 오거나 2일, 7일에 열리는 광주5일장(능평삼거리)에서 마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떼어 와 마을회관에 배치하고 부녀회원들이 당번제로 판매하였다.)를 통하여 부녀회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회원들의 생활이 어려웠던 시절이므로 일정금액 모이면 회원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었으므로 크게 기금이 모이지 못했다. 2대 최송림 부녀회장은 오산리 산의 묘목 심기 일감을 얻어와 부녀회원들이 나가 묘목을 심고 품삯을 받아 부녀회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었다. 이후 적립된 돈을 어려운 회원에게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기금을 키워나가는 등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동네에서 장례를 치를 때 부녀회원들이 도와주고 받는 수고비도 부녀회 기금으로 적립했다. 현재는 산제사 때 수고하면 마을에서 부녀회 기금으로 적립해 주기도 하고 적사대회 때 순이익이 나면 수고한 부녀회에게 찬조금을 준다. 이것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내가 맡았을 때 기금이 없어서 발상의 전환이라고 봐야 하는데, 정의명씨 아버지가 이장을 했는데 벌목한 오산리 쪽 산에 묘목을 심는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한테 가서 ‘묘목을 심는 걸 2리 부녀회에서 하겠다!’하면서 일감을 따 왔어요. 하루 일당 1인당 3만원인가 4만원인가를 책정하고 안 나오는 회원은 품값만큼 벌금을 내기로 정하고. 묘목 심기 공사를 따 와서 부녀회 기금을 만들었어요. 그 돈으로 상황이 어려운 회원들에게 빌려주고 연말에는 원금과 이자를 받아서 부녀회 기금을 마련해 갔었거든요.” (최송림, 1946년생, 능원2리 전 부녀회장)

● 부녀회 연중행사

○ 노인정 복달임 행사 - 삼복 중 초복은 부녀회에서 준비해 마을회관의 노인 분들을 대접한다. 이번년도 초복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을회관에서 대접하지 못했으며 중복 때에 마을회에서 마을 전체 주민들을 식당으로 모시고 나가 대접했으며 못 오시는 분들에게는 포장해서 전달했다.

○ 부녀회 관광 - 일 년에 1회 부녀회원들만의 여행을 가고 있다. 이번년도는 코로나19로 아직 가지 못했다.



부녀회 관광 (1980년대)

“나 옛날에 부녀회장 할 때는 버스 한 대에 사람이 다 안 차니까 농골 여자들까지 불러 합쳐서 여수 오동도 일박이일도 놀러 갔어요. 상희 엄마, 애영이 엄마, 이 동네 끼는 여자들 놀러가서 나이트클럽 가서 춤도 추고 그랬어요.” (최송림 전 부녀회장)

“저희는 무조건 당일로 가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비용면에서도 곤란해 1박 2일은 안 돼요. 현재 15명~17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 거리는 무조건 장거리, 차는 리무진을 요청하십니다.” (황경남, 1967, 능원2리 거주, 현 부녀회장)

○ 부녀회 연말 총회 - 매해 년 말 중 하루를 잡아 마을회관에 모여 총회를 열고 있으며 결산 및 연간 활동 보고를 한다. 총회를 마친 후 회원 간 친목 도모를 위해 함께 식사한다.

■ 능원2리 장년회

장년회는 20여 년 전 이장이었던 임경선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나온 의견으로 조직되었으며 회원은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우명동 마을 주민으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대부분의 마을 행사에 주축이 되고 있다.

“45세까지는 청년회가 있고, 65세부터는 노인회가 있잖아요? 내가 청년회 끝날 때 즈음이었었는데 청년회도 아니고 노인회도 아니고 공백이 있으니깐요. 그 때 이장(임경선-현 2리 거주) 보시는 분과 뜻을 같이 해서 만들게 되었어요.” (전연수, 65세, 능원2리 거주)

장년회의 기금은 회원들이 매년 10만원씩 내는 회비를 기금으로 쓰고 있으며 마을에 장례 있을 때 도와주거나 정월 대보름 윷놀이를 주최한 후 수익을 마을 단체별로 나눠 줄 때 받는 돈을 장년회 기금으로 적립한다. 청년회는 젊어 직장 다니기 바쁜 세대이고 노인회는 연령대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마을 행사를 준비할 때 장년회가 거의 주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장년회의 월례회의는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 임원들이 대부분 장년회 회원이다. 회원은 15~20명 정도이며 세대 구분 없이 나이에 따라 회원이 되며 회장, 부회장, 총무가 임원진이며 회의를 통해 뽑지만 회장은 연장자로 정하며 임기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역대 회장은 정인수, 전영호, 임경선, 전연수이고 현재 회장은 공석이다.

■ 능원2리 청년회

45세 미만의 연령으로 우명동이 고향인 회원들로 우명동을 벗어나 살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에는 어려움이 있다. 청년회는 마을 윷놀이, 고향회 등 우명동의 마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심부름꾼의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다.

김도영

3) 능원 3리

능원 3리는 포은 정몽주 선생과 저헌 이석형 선생의 묘역이 있고 이석형 선생의 재실인 문강재가 있는 전통 마을이다.

안쪽에 있어서 안골마을로도 불리며 최근에는 전국의 전통마을 체험객들에게 널리 알려진 호박등불마을이 있어서 호박등불마을로 불리기도 한다.

이 마을은 120세대 정도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원주민은 24호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 빌라에 이주해 온 외부 유입인구가 많고, 집을 짓고 사는 경우는 46가구 정도다.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는 오래 살고 있는 몇 가구 외에 대체로 이사가 잦고 동네 조직에 가입하지 않아 파악이 힘든 상황이다.

이 마을에는 한국의 등잔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등잔박물관과 전통테마체험마을인 호박등불마을이 있으며, 전통발효음식체험교육장인 다인네 외갓집이 있다.

마을이 문화재보호구역이다보니 공장, 창고 등 공해 유발 혐오시설 등이 없어 청정 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는 덕에 주거환경이 좋다.

마을회관 겸 경로당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부지는 50평이며, 건평은 30평이다. 2층을 증축해 60평을 사용하고 있다. 1층은 남녀노인방이 별도로 나뉘어져 있고, 2층은 회의실 등으로 사용한다.

1990년에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회관 부



◇마을 주민들이 찬조해서 부지를 마련해 건립한 3리 마을회관

지를 샀다. 회관을 확보하는 비용을 찬조하기로 뜻을 모아 50만원, 100만원 등 형편 것 십시일반 모인 돈으로 장만했다. 당시 답이었던 부지를 평당 30만원에 구입했다. 건축은 94년에 1층, 97~98년 정도에 2층을 올렸다. 이전에는 노인들이 회관이 없어서 나무 밑에서 모이곤 했다.

마을 기금

과거에는 동네에 장사가 나면 다 끝난 후 장사를 치룬 집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마을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다. 이 기금과 빌라를 건축하는 업자가 동네 불편을 위로하는 뜻에서 발전 기금을 기부해서 모여 있는 돈이 1000만원정도 남아 있다. 그러나 동네가 문화재보호구역이다보니 공장 등 산업체나 시설 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마을 발전을 위해 기부해오는 여타의 기부금은 전무하다. 마을 가운데서 재정이 가장 열악할 수 있는 마을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민들은 추측하고 있다.

다행히 영농조합법인인 호박등불마을에서 연말에 100만원씩 기부하고 있으며, 수확한 제철 농산물을 어르신들 잡수시라고 제공해 드리고 있다. 그러나 올해(2020)는 코로나19 때문에 체험마을 수익이 줄어 연말에 결산해 봐야 기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포은문화제 축제가 열릴 때 부녀회에서 음식 판매 등의 수익사업을 한 것도 마을 살림을 위해 보태진다.

아주 옛날에는 잇세로 연간 쌀 한말을 걷었으나 없어졌고, 최근에는 마을 대청소를 할 때 환경비라는 명목으로 1년에 한번 회비를 가구당 2만원 걷다가 2019년부터 없었다. 새로 유입해온 이주민들의 경우는 마을일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청소에도 참여하지 않을 뿐더러 회비까지 내지 않자 원주민들만 청소하고 회비까지 내는 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따라서 마을 회의를 통해 회비를 없애고 기존의 마을 기금에서 쓰기로 결정했다.

마을 조직

능원 3리 마을회는 이장(영농회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 부녀회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 사적인 조직으로 청년회와 향우회 등이 조직돼 있다.

마을회 가입은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의 경우라도 마을회에 나오면 자동 소속이며, 회비와 운영비 등은 따로 없다. 그러나 최근 이주민 가운데 새로 가입하는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원주민인 24호는 거의 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영농회 소속이다. 영농회는 보통 농협에서 하는 업무이며, 영농회장은 이장이 겸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모현읍에서 이장을 부를 때는 호칭이 능원 3리 이장이지만, 퇴비, 소금, 보리쌀 보급 등 주로 농협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경우 농협에서는 이장을 영농회장이라고 부른다.

*능원 3리 이성민 이장

이장 임기가 3년이며 재임도 가능하다. 이성민 이장의 경우는 과거에 이장을 한 경험이 있고, 올해 초 이장에 추대돼 두 번째 이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연안이씨 종종 일과 호박등불마을 일 등으로 바빠서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맡은 경우라고 한다. 집안 어른이신 전 노인회 회장이 강하게 하라고 권유해서 다시 이장직을 맡게 됐다.

“10년 전 즈음에 했었어요. 그 무렵 호박을 심었던 것이 계기가 돼 호박등불마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번에는 절대 안하겠다고 고수했었죠. 아니 못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좀 많이 바빠요. 총회(이중)할 때 이장 뽑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중에 한 번도 참석 안했어요. 자꾸 저에게 이장을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전 노인회장님이 집안 어른이시고 불러서 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셔서 올해 다시 한거예요.”

물론 첫 번째 이장을 맡을 때도 어른들이 이장하라고 강권하는 바람에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맡았다. 능원 3리는 동네에서 이장할 사람이 딱히 없다. 이성민 이장에게 하라고 했지만 이성민 이장의 경우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동네 일에는 문외한이었다.

물론 능원 3리가 연안이씨 집성촌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던 데고 장손이다 보니 시골로 내려오긴 했다. 종종 일도 있고 종가집 일을 보기 위해 동네에 들어온 지 벌써 20년이다. 그러나 처음 이장 할 당시에는 서울에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출퇴근하면서 능원리에서는 잠만 잤으니, 당시에는 이장이 된지 영농회장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할 사람도 없고, 투표는 거의 저희 동네는 없어요. 집성촌이거든요. 지금은 외지인들이 많이 쉬었죠. 저희 연안이씨가 이장을 한 것은 저희가 처음이에요. 이제는 세대도 많이 변했고 집안 어른들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죠. 어렸을 때 이 동네가 다 저희 땅이었어요. 친할아버지가 굉장히 현실적이시고 권위의식보다 한 동네라는 공동체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길들이 다 논두렁길이었었는데 할아버지가 종종 땅을 내놓아 리어커라도 끌고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넓히기도 하셨어요. 이 경자 희자 할아버지시고 저는 19대손이에요.”

이성민 이장은 능원리로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서 의료기 관련 사업을 했다.

“저희 아버님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의약품과 의료기 수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병원에 가면 수액을 맡거나 수혈을 받을 때 세트를 수액 세트라고 하는데 세트랑 주사 바늘을 처음 만드신 분이예요. 의료기 사업이 저희 가업이죠. 동한양행이라고 국산화를 처음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회사는 있는데 만드는 것은 안하고 수입만 해요. 현재는 연이메디컬로 상호가 바뀌었었어요. 제가 대표로 있다가 귀촌해서 농사를 짓다보니 지금은 동생에게 맡겼죠. 저는 회사에 이사로 있어요.”

■ 노인회

능원 3리 노인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등 임원진이 있으며, 총회에서 선출된다. 현재 전체 회원은 34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 노인이 많지만 여성 부회장을 별도로 두거나 하지 않고 남녀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년에 한번 총회를 하며, 이때 수입, 지출 결산보고를 하게 된다.

회원 자격은 65세부터이지만 63세부터 특별회원, 혹은 준회원 자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희망에 따라서 들어오겠다고 하면 받아주고 있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없다.

평소 모이는 분은 10~12명 내외다. 남자 회원은 별로 안 나오지만 두어명 나와서 바둑이나 장기를 둔다. 대부분 여성회원들이 점심도 해 먹고, 여가를 보내다 들어간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2월 5일부터 회관 문을 걸어 잠갔다. 중간에 완화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됐으나 그것도 중단돼 현재 다시 출입이 통제된 상태다.

“중간에 완화가 됐지만 앉았다만 가라. 식사, 간식 말라. 그것도 못나오게 해서 걸어 잠근 그런 실정이에요.”(장진성 노인회 회장)

기금이 조성 되면 봄에 꽃놀이 한번 가고 그러지만 기금 조성이 어려워 매년 갈 수가 없다. 기금이라는 게 특별한 것은 없다. 입회비 3만원, 연회비 2만원을 걷는데서 조금씩 모은 것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한번 가면 300~400만원 정도 큰 돈이 들어가서 잘 가지 못한다.

노인회는 94년 무렵에 결성됐는데 당시에는 잘 모이지 않고 결성만 됐다가 그 후 운영비 등이 조금씩 나오면서 활성화되기 시작 했다.

■ 부녀회

부녀회 회원은 20명이다. 임원은 부회장, 총무, 감사 2명 등이며 매달 월례회를 실시한다. 회의 날짜는 셋째주 토요일로 정해서 한다. 큰 일이 없는 이상은 회장이 공석이어도 회의를 개최한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몇 번 개최하지 못했다. 올해 안건은 주로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쓰기와 손 잘 닦기 등이며 짧게 하고 마쳤다.

평소에는 월례회의 때면 식사나 간식으로 통닭도 시켜먹고 안부도 물으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올해는 특히 얘기 있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잘 안 나온다.

현재 최경희 부녀회장은 임기 10년째 역임하고 있다.

“이장이 바뀌니까 부녀회장은 그냥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계속 맡고 있어요. 우리 동네는 원래 조용하기 때문에 큰 안건은 없어요. 별 큰 사건이 없다는 거죠. 거의 마을 동생이고 언니니 회장의 의견을 잘 따라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최경희 부녀회장)

부녀회 회비는 입회할 때 10만원을 낸다. 10만원씩 내면 총 200만원이다.

탈퇴할 때는 돌려주지만 단, 규약이 있어서 임의로 탈퇴할 경우는 돌려주지 않는다. 피치 못할 사정, 즉 이사를 가야 할 때나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에 남아있는 돈을 엔분의 일 해서 돌려준다.

능원 3리 부녀회는 최경희 부녀회장이 계를 시작하면서부터 조직이 활성화 됐다.

그날 가져와서 그날 뽑아서 돈을 가져가는 계를 운영하다보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부녀회가 재밌고 보람도 커서 활성화 돼 있다. 한 달에 한번씩 5만원을 내서 100만원을 가져가게 되며, 계를 타는 사람이 5만원을 내서 통닭도 시켜먹고 즐겁게 운영하다보니 단합도 잘된다.

“부녀회장을 맡고 맨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회원들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단합이 잘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계하자고 했죠. 그날 가져와서 그날 뽑자. 100만원씩 목돈을 갖자. 그래서 그걸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번 5만원 가져와서 100만원 딱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계를 타게 되면 박수쳐주고 5만원을 내놔요. 그것으로 통닭 시켜먹고. 그때부터 단합이 잘 되고 있죠. 어른들이 많았는데 내가 회장 하면서 노인정으로 다 보내드렸지. 하 하. 지금도 욕 많이 먹지. 젊은 것들끼리 하려고 한다고. 하하.” (최경희 부녀회장)

최경희 부녀회장이 동네에서 연령상 중간이다. 그리고 친정이 능골 3거리다보니 부녀회원의 남편들이 누나 동생 다 가까운 관계다. 그러다보니 동네에서 중심을 잘 잡아 준다.

부녀회원은 능원 3리로 시집온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보통 남편이 원주민이다 보니 가능하다. 그러나 외지에서 새롭게 이주해온 경우는 5년 이상 살아야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부녀회에 입회 했다가 2, 3년만에 이사나가고 하는 경우가 흔하다보니 최소 5년 이상 살면서 정을 붙이고 살고 동네를 어느 정도 알아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부녀회 회원은 아직 73세 되신 분도 남아있다. 그 분들이 노인정으로 다 가고나면 밑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부녀회 회원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나도 나이가 들지만, 제일 어린 사람이 거의 50세 됐을 걸요. 밑에 며느리나 딸이 같이 안 살잖아요. 우리는 승계를 해주는데. 활성화가 안 되니까.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다들 나가 살고 없잖아. 다들 나가면 결국 없어지는 거죠 뭐. 73세 되신 분,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더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 들어오라 하는데 안 들어와요. 집 사서 사시는 분 두 분은 들어왔는데 다른 분들은 안들어 오더라구요. 안들어오고 자꾸 걸돌고 잘 안하셔. 기존 부녀회 언니들이 원래 원주민들이잖아요. 와서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몇 년 살아봐야 하지 않냐. 동네 와서 5년 이

상 정붙이고 살아서 동네를 어느 정도 알고 하면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 들어 와서 사는 사람은 보통 금세 이사 가기 때문에 안붙여주죠. 그 사람들하고는 뉘를 못해요. 어떤 동네든지 다들 그럴 거예요.” (최경희 부녀회장)

■ 영농조합법인 호박등불마을

능원 3리 호박등불마을 영농조합법인은 2013년에 설립됐다. 호박등불마을은 2007년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던 전통테마마을로 선정돼 시작된 것이 공식적인 출발점이다.

그러나 처음 호박농사를 짓게 된 것은 2006년이다. 현재 이성민 능원 3리 이장이 당시 동네를 살펴보니 동네 1만평 되는 농지가 버려져 있어 버드나무와 잡풀로 짝 차 을씨년



호박등불마을을 알리는 간판



호박등불마을 안내도

스럽고 보기가 싫었다. 원래 깨끗하게 유지되던 농지였지만 당시 용인이 시로 승격되고 커지다보니 농사를 짓던 동네 사람들이 외부 벌이로 옮겨가 농사일을 못 짓게 됐기 때문이다.

이성민 이장이 사조직이지만 동네에서 태어나 자란 친구 선배 후배 등으로 이뤄진 청년회 회원들과 의논해 청년회 주축으로 뭔가를 해보기로 결정했다. 당시 청년회와 함께 모현면 사무소를 찾아가 잡풀 제거와 흙을 파기 위한 포크레인을 지원받았다. 땅을 파 뒤집고 흙을 받아 돌운 후 모현농협의 협조로 생땅에 거름을 부었다. 땅을 만들어놓고 종목을 선정해야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직장 생활 때문에 농사

일에 매달려 농사지를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였다. 이성민 이장이 잠실에 있는 아시아종묘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다.

“1만평 땅에 뭘 해야 제일 좋습니까?”

“누군가 맡아 지을 수 있으면 고추도 심을 수 있는데 그냥 심어 놓으면 자라는 게 호박이니까 호박해봐라.”

그래서 단호박, 늙은호박 등 40여종의 호박을 전체 농토에 다 심었다.

“오랫동안 농사를 안 짓던 땅에 풀 뒤집어 엷고 거름까지 깔아주니 첫해 호박을 땀는데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줄 서서 일렬로 전달해가며 수확했는데 정말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었어요. 모현 농협에 상의

했더니 5톤차 빌려줄테니 농협경매하러 가락시장으로 가라고 해서 첫날 갔어요. 첫날 이고 수확해서 간 것이니까 별 기대 없이 다 같이 가서 경매보고 가락시장이니까 회에 소주나 한잔씩 먹고 오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해 다른 지역의 호박이 안됐어요. 그래서 경매가로 하나에 1만9600원을 받았어요. 커피 아줌마가 가락시장 생긴 이래 호박값을 그렇게 받은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어요. 모현 호박이 가락시장서 몇 년 동안 유명했었어요. 많이 팔고도 남아 있었는데 가락시장서 찾아왔어요. 에버랜드 호박축제에 납품 하는데 경매가보다 더 주고 사가겠다고요. 그때 저희 것 다 가져가서 한 거예요. 관상용 호박도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2등을 했죠.”

그러나 호박을 아무리 비싸게 받아도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는 큰돈이 안됐다. 그래서 2007년도에 동네 사람과 회의를 통해 농촌 전통테마마을 사업을 신청했다. 다행히 선정돼 그때부터 정식으로 체험마을을 시작했다. 체험장, 원두막, 마을을 상징하는 커다란 호박모형 등을 설치했다.

2007년부터 하다가 행정안전부 사업인 마을기업을 하게 됐다. 마을기업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2013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봄부터 겨울까지 다양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딸기, 감자, 토마토, 고구마, 무, 배추 등 농촌체험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메주 만들기, 떡 케익 만들기, 양갱이

만들기, 초콜릿 만들기 등의 체험도 진행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실내 체험은 실시하지 못했다.

1년 총 체험객이 1만5000명에 이른다. 학생들이 소풍 대신 농촌체험을 하기도 한다.



호박등불마을 전통장 체험 행사

마을 회의

연말에 정기총회가 1번 있고, 이장이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하는 회의가 있다. 정기총회에서는 연말 결산을 하게 되며, 이장의 선출이 있는 해에는 이장 선출도 하게 된다. 이장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마을 주민 숙원 사업

용인시나 모현읍에서 마을주민 숙원사업을 일 년에 한 번씩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온다. 마을 회의를 소집해서 신청한다. 회의를 통해 제일 필요한 것, 급한 것을 정하게 된다.

올해 숙원 사업은 코로나19 때문에 마을 회의 대신 노인회, 부녀회 대표 직책을 맡고 있는 임원들이 임원회의를 개최해서 결정했다.동림리로 넘어가는 외곽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을 신청했다. 능원 3리 마을에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걷거나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동림리에 공장이 많기 때문에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데 인도가 없어서 위험하다. 동네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외지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건은 지난해에 시도했다가 실시되지 못했던 사업이어서 올해도 같은 내용으로 올렸다. 예산안이 통과돼 2021년에 인도 설치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마을 대청소

봄맞이 대청소, 추석 전, 설 전 대청소 등 1년에 3번 정도 마을 대청소를 하게 된다. 대부분 이주민들은 대청소에 나오지 않고 원주민이 나와서 청소를 한다. 청소 후에는 부녀회가 나서서 음식을 해서 먹을 때도 있고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있다. 포은문화

제 행사가 있을 때는 읍사무소에서 청소를 한다.

마을 행사 및 놀이

멀리 꽃놀이도 가지만 한 번 움직이기 위해서는 버스 대여비 등 여비가 만만치 않게 많이 들기 때문에 마을회에서 주관하는 여행은 몇 년에 한번정도 시행하고 있다. 보통 노인회에서 주관하게 되며 이때 마을회나 부녀회에서 찬조를 한다.

용인시 지원으로 정월대보름 행사를 하면서 달집태우기를 하며, 척사대회 등의 마을 단합행사도 한다. 과거에는 정월대보름 때 윷놀이를 하게 되면 우승 상품으로 텔레비전을 주기도 했으며, 동네 유지가 밥술이나 쌀, 잡곡 등을 선물로 내놓기도 했다.



꽃피는 계절에 양반 아낙네들이 야외에서 즐기던 정통 화전놀이 축제

화초 호박

정통화전놀이

김학규 전 용인시장 재임 시절 현재 다인네외갓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문자 전수자가 궁중 화전에 대해 이야기 하는 소리를 시장 부인이 듣고서 화전놀이를 재현해 볼 것을 권했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화로와 번철 각각 20개씩을 구입해 주어 문강재 잔디밭에서 실시했다.

능원 3리 마을에서 부녀자 80여명이 20개 조를 이뤄 화로 한 개당 4인씩 배정돼 화전을 만들었다. 참숯을 퍼서 했으므로 온도 조절이 어려웠다. 재를 덮어가면서 온도 조절까지 해야 했기에 4명이 한 화로에 배정됐다. 궁중화전놀이 형식으로 진행 돼 화전과 중개, 주악, 단자 등을 만들었다.

정통 궁중화전놀이는 이문자 전수자가 어렸을 때 현재 마가미술관 뒤편의 작은 폭포 아래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등 가족이 연안이씨 문중에 전해져 내려오는 화전놀이를 즐겼던 추억을 재현한 것이다. 중개는 밀가루를 막걸리로 반죽해 기름에 튀겨 꿀을 발라 먹는 음식이다.

반응이 좋고 시에서는 계속 할 것을 권했으나 힘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3회 정도 후에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

마을 수익사업

용인시에서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포은문화제는 능원 3리 마을안에 있는 포은 정몽주 묘역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능원 3리는 축제 때 장사할 특권이 주어진다.

먹거리 사업을 몇 번 했다. 부녀회에서 나서서 실시한다. 메뉴는 호박부침개, 콩나물국밥 등 되도록 재료값이 저렴하게 드는 음식으로 준비한다. 축제 때 행사장을 찾는 관객들이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밥값을 5,000원 정도 저렴하게 책정해서 운영했다. 수익은 마을 살림에 보탠다.

4) 능원 4리

능원 4리는 능원초등학교에서 하천에 이르는 광주 경계까지의 마을을 이른다. 능원 1리에서 분동된 지 9년이 됐다.

현재 마을 가구수는 450세대다. 원주민은 7세대밖에 없고 나머지는 외부 유입 인구다. 그러나 새롭게 유입해 온 주민들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마을을 고향처럼

생각하고 아예 정착해 살기 위해 들어온 분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마을회 출석율도 높다. 유입인구를 연령층으로 나눠보면 젊은층이 60%, 연세드신 분들이 40% 정도에 이른다.

마을 회관 구입

현재 마을 회관으로 사용할 주택을 구입해 놓은 상태로 회관은 2021년 상반기 정도에 입주할 계획이다. 능원초등학교 앞에 있는 대지 100평짜리 주택을 구입했다.



마을회관으로 구입한 주택 (앞마당까지 포함)

능원 4리의 경우 지을 장소가 없다. 땅을 판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주택을 판다는 사람이 나타나주었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구입할 수 있었다. 일단 입주 후에 새로 개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회관은 시에서 사줬다고 봐야 하는게 전적으로 노인 지원금 1억원 하고 읍사무소에서 마을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능원 5개리에서 저희 4리가 회관을 살 수 있게끔 밀어줬어요. 능원4리에 올린 거죠. 주택이 좀 싸게 나와서 4억7200만원에 샀어요. 후원금 등은 전혀 없어요.”

마을 회의

분동 후 마을 회관이 없다보니 제대로 된 회의를 할 수 없었고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

여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 월례회의를 하고 연말에는 총회를 하지만 총회는 개최하지 못했다. 장소가 없는 관계로 총회는 분동 후 한 번도 개최를 하지 못했다. 식당에 모이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평소 월례회의 때는 회비가 있을 때는 회비로 내고 없을 때는 이장이 주로 낸다.

지금까지 회의는 현재 구입한 주택 뒷편의 빌라 공터, 혹은 마을에 있는 식당에 모여서 임시방편으로 개최해왔기 때문에 제대로 했다고는 볼 수 없다.

회관이 없기 때문에 회의 참여율은 높지 않다. 그러나 꾸준히 15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다. 원주민도 다 나오지 않는 편이다. 젊은 사람의 경우도 한 두 명밖에 나오지 않는다. 보통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나온다.

원래 분동할 때 회관이 새로 생길 때까지는 1리와 4리가 마을 회관을 공동으로 쓰는 조건을 제시했다. 현재 4리 이장인 정연주씨가 당시 능원 1리 이장일 때였다. 그러나 원래 능원리에 살던 분들은 융합이 잘 되지만 새로 들어오는 분들의 경우는 낯설어하고 융합에 어려운 면이 있어 새로운 분들이 1리 회관에 안가는 편이다.

“마음이 안스럽죠. 제가 1리 이장할 때 회관을 같이 쓰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던 거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 괜히 분동했다는 후회가 들기도 해요. 물론 분동은 잘한 것이지만요.” (정연주 이장)

월례회의 때는 도시계획안이나 도로 안길, 가스, 수도 등에 대해 회의하고 특별한 것은 없다. 능원 4리는 시골 아닌 도시지역으로 봐야한다.

“우리는 주민들이 잘 협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월례회의에 나오는 것과는 별개로 협조가 잘됩니다.”

마을 조직

노인회와 부녀회 등 마을 조직은 2021년 초에나 구성이 가능하다. 총무는 마을 분들이 이장이 겸직 할 것을 권유해서 현재 이장이 총무를 겸직하고 있다.

현재 능원4리 정연주 이장은 능원 1리 이장부터 계속하고 있다. 마땅히 할 사람이 없기도 했지만 분동된 상태에서 기존에 이어서 계속 이장을 하게 돼 4리 입장에서는 편하다.

“제가 능원 1리 이장을 하다가 분동을 했어요. 이장 임기가 끝났었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하게 됐죠. 하던 사람이 하니까 4리 입장에서는 편하죠.”

도시화 속에 겪는 이장의 어려움

평소에는 민원 발생 시 중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주민들 민원 생기면 시청이나 구청 읍사무소에 민원 제기도 하는 일은 늘 같다. 또한 초등학교 앞에 안내하는 도우미 모집 시 학교에서 의뢰가 오면 노인들을 찾아가서 하실 수 있냐고 의견을 물어서 연결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장 본지 13년 된 베테랑 이장이지만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서 힘든 일도 많다. 젊은 세대랑 보는 관점의 차이가 크다. 무엇보다 자기중심적으로 바뀌고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다. 따라서 본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주장하거나 따진다. 필요하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쳐다보지 않는 게 요즘 도시화 과정 속에 겪는 어려움이다.

분동 이유

“모현동장협의회 할 때 내가 모현리통장협의회장을 했어요. 내가 농협 간사를 보면서 의결권이 보통 수상하고 수하하고 따지는데 여러 이장님들이 읍사무소쪽 수하에 많이 사니까 저희 쪽이 의결권이 부족해서 안되는게 있는 거예요. 동네도 커지고 하

니까 분동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허락을 해줘서 분동을 하게 됐어요. 모현은 능원리가 지역이 애매모호해요. 모현 하고는 별개 지역이에요. 모현 땅이 주먹 형상처럼 돼 있잖아요. 모현읍 있는데를 수하, 이쪽을 수상이라고 그래요. 아래위 개념이에요.” (정연주 이장)

5) 능원 5리

능원 5리는 43번 국도 건너편으로부터레이크사이드골프장 못 미쳐 황소고집까지 이르는 마을로 도농복합형태를 가지고 있다. 세대수는 260세대이며 빌라와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다. 원주민 비율은 약 15%이며 30세대 정도에 불과하다. 능원 1리에서 분동된지 2년차로 마을회관과 마을 조직은 준비 단계에 있다.

마을 조직

현재 이장과 반장만 있다. 능원 5리는 3개 반으로 나뉘어져 있다. 노인회와 부녀회 등 마을 조직은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능원 1리에서 분동된 지 오래지 않기 때문에 노인회와 부녀회 조직이 기존 능원 1리에 남아있고, 현재 1리 노인회와 부녀회에 소속돼 1리로 다니고 있는 분도 있다. 올해 마을 회관도 마련하고 원주민과 이주민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마을 조직을 만들려고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모임 수조차 없었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막상 부녀회를 만들려고 해도 가입할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이다. 초대 이장은 정의명이다.

마을 회관

현재 마을회관이 없지만 회관을 마련할 계획은 있다. 과거에는 분동될 경우 시에서 지어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경로당 건축비로 1억원 지원해주는 것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저기에서 보태서 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마을 회관 건립에 대한 대안이라면, 현재 마을 주민들이 눈비 맞으면서 게이트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목적홀을 시에 건의해서 짓게 될 경우 게이트볼장 부지 안에 능원 5리 마을 회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마을 회의

회의는 1년에 2회 정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다. 여름 북 때 한 번하고, 총회 때 한 번했다. 분동 후 지금까지 2회 한 것이 전부이다. 현재 마을회의는 능원 1리 사무실을 빌려서 하고 있다.

마을 행사

능원 1리와 모든 행사를 같이 해오고 있다.

마을 기금

공동 기금은 분동 될 때 능원 1리에서 받아가지고 나온 것밖에는 없다. 분동되기 전에 능원 5리 마을 주민들이 원주민으로서 1리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받을 수 있었다.

6) 능원리 체육관련 조직

게이트볼회

능원리 게이트볼회가 창단한 지는 약 20년 됐다. 중국 교포(조선족)였던 연일정씨 종부인 김순옥 여사가 중국 교포로 살다가 정씨 대중손과 함께 능원리에 정착하면서 중국에서 생활할 때 배웠던 게이트볼을 능원리에 도입했다. 처음에는 지인 몇 명이 모여서 학교 운동장에서도 하고 다리 밑을 평탄작업 해 흙으로 된 구장에 모여서 게이트볼을 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천구장은 10여년 전에 생긴 것이다.

당시 남녀 혼성 10여명의 인원으로 시작했다.

구장이 갖춰지지 않았어도 물을 지키며 운동했으며 용인시 대회에도 출전했다. 옛날 사방치기 모양으로 게임장을 그려서 했다.

수원에서 도대회 할 때 참가상을 받았으며, 수원갈비에서 갈비를 실컷 먹었던 기억이 멤버들 사이에 남아있다.



용인시 대회 1등, 용인시게이트볼연합회장 상, 노인회장기 대회 우승, 처인구농협조합장기 우승 외에 2등, 3등도 여러 차례 하는 등 상을 많이 탔다. 게이트볼장 옆 컨테이너가 사무실이다.

노천구장 지을 때 시에서 전액 지원했다. 부지는 경기도 소유 하천부지와 정씨 종종땅이 들어갔다. 게이트볼구장의 면적은 200평이 채 안 된다.

게임이 이뤄지려면 회원이 최소 10명은 되어야 한다. 한 팀이 5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 현재 회원은 13명이다. 여자 회원이 2명, 나머지 11명은 남자 회원이다.

처음 게이트볼회를 만든 김순옥 여사는 초대 회장으로 현재 92세며 은퇴한 상태다. 정두화씨가 2대 회장, 라창옥 현 노인회장이 3대 게이트볼 회장을 맡고 있다. 총무는 임연병씨다.

회비는 월 만원으로 가끔씩 모여서 회의를 열기도 하며 연말 모임이나 식사를 하기도 한다. 여기에 지출되는 경비는 회원들이 모은 회비로 지불하기도 하지만 개인이 찬조하기도 한다.

현재 구장이 노천구장이다 보니 악천우시엔 애로사항이 많다. 추위도 눈은 치우고 하지만 비 오는 날은 어쩔 수 없이 쓴다.

“내년에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게이트볼장을 지어주겠다고 했어요. 지붕 없는 노천 게이트볼장은 능원리 동네에만 있습니다. 겨울에 우리는 눈 치워가며 해요. 바닥은 인조잔디는 깔려 있어요.”

대부분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게이트볼을 친다.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매일 오후 3시에 모여서 친다. 단합이 잘 되고 늘 즐겁고 유쾌한 마음으로 모여 악천후 외에는 연습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실력이 우수하고 수상을 많이 하고 있다.

“게이트볼하는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 돌아가시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어요. 현

재 게이트볼 회원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게이트볼협회에 가입할 때 모두 5만원씩 건였죠. 내가 노인회장 할 때니까 8년 전, 7년 전인가. 노인회에서 게이트볼로 7명인가 약 8명 인가를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번창하게 됐어요. 그 때 노인들이 하다가 힘이 없으니까 못하게 되다보니 너댓명 밖에 안되었어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해서 하다가 내가 몸이 좀 이상해 졌어요. 손이 떨리고 그래서 나는 그만 두었어요. 자연 탈퇴한 거죠.” (정세화, 1933년생, 능원1리 거주)

능원회

골프 관련 친목 조직이었으니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능원리 레이크사이드CC를 삼성이 운영하게 되면서 지원이 끊겨 사라졌다.

능원조기축구회

능원조기축구회는 학군이 광주군 능평리까지 능원초등학교를 쓰다 보니 두 지역이 같이 공을 차게 됐다. 결성 당시인 1992년 즈음에 능원리와 능평리 출신 중에 능원초등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됐다.

지금은 외부에서 능원리로 들어온 유입 인구들도 포함돼 있다.

광주군 능평리는 조기축구회가 두 개다. 능원조기축구회와 능평리에 새로 입주해 들어온 사람들로 이뤄진 능평조기축구회가 그것이다. 요즘은 조기축구회 소속이라는 게 어디 출신과 상관없이 소속 된다.

처음 발족 당시에는 능원1, 2, 3리 출신으로 발족을 했다. 당시에는 4, 5리가 분동 전이었다. 92, 93년 정도에 조직됐다. 인원이 많지 않다보니 98, 99년 됐을 때 능원초등학교 출신을 다 받아주자 해서 능평리를 받아주게 됐다. 현재 능평리 정지선씨가 회장이다.

입회 자격은 기본적으로 군대를 다녀와야 하고 55~56세 정도까지다. 50대 중반의

나이가 되면 보통 모현에 있는 60대 실버클럽으로 간다.

현재 멤버 중에는 대학생도 있다.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나와서 가입을 시켜준다. 자녀들이 좋아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 공동체 소속감을 갖게 해주기 위해 부모가 조기축구회에 가입을 시키기도 한다.



현재 멤버 가운데는 57세도 있다. 체력이 되면 더 하는 것이고, 안되면 실버로 간다.

조기축구회는 일요일 날만 모인다.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운동을 한다. 멤버는 30명 정도 있다. 평균 17명은 나온다. 축구회를 거쳐 간 고문들은 행사가 있을 때 나온다.

운동하는 장소는 그간 능원초등학교에서 하다가 맨땅이고 좁다 보니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모현레스피아와 한국외대 잔디구장을 썼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의 대구장은 못쓰고 현재 모현레스피아를 시간제로 쓰고 있다. 모현면에 조기축구회가 10개 팀이 있다.

대회는 모현 자체 대회가 연간 4번 정도 있다. 20~30대 40~50대 선수 가운데 발탁된 선수들은 처인구대회나 용인시 대회에 나간다. 읍의 대표이기 때문에 명예롭게 생각한다. 모현읍의 총감독코치가 있어서 각 조기축구회를 다니면서 실력을 보고 뽑는다.

리 대항전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마을주민, 이장, 부녀회장 등이 마을응원단으로 대회장에 가서 음식도 해주고 응원도 했지만 요즘은 없어졌다.

“모현에 법정리가 8개리였어요. 8.15광복절 기념 축구대회도 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게 없이 리 대항 안하고 조기회 대회만 해요. 옛날에 모현면 축구대회 때는 법정리 대표로 나가니 응원도 했으나 지금은 40개리로 나뉘어져 리대항은 의미가 없어진 거죠.”(능원 1리 이재학 이장, 현 모현읍체육회장이며 능원조기축구회 멤버)

한편, 조기축구회와는 별도로 1986, 87년도에는 면민의 날 행사가 있을 때 종목별로 치러졌기 때문에 동네에서 축구팀을 만들어 축구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다.

박숙현



3. 능원리의 근·현대 인물



■ 이도재 (李道宰. 1848~1909)

조선말기의 문신 이도재선생은 자(字)는 성일(聖一), 호는 심재(心齋), 운정(簗汀). 시호는 문정(文貞), 본관은 연안이다, 1882년(고종19)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홍문관 부수찬에 임명되었다. 암행어사로 경상좌도에 내려가 공명정대, 공평무사한 깨끗한 일처리로 조정에 알려졌으며, 1883년 동부승지 이어서 춘천부사 겸 관동독련어사(關東督鍊御史), 이듬해 참의군국사무(參議軍國事務)와 성균관

대사성을 거치고, 1886년 오위도총부 호군으로 재임 중 사대수구과에 의해 전라남도 고금도에 종신유배 되었다.

1984년 갑오개혁으로 개화정권이 수립되자 심재공은 종신유배에서 풀려나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해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을 순창에서 사로잡아 서울로 압송하였다. 1895년 육군부장과 군부대신에 이어 학부대신에 임명되었는데 단발령에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리고 사직했지만 고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은 심재공은 기회마다 중용되었다. 1896년에는 중추원 일등의관, 1898년 외부대신, 농상공부대신을 지내다 학부대신

에 재 등용되었다. 그는 학부대신 재임 시 지식영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성의학교를 세워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의학 교육기관을 세우게 하였으며, 이후 의정부찬정, 법부대신 등을 역임했다. 어떤 장관직에 임명되더라도 비난이 없었고 사람됨이 정직하며 허영심이 없고 상하에 신망이 높았다고 한다. 1907년 7월 황제의 퇴위를 강요를 반대하자 통감부에서 그를 평리원에 잡아넣고 황제퇴위를 단행, 곧 풀려났으나 정계의 일선에서는 물러나 은퇴생활로 들어갔다.

1906년에는 모현읍 능원리에 거주하면서 기흥구 언남동의 용인향교에 유학자 동전 맹보순과 함께 용인지역 최초의 근대 중등 교육기관인 명륜학교(明倫學校)를 건립하고 교장이 되어 후학을 양성했다. 명륜학교는 1894년 기호 지방의 저명한 유학자였던 맹보순(孟輔淳)이 갈천 금화산(현 기흥구 상갈동 상미)에서 사숙(私塾)을 열면서 시작되었다. 1897년 맹보순의 명성에 의한 학생 수의 증가로 상촌(현 기흥구 신갈동)에 새로이 학당을 열었으나 이마저 협소하여 용인향교의 명륜당으로 옮기게 되었다.

지방의 관찰사(觀察使), 위무사(慰撫使), 선유사(宣諭使), 안렴사(按廉使), 찰변사(察邊使), 내부,외부,군부,법부,학부,농상공부 등 6부 대신을 지낸 심재공은 1909년 9월 서울을 휩쓴 대역(大疫)으로 병사했으며 향년 62세로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 정한영 (鄭漢永. 1862~1947)

포은선생의 후예로 아버이 봉양이 지극하여 효자비가 세워 지다.

모은 정한영선생은 1862년(壬戌.철종13년) 충북제천 지실리에서 아버지 구현(九鉉)과 어머니 전주이씨 사이에서 태어나셨다. 5세가 되는 해. 1866년(丙寅)아



버지가 돌아가서 3년 궤연¹⁾을 모신 후 9세가 되는 1870년(庚午)에 용인 능골로 터전을 옮기셨다. 그해 집안어른의 계자(系子)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양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집안은 심히 가난해 열심히 일을 해 집안을 꾸렸다. 또한 정성으로 음식을 마련해 부모님 봉양하기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었다. 15세에는 부지런하고 마음 넓은 동갑내기 구성갈래 경주김씨와 혼인해 슬하에 4남 3녀를 두었다.

이렇게 4남3녀의 다복한 자녀를 두었던 모은공은 아들이 귀한 종가를 위해 종가와 본인의 집터를 바꿨다한다. 그는 나보다는 먼저 집안중중을 생각하고 힘을 다하며 평소에도 선조의 유집을 손에서 놓은 날이 없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학문에 힘썼고, 때때로 시를 지으며 당시 뛰어난 선비들과 많은 교류를 하였다. 시를 지움에 사장(詞章)으로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고 학문을 자부하지도 않고 혹은 규범을 어길까를 염려했다. 1899년에는 차성진(差城津)의 감리서(監理署)에 취임하지 않았고, 1919년 충남비인에 사는 평산신씨들이 불환재 신현 사당에 포은, 목은, 역동 세 사람을 배향하려하기에 이는 도리와 법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포은의 위패를 가지고와 영당 뒤에 매안(埋安) 하였다. 또한 1924년 동전 맹보순, 성재 김학조, 등과 함께 충렬서원을 복설(復設)하였다.

2子 원화가 지은 ‘효자비각기’에 보면 [부군(府君. 죽은아버지)은 부모님이 흑간 병환이 났을 때는 머리를 빗지 않았으며, 띠를 풀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일찍이 수증다리²⁾를 앓았을 때 여러 달 동안 차도가 없었는데 아침저녁으로 입으로 빨아내니 효험이 있었다. 부친상을 당하여서는 슬퍼하며 마음 상함이 지나칠 정도였고, 어떤 것은 예에서 벗어날 정도였다. 3년간이나 묘소를 살폈는데 들을 건너고 산을 넘어 가까운 곳이 아님

1) 궤연(几筵): 혼백이나 신위를 모신 자리와 그에 딸린 물건들
2) '다리가 붓는 병'

에도 불구하고 비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마다하지 않았다...중략]

이렇듯 모은공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묘소아래 여막을 짓고 3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묘소를 살폈으며,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근신하며 어버이에 대한 효를 다하였다. 그때가 예순한 살의 나이임에도 몸소 직접 그 수고를 하였고 남을 시켜 대신토록 하지 않으셨다. 공이 1947년(丁亥)86세로 능골에서 돌아가시자 공의 효행이 지극함을 기리기 위해 1937년(丁丑)충렬서원 보린회(保隣會)의 발기로 김학조, 오성근, 원성의 등이 능골 하마비 앞에 정한영효자비를 건립하게 되었다.

■ 이익삼 (李益三. ?~?)

이익삼의병장은 처인구 모현면 능동(지금의 능원리)출신이다. 1907.8월~1909년.6.2일 체포될 때까지 용인, 광주, 양지, 죽산, 양성 일대를 주 무대로 의병부대를 조직해 의병장으로 활동을 했다. 을미, 을사의병에 이어 1907년에 일어난 의병은 정미의병이다. 1905년,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을사늑약을 체결했다. 고종의 거부에도 강제로 맺어진 조약이 무효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고종은 1907년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일제는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 군대도 해산시켰다. 이에 해산을 거부한 봉기병과 강제해산을 당한 해산병 가운데 항일의병투쟁에 커다란 역할을 한 군인출신 의병장들 중 대한제국 하사관출신 이익삼의병장이 있다.



이익삼 의병활동 문서

이익삼의병장의 활동 및 행적은 붙잡힌 부대원들의 재판기록과 신문기사 등에 많이 남아있는데, 그가 대한제국의 군인이었고 군대가 해산하자 의병활동에 투신해 의병부대를 조직하고 맹렬하게 활동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대원 강복선 판결문을 통해 의병을 일으킨 목적도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 강복선-경기 광주군 대왕면 중평리 내란죄로 유형 7년 형 **

<1908년(융희2년) 음력 4월 초순경, 적괴 이익삼의 부하에 투입돼 동월 11일경 이익삼이 백성의 재산을 토색하기 위하여 발부한 ‘의병을 위하여 군수전 5천 냥을 내놓으라’는 취지의 고시문(告示文)을 경기도 광주군 궁내동에 가지고 가서, 이것을 이 동리사람에게 전달한 자이다.>로 기록되어 있어 의병부대가 일제세력을 차단하고 군자금 모집을 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익삼 의병부대는 1907년부터 용인군 모현면 능동(능원리), 수여면 방축동(유방동), 모현면 갈월리, 수여면 김량(김량장), 포곡면 두계위리(杜溪尉里-둔전리), 하동면 삼배위(이동읍 덕성리), 광주군 상동막리, 광주군 실촌면 상열미(곤지암 열미리)등지에서 군자금을 모집했다. 9월에는 광주 오포면 상삼리에서 의병밀고자를 차단하였고, 다음해 4월에는 상동면(이동읍 덕성리)에서 친일파를 납치하는 등 의병활동을 했으나 1909년 6월 포곡면 신원리에서 부대원과 수원수비대와 전투 중 체포되었다.

<출처: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1 : 의병항쟁재판기록/ 한국독립운동과 용인>

■ 정일영 (鄭駟永.1873~?)

정일영선생은 1873년 6월 28일 모현면 능원리에서 출생했다. 일찍이 고종의 신임을 받아 궁내부 화과 기수(技手) 및 기사(技師)에 임명되었다가 정3품의 지위에 올랐다. 1915년 이상설, 박은식, 신규식, 조성환, 유동열, 이춘일 등이 상해에서 신한혁명당

을 결성하고 성낙형을 국내로 잠입시켜 고종을 신한혁명당 당수로 받들고 중국정부와 ‘중한의방조약(中韓誼邦條約)’을 체결하려 하였다. 체결을 위한 조직원의 한사람으로서 활약한 용인출신 김주원으로부터 변석봉, 박봉래, 심인택, 정일영 순으로 점조직이 이루어져 선생은 전부터 숙원하던 김사준의 종제 김사홍을 동지로 끌어 들인 후 김사준에게 용이하게 접근해 중.한 비밀조약 체결을 위한 내용을 설명, 이강(李壩-의친왕)에게 접촉해 본 취지를 설명하고 이강의 동의를 얻는데 성공했다.

또한 선생은 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종이 거처하고 있는 덕수궁에 연고가 있는 김승현에게 접근해 본 계획을 설명, 설득하였고, 김승현은 다시 고종의 측근 염덕신과 접촉해 거사 계획을 요약한 <경각서>를 고종에게 전달하는데 성공하게 된다. 그는 고종의 신임을 받았으나 일제가 왕가의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내사하였기에 은밀하고 철저하게 진행하려던 계획은 고종과 면담직전 성낙형을 비롯해 김사준, 김사홍, 김승현 등 다수의 관련자가 검거되어 실패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보안법 위반사건’이라 하였으며, 선생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징역 8월을 언도받고 복역하였다.

<참고: 시비제 273호 재판기록,명치백년총서 제2권/ 출처; 모현면지>

■ 정철화 (鄭哲和. 1878~1943)

훈격(서훈년도): 건국훈장 독립장(1990년)

정철화의병장은 용인 능원 72번지 출신으로 고종의 강제퇴위와 대한제국군대의 강제해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의병의 향전이 격화되던 1907년 27세 유생신분으로 의병에 투신했던 인물이다. 그는 13도 창의군 방인관이 이끄는 관서창의군에 들어가 그의 비서로서 의병 14명을 이끌고 여주군 이모산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또한 안성군 이죽면 칠장사에서 30여 명의 소규모의병부대를 편성해 안성·충주·청주 등지에서 일본

군을 습격하여 많은 전공을 거두며 군자금을 모집했으나 일본군의 반격에 밀려 서울 외곽에 은거하다 같은 해 9월 15일경에 상경했다. 그는 남대문 안 사측동에서 셋집에 들어살다 9월 그믐께 신문(新門서대문) 밖으로 이사하였다. 그러던 중 일본 경찰에 체포돼 징역15년을 선고받고 전라남도 고금도에 유배되었다.



정철화 의병활동 문서

유배 후 석방된 정철화는 비밀결사 단체인 독립의군부에서 활동을 했는데, 독립의군부는 의병활동이 활발했던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중, 남부 지방, 평안도까지 광범위하게 활동했던 단체였다. 1913년 9월 임병찬·이인순·전용규 등의 주장에 따라 최익현·임병찬·허위·이인영 등 유력한 의병장의 계열로 살아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독립 항쟁의 기관으로 대한독립의군부가 설치되어 중앙원수부에 중앙순무총장, 각 도에는 도 순무총장, 각 군에는 군수, 면에는 향장(鄕長)을 배치하였다. 독립의군부는 결성당시 유생과 대한제국 전직관료들로 이뤄져 왕정복고를 목표로 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해외 독립운동가들과 연대하는 비밀결사단체로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독립의군부 주요활동으로는 일본정부 및 조선총독부에 국권반환요구서를 발송하려 했다. 이는 사전에 발각돼 실패는 했으나 임병찬은 체포된 후에도 일본의 총리대신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교육기관과 종교조직을 기반으로 학생, 종교인들, 더 나아가 농민, 노동자들과도 연결해 민족운동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

독립의군부 일원으로 활동한 정철화 역시 국권반환요구서를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군자금 모금운동을 벌이다가 1914년 4월 또다시 일본경찰에 피체되고 말았다. 다음해 1915년 5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강도죄와 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또다시 옥고를 치르게 되었다.

<참고:독립유공자공훈록.독립운동사자료집』별집1.고등경찰요사>



■ 정철수 (鄭哲洙.1924년 ~ 1989년)

훈격(서훈년도): 대통령표창(2011)

포은선생의 23대(24세) 종손 고철(高哲) 정철수선생은 1924년 능원리 71번지에서 아버지 정의열과 어머니 경주 김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930년 4년제였던 모현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수원보통학교에서 2년까지 6년을 마치고 서울 경복중을 거쳐 1942년에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법과에 입학했다. 그는 보전2학년인 1943년 12월 하순 일제의 강제정책으로 강제징집을 당하게 되었는데 일제는 징집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게 그들 부모, 가족들을 회유 협박해 징병에 따르지 않을 수 없기에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눈물로 이별을 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조국을 떠나 도착한 곳은 중국 산둥성 제남에 있는 일본 관동군부대였다. 그가 징집되어가되 탈출하겠다는 계획을 실행으로 옮긴 것은 3개월 후인 1944년 3월 25일 밤, 동료 평창우와 허섭 등과 함께였다. 며칠 후 그들은 밤새 걸어서 힘겹게 도착한 곳이 공산당 팔로군이 주둔해 있는 지역이라는 걸 알게 됐고, 팔로군 유격지역에 도착한 세 사람은 두어 달 후인 6월경엔 태항산 조선독립동맹 조선의용군 본부가 있는 하북성

섭현 하남점으로 인솔되었다. 이어서 그들은 조선독립동맹에 가입을 하고 조선의용군이 되었다. 당시 조선의용군의 총사령관인 무정장군은 학병들이 탈출해오자 무척 기뻐하며 환영하는 대회를 열었고 그 내용을 신문에 실어 한인사회에 알리기도 했다. 항일독립군이 된 정철수는 타고난 문학적 재능이 있었는데 선전부장 김창만의 요청으로 학도병 강제징병과 탈출을 주제로 연극대본을 집필했으며, 이후<조선은 살았다> <개동이와 이쁜이> 풍자극<이발소>등을 창작했다. 또한 ‘태양기 아래의 사람들’주제로 일제의 식민정책을 폭로하고 다함께 싸워나가자는 연극공연활동을 했다. 뿐만 아니라 화북조선혁명정치군사간부학교에서 학생 겸 간부로 활동하였으며 광복이 되자 조선의용군 제5지대 소속으로 연변으로 이동해 토비를 숙청하고 동포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정철수는 광복이 되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조선의용군과 경비대, 자위대가 통합해 만든 길동군군부에서 정치부, 교육부 선전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어 연변일보사 편집위원, 연길현 교육과장, 연변대학교수로 근무하다 1984년 퇴직했다. 그해 KBS이산가족찾기 도움으로 1985년 41년 만에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오게 되었으며 1989년 고향 능골에서 돌아가셨다. 이후 2011년 그의 공적이 확인돼 대한민국독립유공자 대통령표창이 서훈되었다.



■ 정원화 (鄭元和. 1888~1976)

정원화선생은 호가 운포(雲圃)이다. 포은선생의 먼 후손이라는 뜻일 것이다. 운포공은 능원리 효자 모은 정한영의 4남3녀 중 2자로 능골에서 태어나셨다. 그는 아버지 모은공의 ‘효자비각기’를 지었으며, 돌아가실 때 신주에 운포거사로 쓰라는 유훈을 남긴 것으로, 생각건대 도의(道義)를 지키고 선조의 뜻을 받들며 소박한 선비이기를 원

하신듯하다. 운포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7세에 학교에 입학했는데 주위의 많은 고사(高師)들이 가르치길 원했으며 新舊학문에도 능통해 많은 사람들이 벗하고자 하였다. 또한 타고난 자질과 덕행이 뛰어나 가문을 크게 번창시킬 수 있기에 아버지 모은공은 임종 시에 집안의 대소사를 운포공에게 맡긴다는 유훈을 남겼다고 전한다.

‘효행이 있어 부모가 생존 시에는 한 번도 명을 어긴 일이 없었으며 순종하여 빈객이 항상 자리에 가득하였는데 술안주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정말기에 식량이 어려웠는데 형님은 백리길이나 쌀을 짊어지고 의류를 세척하여 친척들에게 지어서 주므로 친척간이 도탑고 화목하였으며, 항상 생계를 보탬이 많았습니다. 집안의 아동을 서울로 집합하여 교육하였는데 지금 출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 운포공 제문(사제(舍第)덕화지음)

동생 송석공이 지은 운포공 제문에서 보듯이 그는 위로는 효(孝)로써 섬기고, 아래로는 德으로써 집안을 이끌어 갔다. 용인 김량장동에서 대서소를 운영, 이후 서울 종로 2가에서 도장포를 운영하다 박흥식이 화신백화점을 세우자 점포를 얻어 친구들과 함께 금은 시계점인 삼성당을 운영하였으며, 1947년에는 재경(在京) 용인군인(龍仁郡人)으로 종로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인우회(仁友會)를 결성해 용인사람들의 친목과 산업, 경제, 문화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했다. 인우회는 회원 1,200여명, 회장-정원화. 부회장-조기행,정기섭. 총무부장-이종영. 재무부장-홍순홍. 선접부장-유기수. 문화부장-이광희. 사업부장-남태원 으로 임원진이 구성되었으며, 1950년 부산피난시기 용우회(龍友會), 용문회(龍文會)로 이어진다. 포은 종약원 발족 전, 종무원의 초대이사장(1957~1969년)을 지낸 운포공은 ‘집의 일을 다스릴 때는 모든 시비를 막론하고 단지 화목을 위주로 타일러라’ 는 유훈을 남기고 1976년 향년 89세로 별세하셨다. 슬하에 2남3녀를 두었으며 해운항만청장을 지낸 정연세는 그의 아들이다.



■ 정덕화 (鄭德和, 1906~1987)

송석 정덕화선생은 1906년(丙午)모현 능골에서 아버지 모은 정한영과 어머니 경주김씨 사이에 4남3녀 중 막내로 태어나셨다. 어려서는 용인구갈에 있는 외가에 가 진사 김학조선생께 학문을 배웠다. 13세에 광주 능성구씨와 혼인을 해서도 한문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17세에 용인소학교에서 신학문도 공부했다. 이후 둘째형 운포공(雲圃公.원화)을 따라 서울로 가 중동중학교를 다닌 후 다시 내려오게 되었다. 능골로 내려와 1945년 광복되기까지 여흥민씨 집안의 농토소작권을 관리하였고, 아버지 모은공이 86세로 돌아가시자 발인제문과 묘제문을 지어 아버지께 지극함을 다하였다. 광복이후엔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음에도 나약해지지 않고 곳곳이 집안을 이끌어 가셨다. 특히 한시공부와 종종대소사 그리고 충렬서원관리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다고 한다.

6.25전쟁 이후 능원초등학교 사친회장으로 이정하 교장선생님 등과 학교발전에 힘을 쓰셨고 충렬서원 도유사(都有司)로서 이병연, 손기호 등과 함께 충렬서원 강당을 신축 등 복원사업에 매진했다. 또한 판교시사(詩社), 해동시사, 강남시사에 가입해 자주야회(雅會)를 갖기도 하고, 가승(家乘)을 만들어 나눠주고 선조들의 대수와 이름자를 노래로 만들어 후손들이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도록 했다. “책은 볼 줄 아는 사람이 보는 것이지 아무나 보는 것 아니다” 라며 충렬서원으로 많은 책을 가져가시고, ‘안돼’ 라는 말을 하실 줄 아는 분이라고 3남 연철님은 기억한다. 강직하고 청렴한 성격으로 특히나 부정한 돈은 받지도 쓰지도 않았으며 언젠가 탑골공원에서 인터뷰 후 사례비를 주니 받지 않으시고 공원 노인 분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게 했다는 일화가 있다. 또한 원사공중성신도비문에 첨지중추원사가 종2품으로 잘 못 기재돼 정3품으로 바로잡기도 했다. 이 일을 보더라도 송석공은 송구하지만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포은후손들이 당

당하고 굳은 뜻을 지켜가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다. 대종회, 영모재, 종무원, 종약원의 임원을 지낸 송석공은 1987년(丁卯) 83세로 능골에서 돌아가셨다.



■ 이정하 (李鼎河, 1906~1983)

고향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이정하(족보이름:李政熙)교장선생님은 능원리에서 연안이문 저헌 이석형선생의 저헌공파 종손으로 1906년 출생하셨다. 어려서 종가에 까닭모를 불이나 저헌공 서재가 있었다는 서재끝에 종가를 다시 지었는데, 그로인해 가세가 기울어 휘문고 졸업 후 대학은 학비를 염려해 대구사범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다. 초임발령은 전라남도 일로초등학교였다. 이후 모현초등학교로 오시고 1936년부터는 능원간이학교에서 근무하셨다. 1945년에 간이학교가 능원국민학교로 승격돼 교장으로 취임을 하셨다. 1951년에는 능원고등공민학교 설립, 개교해 두 학교 교장을 겸하시다 65년 29년간 근무했던 능원초에서 이천 진가초등학교로 전근 가셨고 71년 광주 번천초등학교에서 정년퇴임 하셨다.

간이학교 이전에는 동네 초가집에 큰방 하나인 ‘보린회관’이 교육공간이었으나 해주씨家와 연일정씨家, 이정하선생님이 뜻을 같이해 1936년 능원간이학교가 세워지게 되었다. 또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인근 중학교는 너무 멀고 사정상 상급진학이 어려운 제자들을 위해 개울가에서 돌을 주워 운동장 한 칸에 교실 한 칸을 지어 1951년에 고등공민학교를 설립했다. 학교에 전나무를 심어 학교울타리는 생울타리로 만들고

이외도 뱃나무, 무궁화, 향나무 등을 심어 경기도에서 '환경우수학교'로 지정이 되기도 했다.

교장선생님은 6.25으로 잠시 부산으로 피난 가 있는 동안 미공보원장 브라운과 친분을 쌓아 9.28수복이후 매달 능원초에서 영화상영을 하게 해줬고 코넬중령을 소개받아 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비행기로 전달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서울대학교교문 우드박사와 인연으로 박사가 시멘트를 공급해줘 교실3칸의 '우드관'이 지어지게 되었다. 당시 학생 수는 약 200명 정도로 많았다. 6.25전쟁으로 서울 등지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때문일 것이다. 초등학교 교가는 가람 이병기선생에게 부탁해 만들고, 용인의 애향가와 고공의 교가는 친분이 두터웠던 유달영선생께 부탁해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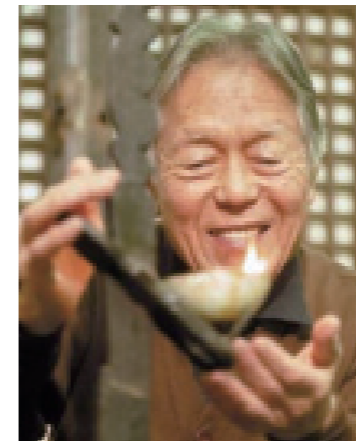
이렇게 오로지 교장선생님의 관심은 학교와 고장에 집중됐기에 월급은 집에서 쓰인 적이 없었다. 오히려 실습실에 필요한 접시, 유성기 등을 집에서 학교로 나르기 바빴다. 슬하에 남매를 두었는데 딸 옷을 해주지 않아 동네아이들이 옷 해달라고 하면 '안골교장선생님 따님 보라고' 했다한다. 예능에도 소질이 있어 그림 그리는 실력과 악기 연주는 물론 골동품을 보는 안목까지 높았던 교장선생님이 더 큰 세상으로 나가셨으면 능력과 재능을 맘껏 펼칠 수 있었을 거라고 조카인 이문자님은 회상하신다.

그렇지만 종손으로 태어났기에 능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선조의 유택을 지키며 고장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던 교장선생님은 1983년 노환으로 돌아가셔서 안골에 잠들어 계신다. 나라에서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하였고, 제자들과 지역사회 분들이 주축이 되어 능원초와 번천초에 공적비(功績碑), 묘소 앞에 은덕비(恩德碑) 그리고 연안이씨 비석공원에 송덕비(頌德碑)를 세워 이정하고장선생의 공덕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있다.

■ 정주교 (鄭胄敎. 1916~1967)

정주교선생의 호는 화은(華隱), 고려조추밀원지주사 휘(諱) 습명 시조의 32세며 포은선생의 21대손으로 모현면 능원리에서 1916년 태어나셨다. 그는 어려서부터 천성이 온후하고 총명해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유년시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편모슬하에서 수원으로 이주, 수많은 고생 끝에 1946년 수원 세류동에 천일연료합명회사를 창립해 시민연료공급에 기여했다. 1953년에는 교통부에 철도침목전주(電柱)등을 제조 공급하였으며, 1961년에는 은성에서 마세크 연탄공장을 신설해 교통부에 기관차용 마세크탄을 납품하여 한국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1963년 한국지주 콘크리트주식회사를 설립, 대표이사로 피임(被任,) 체신부에 전주(電柱)를 납품하고 동년 12월10일에는 경기도청이전에 따른 유치 추진위원회를 결성, 위원장에 선임됐다. 또한, 1961년 8월15일부터 제4, 5대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상공업 발전에 팔목할만한 활약상을 보였으며, 이 같은 공로로 정부와 각 기관장으로부터 표창장과 공로패 등을 수여받았다. 공은 애석하게도 1967년10월1일, 향년 51세를 일기로 영면하셨다.

<출처: 화은 정주교 공적비>



■ 김동휘 (金東輝. 1918~2011)

■ 김형구 (金炯九. 1942~)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등잔을 전문으로 전시하는 박물관인 '한국등잔박물관'을 설립해 초대관장을 지내셨던 김동휘관장은 1918년 수원 신평리에서 태어나셨다. 그는 연대 의대를 졸업, 수원에 보구산부인과를 개원하고 경기도 의사회장을 지낸 의사였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다재다능한 예술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최고 사진작가 3인중 한 명인 김동휘관장은 수원사진작가협회를 창립하고 국전 사진부문에서 4년 연속 입선과 국전의 심사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또한 수원예총을 설립하고 초대 예총회장 재임 시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오케스트라 공연을 유치하고 이어 난파음악제를 창립했다. 시민운동으로 이루어진 수원화성과 행궁복원의 초대 복원위원장을 맡으며 수원문화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다. 그가 모현읍 능원리로 터전을 옮기게 된 계기는 당시 보구산부인과 간호사였던 안골 윤용순씨 인연으로 능원리를 알게 되었고, 이후 김동휘관장은 능원리를 비롯해 모현지역에 의료진료를 다니게 되었다. 1975년에 이곳(현 등잔박물관)에 별장을 짓고 마을 노인분들 영정사진을 찍어주며 능원리와 더욱더 가까워졌다.

김형구 제2대 관장은 조부와 아버지(김동휘관장) 그리고 관장님 3대에 걸쳐 수집한 등잔과 유물을 1969년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역임 했던 최순우 관장의 권유로 아버지와 함께 병원 2층에 고등기전시관(古燈器展示館)을 열었다. 1997년에는 수집한 유물과 민속품이 개인이나 한집안의 소유물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별장이 있던 능원리에 아버지와 함께 정식으로 박물관을 설립했다. 그리고 2년 후 사회에 환원해 비영리공익재단법인 한국등잔박물관으로 등록을 하였다. 그는 자신의 호를 ‘등잔’이라고 지을 만큼 등잔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다. 2011년 아버지 김동휘관장에 이어 2대관장이 되었다. 박물관설립 때부터 박물관의 운영은 김형구관장님이 해오고 있었기에 가장 오랫동안 등잔지킴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박물관의 전시, 교육, 체험, 공연, 강의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각각의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는 사)한국사립박물관협회 상임고문, 사)경기도박물관협회 회장, 경기도박물관·미술관진흥위원회 위원장, 한국재단법인 뮤지엄협회 회장 등을 맡으며 경기도가 박물관미술관들 지원하는 조례 등을 만들었다

김동휘 관장은 2004년, 제1회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보존관리부문 대통령상 수상,

김형구 관장은 2013년, 박물관기능 활성화 기여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는 관장님의 노력으로 박물관 소장유물 2점(조족등·화촉)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5월20일 경기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뜻 깊은 해이다.



■ 정연설 (鄭然高, 1920~2001)

청곡(靑谷) 정연설선생은 1920년 모현면 능원리 62번지에서 출생했다. 수원 신평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용인군 농업기술원을 수료했다. 수지면과 모현면에서 공직생활도 하시고 반공청년단장과 능원리 리동(里洞)조합농협조합 초대조합장, 총렬서원장의, 모현면 유도회장, 능원초등학교 사친회장 등을 역임 하셨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으로 잠시 피난 후 돌아와 ‘반공청년단’을 조직해 초대단장을 지냈다. 오랫동안 마을이장 일을 함께 보던 그는 1963년경 마을회관 겸 단부(반공청년단 본부)의 본부로 사용하던 사무실에 모여 있던 동네사람들과 함께 농협조합을 조직하자는데 뜻을 모아 ‘능원리 이동농협조합’을 조직했다. 이동농협조합의 기금은 쌀을 걷어서 시장에 팔아 자본금을 조성하고 장부를 만들어 서기와 조합장, 정미소 기술자 세 사람이 조합을 운영하였다. 조직된 농협조합은 농사를 많이 짓는 동네였으나 정미소가 없었기에 지금의 능원초 앞 사거리에 정미소를 만들었는데, 조합원들이 직접 산에서 나무를 베고, 슬레이트를 엮어서 하천부지에 걸쳐진 논 옆 공터공간에 지어졌다. 또한 마을회관 맞은편에 비료창고를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기 하고, 수원으로 곡식을 운반하는 지원도 했었다. 모현면에 8개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마다 농협조합이 있었다. 그 중에서 수상3개리(오산리,능원리,동림리)에서 출자금의 제일 많았던 곳은 아마도 능원리였을 것 이라고 한다.

1960년대 후반이 되면서 리동(里洞)조합의 경영자립이 어렵고 조합원들에게 주는 혜택이 낮아 읍면단위로 합병해 단위농협을 구성하는 이른바 ‘농협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농협의 통합은 이동농협조합을 읍면 단위농협으로 묶는 것으로 60년 후반~70년대 초반에 걸친 대규모 합병운동이다. 용인역시 1969년 마을단위 조합을 면단위로 통합했는데. 그렇게 모현농협이 탄생됐다.

이밖에도 선생은 광주오포 능평삼거리에 신평초 친구인 정연수씨와 가게를 만들고 5일장이 열리도록 해 분당이 종점이었던 버스를 연장하게 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능원리에서 좀 더 수월하게 분당, 서울 등 외부로 이동하기 편리하게 되었다. 50대중반 퇴직 이후 돌아가시기 전까지 20년 동안은 종약원 총무 등 오로지 종종 일에만 매진하셨다고 하신다. 그리고 2001년 선생이 돌아가시자 용인시 유도회장. 충렬서원장. 모현면 유도회장이 중심이 되어 묘소 앞에 공적비를 세웠다.



■ 정바우 (본명:정춘용, 1929~1999)

<바우아저씨>

능원리 사람들은 정춘용선생님을 대부분 이렇게 부른다. 바우(바위)처럼 튼튼하고 오래 살라고 불렀던 이름 ‘넓적바웃덩어리’. 선생은 모현면 능원리 45번지에서 출생하셨다. 형제들이 모두 명(命)이 짧아서 타향에서 고생을 해야 한다는 얘기에 아버지는 선생의 이모님이 사시는 안양 능골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1942년 14세가 되는 해다. 선생은 모현공립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과 안양으로 이사와 여러 일을 하다 군대에 가게 되었는데, 어려운 형편에 부모님과 여동생이 걱정되었던 그는 서울 군자동 염전에서 어렵게 구해서 가

져온 소금을 쌀 한가마니로 바꿔 부엌바닥에 몰래 묻어놓고 군대에 갔을 정도로 효자였다. 그가 제대 후 배운 일은 ‘대목(大木)’일이였다. 성실하고 손재주도 있어서였는지 대목일에서 누구보다 월등한 실력이 발휘되었다. 안양의 미동제지를 지을 때 한식으로 지붕을 올렸는데, 지붕의 서까래를 깎을 당시 다른 사람보다 능숙한 솜씨로 2배 빠른 속도와 작업량으로 주위사람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하지만 세상은 발전하고 변하는 법이다. 196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콘크리트문화가 들어오고 안양에도 콘크리트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선생도 건축물에 콘크리트 자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안양에 지은 대표적인 건축물로 안양병원을 비롯해 동산병원, 서울병원 등 20개가 넘는다.

“당숙님은 머리를 항상 스포츠로 깎고 다니셨어요. 얼굴형은 사각형인데 수학계산력이 빠르셨고 이해력이 남보다 특출하셨어요. 경제(돈)를 조금 가지고 계시니까 부락을 하면, 진실이라고 판단하면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거짓이면 얘기 다 듣고 얼마간의 돈을 주고 내가 이것밖에 없네. 다음에 한 번 더 와 주게. 이렇게 사람들이 겁하지 않게끔 달래서 보내주시는 현명한 처사를 하신 것 같아요.” (안양 정대영님)

경제적으로 나아지면서 생각나고 그리운 건 고향이다. 동네사람들이 안양사는 바우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마도 그가 능원리를 생각하는 특별함 때문일 것이다. 마을어르신들이 계시는 마을회관이 2차에 걸쳐 수리를 했음에도 마음에 걸리셨는지 다시 지어드린 것도 그 특별한 고향사랑의 하나일 것이다. 마을회관을 지을 때는 본인이 같이 일을 하면서 손수 대패질을 해서 지었다고 한다. 선조를 위하는 마음에서도 풍족하지 않은 시기에도 포은선조 재실, 모현재를 수리해 주셨다고 한다. 그렇게 고향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던 정춘용선생은 부인이 돌아가시고 6개월 후 1999년 5월에 돌아가셔서 그리던 능원리에 선친들과 함께 잠들어 계신다.



■ 정연세 (鄭然世, 1934~)

- 1984년 해운항만청장
- 1990년 한국항만협회 회장
- 1991년 대한토목학회 회장
- 1997년 한국선급협회(KR) 회장
- 1999년 사단법인 해항회 회장
- 1980년 홍조근정훈장 우수공무원
- 1986년 프랑스 해기(海技)훈장

정연세 선생은 1934년생으로 조부는 능원리 효자각 주인공인 모은공 정한영이며 아버지 정원화와 어머니 신후이 사이에서 2남1녀 중 둘째이다. 경기중, 경기고(49회)를 거쳐 서울대 공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졸업과 동시에 해무청시설국 항만과에 입사, 건설부 항만계획과장, 항만계획 담당관으로 항만정책을 수립하고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수출100억불에 대비해 획기적인 항만개발계획을 추진했다. 또한 해운항만청 강창성 청장에게 발탁돼 해운항만청 시설국장, 차장에 이어 1984년에는 해운항만청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임명장을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전두환)으로부터 직접 받아 이례적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해운항만청장 재임 시 국제해운시장 불황기로 국내 해운회사의 부도가 속출해 부실한 해운회사의 퇴출, 통폐합으로 한국해운이 기사회생할 수 있게 했다. 청장임기 이후엔 한국항만협회장과 대한토목학회장을 역임 했는데 관료출신인 그가 학회장을 맡았다는 것은 괄목할만한 그의 공로가 인정되었다고 하겠다. 97년에는 선박의 항만시설 장비기술 등을 서비스하는 국제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 엔지니어링(KR) 회장을 가장 오랫동안 역임했으며, 해운항만에 몸담으며 받은 훈장 중 ‘홍조근정훈장’과 ‘프랑스

해기(海技)훈장’이 대표적이다. 특히 프랑스 해기훈장은 그가 우리나라 해운항만분야에서 노력과 항만발전에 대한 공로를 보여주는 훈장이라 하겠다. 항만토목공학을 전공한 그는 전문기술자로서 경제개발 2차와 3차 부산항과 인천항 도크를 건설하고 경제개발 4차와 5차에서도 항만개발계획을 열정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 항만건설에 선구적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김학옥 (金學玉, 1935~)

- 1935년 모현읍 능원리 57번지 출생
- 1980년 육군사관학교 교수 교무처장
- 1985년 보병 제53사단장
- 1991년 국방과학연구소장
- 1996년 능원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1997년 (재) 한국통일진흥원 이사장
- 1985년 총무무공훈장, 1989년 보국훈장 국선장

‘지와 덕을 겸비한 승부사’라고 불리우는 김학옥 선생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대한민국 군인으로 별 3개의 3성 장군이다. 그는 능원초등학교 앞 밤동산 아래마을에서 1935년에 태어나 능원초(2회)를 졸업했다. 중학교는 담임선생님과 자식교육에 헌신적이었던 어머니 덕분에 수원소재 중학교에 입학해 전액장학생으로 학업을 마쳤고, 형편상 수원농고로 진학을 했지만 2년 만에 독학으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육사시절 정규 3년 과정을 마치지 않아 학업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가 택한 방법은 남들보다 하루 2시간씩 더 공부하는 것, 이렇게 4년을 공부해 16기 졸업생중 2등으로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으며 졸업을 했다. 이후 그는 우수한 졸업생에게만 주어지는 미국유학

생 선발시험에 합격해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에서 도학(공학설계)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육군사관학교 교수와 교무처장을 지냈고, 군대를 예편해 서울대 조교수로 가고자 했으나 선배 사단장의 보좌관으로 차출되어 3성 장군이 되기까지 군 생활이 다시 시작 되었다. 포대장을 시작으로 2군단 포병대대장, 1포병 여단장, 53사단장 등 보직을 두루 거쳤고 포병출신 최고의 영예인 3성중장이 되었다. 또한 어선한척의 움직임을 끝까지 파악, 간첩선임을 입증해 ‘청사포 개가’로 무공훈장을 받았다.

장군은 자신이 군생활의 모범을 보이고, 군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함은 물론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시절 장군의 일기, 업무일지, 관련서류, 전략, 정책 등 군 지휘관이 갖춰야하는 덕목과 실무를 총망라해 기록한 자서전적인 기록물은 <녹색견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출판되어 군 지휘관들의 길라잡이 교본이 되었다. 고향 능원리를 사랑하셨던 장군은 <녹색견장>인세(印稅)를 자신의 모교 능원초에 사용하기로 하고 학교와 논의해 학교 진입로포장, 학교도서관 책 기증, 능원초 어린이밴드가 만들어지도록 했다. 이러한 장군의 애향심과 후배사랑을 기리기 위해 1982년 동문들과 학부모, 지역유지들의 뜻이 모여 장군의 옛 집터가 있었던 학교 앞 숲속에 ‘애교탑’이 세워지게 되었다. 1991년 전역 후엔 국방과학연구소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1997년에는 (재)한국통일진흥원을 설립하고 안보정책 개발, 연구, 순회강연 등 국가안보와 통일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2012년 자랑스러운 육사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조길생 (趙吉生. 1946~)

- 1946년 모현읍 능원리 52번지 출생
- 1997년 용인시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 1998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용인지사장

- 2000년 용인시 4-H 연맹회장
- 2001년 모현면 체육회장
- 2003년 능원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2009년 능원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2007년 용인문화원 포은문화제 추진위원장
- 2015~현재 제16대.17대 용인문화원장

조길생 문화원장님은 1946년 모현읍 능원리에서 한양조씨 집안의 5형제 장남으로 태어나 능원초등학교와 고등공민학교를 졸업했다. 초등시절엔 어린이회장을 맡으며 부모님의 기대주였던 그는 당시 4-H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경진대회에 출전해서.도에서 1등. 전국대회 3등을 하는 등 4-H활동을 하다가 군에 입대, 제대이후엔 타지로 나가기도 싶었으나 장남이고 어머니를 생각해 고향에 남기로 결정했다. 이후 버섯재배와 젓소목장 등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그사이 결혼해 1남2녀의 자녀를 두었다.

1997년에는 의사회,약사회,시의회를 포함 13개 읍면동대표로 구성된 ‘용인시의료보험조합’ 대표선출에 모현면대표로 참여해 대표이사로 선출이 되었다. 기금운영은 물론 예비비의 분산투자도 성공적으로 운용하였으며, 임기중반에 의료조합이 의료공단으로 바뀌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용인지사장’이 되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청렴한 공직생활의 표본을 지켜나갔다. 이후 역임한 용인시 4-H연맹회장 재직 시에는 각 읍면을 순회해서 예전의 회원을 재 가입시켜 회원확보에 기여했으며, 2001년에는 모현면 체육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능원초 운영위원장(2003년~06년), 총동문회장(2009~12년)으로서 봉사직을 기꺼이 맡아 모교가 더욱더 발전하고 후배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껏 도왔다. 용인문화원과의 인연은 각별하다. 홍재구 전 문화원장의 추천으로 용인문화원 이사가 된 후 가장 오랫동안 ‘포은문화제’추진위원장으로(2007~14년)포

은문화제를 이끌었다. 포은문화제는 누구보다 관심가고 애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원장님은 2014년 수석부원장에 이어 2015년 제16대 용인문화원장에 추대되었으며 이후 재추대 되어 현재까지 제7대 문화원장으로서 용인문화원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 정대영 (鄭大永. 1952~)

- 1952년 모현읍 능원리 출생
- 1992년 안양문화원이사, 수석연합회 8대회장(안양)
- 2005년 국제PTP한국본부 30대회장(안양챕터)
- 2007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표창

정대영선생은 1952년 모현면 능원리 45-1에서 태어났다. 1952년은 능골에 동갑내기 17명이 태어난 해이기도 하다. 그는 능원초와 양영중학교를 졸업하고 당숙이 계시는 안양에서 목재와 건축을 배우다 입대해 공군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이후 고향에서 목장을 경영코자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상선을 타려고도, 양돈을 배우기도 했었다, 인공수정사, 부산 항해사전문학교도 모두 뜻대로 되지 않아 모든 꿈을 접고 다시 안양으로 가게 되었다.

안양에서 이어서 배운 건축으로 26세의 젊은 나이에 ‘형제슈퍼’라는 상가를 지었을 때 뿌듯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당진에서도 그의 노하우가 빛을 발하게 되는 건축물이 지어졌는데, 1984년 당시 충남당진에 건물을 짓을 곳이 빨지역이라 공법이 달라져야 했으므로 당숙의 부탁으로 공사에 참여하게 됐다. 젊어서 근무했던 대림산업 해외건설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빨 땅에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하지만 안양에서 당진은 만만치 않은 거리였고 고심 끝에 무작정 운전면허에 도전, 10일 만에

면허를 취득해 곧바로 운전해 다니며 완벽하게 그 일을 해냈다. 일에 대한 도전의식과 책임감으로 뚝뚝뚝 그는 모현농협 능원지소, 안양 샘병원. 종합상가건물, 교회, 갈담저수지준설, 양주 꿈나무도서관, 양주 회암사 대웅전 등 수많은 건물을 건축하고 북한산 산영루(山映樓)도 복원했다

이후 사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사회에서 도움을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안양문화원 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안양), 국제PTP(국제 친선교류, 지역사회 봉사단체)안양챕터 부회장 및 30대 회장을 지내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어디든 몸소 사회봉사에 참여했다. 2007년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대통령표창(노무현)을 받았다는데, 자문위원으로 방문했던 개성의 선죽교에서 느끼는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포은 후손이라는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고 한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했던가. 2017년에는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사찰경영최고위 과정을 수료하고, 이후 문화재보수단청업을 설립했다. 옛 조상의 얼과 문화가 담긴 옛 건축물에 혼과 정신을 다해 다하지 못한 봉사와 충성, 효를 다하고자 문화재보수단청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은성



4. 능원리 문화자원 및 문화행사

1) 능원리의 문화유산

1. 포은 정몽주 묘소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리는 고려말 유학자로서 고려 왕조에 대한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포은 정몽주가 영면해 있는 고장이다. 포은 묘소는 능원3리 문수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이곳을 찾기 위해서는 능원 1리 마을 앞을 흐르는 오산천 능평교를 건너야 한다.

능평교 상류 쪽에는 개성 선죽교의 모습을 차용한 모현 선죽교가 놓여 있다. 과거에는 영모교라 했던 모현선죽교에는 난간석 오른쪽에 자연석 받침돌 위에 자연석을 세워 포은의 단심가(丹心歌)를 새겨 놓았다. 1986년 5월에 세운 이 단심가 비에는 '이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뉘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



단심가비

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此身死了死了一百番更死了 白骨爲塵土魂魄有也無 向主一片丹心-)라고 한자와 한글이 나란히 쓰여져 있다.

또한 이 곳에 하마비(下馬碑)가 세워져 있다. 하마비는 포은 묘소가 있는 신성한 곳이라는 의미에서 이 곳을 지나는 사람은 말에서 내리라는 표석이다. 20여 년 전에 장맛비에 휩쓸려 떠내려간 것을 마을주민 정의명씨가 이십여 미터를 수습하여 찾아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능평교를 건너 능평3리 안골로 들어서면 한국등잔박물관(1997. 9. 28 개관) 방향 못미처 왼쪽으로 포은 묘역이 있다. 입구에는 묘역 표지석과 안내도가 있고 좌측에는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신도비는 숙종 25년(1699년)에 세워진 것으로 비문은 우암 송시열(宋時烈)이 지었고 전액(篆額)은 현종 때 문신 김수항(金壽恒)이 썼으며, 비문은 김수증(金壽增) 글씨이다. 특이한 것은 신도비의 전액에 조선조에서 내려준 벼슬과 시호를 배제하고 '고려 수문하시중 익양군 충의백 포은 선생(高麗 守門下侍中 益陽君 忠義伯 圃隱先生)'이라 쓰여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포은 정몽주가 고려왕조의 신하로서 충절의 표상임을 강조하기 위해 고려 직함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문수산 능선에 조성된 정몽주와 이석형의 묘소



정몽주 묘소

정몽주의 묘소는 문수산 기슭에 위치해 있는데, 문수산은 해발 221m터의 낮은 산으로 서쪽 방향으로 뻗어 내려오는 여러 능선의 하단부에 많은 묘소가 분포되어 있다. 묘소 대부분이 정몽주를 위시하여 영일정씨 일가와 이석형 묘를 비롯한 연안이씨 일가의 세장지로서 두 일가의 묘소들이 분포되어 있다.

문수산에서 내려오는 두 개의 중심 능선에 정몽주 묘소와 이석형 묘소가 눈에 띈다. 이석형의 묘는 부부 합장묘로 부인은 포은의 증손녀이자 정보(鄭保)의 3남 6녀 중 셋째딸이다. 두 묘소의 구성과 관련된 전설은 너무도 유명하여 능원리 주민은 물론 외지 사람들도 이곳을 찾는 사람이면 으레 전설을 떠올리게 된다. 그 전설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몽주의 묘는 원래 개성의 풍덕군에 있었는데 후손이 선생의 고향인 경북 영천으로 이장하려 하였다. 장례행렬이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 지경에 이르자 앞에 세웠던 명정(銘旌)이 바람에 날려서 지금의 묘 위치에 떨어졌는데, 고향으로 운구하려던 행여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명정이 날려 내려앉은 곳에 장사를 모셨다는 것이다.

정몽주의 묘를 이장할 때 바람에 날린 명정이 떨어진 곳은 사실 이석형의 자리였다. 이때 정몽주의 종손이며 이석형의 부인인 영일정씨가 이곳이 명당이라는 말을 듣고 친정집 보다는 시댁 가문을 일으키려고 밤새 이곳에 물을 길어다 부었다. 다음날 정몽주를 모시려고 광중(曠中)을 보니 물이 가득 차 있어 할 수 없이 옆 언덕에 묘를 썼고, 뒤에 그 자리에는 영일정씨가 이석형을 모셨다고 하는 이야기이다.

정몽주가 불사이군의 충절을 강조하는 조선 유학자들 사이에 오랫동안 상징적인 인물로 회자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설이 더욱 유명해졌을 것이다. 그런데 『용인군지』의 기록에 의하면 정몽주 묘의 이장 연도는 태종 11년(1411년)이다. 반면 이석형이 태어난 해는 1415년이다. 정몽주의 묘가 1411년 이장될 때에는 이석형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광중에 물을 길어다 부은 행위의 주체가 이석형의 부인일 수가 없게 된다.

정몽주의 묘소는 본래 원형 봉토분으로 곡담이 있었고, 석물은 계체석과 상석 2기, 문인석 2기만 있었던 단출한 분묘였다. 그러나 1972년 경기도 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면서 동년 12월에 상석을 교체하였고, 1974년에는 곡담 35m를 보수한 것을 비롯하여 봉분에 호석과 난간석을 돌렸으며 문인석, 석양, 장명등을 새로 조성하였다. 또한 1980년대에는 대대적인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묘를 수축하고 재실 주변에 있는 민가 3채를 이전하였고 마을 입구에 있는 신도비각을 건립하면서 300여 평에 이르는 주차장을 마련하였다.

묘표의 위치는 1960년대의 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원래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태는 관석·비신·비대로 구성되어 있다. 관석에는 유운문(流雲紋)을 양각으로 조각하였고, 비신의 비양(碑場)에는 「高麗守門下侍中鄭夢周之墓(고려수문하시 중정몽주묘)」라 새겼다. 비음의 음기에는 「1517년(중종 12) 대학생 등의 상서에 의하여 문묘에 배향하고 묘에 표석을 세웠는데 비양에 고려의 벼슬을 쓰고 문충공(조선 왕조의 시호)을 쓰지 않음은 공께서 두 왕조를 섬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문인석은 조선 초기에 나타나는 고졸한 양식으로 아직 정형화되지 않은 복두에 공복을 입고 홀을 들고 있는 형상이다. 두 개의 구상석은 원래 현 위치의 신상석에 위치하였



신도비



영모재

으나 지금은 신상석의 좌우에 배치되어 있다. 이처럼 원래의 묘에서 두 개의 상석을 사용하고 있음은 묘표와 신도비에 기록은 없으나 부인과의 합장묘라는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정몽주 묘 아래에는 영일정씨 종중의 재실 영모재가 있다.

정몽주의 자(字)는 달가(達可)요, 호는 포은(圃隱)이며, 본관은 영일(迎日)이다. 추밀원 지주사를 지낸 정습명(鄭襲明)의 후손으로 아버지 정운관(鄭云瓘)과 어머니 영천이씨 부인 사이에서 1337년 12월 22일 경북 영천 동우항리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의 이름은 몽란(夢蘭), 몽룡(夢龍)으로 불리었고, 혼례를 치른 후에는 몽주(夢周)로 이름을 짓게 되었다. 19세가 되던 해 부친상을 당하여 무덤 곁에 여막(廬幕)을 치고 시묘살이를 하며 상례를 극진히 하였다. 이것은 포은의 학문이 이미 유교의 예법에 맞는 실질적인 지식을 실천했다고 할 수 있다.

정몽주는 24세 때인 공민왕 9년(1360)에 과거시험에서 잇달아 세 번에 걸친 장원급제로 벼슬길에 나가게 되었다. 그는 문신이었지만 무장으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28세 때에는 종사관이 되어 이성계와 함께 화주에 나가 여진을 정벌하는 전쟁터에 종군하였다. 35세가 되어서는 성균관사성에 가지 올라 목은 이색을 중심으로 성균관에서 학관으로 활동하였다.

주자학에 정통한 그의 경전 강의는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고 탁월한 설명이 독특하여 듣는 사람이 의아해할 정도였다. 이를 보고 당시 성균관 대사성이었던 목은 이색은 “정몽주의 논리는 종으로 설명하거나 횡으로 설명하거나 이치에 어긋남이 없어 이학

(理學)의 시조로 추대되어야 한다.” 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주자의 경전 해석을 통해 성리학을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 올렸으며, 강학, 성리학, 예학을 중심으로 주자의 학문적 틀을 체계적인 기반으로 만들었다.

또한 학교 설립을 통한 학풍진흥을 위해 개성에 오부(五部)의 학당(學堂)을 세우고 지방에는 향교(鄕校)를 두었으며, 의창(義倉)을 세워 궁핍한 백성을 구하는데 힘썼다. 정몽주는 혼란에 빠진 고려 말에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밖으로는 장수로 나가서 외적을 물리치고 안으로는 재상으로서 정치, 사회적 개혁과 민생의 안정을 이루었던 것이다.

정몽주는 공민왕 21년(1372)부터 국가의 중책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중국에서는 원명 교체기에 접어들면서 고려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고 역사적인 변동기에 중대한 당면과제로 외교문제가 직면해 있었다. 36세 때 서장관으로 명나라 도읍인 남경에 가서 고려의 젊은이들이 명나라 태학에 입학하기를 허락해주도록 청원하여 승낙을 받아 내었다. 41세 때에는 일본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침략을 계획하고 있던 일본에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는 아무런 꺼림 없이 사신의 책임을 맡았다. 일본 하카타에 가서 성주를 만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교류하는 의리와 이해관계를 설득하였고, 일본은 그의 해박한 지식과 정성스런 언행에 깊이 감복하여 특별히 우대하였다.

51세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으나 여러 차례 입국을 거절당하였다. 그러나 고려와 명나라와의 긴장된 관계 속에서도 끈질긴 외교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정몽주 나이 52세가 되던 해 이성계가 우군도통사가 되어 요동정벌에 나섰다. 압록강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실권을 장악하는 일대 정변이 일어났다. 이때 이성계는 우왕을 끌어 내리고 창왕을 세운 다음 다시 공양왕을 세웠는데, 이때부터 혁명으로 새 왕조를 차지할 의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전쟁터에서 생명의 위급함을 함께한 이성계와 정몽주의 정치적인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성계 일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켜오다가 결정적으로 갈라서게 된 것은 이성계가 고려체제 안에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 사회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혁명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드

러냈기 때문이다. 이성계는 명망 높은 정몽주를 자신의 세력을 정당화하는데 이용하려 하였으나, 고려 왕조를 수호하려는 정몽주와의 내면적인 대립이 일어났다. 정몽주가 온 나라 안에 신망이 높으므로 이성계는 야심찬 혁명에 그를 끌어들이려 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술자리를 마련하고 잔을 주고받으며 화답한 시조가 유명한 ‘하여가(何如歌)’와 ‘단심가(丹心歌)’이다.

<하여가>

이런들 어찌하며 저런들 어찌 하리
만수산 드렁 칩이 얽혀진들 어떠리
우리도 이같이 얽여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성계가 사냥 중에 낙마하여 병석에 눕게 되자 정몽주는 이성계의 집으로 문병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선죽교에서 이방원이 보낸 조영규의 철퇴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만다. 정몽주의 죽음으로 고려왕조를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 무너지자 이성계는 “대간(臺諫)을 꺾어 충성스럽고 어진 인물들을 모함하였다”는 죄목을 씌워 아무에게도 시신을 거두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이성계는 1392년(공양왕4)에 고려 왕위를 빼앗아 조선(朝鮮)이라는 새 왕조를 세우게 된다.

정몽주가 지니고 있던 학문적 사상을 보면 주자학-성리학의 학문은 고려 말의 당시 사회에서 새로운 시대사조로 깊이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를 이끌어가는 이념으로 자리 잡아 갔다. 정몽주의 정신세계는 고려 말기 사회에서 씨앗이 뿌려졌고

조선사회에서는 찬란하게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주자학의 체계를 균형 있게 수용하여 성리학과 상호보완적인 학풍을 일으켰다.

둘째, 정몽주 선생이 주장한 불교비판은 조선사회를 도학의 정통성에 대한 신념으로 이끌 어 갈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였고, 조선시대를 관철하는 시대 이념으로 계승되었다.

셋째, <주자가례>를 기준으로 하는 의례질서는 조선사회의 풍속과 교화의 근본으로 실천되고 확산되었다.

넷째, 고려의 사직을 지키다 희생된 충절(忠節)의 정신은 조선시대에 계승되었고 사림파의 정신적 중심축이 되었다.

조선 태종 때에는 재평가 되어 ‘강상’을 수호한 충신이자 의리정신의 표상으로 존중되어 태종은 즉위 초에 정몽주 선생에게 ‘문충(文忠)’ 이라 시호를 내렸고, 세종 때 편찬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서는 ‘충신’ 편에 정몽주 선생과 길재 선생을 수록하였다.

17세기에 우암 송시열(尤菴 宋時烈)은 정몽주의 <신도비(神道碑)>에서 정몽주 선생의 많은 공적 가운데서도 ‘선생은 위태로운 나라를 위해 마음을 다하다가 순국하니 그 충(忠)이 성대하고, 상례와 제사의 의례에서 옛 습속을 변화시키니 그 효(孝)가 크도다. 예로부터 충효에 독실한 사람은 시대마다 없지 않으나, 선생의 충과 효는 실로 크다.’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 볼 수 없는 덕이라 찬하였다.

2. 설곡 정보 묘소

정몽주 묘소 우측 능선에는 손자 정보(鄭保)의 묘소가 있다. 부인 밀양박씨와 합장되어 있으며, 봉분 앞쪽으로 혼유석, 상석, 향로석이 두 기씩 갖추어져 있고 장명등도 놓여 있다. 좌우에는 문인석 두 쌍이 놓여 있고 원래의 묘갈과 후손들이 세운 묘비도 한 기씩 놓여 있다. 월두형 비신의 묘갈은 정보가 이조참의에 추증된 이후에 세운 것으로 앞면에는 「有明朝鮮國司憲府監察贈吏曹參議鄭公保墓(유명조선국사헌부감찰증이조참

의정공보묘)」라고 새겨져 있어 사헌부 감찰을 지낸 정보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옆면과 뒷면에는 영조조 노론의 대표적인 학자로 홍문관 대제학을 지낸 문정공 도암 이재(1680-1746)가 지은 비문과 판돈녕부사를 지낸 정효공 상와 이민보(1720-1799)가 지은 추기가 새겨져 있다. 후손들이 1982년 다시 세운 묘비 앞면에는 「贈資憲大夫內部大臣 行司憲府監察迎日鄭公諱保墓(증자헌대부내부대신행사헌부감찰영일정공휘보묘)」라고 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원래 묘갈에 새겨져 있던 비문이 그대로 옮겨져 있다.

정보는 조선 초기 문신, 정치인으로 부친은 이조참의를 지낸 정종성이고 조부는 포은 정몽주, 증조부는 정운관이다. 어머니는 죽산박씨로 진현관 제학을 지낸 박중용의 딸이고 부인은 밀양박씨로 병마절도사 박등의 딸이다. 정보는 3남 6녀를 두었으며 장남은 장흥고 주부를 지낸 정운정, 차남은 승문원 정자를 지낸 정운화, 그리고 막내는 정운관이다. 증중반정으로 정국공신 1등에 책록되고 의정부 영의정을 지낸 충정공 인재 성희안의 조부가 되는 성효연, 판중추부사를 지낸 문강공 저헌 이석형, 병조판서를 지낸 경현공 이계손, 사헌부 대사헌을 지낸 이유인은 공의 사위들이다. 또한 계유정난으로 수양대군을 보위에 올리고 권력의 중심에 섰던 의정부 영의정 충성공 압구정 한명회는 공이 사육신의 옥사에 연루된 이후 공의 서(庶)여동생을 소실로 삼았다. 즉 아버지 정종성이 늙으막에 첩에게서 얻은 서녀(庶女)가 있었는데 이 서녀가 후일 한명회의 첩이 된 것이다.

대학자 포은 정몽주의 손자로 태어난 정보는 가학을 통해 성리학을 익혔으며 사마시에 합격하고 관직에 나가 예안현감, 사헌부 감찰 등을 지냈다. 조부에게 이어 받아 높은 경지의 학문을 지녔던 그는 당대의 이름난 학자들인 매죽헌 성삼문, 취금헌 박팽년 등과 널리 교류를 하였는데, 1456년 단종복위 사건이 적발되어 사육신이 위기에 처하자 그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압구정 한명회에게 그들의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한명회에 의해 죽음의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다행히 세조는 그가 충신의 손자임을 들어 극형으로 다스리지 않고 영일로 유배를 보내 목숨을 부지할



설곡 정보 묘소

설곡 정보 묘표

수 있었으나 얼마 후 단성으로 옮겨졌다가 그곳에서 또다시 모함을 받아 결국 목숨을 잃었다.

세월이 흘러 숙종조인 1691년 사육신의 관작이 모두 복권되었는데, 그 역시 1699년 훗날 의정부 영의정을 지내는 녹천 이유의 상소로 신원되었고 이조참의에 추증되었다. 그는 용인의 충렬서원에 제향되었으며 구한말 내부대신으로 가증되기도 했다. 정보는 충절의 상징인 포은 정몽주의 손자로 조부의 정신을 그대로 본받아 부귀와 영화를 탐하기보다는 옳은 일에 목숨을 걸고 간언하였던 곧은 선비로 한평생을 살았던 인물이다.

3. 저헌 이석형 묘소

이석형(李石亨, 1415~1477)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백옥(伯玉), 호는 저헌(樗軒)이다. 묘는 정몽주 묘 좌측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봉분은 단분으로 부인과 합장묘이다. 원래의 석물로는 봉분의 묘표와 묘 좌우에 배치되어 있는 문인석 2쌍이 있다. 봉분 앞의 상석, 향로석, 계체석 등은 새로이 교체되었다. 묘의 50m 전방에는 신도비가 위치하고 있다. 묘표는 월두형 비신과 비대로 구성되어 있다. 비신의 비양에는 4행으로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有明朝鮮佐理功臣行判中樞府使延城府院君 贈諡文康李公石亨之墓 贈政敬夫人延日鄭氏之墓耐左(유명조선좌리공신행관중추부사연성부원군 증시문강이공석형지묘 증정경부인연일정씨지묘부좌)」

단 끝의 「附左(부좌)」는 작은 글씨의 횡서(橫書)로 음각하여 놓았다. 비음의 기록에 의하면 「처음 공이 歿(몰)하였을 때 짧은 표석이 있어 다만 성명과 졸과 장을 기록하였을 뿐이며, 또 글씨가 흐려서 읽을 수 없었다. 이제 삼가 통문으로 여러 종족과 의논하여 다른 돌을 고쳐 세우기로 하고 이어 감히 공의 사적의 본말을 위와 같이 간략하게 쓴다. 그 세계와 이력의 상세한 것은 대비(신도비) 안에 갖추어 실었으니 여기서 군더더기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밝혀 놓았다. 그리고 「七代孫通訓大夫行清風都護府使喜朝謹撰(칠대손통훈대부행청풍도호부사희조근찬)」으로 끝을 맺고 있어 이희조(1655~1724)의 활동 시기인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문인석은 2쌍이 배치되어 있는데, 모두 조선 전기의 양식인 복두공복에 홀을 들고 있는 양식이다. 묘표의 기록에 의하면 「부인 정씨가 공보다 먼저 졸하여 이곳에 장사지냈는데 이에 이르러 무덤을 같이 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부인의 무덤에 있었던 문인석에 합장을 하게 되면서 또 다시 1쌍의 문인석을 추가로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식적인 면에서 뒤에 배치된 문인석의 몸의 형체가 길게 표현되고 눈 모습이 장승에 가깝고, 앞에 배치된 문인석의 비례 감각이 안정적이며 눈 모습이 사람의 눈에 가깝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자가 후자에 비해 보다 앞서 나타나는 양식이다.

신도비는 역시 월두형 비신과 비대로 구성되어 있다. 전액은 비양·비음에 걸쳐 횡서로 「延城府院君樞軒文康公李先生神道碑銘(연성부원군저현문강공이선생신도비)」이라 되어 있다. 4대손 이정구(李廷龜)가 찬하고, 신익성(申翊聖)이 글을 쓰고, 김상용(金尙容)이 전액을 하였다. 신도비의 건립연대는 「天啓四年甲子十一月立」으로 1624년(인조2)에 건립된 것이다. 신도비의 비대는 상단에 연판문(蓮瓣紋)을 조각하고, 측면에 2구획으로 나누어 안상문(眼象紋)을 조각하였다.

이석형(李石亨, 1415-1477)은 조선 초기의 문신·학자이다. 자는 백옥(伯玉)이고, 호는 저현(樗軒)이며,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본관은 연안(延安)으로 대호군 회림(懷林)의 아들이며, 김반(金泮)의 문인이다. 이석형은 1441년(세종 23) 소과인 생원시(生員試)와 진사시(進士試)에 장원으로 합격하였다. 이때 이석형이 임금께 사은(謝恩)하기 위하여 경복궁에 입궁을 하려 하자 광화문 양 협문을 지키고 있던 생원과 진사들이 서로 자기네 문으로 입장시키려 다투었다. 생원시에 장원을 하면 동쪽 협문, 진사시에 장원을 하면 서쪽 협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법도인데 자기들이 보는 과거에 모두 장원한 사람이니 서로 자기 편에 속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난처해진 세종대왕이 나서서 왕이 다니는 중앙문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이석형은 소과에 이어 식년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사간원 정언에 제수되었다. 그러자 세종대왕은 과거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3장원이 나왔다고 크게 기뻐하며 주연을 베풀었고, 궁녀들로 하여금 ‘삼장원사(三壯元詞)’란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였다. 중전은 손수 어의(御衣) 한 벌을 지어 그에게 내렸다고 한다. 이듬해 집현전 부교리에 임명되어 14년 동안 집현전 학사로 재임하면서 집현전의 응교·직전·직제학을 두루 역임하였다. 집현전 응교로 재임한 1447년 문과중시에 합격하였으며, 왕명에 의하여 진관사(津寬寺)에서 사가독서하였다.

1455년(세조 1) 첨지중추원사를 거쳐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456년 6월 사육신 사건이 전해지자 사육신의 절의를 상징하는 시를 지어 익산 동현에 남겨, 대간에 의하여 치죄하자는 여론이 있었으나 세조에 의하여 묵살되고 오히려 예조참의에 올랐다. 세조의 총애를 얼마나 받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1457년 판공주목사에 임용되었다. 이듬해 첨지중추원사로 잠시 한직에 있었으나, 세조의 총애를 받아 한성부윤이 되었다. 1460년 세조의 특명으로 황해도 관찰사가 되어 왕의 서계(西界) 지방순행을 도운 뒤부터 세조로부터 서도주인(西道主人)이라 불리기까지 하였다. 이듬해 사헌부 대사헌을 거쳐 경기관찰사를 역임하고, 1462년 호조참판을 거쳐 판한성부사에 7년 동안 재임하였다. 1466년 팔도도체찰사를 겸하여 호패법을 철저히 조사하고 정리하였다. 1468년 세조가 죽자 승습사(承襲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이석형 묘소

1470년(성종 1)에는 판중추부사에 오르고 지성군관사를 겸하여 주문(主文)의 위치를 맡았다. 1471년에는 좌리공신(佐理功臣) 4등에 책록되고, 연성부원군(延城府院君)에 봉하여졌다.

이석형은 집현전 학사로서 학문에 뛰어났으며, 특히 치국(治國)과 역사를 정리하는데 주력하였다. 집현전 학사로 있을 때 『치평요람』, 『고려사』의 편찬에 참여하였고, 세조 때 사서(四書)의 구결을 정리할 때 『논어』의 구결을 주관하였다. 저서에 『대학연의』와 『고려사』에서 권계(勸戒)할 내용을 덧붙인 『대학연의집략』 21권과 『저헌집』이 있으며, 편저로는 『역대병요』, 『치평요람』 등이 있다.

만년에는 성군관 서쪽 연못이 있는 곳에 계일정(戒湓亭)을 짓고 수신 도구로 삼아 자



이석형 신도비 비각



이석형 신도비(묘 하단에 있었던 당시 모습)



후손들이 모현읍 능원리에 조성한 계일정(戒湓亭)

신을 경계하며 시문에 전념하였다. 오늘날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 병원 본관 부근이다. 계일(戒湓)이란 한자로 경계할 계(戒)에 넘칠 일(湓)로, 물이 넘치는 것을 경계하듯 명예와 권력, 재물과 복을 얻는 데 항상 넘치지 않게 살라는 뜻이다. 선생의 계일정 신은 이후 선비사상의 기본정신이 되었고, 후손들이 그 유지를 받들어 가문훈(家門訓)으로 이어 오고 있다. 그런데 이석형이 살던 계일정 연못에 피어 있는 연꽃이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장안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오늘날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蓮池洞)이라는 지명이 바로 계일정에서 유래했다고 한다.(이규태, 『한국인의 주거문화』) 뿐만 아니라 연화방(蓮花坊)과 건덕방(建德坊)의 첫 글자를 합자한 연건동(蓮建洞)도 계일정에 유래를 두고 있는 지명이다. 물론 옛 자리에는 계일정도, 연못도 사라지고 표지석만 남았지만 후손들은 선조의 정신을 기리고자 모현읍 능원리에 계일정과 연못을 복원하여 그 뜻을 새기고 있다.

4. 죽창 이시직 묘소

이시직(李時稷, 1572-1637)은 이석형(李石亨)의 6세손으로 아버지는 찰방(察訪) 이빈(李賓)이고, 어머니는 목사 이응기(李應棋)의 딸이다. 자는 성유(聖兪), 호는 죽창(竹窓)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10세에 조호익(曹好益)에게 배웠으며, 뒤에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다. 1606년(선조 39) 사마시에 합격하고 1623년(인조 1) 사축서 별제가 되었다. 이듬해 직장으로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같은 해 이괄(李适)의 난

이 일어나자 왕을 공주까지 호종하였다. 이어 종묘서직장을 거쳐 성균관전적이 되었다. 1635년 병조좌랑, 사간원정언, 사헌부장령, 세자시강원필선 등과 장악원정·사복시정·봉상시정 등을 역임하였다.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화에 들어갔다가 강화가 함락된 후에 송시영(宋時榮)이 먼저 자결하자, 묘 돌을 파서 송시영을 매장하고 비워 놓은 묘에 자기를 매장하도록 노복에게 부탁한 후에 활 끈으로 목을 매어 죽었다. 특히, 아들에게 전하라는 편지의 글 중에는 ‘살신성인부양무작(殺身成仁俯仰無作)’이라는 말이 보인다. 뒤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강화의 충렬사(忠烈祠)와 회덕의 송현사(崇賢祠)에 제향되었다.

이시직 묘는 안내 표지석이 능선 중간에 있으며, 연안이씨 묘역이 자리 잡은 능선들 중에서 가장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묘는 부인인 용인이씨가 부좌된 합장묘이며, 묘갈, 상석, 문인석 등의 석물로 구성되어 있다. 묘갈의 형식은 팔작지붕 모양의 덮개에 네모진 받침을 지닌 방부옥개(方趺屋蓋)이며, 관석(冠石)과 비대(碑臺)는 화강암 재질이며, 비신은 대리석으로 추정된다. 묘갈명은 김상헌(金尙憲)이 찬하고 송준길(宋浚吉)이 쓰고(書) 전액하여 1653년에 건립된 것이다.

석물은 상석과 향로석, 좌우측에 문인석이 위치하고 있다. 상석은 탁자의 다리를 받쳐 놓은 형태이며, 그 앞으로 향로석이 있다. 문인석은 양관·조복에 홀을 들고 있는 형

식이며, 묘갈이 세워진 1653년 경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시직 묘소

5. 총렬서원

서원은 성균관, 향교와 함께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전국 각 지방에 설치된향교와 대비되는 사립학교로서 지역 문화를 대표하는 장소였다. 그래서 서원은 교육 기능과 교화 기능을 그 양축으로 삼고 있었다. 조선 중기 사대 사화를 비롯한 정치적 혼란으로 말미암아 학자들은 지방에 은거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배 유학자들을 기리고 제사하는 사당의 기능까지 통합한 서원을 창설하기 시작한 것이다.

먼저 교육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서원에서 교육의 목표는 인품이 훌륭한 선현을 본받고 그러한 관리를 양성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다른 교육 기관과 마찬가지로 소학에서부터 사서오경을 공부했다. 그리고 사서와 오경을 모두 익힌 다음에는 가례, 근사록과 같은 성리학에 관한 책들을 익히도록 했다.

정치적 혼란으로 중앙 정계에서 물러난 학자들에 의해 대부분의 서원이 설립되었던 까닭에 ‘선현을 본받는다’는 교육 목표는 초기의 서원 교육에서 특히 중요시되었다. 그들에게 있어 학문의 진정한 의미는 인생과 우주의 본질을 추구하고 자신을 도덕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이었다. 그 뒤 서원에서 공부한 선비들이 정계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과거 준비를 위한 교육도 동시에 강조되었던 것이다.

서원의 또 한 가지 기능인 교화 기능은 주로 선현에 대한 제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제사의 대상 인물에 있어서는 성균관이나 향교와는 차이가 있었다. 성균관과 향교의 문묘(文廟)에 배향된 인물은 공자를 비롯해 안희, 증자, 자사, 맹자의 사성과 그 밖의 십철, 그리고 우리나라 18현 및 송대의 6현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서원은 사학이라는 특성상 대부분 문중이나 특정 지역에 의해 건립되었던 까닭에 자신의 문중이나 지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 가운데 뛰어난 인물을 배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충렬서원 전경

충렬서원은 같은 능원리 지역에 묘소가 위치한 정몽주 선생을 배향하는 서원이다. 1576(선조9년) 이계, 이지를 비롯한 지방 유림의 공의로 정몽주와 조광조의 학덕과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처음에는 이 서원을 정몽주와 조광조의 묘소 중간 지역인 지금의 죽전동에 세웠으며 서원 이름도 <죽전서원>이었다. 임진왜란 때 서원 건물은 전소되어 1605년(선조 38년)에 이정구가 경기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현감 정종선, 이시윤 등과 함께 논의하여 정몽주의 묘소 아래에 중건하였다.

3년 여의 공사 끝에 사우 3칸 동서재 각 2칸 문루 3칸을 지었다. 문루 윗층은 강당이며, 아래는 문주방과 고사 등을 갖추었다. 이때 조광조의 위패는 심곡



외삼문



강당



사우(사당)

서원으로 옮겨 배향하였다. 중창과 함께 충렬이라 사액되었으며 정몽주의 손자인 설곡 정보와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순절한 죽창 이시직을 추가 배향하였다. 1706년(숙종 32)에 다시 후손 정제두, 정찬조를 비롯한 여러 유림의 공의로 옛터 서쪽 가까운 곳에 이건하였다. 그 후 선현 배향과 지방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오던중 1871년(고종8)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없어졌다가 1911년에 유림에서 사우를 중건하였고 1956년 강당을 복원하였으며, 1972년 전체를 보완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내에는 6칸의 사우가 내삼문, 외삼문, 중앙의 마루와 양쪽의 협시로 된 8칸의 강당이 있다. 서원의 입구에는 홍살문을 세워 신성시하였다. 강당의 원내의 여러 행사와 유림의 화합 및 강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충렬서원은 일정한 중심축이 없어 외삼문에 들어서면 강당과 사당이 동시에 보인다. 한 때 용인 대학자 도암 이재 선생이 여러 유림과 학문을 교류하던 곳이기도 하다. 그 이후 교육공간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

1997년 유림의 결의로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삼학사(三學士)의 한 분으로 추송되고 있는 추담 오달재 선생을 추가 배향하였다. 매년 3월과 9월 중정(中丁)에 향사를 지내고 있다.

6. 정한영 효자비각

정한영의 효자비각은 능원리 서원말 국도변에 있다. 능원리의 보호수인 느티나무 곁에 세워진 비각은 덩벙 주초 위에 원주(圓柱)를 세우고 맞배지붕을 얹은 형태이다. 규모는 정면,측면 모두 1칸으로 조선 말기의 일반적인 비석의 형태를 띠고 있다. 단청을 올렸으나,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비각 부재에 먼지가 심하게 덮여있다. 비각 안에는 효자비와 행장기(行狀記)가 있다. 비문은 김세기가 썼으며, 행장기는 김학열(金學悅)이 지었다. 비신은 전후 2면에 각자되어 있는데 전면에는 종1열의 큰 글씨로 「효자

정공한영비(孝子鄭公漢永碑)라 새겨져 있고, 후면에는 종1열로 「정축오월일립(丁丑五月日立)」의 건립기가 새겨져 있다.

정한영(鄭漢永, 1862-1947)의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윤칠(允七), 포은 정몽주의 19세손 구현(九鉉)의 아들이다. 조선 말기인 1862년에 태어났다. 벼슬은 종사량(從仕良)으로 감리서주사를 지냈다. 성품이 바르고 총명하였으며, 평소 정성을 다해 부모를 섬기어 인근에 효자로 소문이 자자하였다. 평소 부모를 정성껏 섬기고, 부친상을 당해서는 삼 년간 머리는 물론 손톱·발톱도 깎지 않으면서 묘소 아래에 여막을 짓고 시묘살이를 하였다. 이러한 효행을 기려 향리의 사림이 비각과 함께 효자비를 건립하였다.

효자비 옆에 있는 느티나무는 수령이 3백 년 정도로, 현재 용인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효자비각 내부에는 「효자비각기(孝子碑閣記)」란 현판이 걸려 있다.



정한영 효자비각



정한영 효자비

2) 능원리의 문화시설

한국등잔박물관

등잔은 전깃불이 들어오기 전까지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던 고향처럼 그리운 이름이자 사라져 간 아련한 추억이다. 어둠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인간의 노력으로 발명된 이 기구 덕택에 비로소 인간은 밤에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고, 본격적인 문명의 싹을 틔울 수 있었다.

하지만 등잔은 그 역사에 비해 기능과 형태의 큰 변화를 찾기가 힘들다. 다만 그 시대별로 유행했던 문양과 특별한 사조 등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보일 뿐이다. 물론 미약하나마 원료로 쓰인 기름과 초의 발전이 있었고 쓰임새



에 따라 그 종류도 다양하였지만, 등잔과 이를 받치고 있는 기둥과 밑받침이라는 세 가지 기본골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기름과 초를 연료로 사용했던 것은 1876년(고종 13년) 석유가 들어오기 전까지이다.

그렇다면 전기 조명이 들어온 지가 겨우 100여 년밖에 안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 옛날부터 오랜 시간을 인간과 함께 호흡하며 발전해온 조명기구가 이렇듯 변화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석유가 나지 않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연료의 발전이 미약했다는 점과 등기구가 뒤늦게 상용화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초까지도

등잔은 대부분 의식과 예식에 사용되거나 일부 상류계층의 전유물이었다. 그리고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우리 선조들의 생활습관이 등잔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한국등잔박물관은 지금은 고인이 된 김동휘 선생이 평생 수집한 등 기구를 모아 1997년 능원리에 개관한 국내 유일의 등잔박물관이다. 한국등잔박물관은 독특한 외형부터 눈에 띈다. 외형은 성곽 높은 곳에 쌓아 적을 쉽게 관찰할 수 있게 만든 방어시설인 수원 화성의 공심돈을 본떠 설계한 것이다. 지상 1, 2층은 주 전시실이고, 3층은 특별전시실로 이용되고 있다. 지하 1층 상우당은 세미나실과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본관 건물 옆에는 농기구 전시관이 따로 마련돼 있다.

박물관 1층은 ‘어둠을 밝힌 빛’이라는 주제로 부엌과 찬방, 안방, 사랑방 등을 그대로 재현해 놓아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서 등잔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다. 부엌엔 부뚜막 뒤쪽 바닥에 두고 사용하는 부엌바닥등과 벽걸이등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부엌바닥등은 질그릇으로 만든 집 속에 등잔을 넣어 바람이나 음식을 끓일 때 생기는 수증기에도 불이 쉽게 꺼지지 않는다. 벽걸이등은 거추장스럽지 않은 크기로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길조의 의미가 담겨 있다.

화조도 병풍과 장롱, 화로, 여성들의 액세서리로 꾸며진 안방에서는 고사리말림형 유기등경이 전시돼 있다. 안방에서 주로 사용한 이 유기등경은 기둥에 4단의 걸이를 만들어 등잔받침과 기름받이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마른 고사리 형태의 기둥 상단부 장식은 고려 시대부터 내려온 양식이다. 등잔대는 등근 받침에 3~4단의 걸이용 기둥을 세우고 등잔과 기름받이를 위아래로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등경(燈檠)과 높낮이의 조절 없이 맨 위에 등잔을 하나 얹은 등가(燈架)로 나뉜다. 등경의 기름받이는 등잔의 기름이 타면서 떨어지는 찌꺼기를 받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기둥의 걸이용 단은 필요에 따라 등잔의 높낮이를 조절하려고 만들어진 것이다.

손님 접대와 자녀 교육의 공간인 사랑방에서는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을 때 사용하던 서등(書燈)이 시선을 끈다. 밝기를 높이기 위해 심지를 돋우는 부분을 두 개(쌍심지)



사랑방

또는 네 개(사심지)로 만든 것까지 있다. 기름도 그만큼 많이 소모되어 ‘부자 등잔’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서등은 ‘송사(宋史)에 “평년이 학문을 좋아하나 어머니가 아들이 밤늦게 공부하는 것을 근심하므로 평년이 구등을 만들어 어머니를 속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서등의 효시라고 한다.

사랑방 유리창에는 “아버지의 글 읽는 소리가 사랑방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아버지는 경상 위에 올려놓은 서등 불빛에 의지하여 글을 읽으시고, 어쩌다 친구분이 먼 길에서 찾아오는 날이면 늦은 밤까지 사랑의 등불은 꺼질 줄 모릅니다. 등유로 불을 피워 불빛이 무척 밝은 사랑방의 서등에서는 흔들리는 불빛과 함께 검은 그늘음이 피워 오르곤 합니다. 가끔 재떨이에 담뱃대를 내리치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옵니다”라는 글이 쓰여 있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 옆에는 결혼식 날 쓰던 조선 후기의 화촉과 등잔, 부싯돌이 전시돼 있다.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꽃을 새겨 넣은 화촉(華燭)은 벌꿀 밀랍으로 만든 초인데, 불을 켜면 은은하게 꿀 냄새가 난다. 화촉은 왕실이나 일부 상류층에서만 쓰였고, 일반인에게는 혼례 때만



화촉(華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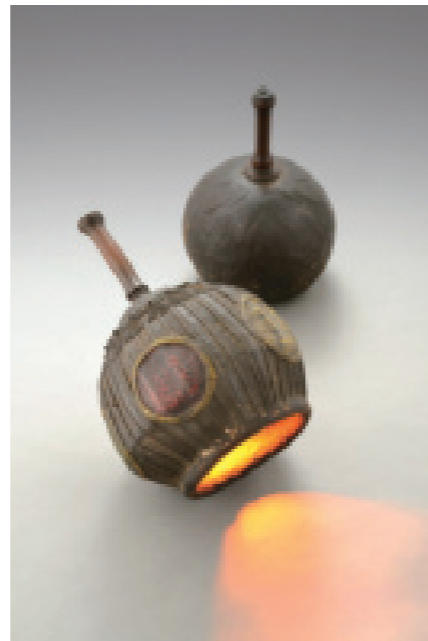
사용이 허락됐다. 화촉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다.

2층엔 ‘일상을 지킨 빛’이라는 주제로 선인들이 직접 사용하던 등잔과 등잔대, 촛대, 도자기 등이 전시되어 있다. 등 기구가 어둠을 밝히는 생활필수품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를 담은 물건임을 보여준다. 뚜껑이 없는 접시형, 종지 형태의 등잔은 소기름과 돼지기름, 참기름, 아주까리기름, 피마자기름을 주로 사용했으며 어촌에서는 고래, 정어리기름을 주로 썼다. 대한제국 고종 때 석유가 수입되면서 뚜껑에 심지꽃이가 따로 붙은 ‘석유등잔’으로 바뀌었다.

촛대는 주로 왕실이나 상류계층에서 사용했는데 이는 초의 원료가 워낙 귀하고 만드는 방법도 쉽지 않아 대량생산이 어려웠던 까닭이다. 은입사회자문무쇠촛대는 육각형의 밑받침, 기둥, 초받침, 불후리를 은입사로 세밀하게 장식했다. 불후리의 중앙에 ‘희’(囍) 자를 새겨 길상의 의미를 더했다. 불후리는 불빛이 사방으로 퍼지는 것을 막고 앞면만을 비추도록 반사시키며 필요한 곳을 선택적으로 밝게 하도록 회전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정감이 가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목제 등잔대이다. 하나의 나무를 통째로 깎아서 만든 등잔대, 고사목을 그대로 이용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살린 등잔대, 등잔걸이로 큰 전복껍질을 사용한 촛대 겸용 목제 등잔대, 등잔대 기둥에 대나무의 죽절문을 그대로 사용해 멋을 살린 등잔대, 등잔대 밑받침에 서랍을 달아 실용성을 더한 등잔대, 왕의 처소에서 불을 밝히던 용머리 장식 목제등잔대 등이 흥미롭다. 목제 등잔대는 하나하나에 선조들의 손때가 묻어 있어 정겹다.

순라꾼들이 밤에 순찰할 때 쓰던 조족등(照足燈)도 흥미롭다. 발쪽을 비춘다고 해서 조족등인



조족등(照足燈)

데 도적을 잡을 때도 쓰기에 도적등이라고 불렀다. 겉모습이 박처럼 생겼는데, 나무나 쇠로 틀을 하고 곁에 기름종이를 두껍게 발라 어둡게 하고 밑쪽은 터진 모습이다. 등 안에는 초를 꽂는 철제의 회전용 돌쩌귀가 있어 등을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촛불이 꺼지지 않는다. 조족등 역시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었다.

그런가 하면 신윤복의 그림 ‘월하정인’(月下情人)에서 보듯이 캄캄한 밤길을 다닐 때나 예식에 사용했던 제등은 주로 사각형 모양의 쇠틀 안에 초를 꽂고 천이나 한지로 씌운 손전등이다.

3) 능원리의 문화행사

포은문화제

고려시대 충신이자 우리나라 성리학의 기초를 세운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기 위한 포은문화제가 매년 10월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리 포은 정몽주 선생 묘역에서 3일 동안 개최된다. 포은문화제는 2003



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6월의 문화인물로 포은 선생을 선정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지역축제이다. 축제를 통해 용인이 ‘동방 성리학의 성지’로 재인식되길 기대하며 포은 선생의 위업을 재조명하는 행사인데, 용인문화원이 주관하여 매년 5월에 개최하다가



2018년부터는 10월 둘째 주로 변경하였다.

특히 2013년도에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을 수상하여 한층 세인의 관심이 높아진 포은문화제는 매년 5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용인의 대표적인 지역

문화축제로 조선시대 사대부가에서 중시 여겼던 성리학 의식인 관혼상제(冠婚喪祭)를 비롯하여 각종 경연대회, 전통문화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꾸며진다

안타깝게도 2019년에는 경기 중북부 지역을 덮친 돼지 콜레라로 인해 약 1개월을 남기고 행사가 취소되었고, 2020년 역시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로 행사를 하지 못했다. 때문에 본 지면에서는 2018년도에 열린 제16회 포은문화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설명하고자 한다.

2003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하여 15년의 연륜이 쌓인 만큼 포은문화제도 그 명성이나 운영 면에 있어서 마침내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즉 축제의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골격을 갖추었지만 역사인물을 소재로 하는 유학 테마 축제로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안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는 사항이다.



사업목적과 운영 컨셉

포은문화제는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고 선현들의 지고한 정신문화를 계승한다는 기본 취지를 통해 전통적 선비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인간성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창의적 인문도시 이미지를 창출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하여 동방이학의 시조, 포은 선생의 사상과 성리학을 조명하는 유학 테마축제로서 전통문화의 토대 위에 현대적 문화요소가 융합된 역사문화 축제를 지향하고 있다. 포은문화제 운영 컨셉은 다음과 같다.

- 동방이학의 시조,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고,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유학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청소년 인성교육과 현대인의 인간성 회복의 계기를 마련함
-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애정과 긍지를 갖게 함
- 조선시대에 선조들이 중요하게 여긴 성리학적 기본 도리인 관혼상제(冠婚喪祭)를 재현함으로써 전통적 가족애의 의미를 되새기고 효(孝)문화를 진작하는 계기를 마련함
- 본 축제를 용인시 대표 문화브랜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나아가 기호 유학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비전을 확립

관혼상제를 테마로

포은문화제는 조선시대 핵심적 사회이념이었던 성리학적 전통과 생활문화를 전승 보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은 선생을 가리켜 ‘동방 이학의 시조’라 했듯이 성리학은 포은 선생이 정립한 사상 체계이자 조선시대 통치이념이었던 만큼 우리 정신문화의 뿌리라 할 수 있다. 물론 성리학적 전통이 오늘날의 사회적 관념 속에서 조선시대만



큼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속에 담긴 철학적 사유와 윤리도덕의 덕목들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고 계승되어야 할 소중한 정신문화 유산이다.

포은문화제는 조선시대 사대부가에서 중히 여겼던 통과의례인 관혼상제(冠婚喪祭)를 테마로 성년의식, 혼례의식, 상례의식, 제례의식을 재현하여 성리학적 전통문화의 전승보전을 핵심적인 축제 테마로 운영하고 있다.

먼저 관례(冠禮)는 관혼상제의 첫 통과의례로, 인간이 태어나서 성년이 된 것을 기념하여 마침내 어른이 되었음을 표방하는 예식이다. 나이 15~16세가 되었으므로 이제 는 철없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예의를 지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음을 공표하는 의식으로 남자는 상투를 틀고 그 위에 관(冠)을 썼기 때문에 관례(冠禮)라 하고, 여자는 머리를 올려 쪽을 찌고 비녀를 꽂는다고 해서 계례(笄禮)라고 한다.

관혼상제의 두 번째 의식인 혼례(婚禮)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5쌍의 부부를 선정하여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식을 치른다. 전통혼례가 끝나면 2박 3일의 일정으로 제주도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항공료와 호텔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포은 정몽주 선생이 복권되어 그의 묘를 이장하는 모습을 재현한 천장행렬은 관혼상제 중 상례(喪禮)에 해당하는 의식이다. 포은 선생을 예장(禮葬)으로 모셨다는 문헌 기록에 따라 집례, 당상관 등 장례를 이끄는 관료를 비롯하여 300여명의 상여꾼과 만장행렬이 조선시대의 장엄한 장례 모습을 연출한다. 천장행렬은 능원초등학교에서부터 묘소까지 행렬이 펼쳐진다.

또한 포은 선생 묘소에서 열린 추모제례는 관혼상제의 제례(祭禮) 의식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제례 의식을 차용하여 묘에 제를 올리는 행사이다. 헌관들이 제례를 올리는 가운데 악사들이 제례악을 연주하고 그 음악에 맞춰 무용수들이 일무(佾舞)를 추게 되는데 그 모습이 장중하고 화려하다. 제13회 행사까지는 묘소에서 제례를 봉행하였지만 2017년부터는 행사장 메인 무대에서 제례를 올리게 되었다. 이는 축제 관람객들이 제례에 직접 참여하거나 객석에 앉아서 제례 과정을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초헌관은 용인시장, 아헌관은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종헌관은 용인문화원장이 맡았다.

교육문화축제 지향

포은문화제는 역사인물을 소재로 하고 있는 만큼 역사를 이해하고 그 인물이 지향했던 삶의 가치와 사상을 통찰함으로써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인간성 회복의 계기로 삼는다는 입장에서 교육문화축제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인성교육과 전인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전통문화 교육과 관련된 각종 경연대회가 다채롭게 진행된다. 경기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청소년국악경연대회를 비롯하여 청소년백일장, 사생대회가 그것이다.



또 포은 선생을 비롯하여 용인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남녀노소가 즉석에서 참여하는 포은 골든벨,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국 스토리텔링 공모전, 그리고 포은 선생의 시문학 정신을 선양하고 한시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전국 유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전국한시백일장 등이 열린다.



옛 선비들의 과거시험을 재현하는 전국한시백일장은 포은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옛 선현들의 사상과 관념세계가 담겨있는 한시 문학을 오늘에 되살린다는 취지에서 정해진 시제와 압운에 따라 한시를 지어 자운을 겨루게 된다. 장원 급제자에게는 임금이 내리던 어사화(御賜花)를 복두에 꽂아 준다. 참가자는 의무적으로 도포를 입고 유건을 쓰는 등 전통 복장을 해야 한다. 한시백일장은 전국 각지에서 유림 200여명이 참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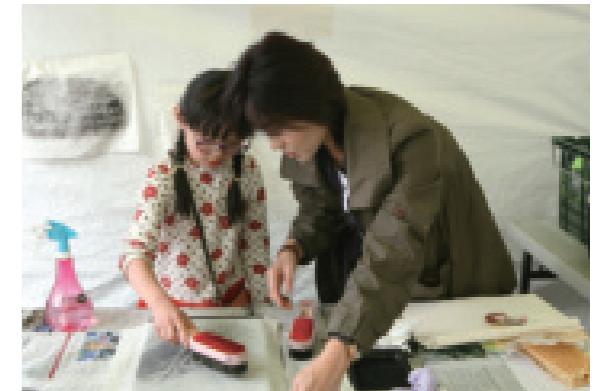
시민 역사문화 퀴즈대회인 포은 골든벨은 묘역 잔디밭 작은 무대에서 행사 기간 중 매일 열린다. 용인문화원 문화유산 해설사들이 진행하는 골든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된 ‘포은 정몽주 선생과 용인의 역사문화’라는 소책자와 300여 개의 예상문제에서 80%를 출제하고 나머지는 즉석에서 용인의 역사문화 일반을 출제한다.

전통문화 체험 및 역사인물 선양

오늘날 축제 참가자들의 의식수준이나 교육정도가 높아지면서 예전에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람객 입장에서 이제는 참여하고 체험하는 형태가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으면서 문화체험을 통해 문화적 풍요로움을 누리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포은문화제에서는 2008년도부터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포은 정몽주 선생을 중심으로 용인의 역사인물들을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체험 및 전시부스에서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과 생활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규방공예 체험, 자신만의 창의력으로 개성 있는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도자기 체험, 긴 장대 위에 오리를 올려 하늘에 소망을 기원하는 솟대 만들기 체험, 비석이나 나무에 새겨진 문자나 그림을 종이에 모양을 뜨는 탁본체험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포은 정몽주 선생을 비롯하여 그의 도학사상의 학맥을 이어온 정암 조광조 선생, 기묘명현의 표상, 십청헌 김세필과 음애 이자 선생, 사례편람을 지은 도암 이재 선생과 “동창이 밝았느냐”의 약천 남구만 선생, 실학의 태두라 불리는 반계 유형원과 번암 채제공 선생, 병자호란 당시 삼학사로 청나라에 끌려가서도 절의를 지킨 추담 오달제 선생, 그리고 여성 실학자 사주당 이씨 등 용인의 유림들을 조명하는 테마 전시가 열린다. 이와 함께 일제 강점기에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항일 독립운동을 벌인 ‘용인의 항일 독립운동가전’도 함께 열린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무대 공연

포은문화제에서는 메인 행사장과 보조 행사장에 무대를 설치하여 전통문화 공연물을 중심으로 현대와 조화된 각종 무대공연이 이루어진다. 55사단 군악대의 마칭 밴드와 타악공연은 경직된 근대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정도로 경쾌하고 화려하다.

금년 포은문화제의 특별 무대는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에 출연하여 유명해진 판소리 명창 오정해씨가 출연한다. 오정해씨는 국악인이자 ‘태백산맥’ 등 수많은 영화에 출연하여 중견 영화배우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아방송예술대학 연희연극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역대 대통령의 성대모사와 조용필, 태진아, 김영임 등 수많은 가수들의 모창으로 ‘인간복사기’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 개그맨 최병서씨가 출연한다.

또한 매년 둘째 날 오후에 열리는 가곡합창제는 용인시 관내의 대표적인 5개 합창단이 참여하여 우리나라와 서양 가곡을 들려준다.

그런가 하면 한국민속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줄타기 예인도 출연하여 우리 전통놀이인 줄타기 묘기를 선보인다. 줄타기는 지상 3m 높이에서 3cm 두께의 줄을 걸어 다니고, 뛰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방향도 바꾸는 예능이다. 단순한 묘기만 보이는 것이 아



니라 줄 위에서 만담으로 객석과 소통하며 스토리를 엮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묘역 잔디밭에 설치된 작은무대에서는 용인문화재단에서 후원하는 거리아티스트들이 출연해 신나는 재즈와 앙상블 등의 릴레이 공연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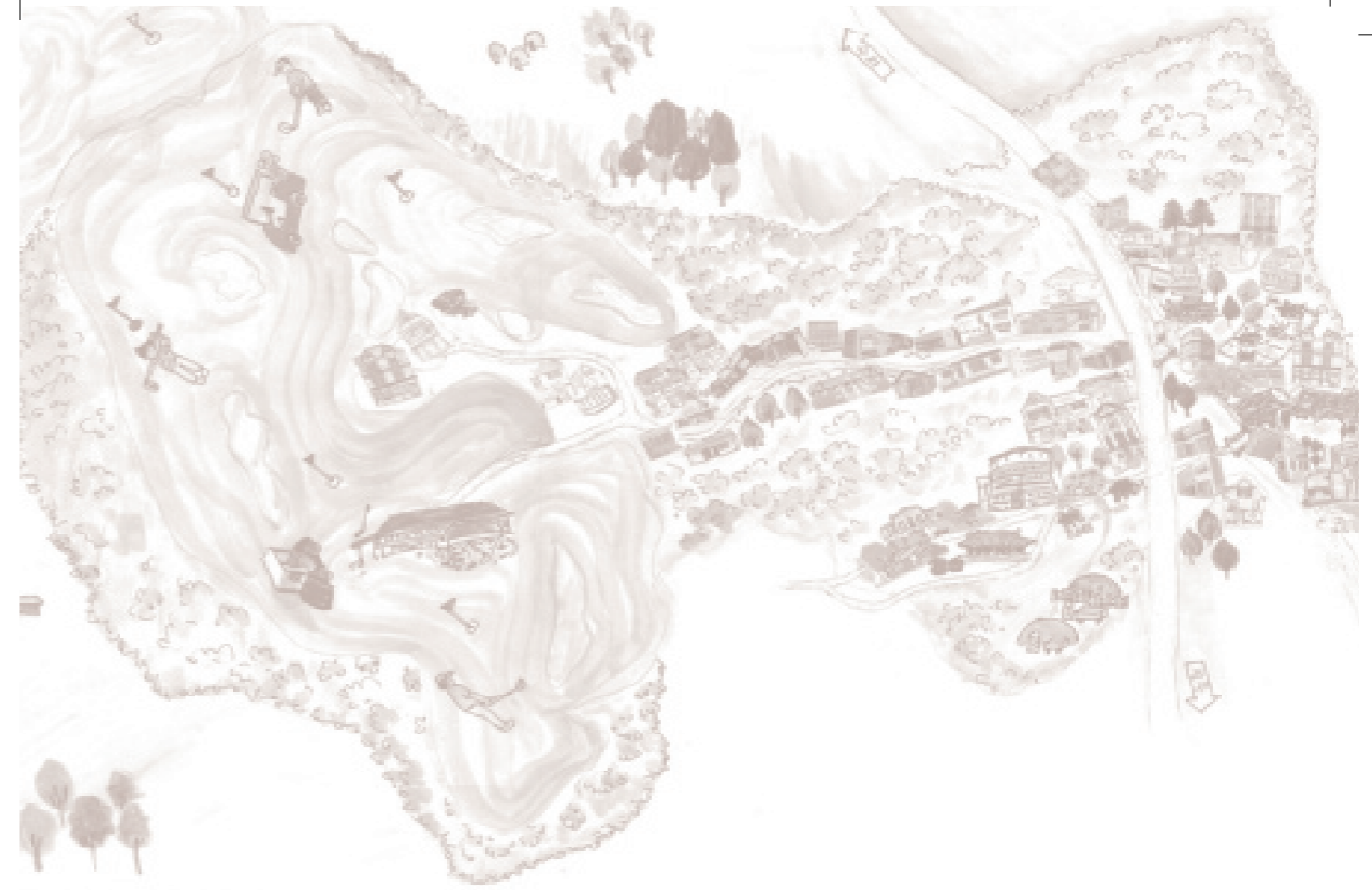
호박등불마을축제

처인구 모현면 능원3리 안골 마을은 전형적인 전원형 농촌마을이다. 농토가 넓지 않아 특용작물이나 신지식 농업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모범 사례이기도 하다. 더욱이 분당이나 수원, 수지 등 수도권 중소도시와 인접해 있으며 교통의 요충지로서 주위에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고려말 충신인 포은 정몽주 선생 묘소를 비롯하여 한국등잔박물관, 마가미술관, 에버랜드가 가까이 있다. 때문에 도시인들을 대상으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박을 재배하여 농가 수익을 창출하는 호박등불마을로도 유명하다.

이곳은 매년 가을이면 호박을 테마로 다양한 호박음식과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호박축제를 개최한다. 마을 곳곳에서 호박을 주제로 먹거리와 볼거리, 체험거리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호박 탈 만들기, 호박 초콜릿 만들기, 호박인절미 떡메치기 체험을 비롯하여 호박 들고 릴레이 등이 열리고, 참가자에게는 호박과 호박가공품 등의 푸짐한 선물도 증정한다. 호박등불마을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산물 등 건강한 먹거리도 구입할 수 있고 호박으로 만든 죽과 식혜를 무료로 시식할 수도 있다. 행사장 원두막에는 1000여개의 호박 전구를 장식해 밤에 더욱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된다. 정월 대보름에는 호박등불 달맞이 축제가 열린다. 각박한 도심 생활에서 벗어나 전원적인 농촌마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농촌체험과 함께 환경 친화적인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힐링 축제가 바로 호박등불마을축제이다.



김장환



4.

생애구술을 통해 본 주민과 삶

삶의 근본인 고향을 지키는 애향민(愛鄉民)

정민교 선생 (1943년생)



홀기(塲記·집회·제례 등 의식에서 그 진행 순서를 적어 낭독하게 하는 의례문서) 낭독하시는 정민교 선생

정민교 선생은 영일정씨 소종중 주손으로 능원리에서 나고 자라 진학을 위해 서울로 상경하여 학업을 마치고 잠깐의 공무원 생활을 제외하고는 오랜 시간 고향에서 살았다. 고향을 품고 사는 연어처럼 당연히 돌아와야 하는 숙명을 지니고 희수(喜壽)를 능원리에서 살아온 것이다.

그는 그 긴 시간 동안 단 하루도 고향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품어 본 적이 없었을까?

때로는 눈물과 격동의 시간이 있던 곳이었기에 코가 삐뚤어지게 소주를 들이켜고 멀리 도망치고 싶은 날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도 사랑하지만 너무도 두려운 사람으로부터 발버둥 치며 날아가고 싶은 날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중중의 일을 해야 하는 숙명을 지키며 능원리에서 살았고 능원리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 그에게 능원리에서의 시간들은 가슴속 깊이 간직한 당

연한 삶의 연속이었다.

젊은 날 정민교 선생은 4H연합회 회장을 거쳐, 능원리 지역사회를 지탱할 조직들을 창설하고 정관을 만들어 체계를 세우는데 힘을 보탰고 노년에 이르러서도 마을에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고향은 삶의 근본이라고 말하며 고향을 지키고 있는 정민교 선생을 통해 능원리를 살펴본다.

향학에 불타던 어린 시절

면담자: 안녕하세요. 코로나라고 하는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운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민교 선생(이하 정 선생): 어서 오세요. 제가 여태껏 운전을 못 배워 멀리 나가지 못하네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집을 모두 소독 해 놓고 지내긴 해요.

면담자: 그러시군요. 저희도 뵙는 것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마을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방역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능원리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이곳에서 학교에 다니신 건가요?

정 선생: 1943년 3월 29일, 음력으로는 2월 24일 능원리 62번지에서 태어났어요. 능원초등학교를 5학년까지 다니고 6학년 올라가면서 서울로 전학을 가서 이후 학업은 서울서 마쳤지요. 6학년 4.18일에 서울로 전학해서 동대문 창신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동중학교와 경동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학은 건국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했구요.

면담자: 이사를 가신 건가요?

정 선생: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저만 전학을 시키신 거예요.

면담자: 능원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면 몇 회가 되나요?

정 선생: 능원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면 8회가 될 거예요. 졸업사진에는 없지만, 그 친구들을 동창으로 만나요.

면담자: 어린 나이였는데 무엇 때문에 서울로 전학을?

정 선생: 공부 때문이지요. 제가 장남이고 아들이니까 서울 가서 공부해야 한다고 할 아버지가 그러셔서 그런 거지요. 공부를 잘하기도 했어요. 자랑 같아 말하긴 그렇지만 제가 늘 1등이었거든요.

면담자: 할아버지께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나 봅니다.

정 선생: 할아버지가 학구열이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우리 집 가풍이 “향학”입니다. 제천에서 8대조 할아버지가 포은 할아버지 계신 이곳으로 이사를 오신 건데 땅 사는데 투자를 하느라 공부 못하셨어요. 그래서 더 향학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지요.

면담자: 함께 사셨나요?

정 선생: 예. 4대가 함께 살았어요.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우리 형제들.

면담자: 정말 대가족이시군요. 어린 시절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정 선생: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아주 엄하셨어요. 아버지께 혼이 나거나 할 때도 한번 막아 주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잘못하면 호되게 꾸짖으셨어요.

면담자: 일반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막아주고 하던데 그런 일은 없으셨군요. 어머니는?

정 선생: 어머니는 저한테 참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모시려 했어요. 보답하려고.

면담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정 선생: 어렸을 때 밥상을 주는데 다른 형제들은 따로 상에서 애들끼리 먹게 하고 나만 할아버지와 겸상을 해서 쌀밥을 더 많이 먹게 하셨어요. 그때는 보리쌀에다 흰쌀

한 움큼 넣어 밥을 한 걸 주는데 할아버지와 한 상에 앉아 겸상하니 할아버지가 흰 쌀밥을 한 수저 크게 덜어서 주시는 거지요. 그때는 쌀밥 보기가 어려웠거든요. 할아버지 사랑, 할머니 사랑, 엄마 사랑 많이 받았어요.

면담자: 어릴 때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정 선생: 예. 그래서 어머니께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었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어머니한테 온 상속분은 너 가져라 하셨는데 제가 포기했어요. 끝까지 모시려 했는데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2년 계시게 했지요.

면담자: 어머니께서 많이 고마워하셨나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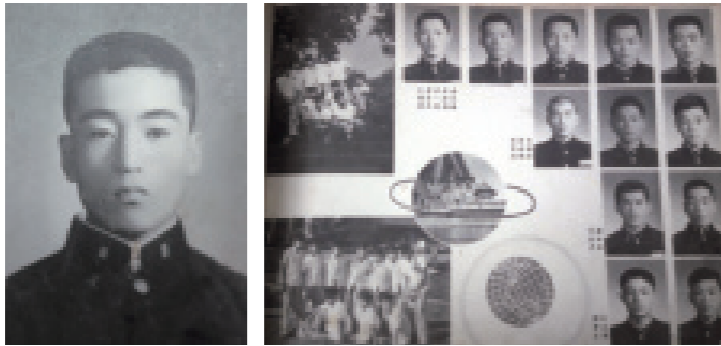
정 선생: 어머니는 끝까지 내 편을 들어 주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뭐라고 하시면 ‘도망가라’ 하고 피하게 해 주시고. ‘술 먹지 말고 운전하지 마라. 술 좋아하니 운전하면 사고 나니 절대로 운전하지 마라’ 늘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다음 날 바로 술 끊었어요.

면담자: 그러셨군요. 그래서 운전을 안 하시는군요. 어릴 때 서울 올라가셔서 할머니는 자주 못 뵈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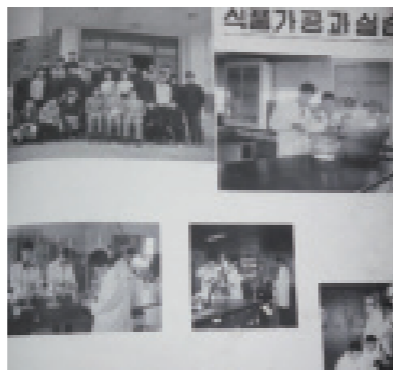
정 선생: 할머니가 서울 와서 밥 해 주시며 극진한 사랑으로 보살피 주셨어요. 중학교 때 큰집에 1년 있다가 자취 생활을 했는데 이때 할머니는 저와 3년을 함께 계셨어요.

면담자: 아! 3년을 손자 보살피려 서울로 상경을?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정 선생: 그렇지요. 나중에 누나랑 동생들도 서울로 올라와서 있을 때까지 함께 계셨어요. 그때는 서울에 5대 공립학교와 5대 사립학교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5대 공립 못 들어가면 내려와라’ 하셔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학창시절 사진



총들과 정착의 시간

면담자: 대학 졸업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 선생: 군 제대해서 고향으로 와서 농사를 지어보려고 했어요. 427평에 농사를 지으려 했지요. 지금은 빌라가 들어선 자리인데 그곳에 배추를 군대식으로 심어놓고 농사를 잘 지어 보려고 했지요.



군인 시절

면담자: 전공을 살려서 영농을 계획하셨나 봅니다.

정 선생: 그랬는데 아버지가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농사짓는다고 나무로 다 부순 거예요. 그래서 소주를 큰 병으로 마시고 뛰쳐나갔어요. 그리곤 초등학교 교사 시험, 공무원 시험, 경찰 시험 다 붙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뭘 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하고 여쭙니 공무원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공무원을 하셨으니... 그래서 공무원을 했어요.



가족사진(30년 전 제사 지내고 찍은 사진. 왼쪽부터 정민교 선생, 둘째 동생, 셋째 동생, 아버님, 넷째 동생, 다섯째 동생)

면담자: 꿈을 접으셨네요.

정 선생: 농장과 과수원을 만들 계획 세웠는데 제가 장남이자 8세 주손이고, 포은 22세손으로 연일정씨 소종중 주손이고 하니 꿈을 내려놓은 거예요.

면담자: 그 후 공무원 생활을 하신 건가요?

정 선생: 68년도부터 경북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어요. 이후 오산 읍사무소 재무계에서 일하다 76년도에 그만두고 모현 농협 직원으로 와서 81년도까지 일하다 자원 사퇴해서 부모님 모시고 종손 노릇하러 농사짓는 일 했지요.

면담자: 원망스럽거나 아쉽진 않으셨어요?

정 선생: 동생들은 다 나가도 나 혼자만이라도 조상 묘를 지켜야겠다 생각하지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20년 되는데 아직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성묘 다니고 해요. 아버지 하시던 종종 일을 맡아서 승계하여 종종회장 일하고, 동생은 향교 유림 일을 맡아서 했어요.



포은 제례 사진

면담자: 그때가 30대이니 왕성한 활동을 고향에서 하셨을 듯합니다.

정 선생: 그렇지요. 4H 연합회 회장을 하기도 했어요. 투표로 제가 뽑힌 거지요. 한 1~2년 했어요. 그



시향제

때 흑 벽돌을 만들어서 교회 짓는데 팔고 그랬어요. 열댓 명 되는 사람들이 산에서 흙을 파다가 벗짚 썰어 섞어서 틀에 넣고 벽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짓는 곳에 파는 거예요. 그때 교회를 지을 때라 그곳에 팔았어요.

면담자: 그러셨군요.

정 선생: 제일 중요한 활동이 85년도인가 86년도에 능원리에 기동순찰대 조직한 겁니다. 88년도까지 초대 대장을 했지요. 동네 순찰도 하고 도둑도 잡고 야간 순찰도 했어요.

면담자: 도둑을 잡으셨다고요?

정 선생: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도둑을 잡았다는 뜻이 아니고, 수상한 사람 보면 경찰에 얘기해서 잡기는 경찰이 잡는 거지요.

면담자: 어떤 계기로 조직을 하게 된 건가요?

정 선생: 경찰서에서 자율기동순찰대 조직하라고 공문이 와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구성하고 40대 희망자를 모집해서 치안 안보 질서 잡아주는 활동을 했어요.

면담자: 선생님께 연락이 온건 4H 연합회 회장을 하셨기 때문인가요?

정 선생: 그때는 능원리에서 대학교 나온 사람이 몇 안 되고 이장 일을 많이 도와주고 하니 기동대 조직 활동을 의뢰한 거지요.

면담자: 마을 치안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듯합니다. 다른 활동으로는 어떤 것을 하셨는지?

정 선생: 84년 통일벼 생산 시작할 때 정부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상신회(相信會)를 만들고 초대 회장은 이장이 하고 저는 초대 총무를 맡았지

요. 조길생 씨가 새마을 지도자 했고. 집안 동생인 정철교라고 쌍용자동차 학원 하던 사람 있는데 그 사람과... 그렇게 몇 사람이 진행했어요.

면담자: 상신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인지요?

정 선생: 82년도 원주민 전체 모임이에요. 능원리 원주민이 회원이 되고 회원들한테 대출해 주고 이자 받아서 운영하는 경제 조직이죠. 경로당에 200만 원씩 지원하고 여행도 다니고 했어요. 그 당시 1984년도에 회원이 48명이었는데 현재는 36~38명 정도 될 거예요.

면담자: 경제 조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정 선생: 경제 활동하는 조직으로 급전이 필요한 회원한테 저리용자 보장해서 싸게 대출해 주고 이자로 운영하는 겁니다. 동네 창고 지어서 임대하는 사업도 하고 해서 40년 되니 현재는 2억가량 되요.

면담자: 회원이 더 늘지는 않았나 봅니다.

정 선생: 82년도 활동으로 나온 돈이니 그 이후 사람은 자격이 안 되지요. 그러니 회원을 못 받아요. 회원 자격은 승계됩니다. 그러니 현재는 많은 사람이 승계한 후손들이에요. 능원리 주민이어야 하니 이사 가면 자격이 박탈되고.

면담자: 원주민의 정이 돈독하겠어요.

정 선생: 72년도에 능원 향우회라고 저를 기준으로 10살 아래 있는 43년생부터 53년생까지 후배들과 함께 11명 시작해서 헐리는 땅 담장 허물고 모래 팔아서 향우회를 조직했어요. 정관도 만들었지요. 품앗이하기 위한 모임이었어요. 30대 초반 한창 일할 때 밭도 매주고 논도 매워서 공동작업해서 번 돈만으로 여행도 가고 했어요. 친목 도모로 동네 큰일 생기면 도와주는 젊은 원주민 모임이었지요. 장례가 있다면 나서서 하고 했어요.

면담자: 마을주민에게 향우회가 큰 힘이 되었겠네요.

정 선생: 90년대 초에는 상록회도 조직했어요.

면담자: 상록회는 어떤 조직?

정 선생: 여기가 고향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고향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매년 두 번씩 만나요. 명절인 구정이나 추석 때 만나서 친목 도모하지요. 회비는 따로 안 걷고 모임 때마다 걷어서 충당해요. 한 집의 사랑방 얻어서 놀던 친구들이랑 회포 푸는 거지요.



마을 일을 함께한 동료들

면담자: 고향을 떠나 명절 때 오면 참 어색하고 할 텐데 그런 모임이 있으면 식구 말고도 만날 친구가 있어서 참 좋을 듯합니다.

정 선생: 그렇지요.

변화하는 능원리를 지켜보며

면담자: 능원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셨으니 변화하는 모습도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떤가요?

정 선생: 87~88년 분당이 들어서면서 동네가 확 바뀌었어요. 생활권이 분당으로 변화한 거지요. 그전에는 풍덕천이나 수원, 광주로 다녔어요. 버스가 하루에 2대인 시절이었는데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더 변했지요. 농지였던 곳에 빌라들이 들어서면서 외부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났고요. 비포장이고 농로가 많았던 곳이 급속도로 발전한 거지요.

면담자: 변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정 선생: 좋은 점보다는 땅값만 올라갔어요. 제가 농사지으면서 틈틈이 부동산 사무실 다녀서 부동산 변화를 유의 깊게 보고 그걸로 돈도 좀 벌긴 했는데 땅값이 참 많이 올랐어요. 88년도에 227평 대지를 2만 5천 원에 팔았는데 지금은 650만 원에 거래돼서 3층 건물 들어섰어요.

면담자: 여기 농협도 꽤 근사하게 들어섰네요. 부친께서 농협 창립에 기여를 많이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 따로 마을지에 실리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자리도 꽤 비싸졌겠는데요?

정 선생: 원래는 모현 농협 능원지점이 92년도 당시 미래 내과 자리였어요. 240평으로 주차장도 좁고 건물도 좀 작았어요. 현재 위치에 건물을 지은 건 2018년도이니 얼마 안 되었어요. 이 땅을 2001년도 등기 이전했다가 조합장이 2번 바뀌었고, 논이고 도시계획에 걸려 미루고 미루다가 설계해서 현 조합장이 지은 거예요. 1,272평인데 길이 248평 들어가서 1,000평가량 될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인감을 받고 위임장을 받아 제가 등기 이전해 준 거예요. 그때 10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8백만 원 될 거예요. 명예 신탁을 해서 난 세금을 몽땅 냈지만 아버지가 농협 창설자시고 저도 농협 이사 8년 했으니 농협은 우리 가족에게 좀 특별했지요.

면담자: 그렇겠습니다. 마을이 변화하면서 외지인 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쯤인가요?

정 선생: 제가 63세부터 경로당 총무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원주민이 얼마 없었어요. 외부인 유입이 증가한 건 90년대가 피크였어요.

면담자: 또 다른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정 선생: 능원리가 분동 되는 게 안타까워요. 입주민이 300세대 넘으면 분동 되는데 행정적으로 300세대만 넘으면 경로당 조직이라던가 하는 설비를 완비도 안 해 놓고 분동을 시키면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거예요. 화합도 어렵게 되고. 능원 4리도 분동은 먼저 해 놓고 내년 3월에 경로당 조직을 한다고 해요.

면담자: 선생님이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2012년에 마을 정화 활동하는 자료 봤습니다. 봉사활동을 늦게까지 하셨네요?

정 선생: 노인회 총무하면서 마을 정화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했지요.

면담자: 능원리의 후배들과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정 선생: '고향을 지켜라. 고향은 삶의 근본이다. 객지에 나가서 살면 출발부터 험난

하다. 나를 품어 줄 수 있는 곳은 고향이니 지켜라'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저희 같은 늙은이들이 고향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만큼 해서 이만큼 만들어 봤으니 후배들과 주민들이 능원리를 더 좋아지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노인회 어르신들이 마을 정화하는 모습

김지혜



400년 이어진 장맛 보실래요? 다인네 외갓집 이문자 선생

처인구 능원3리에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장맛을 전파하는 이문자 선생님이 계신다. 선생님은 연안이씨 저헌 이석형의 18세손으로 2남 6녀 중에 4번째로 태어났다. 제일 큰 오빠는 모현초등학교를 다녔지만 그 다음 언니부터는 능원초등학교에 다녀, 선생님은 1948년도에 입학해서 능원초 7회 졸업생이 되었다.

“사실은 7살에 초등학교를 빨리 간 거지. 시골이라 유치원은 없어서 형제들이 유치원에 간 셈 치고 초등학교에 미리 보냈어요. 1학년을 청강생으로 다녔어요. 그렇게 가서 제대로 다니면 정식으로 2학년으로 올려줘요.

그런데 6월이나 7월이 되면 날이 덥잖아요? 그러면 가기 싫다고 언니나 동생들은 다 안 다니고 나만 다녔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사촌언니가 아버지와 의논하여 공부를 잘 따라오니 그냥 2학년으로 올리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당시 시골에서는 거의 9살에 초등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동창들은 선생님보다 2살이 많다고 한다.

공부를 엄청 잘해서 늘 1등을 했지만, 너무 어려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따라가야 하는 정신적 부담 때문인지 키가 잘 크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1번을 도맡아 놓고 했다. 키가 잘 안 자라는 딸의 모습에 아버지는 발육부진이라고 몸에 좋다는 장어 보양음식을 많이 먹였다. 아버지의 정성어린 음식 덕분인지 키는 고등학교 가서야 훌쩍 자랐다.

대학1학년 때 봄소풍을 갔는데, 담임교수님이 박목월 시인이었다. “야야, 남학생들! 여학생 별명 지었냐?”고 하니까 남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나를 가리키면서 “재는 ‘애기’예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어렸을 때는 ‘애기’라는 별명이 너무 싫었다.

한참 후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너 나보다 크잖아! 언제 그렇게 컸냐?”는 말이 인사였다고 한다.

‘풍치보전지구’였던 능원리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삭막한 서울에서 방학이나 주말에 집에 내려오면 능원리의 자연은 그렇게 싱그럽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능원리는 예로부터 경치가 좋아서 ‘풍치보전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한다. 자연환경이 좋은 이유도 있었지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졌기 때문도 이유일 것이다. 마을에서는 예부터 큰나무를 자르지 못하게 해서 산에는 나무들이 푸르게 자랐고, 이정하 교장선생님은 능원초등학교에 전나무나 무궁화나무로 생울타리를 하고, 안골마을에는 아버지가 단풍나무, 향나무 등을 많이 심어 가꾸었다고 한다. 꽃길 가꾸기, 개천의 수양버들, 포은 정몽

주 묘소 앞까지의 향나무들은 이 능원3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구성요소 중의 하나였다.

어머니가 1934년쯤에 시집을 오셨을 때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재작년(1932년)에 일본에서 소포로 왔는데, 그 단풍나무를 전국으로 퍼뜨린 분도 선생님의 아버지라고 하신다.

“서울로 가서 공부하다 가끔 방학 때 내려오면 꽃이 피고 나무도 많고 숲도 너무 천국같이 아름다운 거야. 5~6월이면 얼마나 찬란해?”

선생님의 부친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자라는 표어를 지은 장본인이다. 개인적으로 했던 말을 보건복지부에서 공식 발표했고, 보건복지부장관상도 탔다. 5.16 혁명 후 가정의례준칙이 발표 됐을 때 서울대 교수와 보건복지부 직원이 전국 유림을 찾아다니면서 사전 조사를 했다. 그때 부친은 사람들이 못사는 이유가 아들 선호 때문이라며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둘만 낳아야 한다고 했더니 그걸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하여 발표했다. 그밖에도 결혼식 허례허식과 장례를 지낼 때 굴건제복하는 것 등 부친이 없애고 새롭게 정한 게 많다.¹⁾

선생님은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하신다.

다른 형제들은 ‘흙 만지면 더럽다 손 망가진다 시골집에서 자는 것도 먼지 많다’고 싫어했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단풍나무 심으러 다니고 김도 매는 것이 재미있었던다. 낚시를 좋아하셔서 낚시터도 따라 다녔고 다람쥐도 같이 잡으러 다녀서 아버지와 추억이 많다. 엄마는 항상 바쁘게 일하는 모습밖에 없고, 지금도 아버지 생각이 더 많이 난다고 하신다.

1) 용인신문 2020.11.9. 용인의 문화예술인

군인과 결혼해서 능원리와 멀어지고

결혼하고 나서는 신랑이 군인이라서 전라도 광주에서도 오래 살았고, 서울서 살 때도 아이들을 학교 보내야 하니까, 그리고 형제들이 서울에 많이 사니까 부모님들이 서울로 오셨기 때문에 능원리에 내려오는 일은 드물었다.

능원리에 가끔 와도 마을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 거의 정지된 상태였다. 어렸을 때 살던 18집은 1990년에 다시 능원리로 들어올 때에 한집이 늘어나 있을 뿐이었다.

“내가 큰애를 임신하고 힘들어서 여기 내려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군인이어서 지프차를 타고 오면, 동네사람들이 차소리가 나면 ‘누구네 사위 오는구나!’ 하고 말할 정도로 여기는 차가 안 들어오는 곳이에요. 정몽주 묘소까지는 차가 들어올 수 있었는데 여기 안길에 찾길을 넓힌 것은 우리 집에 차가 오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상실감이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슬픔

이문자 선생이 능원리에 다시 자리를 잡은 것은 1990년이다. 팔남매가 타지에 나가서 공부하고 결혼해서 살고 능원리에는 부모님만 남아 계셨는데, 1989년 10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였다. 딸만 둘이었던 이문자 선생은 아이들이 다 결혼하면 특별히 서울에 살 일도 없었고 마침 학교도 성남으로 출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귀향이 가능했던 것이다. 어머니와는 만 10년을 같이 살았다.

1999년 8월에 퇴직을 했는데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고 남편이 2000년 1월에 후두암 수술을 했는데, 같은 해 7월에 어머니가 오이밭에서 쓰러져서 뇌수술을 하셨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11월에 돌아가셨다. 남편은 후두암 수술을 하고도 10년을 더 살고 2009년 7월 30일에 돌아가셨다.

이문자 선생의 어머니는 종갓집 맘머느리가 아니었다. 손위 형님이었던 큰댁 맘머느



다인네 외갓집

리는 항상 아프셨는지 머리에 하얀 끈을 동여매고 어머니를 부르셔서, 누구네 무엇을 어디에서 가져다주고, 무엇을 하라는 지시를 하시고는 했는데 일찍 돌아가셨고 이를 대신해 둘째 며느리였던 선생님의 어머니가 만며느리 역할을 하면서 종갓집 장맛을 지켰다.

큰 항아리 5개에는 늘 된장이 가득히 담겨 있었고, 간장 항아리도 5개, 고추장 항아리도 5개, 이런 식으로 항아리가 가득 가득 차 있었다. 먹는 장이 다 달라서 큰제사만 지내는 장, 일반제사 지내는 장, 손님이 오거나 잔치를 할 때 먹는 장, 평상시에 먹는 장 등으로 구분을 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어머니가 남겨 놓은 장독들이 워낙 많아서 100개나 되었다고 한다. 빈 장독도 많았는데, 큰항아리 장독에 뭐가 들어 있나 하고 열어 보았을 때, 그제서야 어머니를 여읜 아픔이 상실감이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고 세상이 다 없어진 느낌이 들고, 항아리를 보면서 형용할 수 없는 엄마에 대한 슬픔 같은 것이 비로소 몰려왔다고 하신다.

“우리가 번성하던 어린 시절은 장독에 장이 항상 차 있었어. 장독이 비니까 친정이 몰락을 했구나. 오빠는 돌아가셨지. 막내가 하던 사업이 파산을 했지. 엄마도 돌아가셨지. 그래서 막연하게 항아리에 장을 채우면 다시 집안이 일어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장을 담아서 항아리를 채워야지.”

그해부터 콩을 심어 메주를 쑤어 장을 만들기 시작하여 사돈에게 보내고 형제들에게도 보내고 친구들도 집에 와서 장을 담아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항아리가 가득 차기 시작했다.

할로윈축제에서 호박등불마을의 역사가 시작되고



2008년 맘모스호박

남편이 후두암 수술을 했는데 상태가 괜찮아서 가을이 되면 아이들이 있는 미국 오리건주에 가서 2~3개월씩 있으면서 겨울을 나고 돌아왔다. 아이들이 살던 미국 오리건주는 할로윈축제의 관광 지정주라고 해서 할로윈 축제를 유난히 성대하게 하는 곳이었다. 집집마다 호박으로 장식을 하고

온 마을과 주민들이 축제를 즐기는데, 3~4년을 보니까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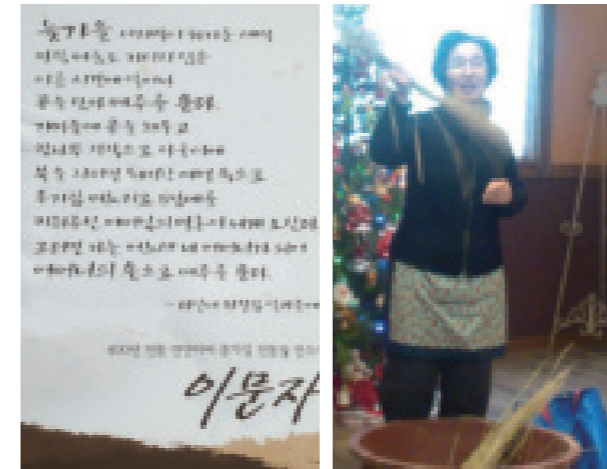
그 무렵에 농원리의 농지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잡목들이 우거지고 수풀만 무성했다. 가까운 성남에 공원묘지가 많이 조성이 됐는데, 공원묘지의 인건비로 7~8만원에 텃밭도 받는데, 농사짓는 인건비는 2~3만원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농사짓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이 없었다.

“조카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문강제에서 살았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고 조카에게 “마을청년회에서 이 사업을 해 보면 어떠냐? 추석 때가 되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오지 않냐? 그러면 그때 가을축제 같이 해 보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어요. 농사를 안 짓던 사람들이니까 호박이 제일 쉬워서 “호박을 심으면 고향에 온 사람들이 사가기도 하고 호박콘테스트도 하고 호박 들고 뛰기도 하면 근동 사람들도 구경을 오지 않을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마을청년회에서 2000년대 초에 호박축제를 3~4년을 했어요. 그래서 호박도 엄청 큰 것을 생산했는데 지금도 가락시장에서 가장 큰 19,500원짜리 맷돌호박 기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시작한 사업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영농법인이 되었다. 선생님은 호박등불마을의 고문으로 호박등불마을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었다. 2006년에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전통테마마을’ 사업을 신청을 하고 예비답사를 와서 집에 준비하게 늘어서 있는 장독을 보고 ‘장담그기’ 체험을 할 것을 권유받았다.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지만 2007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온 36명의 체험을 시작으로 가마솥을 걸고 체험장을 만들고 메주피우는 건조장을 만들어서 체험을 시작하여, 한때는 50가마의 콩을 메주로 만들기도 하였다.

이문자 선생님은 70세까지만 전통장을 만들고 그만두려고 했다고 하신다. 그때가 되면 나이가 들어서 힘도 들고 아이들이 있는 미국으로 갈 생각이었다. 그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방문하셔서 “5년은 충분히 더 할 수 있다. 75세까지 하시고 후계자를 길러 놓고 가야지. 전통체험마을에 장집이 없으면 뭐가 되냐?”는 만류와 함께, 생각보다 건강하고 또 2013년도에 큰딸이 미국에서 귀국을 하면서 ‘전통장 담그기 체험’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2015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수체험 공간으로 지정을 해서, 해마다 봄과 가을



이문자 선생님 일기
장담그기 설명
체험장



화전만들기 체험
체험장에서의 설명

다인네 외갓집 간판

에는 체험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체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500여 명 분의 체험꾸러미를 만들어서 보냈다.

그동안 사라진 것도 너무 많은데 이런 것까지 사라지면 우리가 살던 세대의 삶은 완전히 없어지겠구나...

선생님은 업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연안이씨 400년 전통장맛을 이어간다는 보람이 있고, 또 아직은 건강이 허락하기에 전통음식 체험장을 하고 있지만, 장맛을 이어가려는 전수자가 아직 없다고 한다. 전통장 체험으로는 큰돈을 벌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딸은 오래지 않아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기에 가업으로 물려줄 수도 없다고 하신다. 400년 동안 장을 담아온 가업인데 자손들이 조금씩이라고 여기서 했으면 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계신다.

“내가 그만두면 이 마을에서는 이런 삶이 영원히 없어지겠지. 그동안 사라진 것도 너무 많은데 이런 것까지 사라지면 우리가 살던 세대의 삶은 완전히 없어지고 누군가의 기억속에서 사라지겠구나.

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너무 애착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아직은 사라지는 것보다는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애착이 더 크더라고.”

변화의 시작은 우리집이었다.

30년 전에 다시 능원리로 들어올 때만 해도 원주민만 살았다. 이 마을에서 최초로 신식집을 지었다. 집도 크고 잔디밭도 넓고 베란다가 딸린 수세식 화장실을 지닌 집이었다. 막내딸 친구들이 와서 “너네 집은 부르조아다.” 고 그랬다고 한다. 그랬던 친구들이

요즘 오면 “너희 동네서 너희 집이 제일 오래되고 낡았다” 고 그러더라.

아름다웠던 자연환경. 능원1리는 연일정씨의 집성촌이고, 능원2리와 3리는 연안이씨의 집성촌이었다. 연일정씨와 연안이씨는 인척이라 친했다. 시제나 추석차례를 지낼 때 서로 왕래를 했다. 음력 10월이 초하루부터 15일까지 연일정씨 시제를 끝내면 그 다음에 16일부터 연안이씨 시제를 지냈다. 옛날 분들처럼 하얀 도포를 입은 제관들이 이산으로 주욱 올라갔다가 주욱 내려갔다가 하는 풍경을 10월 한 달 내내 보았는데, 지금은 그것도 능원리의 고유한 문화였던 것으로 느껴진다고 하신다.

훌륭한 조상의 묘소가 있었던 탕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름다웠던 과거의 모습이었다고 회상하신다.

능원리는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변했다.

레이크사이드가 들어오면서부터 골프 치러오는 사람들의 좋은 차가 지나다니더니 주변으로 음식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고, 그 다음으로 빌라 전원주택들이 들어서면서 마을은 빨리 개발이 됐다. 어느 시대 어느 마을이나 다 변하지만 능원리는 너무 빨리 옛 모습이 사라지고 변화됐다. 실개천이 아름다웠던 능원리의 모습은 농지가 사라지고 마을 안길까지 포장이 되고 자동차가 많아져서 경제적 수준은 향상되었을지 몰라도 옛것에 대한 정서는 많이 사라졌다고 하신다.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든 우리 마을 사람이든 누군가가 하나의 문화로 전해지기를 바래. 활성화가 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으로 번창하기를 바라지도 않아. 내가 어려서는 우리 집 장이지만 온 마을의 부녀자들이 전부 모여서 장을 담았지. 그래서 우리집은 항상 잔치집 같았지. 제사. 장담그기, 김장 같은 것은 항상 마을의 여자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하고 같이 밥 먹고 항상 잔치 같잖아.”

김정희



고향 밖의 시선으로 되살린 삶과 기억들

정광교 선생

고향 마을 밖의 시선으로 되살린 고향의 삶과 기억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이번 조사면담에서 마주한 정광교 선생님은 1945년 능원리에서 태어나 살다가 10대 시절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부분적으로 능원리 마을을 떠나 생활을 하였다. 그가 마을의 한 구성원으로서 마을 생활을 기억하고 있는 최초의 것은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기의 일들이다.

20대에 병역을 마친 후 직장생활을 위해 서울로 이주하면서 능원리를 떠나 있게 된다. 이 시기부터 대학 학업을 병행하며 줄곧 서울에서 생활한 때문에 마을의 변화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대소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다. 그렇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한 능원리를 방문하여 고향 사람들과 호흡을 함께 하기를 지속하였다. 그리고 직장생활 중 새롭게 서각과 서예를 익혀 퇴직 후에는 전시회를 열고 능원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해 왔다. 2019년에 대한민국예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2009년에 능원리에서 한 시간 거리의 이천 시골마을에 거주지를 정하고 능원

리의 주된 일들, 특히 영일정씨 포은공 종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마을과 용인 지역사회의 일에 관여하였다. 정광교 선생님에게 마을생활 못지않게 포은종가, 효자비각, 포은묘소, 영모재, 충렬서원 등은 능원리를 기억하는 삶의 큰 부분으로 남아 있다.

그가 기억하는 능원리는 외적으로 어떻게 변해온 것일까? 적어도 영일정씨 일가들이 다수 모여 살아서 동족마을 집성촌에 가까운 분위기를 기억하는 능원리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능골’, ‘능곡’이란 마을 이름이 더욱 친숙하게 남아 있다. 정광교 선생님에게도 이러한 마을 이름은 친숙하고 정겹게 다가온다. 당시 60여 세대 가까이 거주했던 능원 1리는 진짜 능골로 기억된다. 이 1리는 이정표 구실을 하는 효자각이, 능원천을 경계로 3리는 포은선생 묘소가 있어서 밀접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2리는 현재 마을에 바로 인접하여 골프장이 들어서 있는 상태이다. 1970~80년대의 사회변화에 따라 능골과 주변으로도 사람들이 물밀 듯이 들어와 능원천 주변 논밭이 주택지로 변하면서 능원 4리가 생겨나고 곧이어 능원 5리가 생겼으나 지금까지도 나이든 세대에게 이 두 구역은 낯설게 다가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한다.

능원리의 첫 기억, 6.25전쟁과 군인들

정광교 선생님이 6살에 겪은 6.25는 능원리 마을 구성원으로서 지금까지 또렷이 남아 있는 첫 번째 기억이다. 6.25가 발발하고 거의 일주일만에 능원리는 군복을 입고 총칼을 든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로 어수선하고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한다. 당시 살던 집은 안채와 사랑채가 구분되어 있는 상당히 넓은 기와집으로 열여섯 식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세상 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했던 어린 아이에게 낯선 풍경은 신기함과 동시에 어떤 알 수 없는 불안감을 가져왔다.

“그때 국군이 먼저 해가 넘어갈 무렵에 들어와 우리집이 넓다 보니까 연대본부가 우리집으로 들어왔고, 옆에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사단본부가 자리잡았어요. 아

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도 없이 모두 후퇴하고 없더라고요. 하루 저녁도 못자고 떠난 거지요.

그런데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할아버님이 “광교야, 이리 와 봐라.” 하셔서 대문밖으로 지금 종가가 있는 산쪽을 보니 거기가 북덕고개라 하는데요, 울긋불긋한 복장을 하고 말을 탄 인민군이 밀고 들어왔어요. 초등학교에 사단본부가, 우리집에 연대본부인가가 들어와 9.28 서울 수복 때까지 3개월 정도 뭉개고 앉아 있었던 거지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9.28 서울 수복 이후에 10월이 되니까 능골로 유엔군이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운동장에 탱크가 짝 차 있었고, 흑인병사들로 기억하는데 그들은 색시부터 찾는 거였어요. 우리집이 큰집이라서 집안 여성들을 우리집으로 오게 하여 안쪽 방으로 들어가 안전하게 있게 하였어요. 어른들이 입구쪽으로 표나지 않게 장롱을 쪽 세워 막아 탈 없이 하루를 보내게 하였죠. 다행히 다음날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떠났죠.”

이뿐만이 아니었다. 전쟁은 소년에게 연거푸 상처를 남겼다. 그때는 1.4 후퇴 때였다. 전쟁의 상처가 계속되고 있던 차에 무작정 안전한 곳을 찾아 마을을 떠났는데, 그만 길을 잘못 들어 수많은 시간을 겨울 추위 속에서 헤매다가 극적으로 아버지의 눈에 띠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6.25전쟁이 남긴 상처를 극복하면서 정광교 선생님은 집안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소양을 익혀 가게 되었다. 특히 마을에 종손이 함께 살았고, 정광교 선생님이 태어나서 자란 집이 이름만 대면 다 알 만한 큰기와집이었기에 그의 가정 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다정하면서도 엄격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능골 마을 초등학교 바로 옆에 58번지로 기억해요. 제가 거기서 태어났고 그곳이 바로 큰 한옥 기와집이었어요. 1985년에 헐었지만 한 300년 정도 된 건물이라고 전해 들었어요. 형제는 5남 4녀 아홉 남매였고, 제가 아들로 세 번째였죠. 위로 두 분 형님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하고 나이차도 많이 났었죠. 그 다음부터는 누

나들이 있었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할아버님한테 귀여움을 독차지 했어요. 기억나는 것은 태어나서 걸어 다닐 때부터 할아버님 손을 잡고 포은선생 묘소에 사계절 제례 때에 항상 참여를 했고, 어린 나이에 뭐 홀기를 읽을 줄은 몰랐지만 맨날 듣고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커서 지금까지도 공지를 갖고 있어요. 어디 가서 제가 포은선생 후손이고 21대손인데 하고 말이죠. 그러한 관계나 경험 때문인지 1995년으로 기억하는데요, 한 20년 전부터는 총렬서원의 도서를 담당하는 사서장 일을 맡아 하고 있기도 해요.”

청소년기의 꿈, 상록4H클럽 활동

마을 생활에서 정광교 선생님이 기억하는 중요한 일은 6.25의 상처가 아물어간 1960년대 초에 일어났다. 1961년 5.16으로 중앙에서 일어난 정치사회적 변화는 한적한 마을 능원리에도 그 영향이 미쳤다고 한다. 그것은 1962년 그가 고등학교 1학년일 때 마을에서 상록4H클럽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조직은 전국적으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사회 각 마을 단위로 새로운 사회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조직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하였다.

“집안 아저씨뻘 되는 분(정연설님)께서 어느날 저를 포함해 마을의 젊은이 16명을 모이게 하여 도움이 되는 좋은 활동을 하자고 그러셨어요. 모인 사람은 정가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성씨를 가진 사람들도 섞여 있었죠. 우리 마을은 그 조



상록4H클럽 회원들의 속리산 법주사 탐방 (1962년경, 뒷줄 왼쪽 첫 번째가 정광교 선생님)

직을 만들면서 마을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상록’이란 이름을 앞에 붙였는데 그분께서 지어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이 상록4H클럽이고, 주로 우리집 사랑채에서 모임을 많이 하였는데, 회장이나 총무를 정해서 돌아가며 맡아서 마을 봉사일을 했어요. 겨울이 되면 눈이 오는 날 모여서 눈청소를 하고 독거노인이 사는 집의 눈청소도 해주었습니다. 여름에는 산에 가서 풀을 베어와 쌓아 두고 퇴비를 만들었죠. 복조리를 만들어 팔아 돈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저녁에는 우리 사랑채에 공부방처럼 만들어 회원들과 어린아이들 함께 모여 한자를 배우기도 하였고요. 참여한 사람들이 거의가 저와 비슷한 나이대라서 활동을 좀 하나까 다른 지역으로 학교도 가고 군대 가는 친구도 생기고 하여 사람들이 점점 참여하기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1964년경에 거의 활동을 접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처럼 마을 어른의 주도로 16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마을 봉사를 위한 4H클럽 활동을 몇 년간 하였으나 그들의 나이가 10대 말 20대로 들면서 학업과 군대 문제 등으로 이러한 활동은 중단되다시피 하였다. 1970년대 마을 전체가 남녀노소 구분없이 참여하는 새마을 운동을 거치면서 4H클럽 활동은 거의 잊혀졌다고 한다. 다만 이 클럽 모임이 활동하던 때 모현면 전체 회원 40명 정도가 버스 한 대를 대절하여 속리산 법주사를 다녀온 기억이 있었다 하며, 그 일부 기록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 무렵 이제는 성인으로서 직장인이 되어 능원리에서 혹은 외지로 나가 생활하던 옛 상록4H클럽 회원이었던 이들이 다시 고향 마을에서 모여 ‘상록회’라는 친목모임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 모임을 통해 한 고향에서 나서 활동한 기억을 서로 나누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집안의 대소사를 챙긴다고 한다. 1년에 두 번, 즉 여름과 겨울에 능원리에서 부부동반 모임을 갖는 이유는 고향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그 사이 작고한 6명 정도를 제외하고 10명 남짓은 여전히 고향 안팎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처럼 정광교 선생님이 기억하는 상록4H클럽 활동은 10대의 2~3년에 불과하였지만 그 시절을 함께 한 이들에게는 마을살이의 소중한 장면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청년기의 세상, 고향을 떠나 타지로



공군 복무 당시 정광교 선생님(1964~1967)

정광교 선생님은 상록4H클럽 활동을 전후한 10대 시절 고향을 떠나 분당에서 중학교를,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주말과 일요일에는 능원리에 머물렀다. 1964년 고등학교 졸업 후 공군에 입대하여 3년의 병역을 마치고 1967년에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였다. 당시 서울과 능골을 오가는 버스는 하루 2회에 불과하여 고향에 머무르며 직장생활을 지속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결국 고향을 떠나 정년 때까지 서울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입사 후에는 성균관대학교에 진학하여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게 되고 그 바람에 졸업을 하는 데 10년이 걸렸다고 한다. 직장생활 중 결혼을 하고 직장내에서 자산관리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았다. 능원리에서 보고 경험한 영향 때문이랄까. 그의 생활에 시간적 여유가 생겨나면서 1990년대 어느날 그의 발길은 종로3가로 향하였다.

“어느날 노후에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우연히 종로3가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서각 전문 학원이 있어서 한 달에 20만원씩 내고 3년을 배우니까 평생회원 자격을 주더라고요. 쉬지 않고 꾸준히 하던 중에 남의 글씨만 파고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제가 글씨를 직접 써서 서각을 해야 훗날에 남는 것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또 서예를 시작했어요. 퇴직 후에도 그곳에서 5~6년을 더 배웠고요. 2007년부터 미술대전에서 여러 번 상을 받았고 2019년에는 대상도 받았죠. 그러니까 초대작가가 되었고, 능골에 가면 영모재와 종가도 있고 조상들의 얼이 서려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한국전력 동료들과 영모재 앞을 지나며(1968년 8월). 당시 포은선생 신도비에는 보호각이 없는 상태였다.

현관을 만들고 주련도 만들고 했어요.”

이렇게 정광교 선생님이 서울생활 중에 익힌 서각과 서예솜씨는 용인시민들을 위하여 쓰이고, 능원리의 젊은이들에게 전수되고 국군교도소의 수감자들을 위한 재능기부 수업에도 쓰이고 있다. 능원리 포은중중이 오랫동안 간직해 온 역사문화 자산들에도 그의 서각과 서예 솜씨는 조상의 업적을 기리고 정신을 잇는 활동에 쉬없이 쓰이고 있다.

1970~80년대 마을의 변화상

능원리의 눈에 띄는 외형적 변화는 1970~80년대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시기 능

원리 주변인 분당이나 수지 지역의 개발이 시작되면서 능원리 역시 인구가 늘고 거주 지역이 확대되어 갔다. 덩달아 사람들의 생활방식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마을 내에서 긴밀하게 유지되어 오던 기존의 인적 관계, 경제 관계 등도 바뀌어 갔다. 이에 따라 특징적인 것은 능원리 영일정씨 종중과 관련된 일종의 묘지기 관리인 제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

또한 1970년대의 농어촌 전기사업도 능원리에서는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능원리 출신으로 서울 등 외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해 살고 있던 영일정씨 일가의 어른들이 자발적으로 공사 비용을 각출해 당시 이세구 이장과 협의하여 마을 주민들의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능원리는 다른 마을보다 전기공사로 인한 혜택을 먼저 입었다고 한다.

“제가 어릴 때 능원1리의 60여 세대 중 우리 정가 집안은 20세대 정도 되었죠. 거의 나머지 세대들은 우리 집안의 묘소 관리를 하며 때가 되면 제물을 준비해 제사를 지내 주고 땅을 경작해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70년대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면



옛 사랑채에서 부친(정연호님)과 한국전력 동료들이 함께 한 사진 (1968년 8월)

서 주변이 변해 가는 거예요. 전부터 있던 묘지기 관리인 제도라는 그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두 집이 묘지 관리에서 손을 떼기 시작하더니 이제 그것이 하기 싫다고 모두 내려놓는 거예요. 관리인 제도 자체가 점차로 시들해지고 그것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굳이 허리 굽

혀 가면서 하겠습니까? 사회변화에 따라 이제는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80년대 들어오니까 거의 모든 게 끝나는 거죠.”

한편 이와 더불어 주변의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이 능원리의 변화를 더욱 부채질하였다. 즉 능원리와 관련 없던 사람들이 생계와 직장을 찾아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도시생활을 접고 다시 고향인 능원리로 돌아오려는 사람들의 귀향을 머뭇거리게 만들 정도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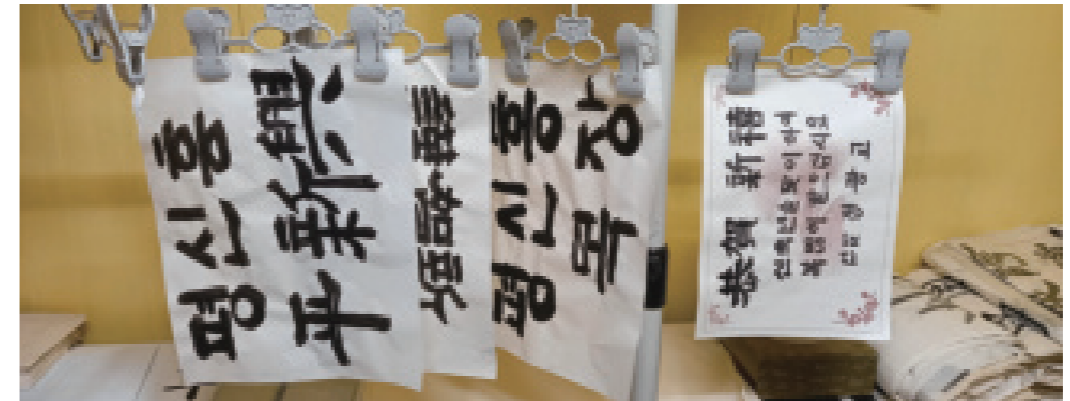
“능골이 70년대까지만 해도 옛날 모습이 그대로 전해 내려 왔었는데 80년대부터 완전히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별안간 옛날 모습이 다 사라지고 도시화가 되다 보니 옛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각박함을 느끼죠. 옛날 능골의 인심은 참 좋았습니다. 율타리 없이도 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집성촌이다 보니까 큰집, 작은집, 아저씨, 조카 등 뭐 이런 일가 관계니까 친숙하지만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우리 하고는 인간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거든요. 상당히 친숙하고 포근하고 좋았는데, 70년대부터 서서히 변화 하더니 80년대 들어 확 바뀌니까 이웃 간에도 서로 누군지 모를 정도로 많이 변한 거예요. 능골이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 것도 한심한 일이지만, 주변에는 빌딩이 올라서고 하는데 고향은 옛날 초라한 것만 있으면 그것 또한 안되는 것이긴 해요. 변화는 좋으나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옛것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인심이 각박해지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지요. 나이 들어서 바라보니 그리움과 변화한 낯선 것이 마음 속에서 교묘하게 다투다고나 할까요.”

다시 찾은 고향, 현재의 일들

2000년이 시작할 무렵 정광교 선생님은 오래 일해 왔던 직장에서 정년을 하고 서울



정광교 선생님 작업실의 서각 작품



정광교 선생님 작업실의 서예 작품

생활을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물론 정년 후에도 대략 5~6년 정도는 서울 생활을 지속하면서 언제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였다고 한다.

“저는 본래 서울 사람이 아니고 용인 사람인 거죠. 포은공 후손으로서 용인에 가 보면 능골에 포은 묘역과 종가, 선산이 다 있으니까 옛날 내 고향이 언제나 그리운 건 사실이지요.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저는 특히 더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어릴적 할아버님 손에 이끌려 할아버님 곁에서 네 살 때부터 천자문부터 읽기 시작하며 그곳에서 자랐는데, 이제는 옛날 것이 거의 없어지고 포은종가도 옛날에 초가집으로 된 큰집이 있었

거든요. 그것을 헐고 그 위로 새것을 올려 지었어. 그래서 종가를 봐도 한옥 기와집이지만 옛것이 아니니까 예전의 느낌이 살아나지 않는 거죠. 거기의 기둥 주련도 제가 새겨서 걸었고 나뭇의 고향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는데 옛것이 아니어서 좀 아쉬움이 묻어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정광교 선생님은 지금은 능원리에서 승용차로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이천의 시골 마을에서 생활하지만 적어도 1주일에 한 번 이상 능원리에 오면 할 일이 자꾸 많아진다고 하였다. 수년간 포은문화제에도 참여하였고, 능원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 서각과 서예 전시회를 여러 번 한 인연으로 토요일마다 동문 후배들을 위해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을의 대소사에도 부분적으로 관여하지만 특히 포은중중의 제례가 있을 때면 빠짐없이 참여하여 준비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한다고 하였다.

“능골이 별안간 옛날 모습이 다 사라지고 도시화가 되다 보니 특히 서각을 하면서는 이웃관계가 중요해요. 서각은 먼지 피우고 소리 내면서 하는 작업이라 이웃관계가 불편해지거든요. 능골로 돌아가지 않고 조용한 시골 마을을 택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죠. 다만 능골은 어느 지역보다 원자재 나무 구하기가 쉬우니 능골에서 하면 조금씩만 노력을 더 해도 좋은 작품들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열심히 하자 해서 고향 후배들에게 강의는 하고 있어요. 제가 나무 자재를 여러 트럭에 실을 수 있을 만큼 보유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나무 자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일 거라 생각해요. 느티나무, 은행나무, 향나무와 각종 나무를 제재소에서 판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 놓고 있어요. 현판을 많이 만들기에 능골의 나무가 필요한 거죠. 가지고 있는 나무의 95%가 능골에서 갖고 온 거예요. 제가 나무 재료를 쓰는 것을 아니까 주변사람들이 나무를 자르면 연락이 와요. 길이를 너무 짧게 자르면 제재소에서 제재가 안돼요. 최소한 1m 20cm 이내로 좀 길게 잘라달라고 부탁하면 그렇게 해 오는데, 자른 것을 실어나르는 비용, 제재 비용 등을 따져 보면 돈 백만 원은 그냥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초등학교

후배들에게 서각 교실에서 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필요할 때 고향 사람들이 나무가 있다고 연락을 해 오니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정광교 선생님은 현재 능원리의 대소사들, 예를 들어 대동회나 행정적인 일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 그 외의 마을 사람들의 일에는 관여하고 있다. 집안일 중 대표적인 것은 포은중중 제례에 관여하는 일이다. 연중 8차례 이루어지는 제례에는 2018년부터 영일정씨 별좌공 회장 겸 모은공 회장 자격으로 홀기를 옛날 방식으로 읽으며 집례를 담당한다.

“갓 쓰고 도포 입고 읽는 홀기라는 게 우리말 번역이 아니라 한문으로 되어 있어 리듬을 타면서 읽어야 해요. 용인시장님이나 주요 관계자분들이 참석하면 서로간 호흡을 맞추는 게 쉬운 일은 아니예요. 산에 올라가서는 음향시설이 없는 야외이다 보니까 육성으로 크게 60~70명이 들릴 수 있게 해야 하고요. 음력 4월 4일의 포은공 기제사는 밤 11시 30분부터 자정 사이에 지내는데, 그 전에 오후 4시가 되면 제가 종가에 가서 손님맞이도 하고 전사청에서 멀리서 온 종인들을 맞이하고 제물 점검과 진설, 제례차례 등을 하고 나면 나중에 기진맥진하게 되요. 또한 제례 전에 협의할 일 있으면 그것도 서너 차례 해야 하고, 여러 변수가 있어서 힘들기는 하지만 마무리 하고 나면 참 보람을 느낍니다.”

이러한 일들은 진행 과정은 힘들지만 행사 뒤에 오는 뿌듯함은 후손으로서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없이 좋다고 하였다. 고향을 위해 또 중중을 위해 스스로 할 일을 찾아가는 마음 속에 여전히 능원리는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도 마을의 성원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드는 하나의 동력이 작용하는 것 같다.

김준권



장용재 여사와 정길영 선생 부부

“하면 되더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걸어 온
 장용재 여사

능원 1리에 살고 있는 장용재(69세) 여사는 단양 장씨 집성촌인 이동읍 서리 상덕마을이 고향이다. 8남매 중 셋째로 1952년 11월에 태어난 여사는 당시 산골의 삶이 대체로 그러하듯 하루 세끼를 갖춰 먹기란 꿈도 꿀 수 없었던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열두 개의 개울을 건너야 갈 수 있었던 먼 거리의 용천국민학교를 친구들과 재잘거리며 등교하던 기억과 등갓길에 풀숲에 숨겨 둔 고구마를 찾아 먹으며 집으로 돌아오던 기억, 냇가에서 달팽이 잡았던 즐거운 추억에 잠시 젖어 보지만 학교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고된 농사일의 힘들었던 기억들... 그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주책없이 눈물이 흘러 눈가를 적신다. 그만큼 어린 시절 가정형편은 어려웠고 부모님은 오빠와 언니 그리고 장용재 여사를 많이 가르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진학을 포기하기 싫었던 여사는 용천국민학교 졸업 후 등록금이 시내의 중학교보다 훨씬 싼 찻던(당시 200원) 천리에 있던 '재건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떼를 써 보았지만 그마저도 형편상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서리는 일찍부터 고구마 싹을 키워 판매해 높은 농가 수익을 낸 대표적인 마을로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4H활동이 시작된 초창기인 1947년 경 서리에도 4H 활동이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 주민이 있을 정도로 서리는 용인에서도 선진지적인 면을 갖춘 그런 마을이었다. 여사는 청소년기 오빠들이 4H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4H 연합회 회원이 되었다. 마을 꽃길도 가꾸고 매월 모여 회의하는 것에도 재미를 느꼈으며 용인군 대표가 되어 '보리영양국수'로 경기도 경진대회까지 출전할 정도로 야무진 면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직장을 얻어 타지로 나간 오빠와 일찍 결혼한 언니의 빈자리 또한 부모님과 어린 장용재 여사의 몫이었다. 당시 손에서 피가 나도록 모를 심고 벼집을 지고 나르고 밭일에 누에치기까지... 힘든 일이란 힘든 일은 도맡아 할 수밖에 없는 집안의 일꾼이었다. 그러니 농사일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겠는가? 그러던 차에 남리에 있던 편물 공장인 동광통산에서 일하던 동생에게 반찬을 가져다주러 갔다가 '사람을 모집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면접보고 합격해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 때가 19살이었다. 당연히 집에서는 난리가 났다. 한창 키우던 누에가 막잠을 자기 시작하던 때라 누에의 똥도 치우고 먹이도 주어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일손이 필요한 바쁜 시기였다. 그런데 도



4H 활동 당시(앞줄 오른쪽 첫 번째 여학생이 장용재 여사)

와주던 친구까지 데리고 가서 함께 취직했으니 난리가 난 건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 일로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지만 아버지는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하는 딸의 성격을 아시고 조용히 지켜봐 주셨다고 한다. 당시에 여사를 대신해 동생이 누에를 보느라 며칠 동안 학교를 못 갔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듣고는 한참을 웃을 수 있었다. 지금은 얼마나 철없는 행동이었는지 웃으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당시 농사일이 얼마나 힘들고 벗어나고 싶었으면 앞 뒤 생각도 없이 면접을 보고 취직했겠는가? 그렇게 4년간 일을 했다.

1976년 12월 14일 포은 정몽주 선생의 18대손(代孫)인 능골의 정길영(70세) 선생과 용인농협 예식장에서 결혼했다. 남편은 4H 회원으로 활동할 당시 용인군 4H연합회 회장이었다. 여러 여성회원들을 통솔해야 했던 입장이었던 정길영 선생에 대한 첫인상은 ‘느끼해서 별로’였다고 한다. 하지만 여러 해 만나다보니 신사다운 면과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임을 알고 결혼을 결심한 반면 남편인 정길영 선생은 경진대회를 위해 발표를 준비하는 장용재 여사의 야무진 모습에 일찍부터 호감을 갖고 있었으며 ‘결혼 상대는 이 사람이다!’란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아랫집에 사는 장용재 여사의 육촌 오빠를 보러온다는 핑계로 서리를 자주 찾아왔고 자랄 때 힘든 농사일을 많이 해 고생한 딸이 안쓰러워 농촌으로는 절대 시집 안 보낸다는 어머니의 반대도 있었다. 하지만 정길영 선생이 입대한 후 서로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사랑의 감정이 싹트고 드디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 특별한 신혼여행은 없었지만 결혼식을 마친 후 택시를 두 대 불러 친구들과 함께 그 해 개장한 ‘자연농원’을 둘러보고 바로 시택으로 왔으며 그 날부터 능원리에서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

“군대에서 제대한 후 연애할 때는 용주사 한 번 가고 영화구경 한 번 간 거 그게 당시 데이트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우리집 양반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나는 키가 작아 걸음도 빠르지 못하는데 이 양반은 키가 커서 성큼 성큼 잘 걷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만치 가다 내가 안 보이면 내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 기다리고 섰다가 또 가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7남매 중 다섯째였으나 위에 세 분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남은 4남매 중 둘째 아들이었다. 하지만 위에 형님은 큰아버지 댁에 자손이 없어 양자로 갔으므로 남편이 이 집안의 장자였다. 시아버님은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고 시어머님은 결혼 후 함께 살았다. 서리나 능원리나 농촌이었지만 능원리와 서리는 많은 부분이 달랐다. 우선 서리에서는 한참을 걸어가야 했던 학교가 능원리는 동네 안에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

서리에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생소하게 느껴진 면도 많았다. 결혼하고 다음해 가을, 시택의 시제를 지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친정 동네에서도 집안 시제를 지냈지만 포은 산소에서 지내는 시제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에서부터 관광버스가 몇 대씩 올 정도로 그렇게 크게 지내는 시제가 있음을 몰랐던 것이다. 포은 선생의 시제는 음력 10월 초하루에 지내고 그 밑에 후손들 시제를 차례대로 음력 10월 보름까지 지낸다.

문중에서 여사 부부의 촌수가 높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대부, 대모라 불렀다. 그것도 처음엔 너무 생소하게 느껴졌다. 서리에 살던 친정 동생들이 겨울 방학이 되어 놀러 왔는데 사람들이 누나와 매형에게 대부, 대모라고 부르니 ‘왜 그렇게 부르는 거냐?’ 물으며 신기해 할 정도였다. 그 만큼 친정 동네에서도 생소한 부분이었다.

또 능골은 집성촌으로 일가친척도 많은 데다가 촌수까지 복잡해 나이 많은 분들을 부를 때 호칭에서 실수가 많았다.



“노인 양반들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났어요. 나는 새댁이니 ‘이 분은 누구다.’하고 소개 해 줘야 알잖아요. 그러니 나이 많은 분에게 ‘할머니 진지 잡주세요.’라고 했다가 형님뻘한테 할머니라고 했다고 ‘촌수가 그게 아닌데!’ 하면서 그 분이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새댁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법을 따지시는 분들은 ‘부부가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까지 나무라셨다. 시어머님 세대에는 평생 시아버님과 겸상하지 않고 부뚜막에서 드셨다고 할 정도였다.

“하늘같은 남편인데 ‘어디 아녀자가 남편하고 겸상해서 먹느냐!’ 이거지요. 어려서 전혀 모르던 것을 능원리로 시집와서 알게 되는 거였어요. 그게 알게 모르게 양반들이 가지고 있던 남녀유별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시집와서도 농사일은 너무나 힘들었다고 한다. 연일 정씨 문중의 시제를 준비하는 대가로 종종 땅인 2,000평의 밭과 1,000평 논에 농사를 지었다. 밭에는 참외도 심고 참깨도 심고 고추, 보리, 콩 등을 심었다. 그렇게 농사를 지어 수확하면 능평리와 분당에서 열렸던 오일장에 버스를 타고 가서 팔아 생활할 돈을 마련하였다. 당시 버스는 하루에 서너 번 다닐 때이다. 모든 농사일이 힘들지만 특히 참외 농사는 더 힘들게 느껴졌다.

“참외는 하도 힘들어서 안 잊어버리는데... 옛날에 참외를 따면 이만큼이나 큰 대바구니에다 참외를 담아서 경운기에 싣고, 난 키도 작은데... 그 거 밭에 가서 하루는 순 쳐내고 또 그걸 따다 부평까지 팔러 갔어야 했어요. 가서 내가 진열을 해야 하는데 그 때만 해도 내가 젊었던 말이야. 촌수는 내가 높았지만 그 때 철교씨가 운행하는 화물차가 있었어요. 세상에 부평 경매장까지 가서 다 진열해 놓고 새벽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가서 서 있고 저기 가서 서 있고 하면서 밤 세운 거 생각하면은 진짜 너무 끔찍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 분이 ‘대모 주무세요.’ 그렇게 이야기 해 줘요. 그래도 못 자는 거야. 그 땐 젊어서. 지금 같았으면 잤겠지. 그래도 너무 힘들니까 올 때는 화물차 중간에 공간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 못 견디겠으니까 거기서 자고 능원리 다 와서 겨우 일어나고. 그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일 했어요. 참외 농사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종종 땅에다 짓던 농사를 내어 놓으며 10년 이상 준비하던 시제도 과감히 내어 놓았다. 교회를 다니면서 시제를 준비한다는 것이 솔직히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개신교 신자였던 시어머니마저도 “이제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당장 먹고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막막함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이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다. 남편은 나무 벌목하는 일을 하다가 다행히 학교 교사(현재 학교관리인)가 되어 학교에 나갔으며 29년간 근무를 마치고 현재는 퇴직했다. 장용재 여사 또한 남의 논과 밭을 매면서 품을 팔기도 했으며 고기를 유통하는 곳에서 육절기로 뼈다귀 자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일 하느라 바쁘고 고단해 다른데 신경 쓸 여력도 없었다. 그러다 1990년대에 종종 땅에서 슈퍼를 운영했다. 슈퍼마켓의 자리는 현재 식당인 황소고집이 있는 그 자리로 상호는 ‘소망슈퍼’였다. 당시 능원리에 슈퍼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운영이 잘 되었다. 그 때 번 돈으로 빌려 쓴 남의 돈도 다 갚고 빌라를 사서 이사하게 되었다. 하지만 8년 동안의 슈퍼 운영도 쉽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끝나는 시간은 매번 새벽 1시,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 밥 해 먹여 학교 보내고... 쉬는 날 없이 일 년 열두 달, 24시간을 슈퍼에 매이는 것이 무엇보다 힘들었지만 점차 교회 갈 때나 급한 용무가 있을 때에는 자녀나 이웃에게 맡기며 도움을 받았다.

“당시 목욕을 가려면 우리 동네에 목욕탕이 없었기 때문에 수지에 죽전까지 가야했었어요. 그 때 대지고개나 태재고개만 넘어도 나만의 시간을 가졌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장용재 여사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있는 성격이다.

“시집가서 부녀회 연말결산총회를 하는데 아무런 보고도 없이 그냥 임원을 뽑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났으면 이래저래 마이너스가 났다든가 플러스가 나면 이러해서 플러스가 났다든가 그런 내용의 보고가 있어야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부녀회 물품 판매 (당시 다락에 부녀회 물품을 진열하고 판매했다.)

에서 바른 말을 했지. 나도 자랄 때 4H 활동도 해보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래도 알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대모가 가져가라’하면서 샅대질까지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때만 해도 젊었을 때지. 아들 낳고 친정에서 한 달 몸 풀고 집으로 왔는데 오는 날 ‘업 들어와요!’ 하면서 부녀회 판매 물품을 리어카에 싣고 우리 집으로 가져 오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작은 애를 낳고 2살까지 부녀회 물품판매 했었어요.”

똑 부러지고 억척스러운 생활력은 9년간 부녀회장을 보면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내가 부녀회장 맡았을 때는 물려받은 부녀회 기금이 없어 방법을 생각하다 메리야스를 떼어다 마을 사람들에게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는 비포장도로 다니던 버스가 하루에 3번 다녔는데 동대문시장까지 가려면 능골 삼거리에서 서울가는 버스를 타고 가서 메리야스를 떼어 왔어요. 메리야스가 엄청 무겁잖아요. 낮에 종일 일하고 저녁에 이걸 머리에 이고 다니며 팔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때 힘든 것은 잇을 수가 없어요. 런닝하고 팬티하고 사이즈별로 백장이상씩은 사와서 팔았는데 메리야스를 따로 살 곳이 없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잘 사줬어요. 보따리 장사가 다니긴 했지만 겉옷만 가지고 다니면서 팔았지 속옷은 안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렇게 부녀회 기금을 모으고 그랬어요.”

장용재 여사 부부는 아들 둘을 두셨다. 일 하느라 늘 바빠서 아들 둘을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우리 며느리는 풍도 아깝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부지런하시고 좋으셨던 시어머니는 부모를 대신해 사랑과 정성으로 손주들을 살뜰히 돌봐 주셨다. 그

리고 부부는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믿고 맡겨 드리며 키웠다고 한다. 이제 그 두 아들은 건강하고 자라 43살, 41살로 각 가정의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었다. 사실 유교의식이 유독 강했던 능원리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요즘이야 그렇지 않지만 당시 동네 사람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우리 아들들은 크게 병원에 간 적이 없고 아프면 목사님께 가서 안수기도 받으며 그렇게 컸어요. 별 한방만 쏘여도 목사님 찾아가 안수 받고 그랬으니까요. 결혼할 때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지만 우리 남편은 기독교 신자였어요. 시아버지는 교회에 안 가셨지만 우리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던 거예요. 열심히 하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 남편은 장로, 나는 권사이고 우리 아들은 집사예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도 그 신앙을 본받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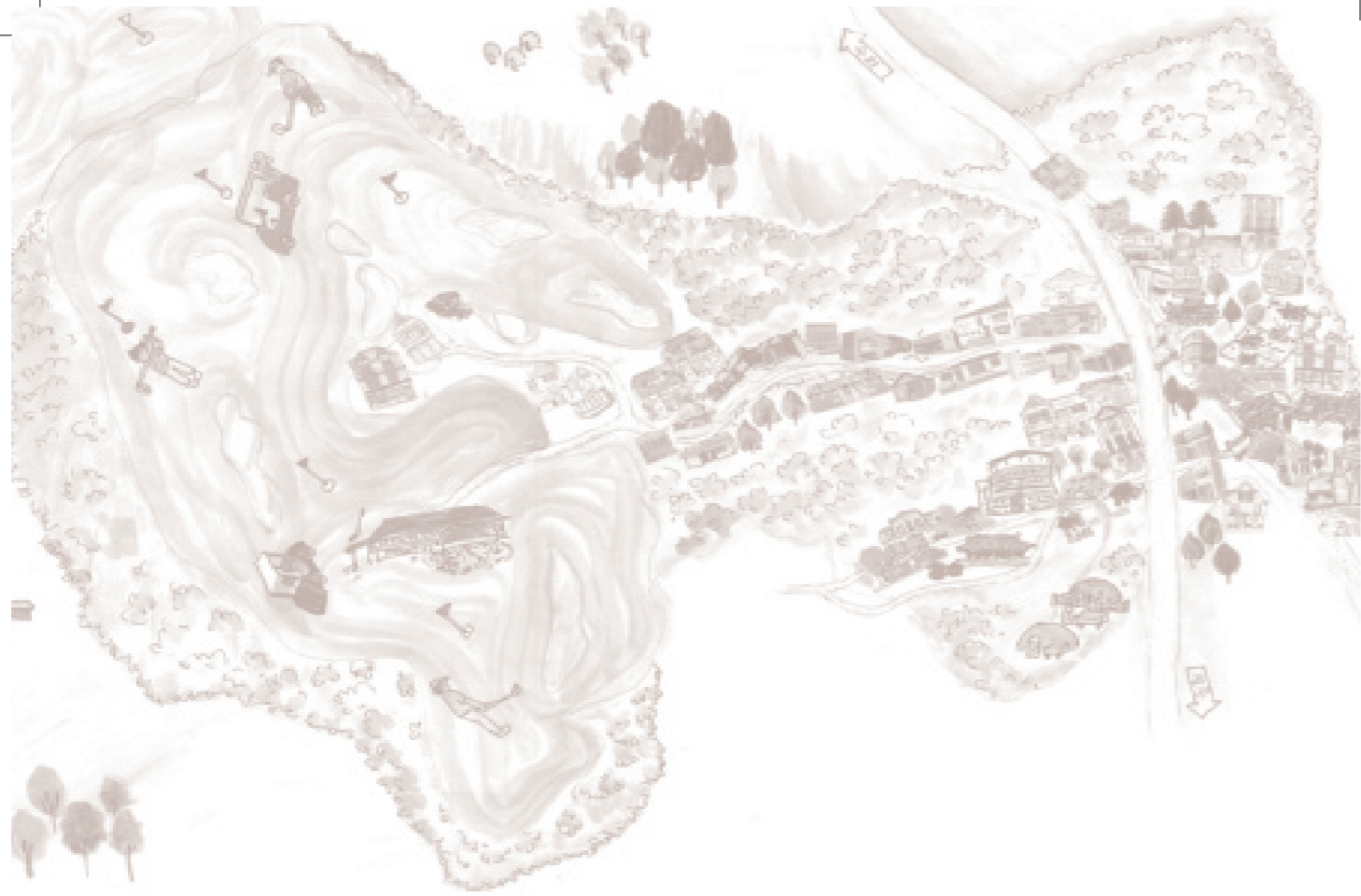
큰 부자로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힘들어도 하면된다는 생각으로 살았다고 말하는 여사는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아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아들들이 건강하고 의리있게 살아 부모의 근심 걱정꺼

리가 되지 않는 것, 수술한 어린 손녀가 앞으로도 후유증 없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것. 이것이 소망이며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하고 있다.



두 아들이 어릴 때의 가족 사진 (지는 사람은 꿀밤이다)

김도영



5.

능원리 이모저모

1. 문헌으로 보는 능원리 _김태근
2. 하늘에서 보는 능원리 _우상표

1. 문헌으로 보는 능원리

조선왕조 실록

선조 35년(1602년) 2월 5일

전교하였다.

"전대 제왕(諸王)의 능묘(陵墓)를 변란을 겪은 뒤이니 각기 그 본관(本官)으로 하여 금 파훼(破毀)된 곳을 수치(修治)하고 나무하고 소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그리고 전대의 충신으로서 신라의 김유신(金庾信)·김양(金陽), 백제의 성충(成忠)·계백(階伯), 고려의 강감찬(姜邯贊)·정몽주(鄭夢周)의 무덤도 또한 봉분을 만들고 나무하고 소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한 것일 뿐 나머지는 다 말하지 못하니 예조에 말하라."

戊辰/傳曰: "前代諸王陵墓, 經變之後, 似當令各其本官, 修治破毀, 禁其樵牧, 前代忠臣, 如新羅之金庾信、金陽、百濟之成忠、階伯、高麗之姜邯贊、鄭夢周之墓, 亦似當封墳, 禁其樵牧。 只舉一二而言, 餘不能悉, 言于禮曹。"

선조 36년(1603년) 5월 21일

예조가 아뢰기를,
"<생략>

또한 선현들의 사묘(祠墓)에는 평상시에 여러 차례 근신을 보내 치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상께서 전대(前代)의 제왕(諸王) 및 충신·현신들의 능이나 묘를 찾아보고 봉식(封植)하도록 특명하시니,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감격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본조에서 여러 차례 행이(行移)하여 찾아보도록 했지만, 개성부(開城府)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치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각도의 보고가 일제히 도착된 뒤에 표표(表表)하게 칭송되는 충신과 현신들의 묘소에는 본조에서 치제하기를 계청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연관이 【특진관 박동량(朴東亮)이다.】 아뢴 말은 참으로 딱 맞는 말이었습니다. 길재(吉再)의 고상한 기풍과 훌륭한 공렬은 지금도 사람들의 이목에 휩싸이며, 정몽주(鄭夢周)의 충성과 의리를 지킨 큰 절개는 한 시대에 빛이 났고 도덕과 학문은 사문(斯文)에 공을 남겼습니다. 이들이 가장 현저하게 칭송되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자손들이 쇠잔하고 미약하여 분묘가 황폐해질 지경에 이르렀으니 지극히 한심합니다. 특별히 근시(近侍)를 보내 별도로 치제하도록 하소서. 이는 풍성(風聲)을 격동시키는 데에 관계되는 문제이니 모두 예전의 준례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뜻은 좋지만 무단히 치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하다. 평상시 한식 때에 향축을 내렸다는 것도 그대로 믿기 어려우니 다시 자세하게 물어보라. 나무꾼과 목동의 침범을 금단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 없겠다. 길재 등에게 치제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禮曹啓曰: "<생략> 且先賢祠墓, 平時屢有遣近臣致祭之規。頃者, 自上特命前代諸王及忠賢陵墓, 訪問封植。凡在瞻聆, 無不感激。本曹屢次行移訪問, 而緣開城府不爲詳悉

馳啓, 至今不得舉行, 極爲未便。待各道齊到後, 忠賢表表稱著之墓, 本曹啓請致祭矣。今經筵官【特進官朴東亮。】所啓, 實爲相符。吉再高風偉烈, 至今照人耳目。鄭夢周忠義大節, 炳耀於一時, 道德學業, 有功於斯文。此最稱著者, 而今其子孫殘微, 丘隴將蕪, 極爲寒心。特遣近侍, 別爲致祭。係是激勸風聲, 竝依舊例舉行何如?" 傳曰: "意則雖好, 無端致祭, 恐未爲穩。平日寒食降香, 亦難憑信, 更爲詳問。若禁其樵牧, 未爲不可。吉再等致祭, 依啓。"

선조 36년(1603년) 9월 9일

비망기로 이르기를,

"전대(前代) 임금들의 능묘(陵墓)는 변란을 겪은 뒤이므로 각각 그 고을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훼손된 곳을 수리하고 초목(樵牧)을 금해야 할 듯하다. 전대의 충신으로 신라의 김유신(金庾信)·김양(金陽)과 백제의 성충(成忠)·계백(階伯) 및 고려의 강감찬(姜邯贊)·정몽주(鄭夢周)같은 이의 묘소도 봉식(封植)하고 초목을 금해야 할 듯하다. 한들만 들어서 말하고, 나머지는 다 말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정원이 아뢰기를,

"성교(聖敎)를 보건대 이대(異代)를 차별없이 추송(追崇)하여 봉식하라는 뜻이 지극하십니다. 예조를 시켜 널리 더 듣고 보아 전대 임금들의 능묘와 충현(忠賢)으로서 뛰어난 일컬어지는 자는 상교(上敎)에 따라 편의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일이 예조에 계하(啓下)되자, 예조가 아뢰기를,

"듣고 본 것이 넓지 못하고 전적(典籍)에는 의거할 곳이 없으므로 쉽사리 거행하기 어려운 형세이니, 각 고을을 시켜 전에 봉식하고 수리한 전대 임금들과 충현으로서 뛰어난 일컬어져 사람들의 이목(耳目)에서 잊혀지지 않은 자를 낱낱이 탐문하여 아뢴 뒤에 처리할 일로 팔도의 감사(監司)와 개성부 유수에게 아울러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예조가 또 아뢰기를,

"이제 각 고을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 뛰어난 자인지를 가리지 않고 다만 지경 안의 유명한 분묘를 범연히 써 보낸 곳도 있습니다. 국가가 봉식하는 성전(盛典)을 혼잡하게 시행할 수 없으므로 계하(啓下)에 따라 뛰어나게 일컬어지는 사람과 전대의 임금들의 능묘를 각각 계본(啓本)에 실린 것에 따라 뒤에 나열하여 적었으니, 각도를 시켜 먼저 봉식하고 나무하거나 방목하는 것을 금하게 하소서. 전대의 임금들과 충현이 이뿐만 아닐 것인데 비망기에 언급된 성충·계백·강감찬같은 이를 각도에서 적어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연대가 오래 되어 알 수 없어서 그런 것이니, 각도의 감사에게 다시 이문(移文)하여 상세히 탐문하여 치계(馳啓)하라고 행이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능묘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 영월(寧越)에 있는 노산군(魯山君)의 묘, 개성부(開城府)에 있는 고려 시조 현릉(顯陵)의 경내에 있는 소목릉(昭穆陵) 열 곳, 경상도 김해(金海)에 있는 가락국 시조 수로왕(首露王)의 능, 경주(慶州)에 있는 신라 시조 혁거세(赫居世)의 능, 김춘추(金春秋)의 능, 김양(金陽)의 묘, 미추왕(味鄒王)의 능, 효소왕(孝昭王)의 능, 선덕왕(善德王)의 능, 대각간(大角干) 김유신(金庾信)의 묘, 진주(晉州)에 있는 증 대사간(贈大司諫) 조식(曹植)의 묘, 예안(禮安)에 있는 상락공(上洛公) 김방경(金方慶)의 묘, 증 영의정(贈領議政) 이황(李滉)의 묘, 인동(仁同)에 있는 고려의 충신 주서(注書) 길재(吉再)의 묘, 청도(淸道)에 있는 김일손(金駟孫)의 묘, 밀양(密陽)에 있는 문간공(文簡公) 김종직(金宗直)의 묘, 흥해(興海)에 있는 증 영의정 이언적(李彦迪)의 묘, 함양(咸陽)에 있는 증 우의정(贈右議政) 문헌공(文獻公) 정여창(鄭汝昌)의 묘, 현풍(玄風)에 있는 증 영의정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의 묘, 경기 장단(長湍)에 있는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의 묘, 문경공(文敬公) 김안국(金安國)의 묘, 증 우의정 서경덕(徐敬德)의 묘, 주계군(朱溪君)의 묘, 고양(高陽)에 있는 고려 공양왕(恭讓王) 양위(兩位)의 묘, 용인(龍仁)에 있는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의 묘,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의 묘, 황해도 해주(海州)에 있는 문헌공(文憲公) 최충(崔沖)

의 묘, 평안도 평양(平壤)에 있는 기사(箕子)의 묘, 중화(中和)에 있는 동명왕(東明王)의 묘.

壬戌/備忘記曰: "前代諸王陵墓, 經變之後, 似當令各其本官, 隨便修治破毀, 禁其樵牧, 前代忠臣如新羅之金庾信、金陽, 百濟之成忠、階伯, 高麗之姜邯贊、鄭夢周之墓, 亦似當封植, 禁其樵牧。 只舉一二而言, 餘不能悉。" 政院啓曰: "伏觀聖教, 其無間異代, 追崇封植之意, 至矣。 令禮曹, 廣加聞見, 前代諸王陵墓及忠賢之表表著稱者, 依上教, 從便施行宜當事。" 啓下禮曹。 禮曹啓曰: "聞見未博, 典籍無憑, 勢難容易舉行。 令各官, 在前所封植修治前代諸王及忠賢表表著稱, 在人耳目, 不至(諍設)〔湮沒〕者, 一一訪問, 啓聞後處置次, 八道監司及開城府留守處, 並爲行移何如?" 上從之。 禮曹又啓曰: "今見各官所報, 或有不辨表表與否, 只將境內有名墳墓, 泛然書送之處。 國家封植之盛典, 不可混施。 依啓下表表著稱人及前代諸王陵墓, 各以啓本內所載, 開錄于左, 令各道, 先爲封植, 禁其樵牧。 前代諸王及忠賢, 必不止此。 如備忘記所及成忠、階伯、姜邯贊, 各道不爲開報。 是必年代久遠, 未能聞知而然。 各道監司處, 更爲移文, 詳細訪問馳啓事, 行移何如?" 啓依允。 江原道 寧越 魯山君墓、開城府 高麗始祖顯陵境內昭、穆陵十處, 慶尙道 金海 駕洛國始祖首露王陵、慶州 新羅始祖赫居世墓、金春秋陵、金陽墓、味鄒王陵、孝昭王陵、善德王陵、大角干金庾信墓、晉州贈大司諫曹植墓、禮安 上洛公 金方慶墓、贈領議政李滉墓、仁同 高麗忠臣注書吉再墓、淸道 金駟孫墓、密陽 文簡公 金宗直墓、興海贈領議政李彥迪墓, 咸陽贈右議政文獻公 鄭汝昌墓、玄風贈領議政文敬公 金宏弼墓、京畿 長湍 文成公 安裕墓、文敬公 金安國墓、贈右議政徐敬德墓、朱溪君墓、高陽 高麗 恭讓王兩位墓、龍仁 文忠公 鄭夢周墓、文正公 趙光祖墓、黃海道 海州 文憲公 崔沖墓、平安道 平壤 箕子墓、中和 東明王墓。

광해 2년(1610년) 2월 6일

전교하였다.

"전대 제왕(前代諸王)의 능묘가 세월이 오래되었는데다 수호하는 사람이 없으니 필시 허물어질 걱정이 많을 것이다. 각각 그 고을로 하여금 편리에 따라 수선하고 소제하

게 하여 나무하는 사람과 소먹이는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게 하라. 그리고 전대의 대표적인 충신으로서 신라의 김유신(金庾信)·김양(金陽), 백제의 성충(成忠)·계백(階伯), 고려의 강감찬(姜邯贊)·정몽주(鄭夢周) 등과 같은 이에 대해서는 그 묘를 봉분해 주고 나무를 심고서 불을 금하고 벌채를 금하게 하라. 이것은 단지 그 중에 한둘만 거론한 것이다. 나머지는 다 말할 수가 없다.“

傳曰: "前代諸王陵墓, 年久之餘, 守護無人, 必多頽毀之患。 令各其本官, 從便修掃, 禁其樵牧。 前代忠臣表著者, 如新羅之金庾信·金陽、百濟之成忠·階伯、高麗之姜邯贊·鄭夢周等, 亦令封植其墓, 禁火、禁伐。 此只舉其一二, 餘不能盡言。 "

인조 21년(1643년) 4월 24일

전 전첨(典籤) 정준(鄭儁)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옵니다. 신의 선조인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는 동방 이학(理學)의 조종으로 인륜과 사표(師表)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아조(我朝)의 열성(列聖)들께서 이미 시호의 전례(典禮)를 거행하고 또 포장(褒獎)하는 은전을 내렸습니다. 영천(永川)은 바로 선조가 사시던 곳이라 하여 묘우(廟宇)를 창건하고 중묘(中廟)께서 임고(臨臯)라고 사액하셨는데, 이제 인동인(仁同人) 생원(生員) 장학(張學) 등이 조정과 사림에게 품의하지도 않고 선정신(先正臣) 장현광(張顯光)을 나란히 앉혀 병향(并享)하였으니, 이를 보고 들은 모든 사람이 그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사론(士論)은 다 배향(配享)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장학 등은 오히려 배향론을 주장한 유생 박돈(朴墩) 등 네 사람에게 감히 벌을 가하여 사림의 공론을 막으려고 하니, 어찌 원통하지 않습니까.

선묘조(宣廟朝) 때 용인(龍仁)의 서원(書院)(충렬서원)에는 문충공을 주벽(主壁)으로 삼고 선정신 조광조(趙光祖)를 배향하였으며, 송도(松都)의 서원(書院)에는 선정신 서경덕(徐敬德)을 배향하였는데, 유독 임고 서원에서만 감히 후학 장현광을 병향해서야 되겠습니까." 하였다. <생략>

前典籤鄭儁上疏曰: 伏以, 臣先祖文忠公 鄭夢周, 以東方理學之祖, 爲人倫師表之極, 故

我朝列聖, 既舉尙德之典, 更加褒獎之恩。 以永川乃先祖舊居之地, 創建廟宇, 而中廟賜額曰臨臯。 今者仁同人生員張學等, 不稟於朝廷, 不議於士林, 以先正臣張顯光連坐竝享, 凡百瞻聆, 孰不驚駭? 士論皆以配享爲定, 而張學等乃敢施罰於配享主論之儒生朴墩等四人, 而欲鉗制士林之公論, 不其痛哉? 在宣廟朝, 龍仁書院則以文忠公爲主位, 而以先正臣趙光祖配享焉; 松都書院則以先正臣徐敬德配享焉。 獨於臨臯書院, 乃敢以後學張顯光竝享乎? <생략>

숙종 34년(1708년) 12월 30일

부교리(副校理) 이정신(李正臣)이 상소(上疏)하기를,
<생략>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는 도덕(道德)과 절의(節義)가 고금에 탁절(卓絶)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去年)에 묘하(墓下)의 서원(書院)을 이건(移建)할 적에 재력(財力)을 판출(辦出)하기가 어려워 호조(戶曹)와 병조(兵曹)에 빚을 쓰기를 청하였는데, 올 가을 이래로 여러 차례 독촉 징수하였으나, 원유(院儒)가 힘써 갚을 길이 없으므로 장차 재목(材木)과 개와(蓋瓦)를 산값으로 마구 팔아서 빚 갚는데에 마련하려고 합니다. 전하(殿下)께서 만약 호조와 병조에 명하여 특별히 그 채전(債錢)을 탕감(蕩減)하게 하시면, 전하께서 존현(尊賢)하는 덕이 어찌 빛남이 있지 않겠습니까?

副校理李正臣上疏曰: <생략>

文忠公 鄭夢周道德節義, 卓絶今古, 而昨年墓下書院之移建也, 財力難辦, 請債于戶、兵曹, 今秋以來, 累次督徵, 而院儒無以拮据, 將欲斥賣財瓦而備納云。 殿下若命兩曹, 特減其債錢, 則殿下尊賢之德, 豈不有光乎?

정조 16년(1792년) 5월 12일

고려(高麗)의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와 참의(參議) 정보(鄭保)의 무덤에 치유(致侑)하였다.

致侑于高麗 文忠公 鄭夢周、參議鄭保墓

고종 36년(1899년, 광무(光武) 3년) 5월 18일

특진관(特進官) 정낙용(鄭洛鎔)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의 선조(先祖)인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의 분묘(墳墓)가 용인군(龍仁郡)에 있는데, 그 묘산(墓山)을 봉환(封還)하여 경계를 정하고 표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봉환한 가운데 오윤겸(吳允謙)과 오달제(吳達濟)의 무덤이 있습니다.

일찍이 신의 선조의 외손이 장지(葬地) 한 곳을 허락하고 국내(局內)를 감히 침범하지 못한 지 수백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초한 후손이 산 아래에 살면서 사사로이 이익을 도모하여 땅을 개간하고 세를 징수하였으며 숲을 구워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온 묘역이 벌거숭이가 되었으니, 가슴 아픔을 이기지 못하여 부군(府郡)에 가서 명백히 판결(判決)해 달라고 호소하여 선비들의 논의가 일제히 일어나 중추원(中樞院)에 의견을 제기하였으니, 이것이 공정한 의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뒤이어 예부(禮部)의 신하에게 명하여 묘산을 환봉(環封)하여 경계를 정한 것은 전부 열성조(列聖朝)에서 특별히 베푼 은전(恩典)에 의거한 것임을 거듭 밝혀 주시고, 부군에 명하여 화전(火田)을 일구고 숲을 굽는 등의 일을 엄격히 금지시킨다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다행일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은 법부(法部)로 하여금 재판을 한 후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特進官鄭洛鎔疏略: "臣先祖文忠公 鄭夢周墳墓, 在於龍仁郡, 而封環其墓山, 定界而表之者也。 其封環中, 有吳允謙、吳達濟之墓, 曾以臣先祖之外裔, 許其一葬地, 不敢見侵於局內者, 爲屢百年所。 不肖悖孫, 居在山下, 營私牟利, 蕃畚而收稅, 埋炭而殖利, 全局童濯, 不勝痛迫, 往訴府郡, 明白聽決, 士論齊發, 獻議樞院。 此可見公共之論也。 伏乞仍命禮臣, 墓山環封經界, 一依列聖朝特施之典, 申明之。 又命府郡, 嚴禁火田、埋炭等節, 以幸公私焉。" 批曰: "疏辭令法部裁判後稟處。"

규장각 문서

각사등록(各司謄錄)

경기도각군보고 2

발신자 유진철 (용인군수)

수신자 내장원경 임시서리 경부협판

발신일 광무5년(1901년) 1월 일 보고서 제1호

即到本院第十五號 訓令內開에 本郡所在忠烈寒泉兩院土는 卽是本院所管으로 查檢定賭¹⁾야 既係帑需¹⁾하니 其所綦重이 與他迥別이거늘 本郡陵谷居鄭主事爲名人이 稱付度支部라¹⁾고 無難收去云¹⁾하니 究厥所習¹⁾하면 極庸痛歎¹⁾은더러 本郡言之¹⁾야도 不由報院¹⁾고 擅自出給¹⁾야 致欠帑需¹⁾케함이 言念事體에 寧容若是리오? 不容不查明歸正이기로 茲用訓令¹⁾하니 到卽已經定賭租十九石六斗三升, 太七石十斗을 趁卽輸納¹⁾야 俾無遲緩生梗¹⁾함을 爲要이시온바 依訓飭督納次오인 鄭主事를 招致矣러니, 右賭條을 已納於度支部, 而受置尺文이다 現納該部尺文이온즉 自郡으론 勢難強督於已納之民이을기 該尺文을 粘後上送¹⁾호오니 亦自本院으로 詳考于度支部¹⁾하시와 參量措處¹⁾하시를 爲¹⁾와 緣由를 茲에 報告¹⁾호오니 查照¹⁾하시를 要¹⁾함.

광무 5년 1월 일

龍仁郡守 兪鎮哲

內藏院卿臨時署理警部協辦 閣下

此係本院所管者, 不由報院, 擅自出給, 一直斬緩, 誠甚慨歎, 鄭主事與本郡首書記, 起送本院, 以爲處辦向事。

홍선대원군의 서원정리에 따라 용인의 충렬서원과 한천서원이 훼손되었는데 토지는 당시에 내장원¹⁾ 소관이 되어 도조를 거두었다. 이때 능곡(능원리)에 사는 정주사 등

1) 내장원(內藏院): 대한제국 시기 궁내부 산하에서 황실의 재산을 관리하던 기구. 원래는 내장사로 출발했다가 1899년 내장원으로 바꾸고 조선시

이 탁지부에 납부한다며 도조를 거두었다. 용인군은 무단으로 내장원에 납부하지 않고 경과한 도조를 즉시 납부해야 하나, 정주사를 불러 문초하니 이미 탁지부에 납부하였다고 하기에 이에 척문²⁾을 보내니 참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보냄. 이에 내장원에서는 본원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은 개탄스러운데 정주사와 수서기(首書記)를 내장원에 보내면 처분하겠다고 답함

훈령존안(訓令存案)

용인군에 지시한 미납 포세(庖稅)³⁾ 징수 상납 독촉 훈령

발신자 내장원경경무사 임시서리 李容翊

발신일 광무 6년(1902년) 5월 31일

수신자 용인군수 任軒宰 좌하

訓令 三號

本郡所在庖肆稅額이 係是帑需로 所用이 萬萬時急이어늘 何由로 各庖之稅金을 踰年 拒納인지 事不妥當故로 茲에 左開發訓하니 到即準施하며 所謂官庖饌庖等私屠之弊는 一切嚴禁하코 辛壬兩年條를 這這督捧하야 使之輸納本院이고 以莫重國稅로 毋至欠損 生梗케 하믄 爲要 .

左開

柳室庖稅三十六兩

陵谷 三十兩

郭墟 三十兩

濱陽 三十兩

庖主 李春三 八十兩

대의 역둔토, 궤철 서원토 등을 국가 소유로 만들어 관리했다. 내장원 토지의 수세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2) 척문(尺文): 예전에, 세금 따위를 받고 내어 주던 영수증이며 여기서는 탁지부에 납부한 영수증

3) 포세(庖稅): 가축 도축에 대한 세금, 도한(屠漢)·포정(庖丁)·백정(白丁)에 부과하였다.

金泰鉉 五十兩

以上 辛丑條 未捧合錢 二百五十六兩 .

용인군의 포사(庖肆, 도살업)세는 탕수⁴⁾에 관계되는 것인데, 해를 넘기며 미납하고 있어 독촉하고 있으며, 어떤 이유라도 불문하고 무단 도축한 폐해는 辛丑(1901)년과 壬寅(1902)년 두해의 세금을 일일이 납부를 독촉하여 본원에 수납토록 하게 하여 막중 국세가 손실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하라는 훈령이며, 이 가운데 능곡(능원리) 납부액은 30량이다.

훈령존안(訓令存案)

내장원에서 용인군수에게 각 사도한(私屠漢)의 체포와 사도세(私屠稅)의 납부를 통보

발신자 내장원경 의정부찬정탁지부대신임시서리 李容翊

발신일 光武六年九月十二日 (1902년 09월 12일)

수신자 용인군수 申容均 좌하

訓令 五號

本郡庖稅收刷事로 發이 不啻一再이되 尙無如何之報하니 事既漫漶而現聞多設私庖하야 名曰饌庖라하코 循其奸細輩之私慾하코 不念國課之重하니 在郡舉行이 何若是慢忽인지 事不妥當故로 茲에 左開發訓하니 到即准此施行하되 各處無私屠之漢을 一一捉囚 郡獄하코 督捧私屠稅하야 罔夜輸納本院하야 以莫重帑需로 無至欠損生梗하믄 爲要 .

左開

柳市庖稅金 三十六兩

陵谷庖稅金 三十六兩

郭墟庖稅金 三十六兩

4) 탕수(帑需): 내탕금(內帑金) 즉 황실 비용에 필요한 재원

濱陽里庖稅 金三十六兩
 庖主李春三稅金 八十兩
 金泰鉉稅金 五十兩
 合錢二百七十四兩

내장원에서 용인군수에게 포세 건으로 통보를 계속 내려보내고 있는데도 사포(私庖, 무단 도축)한다는 말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 찬포⁵⁾라 하며 간사하게 사육을 채우고 국가 재정의 막중함을 생각하지 않으니, 군에서도 소홀히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고로 다시 발훈하니 도착 즉시 시행하여, 각처의 사도지한⁶⁾을 일일이 군옥에 체포하고 사도세(私屠稅)를 납부 독촉하여 본원에 납부하여 막중한 탕수가 손실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훈령이며, 이중 능곡은 36량이다.

훈령존안(訓令存案)

용인군에 지시한 庖稅(포세) 납부 거부자의 포세 징수와 불법 도살자 벌금 부과 훈령

발신자 내장원경 이용익

발신일 광무 7년(1903년) 12월

수신자 용인군수서리 양지군수 李承玉 좌하

訓令 七號

現接本郡庖肆派員 金成九所報 則各庖가 稱托官庖饌庖 頑拒稅納之致로 已爲屢報 發訓本郡이오되 頑彼庖漢이 一向拒納 藉托病牛 處處私屠 禁之不得이오니 苟如該郡이오면 法無所施이옵기 拒納庖漢을 列名報告이오니 查照하신 후 發訓督捧하시와 以完公納이란 等因으로 茲庸發訓하니 一依左開督捧하야 罔夜輸納하며

5) 찬포(饌庖): 소나 돼지 등을 잡아서 그 고기를 파는 가게
 6) 사도지한(私屠之漢): 사적으로 도축하는 사람

私屠漢은 衣章程收贖하야 亦爲輸納이되 無或有如前漫漶하야 免致生梗하미 爲宜事 .

左開
 陵谷庖 二百兩
 石字庖 四十兩
 有實庖 一百七十兩
 驛邨庖 一百七十兩
 飛良田 一百九十四兩
 松田庖 一百五兩
 金良場 一月條
 倉洞庖 一百九十八兩
 田弓庖 一百八十五兩
 三巨里庖 二百兩
 石峴庖 一百七十兩
 西根川 六十兩
 甫野庖 六十兩
 豐德川一月條 二十四兩

용인군 포사과원⁷⁾ 金成九의 보고한 바에 따르면 관포(관청에 바치는 도축)이니 찬포라하며 세금 납부를 완강하게 저항한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여 용인군에 발훈하는 것이며 완강한 포한(庖漢, 도축하는 사람)이 계속 납부를 거부하며 병든 소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사적 도축하면 금지가 어렵다. 그래서 납부를 거부한 포한의 명단을 통보하니 조사하여 납부하도록 하여 공납은 완수해야하는 고로 발훈하니, 납부를 독촉

7) 포사파원(庖肆派員): 내장원에서 포사세를 거두기 위해 파견한 관리

하여 즉시 납부토록 하며 사도한은 법에 의거 속전⁸⁾을 거두어 납부하여 미진함이 없게 하여 문제 발생을 방지하도록 주의하라는 훈령이며, 이 가운데 능곡(능원리) 납부액은 200량이다.

각사등록(各司謄錄)

경기도 각군보고

발신자 玄燦鳳 (龍仁郡守)

수신자 內藏院卿

발신일 광무 8년 7월 18일(1904년 07월 18일)

報告書

本郡慕賢面所在忠烈院土上納賭租가 合爲九石五斗, 而聽其該舍音所告, 則三石은 捧稅官이 已爲減給, 則實納이 六石五斗이다호두, 其所減給은 未知緣何인지 未承訓飭호고 只憑口訴가 其在舉行에 極涉模糊인 故로 緣由를 茲에 報告호오니 查照호신 後, 減與不減에 指一指令호시를 伏望。

指令

龍仁郡守, 本郡忠烈院土賭租九石五斗內三石, 舍音所告捧稅官減給, 未知緣何, 極涉模糊事, 有數公穀을 該員이 豈有擅減之理乎아? 該舍音之所告가 極涉叵測이니 嚴飭督捧호야 准卽上納호를 事。

광무 8년 7월 26일.

용인군 모현면 소재 충렬원토 상납하는 도조가 9석 5두인데 사음(마름)의 보고가 봉세관이 6석만 납부하였는데 연유가 모호하다고 하자, 내장원도 이 보고가 모호하다며 사음의 보고를 이해할 수 없으니 엄히 독촉하여 즉시 납부하라는 지령을 보냄

8) 속전(贖錢): 죄를 면하고자 내는 돈

한국독립운동사자료

폭도체포의 건에 관하여 수원경찰서장 보고요령

발신자 경기경찰부장 警視飯田章

수신자 경무국장 松井茂

폭도체포의 건에 관하여 본일 수원경찰서장 보고요령

융희 3년(1909년) 4월 4일 출장중의 大澤 감독순사의 보고는 아래와 같다.

1. 일행은 4월 4일 용인군 상동면 덕동 및 덕성리 부근의 산중을 수색중 오전11시 거동이 이상한 한인 1명을 체포하였던바 말이 이상하고 한국식 칼을 휴대하여 심문하였던바 수괴 이익삼의 부하로 용인군 모현면 부계리 사는 김명화임을 자백하고 그리고 동인은 지난달 31일 이후 수괴 이익삼과 같이 포곡면 송곡 및 상동면 덕성리 부근을 배회하고 금품을 약탈한 자로서 현금 십오원을 소지하였다.

이상 보고함.

폭도수괴 체포에 관하여 수원경찰서장 보고요령

발신자 京畿警察部長 飯田章

수신자 警務局長 松井茂

용인군 모현면 능동 거

폭도수괴 이익삼

위 자는 제작년(1907년) 폭도가 봉기 이래 폭도 수괴로서 당시 관내 광주 용인 죽산 양성 각군을 배회하여 횡포를 자행하던 자였으나 이번에 수비대의 손에 체포되어 수원 헌병분견소에서 취조중이다. 그리고 체포 당시의 개황은 아래와 같다.

1909년 6월 2일 수원수비대 제3중대의 하사 이하 6명의 토벌대는 밤 10시경 용인군신원리(김량장의 북방 약20리)에서 6명의 폭도를 만났는데 토벌대를 보자 즉시 사방으로 흩어져 도주하였으므로 이를 추격하여 수괴 이익삼을 체포하였다.

신문자료

義徒被捉(의도피착)

용인군 의병장 정철화(능원리 출신) 휘하에 있던 李鳳來 등이 경무서에 체포되었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6일,

陵洞風塵(능동풍진)

며칠 전 龍仁 능동 사는 전 부령 閔克鎬 씨 집에 일본군 몇 명이 와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 동네 뒷산에서 의병이 방포하니 일본군도 역시 放砲하며 交戰하여 義兵은 退却하였다. 交戰할 때 그 동네 동장(洞長) 1명이 일본군에게 총에 맞아 숨졌고 일본군이 그 동네 남녀노소를 묶어 이천 등지까지 데려갔다가 돌려보냈는데 그 동네는 소탕되고 아무도 남지 않았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9일

이·정 양가의 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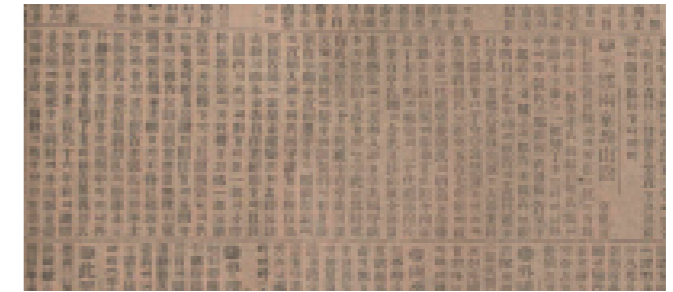
용인군 모현면 능동 소재 산판(山坂) 소유권 사건으로 연안 이씨와 영일 정씨가 서로 다투는 일은 모두 아는 바이다. 지금 이간(李侃)씨가 정의열(鄭義烈)씨를 피고로 하여 기소하였는데 원고 이간씨는 459년 전에 원고의 15대조 이석형(李石亨, 1415~1477)의 처 정씨를 이 산판에 입장(入葬)한 후 누대(累代) 계장(繼葬)하여 이제까지 수호금양(守護禁養)하였으며, 피고 정의열씨는 지금부터 507년경에 피고의 22대조 정몽주(鄭夢周, 1337~1392)의 분묘를 풍덕군에서 이곳 산판(山坂)에 이장한 것이다.

지금부터 457년 전 피고의 20대조 정보(鄭保)와 이석형 간의 합의로 이 산판 전부를 李 鄭 양가에서 서로 묘를 쓰고 공동 수호(守護)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그때 정보(鄭保)가 원고의 15대조 이석형의 장인되는 관계에 의하여 그 계약이 있었던이며 그 후 몇 백년간을 상호준수하며 원, 피고가에서 서로 입장(入葬)하며 공동수호하는 관계로 원, 피고 간에 가옥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이 산판의 수목을 각자 임의로 사용하며,

이 산에서 화전(火田)에 대하여도 일부의 소작료는 서로 나눠 거두었고 또 원, 피고의 공유되는 증거는 쌓여있다.

이제 와서 피고는 이 산판의 전부를 무리하게 단독 소유권을 주장하여 부득이 기소하였다는데 원고 이간씨의 변호사는 장도(張燾, 1876~?)이며 피고 정의열씨의 변호사는 박승빈(朴勝彬, 1880~1943)으로 위임하여 재판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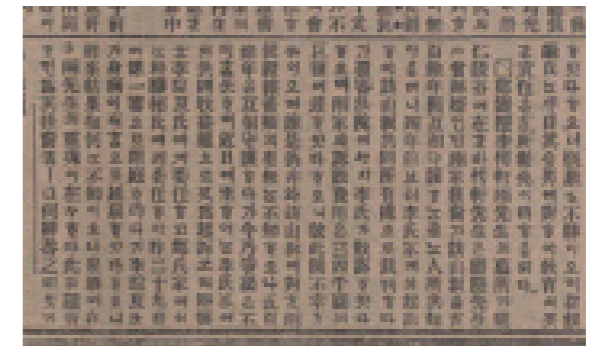
재작일에 심리에서 정의열씨 답변하기를 396년전에 포은을 문묘에 종사하는 동시에 본 산판을 환봉(環封)사패(賜牌)하라는 전교가 있었고 원고 이간씨의 누대계장함은 후의에 불과함이라 하였는데 판결 기일은 추후에 공포하기로 하고 폐정하였다.



<매일신보> 1913년 4월 6일

敬啓者(경계자)

정포은(鄭圃隱) 이저헌(李樛軒) 선생의 묘소가 용인 능곡에 있는 바 저헌선생은 포은 선생의 증손서(曾孫婿)인데 양가 후예가 산판을 5백년간 상호 수호하는 줄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이더니 4년전 부터 이씨가에서 기소하여 그 산판 공동소유권으로 재판하다가 복심(覆審)법원에 까지 이씨가 패소하였다 하며 양가의 소송 비용은 3, 4천圓의 거액에 달하였다 하니 피차간 불행한 일이며, 누가 옳고 그른지 그 산판에 대한 양편 증거 서류의 유무는 알지 못하나 5백여년을 서로 수호하다가 이제 와서 쟁송(爭訟)은



불가(不可)한 듯하며 근일에 이르러 이씨가에서 공동 수익권(收益權)으로 또 기소하고 자 변호사 이종하(李琮夏)씨에게 위임하고 정씨가에서는 박승빈씨에게 위임하여 지난 29일에 제1심으로 개정(開廷)하려다가 이종하씨가 신병(身病)으로 연기하였다하니 장래 결과 어떨지 알비 못하니 천양(泉壤)에 있는 양 선생의 영혼이 있어서 이를 견책(譴責)하면 후손되는 사람으로 어떻게 대답할런지.

<매일신보> 1914년 5월 30일

포은 묘지의 係爭(계쟁), 정씨 이씨의 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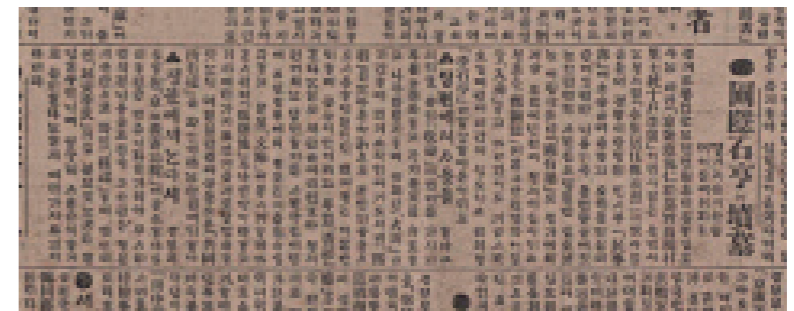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원촌리 7통 10호 이간(李侃)이 변호사 이종하와 加古眞太郎 두명을 대리인으로, 같은 마을 4통 4호 정의열을 피고로 삼아 경성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소송을 제출하였다는데, 정의열을 변호사 박승빈을 대리인으로 응소하였다. 그 내용은 모현면 능동에 있는 면적 450町 남짓되는 산판은 원래 국유지로 정가 일문에서 지난 500여년전 정의열의 22대조 되는 전조(前朝) 충신 포은 정몽주를 그 산판 한쪽에 입장(入葬)하였고, 또 이간의 집에서도 지난 450여년전 이간의 15대조되는 이석형을 입장한 이래로 두 집에서 서로 사용하는 권리를 얻어온 바 각기 분묘를 따로 설치하고 극력 수호(守護)하며 벌목 일과 화전(火田)까지 일어 소작인으로부터 도조를 받던 바인데 돌연히 정의 일문으로부터 그 산판을 자기 소유지로 독단한다 한일이므로 그동안 오래 심리한 결과 마침내 판결에 공동 소유로 확인한다는 판결이 있음으로 정의열은 억울하다고 하여 경성복심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지금 다시 심리중이다.

<매일신보> 1915년 3월 13일

圃隱 石亨의 墳墓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원촌리 7통 10호 이간(李侃)은 같은 마을 사는 정의열 외 몇사람을 들어 경성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소송을 제출하고 오래 심리 중에 있었는데, 그 내용은 모현면 능동에 있는 산판 면적 450町 1반 15보는 원래 국유지로 鄭가에서 지난

5백여년 전에 鄭의 22대조 정포은을 그 산판 한쪽에 입장(入葬)하였고, 또 이간의 집에서 지난 450여년전 이간의 15대조 되는 이석형을 입장한 이래로 양편에서 사용하여 그에 대한 수익의 권리를 가지고 부분을 물론하고 각기 분묘를 수호하고 나무를 벌채하며 또 화전을 개간하여 각기 소작인에게 도지(賭地)를 받아 온 까닭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던 것인데, 정의열은 이를 반대하며 공동이 아니라고 부인(否認)한다는 일로 재판을 여러번 하였는데, 정의 편에서는 답변하기를 490여년전 조선 정부에서 정포은의 충절을 생각하고 문묘에 봉사하게 하며 또한 사패지(賜牌地)로 내린 땅이라하고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의 증거로 답변을 하였는데, 제1심판결에 공동소유권을 확인하라는 판결에 대하여 정문에서는 다시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여 심리를 하던 중 마침내 화해가 되어 무사히 낙착(落着)된 내용을 들은 즉 그 산판은 정문의 산판으로 확인하며 연안 이씨의 집과 분묘 있는 곳은 일정한 구역내에 영구히 사용 수익하기로 승인한다는 일의 여러 가지 조건이라더라.



<매일신보> 1915년 7월 13일

慕賢義塾 확장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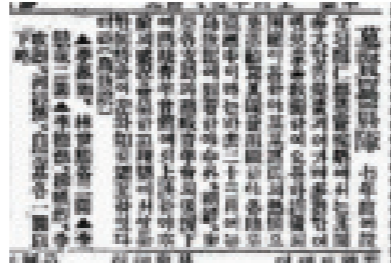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에 있는 모현의숙은 작년 11월에 창립된 이래 실무자의 노력으로 생도가 90여명에 달하여 크게 확장하기 위하여 목하 활동인데 이미 기부금이 4천여 원에 달하였다.

<동아일보> 1922년 11월 12일



慕賢義塾 寫眞隊

7년 전에 설립된 용인 모현의숙에서 그동안 다대한 고초를 겪어가며 다수의 어린 아동을 교육하여 오던 바 경비의 곤란이 심하여 모모씨의 열성으로 활동사진대를 조직하여 각지로 순회 중이라는 바 지난 23일에는 조치원에 도착하여 <중외> <조선> <동아> 각 지국과 연기 청년회의 후원하에 연기 청년회관에서 상영하여 공전의 성황을 이루고 현장에서 따뜻한 동정금이 13원이 넘게 답지하였다. <동아일보> 1927 5.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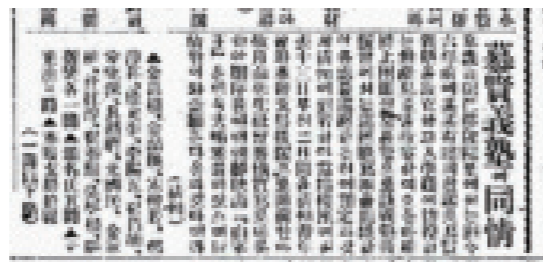


모현의숙에 동정

경기 용인 모현의숙에서 경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전조선을 순회할 활동사진대를 조직하여 순회하던 바, 일행은 지난 25일에 공주에 도착하여 공주청년회 및 본보 공주지국 외 각 단체 후원으로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매일 오후 8시부터 錦江會館에서 활동사진을 映寫하였는 바 매일밤 만장의 성황을 이루어 동정금도 많았는데 영명 학교에서 20원 등 34원이 답지하였다. <동아일보> 1927 6. 4,

모현의숙에 동정

경기도 용인군 능원리에서 지금부터 6년전에 모모 유지의 발기로 모현의숙을 설립하고 입학난에 방황하는 무산아동을 수용하여 오던바 유지상 곤란이 막심함으로 모현의숙 후원회에서 순회 영사단을 조직하여 각처를 순회하던 터에 예정과 같이 청주에 도착하여 청주 樓座에서 지난 13일부터 2일간을 청주청년회와 본보 지국 후원으로 開演한 바 고 월남선생 사회장의 실사를 비롯하여 순서에 따라 조선영화 『山菜王』은 더욱 대갈채를 받았으며 동정금



은 본보지국 10원 등 33원에 달하였다.

<동아일보> 1927년 7월 20일

표창전달

일왕이 하사한 선현의 제사비를 총독부에서 각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이를 총독부 직임문관과 도지사가 총독의 사자(使者)로 대례복을 입고 제전을 행하고 당일 선현 위패가 있는 장소에 출장하는데 있어서 영예를 안은 선현과 후손은 다음과 같다.

- 조광조 용인군 읍삼면 보정리 조락광
- 정몽주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정의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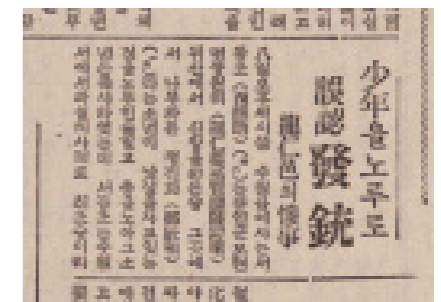
<매일신보> 1924년 2월 7일

소년을 노루로 오인 발총

용인읍의 참사

8일 오후 3시 수원읍사는 서등조는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뒷산에서 사냥을 하던 중, 그 곳에 나무하던 정진화라는 소년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노루인줄 알고 총을 쏘아 소년은 즉사하였는데 서등조는 수원서에서 과실치사로 취조중이라

<매일신보> 1939년 12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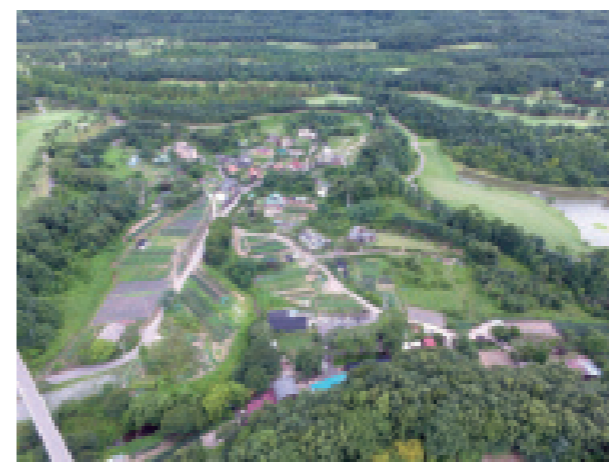


김태근

2. 하늘에서 보는 능원리









우상표

능원리 마을지 편찬위원회

자문위원	라창욱 (능원리 남노인회장) 주순애 (능원리 여노인회장) 전영호 (능원2리 노인회장) 전연수 (능원2리 총무) 장진성 (능원3리 노인회장) 이문자 (다인네 외갓집 대표) 정민교 (전 모현농협이사) 정연철 (전 포은공파 부이사장) 정길영 (능원상신회장) 정연국(전 능원초 총동문회장)
위원장	이재학
편찬위원	이재학 (능원1리장) 김인수 (능원2리장) 이성민 (능원3리장) 정연주 (능원4리장) 정의명 (능원5리장)

능원리 마을지 집필위원회

위원장	김태근
조사 집필위원	김태근 (용인학연구소장) 정양화 (용인문화원 부원장) 이종구 (용인학연구소 고문) 김도영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장환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정희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준권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지현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지혜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남기주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박숙현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송무경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우상표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이은성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행정자문	송종율 (용인시청 교통건설국장)
마을지도	김정희(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사무행정	박명희(용인문화원 과장)

※능원리마을지 발간을 위해 도움을 주신 능원리 주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충절과 계일정신이 살아 있는

능원리

발행일 · 2020년 12월 30일

발행인 · 조길생

발행기관 · 용인문화원

전화 · 031.324.9600 팩스 · 031.324.9634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문화예술원 3층

홈페이지 · <http://www.ycc50.org>

편집 · 용인시민신문 편집2부

인쇄 · 좋은사람들

ISBN 979-11-89048-06-8 <비매품>

- 이 책의 저작권은 용인문화원에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및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이 책은 용인시의 보조금과 능원리 마을 주민들의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